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2 AUGUST 2021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Executive Officers 2020.9.1.~2022.8.31.

President Wu, Chan-je(Sogang University)

Vice Presidents Kim, Yang-sun(Hallym University)
Kim, Jung-hee(Seoul National University)
Ryu, Bo-sun(Kunsan University)
Min, Eun-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Shin, Soo-jeong(MyongiI University)
Sim, Won-seop(Dokkyo University)
Yang, Jin O(Daegu University)
Woo, Rim-geol(Shandong University)
Yoo, Sung-ho(Hanyang University)
Yoon, Sang-in(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Myeong-ho(Kyunghee University)
Lee, Wook-yon(Sogang University)
Cho, Sung-won(Seoul Women's University)
Ham, Jeung-Im(Donga University)
Carolina Mera(Univ of Buenos Aires, Argentina/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 USA/English Literature)

Secretary·financial General Choi, Sung-Min(Kyunghee University)
Yoon, In-sun(Hanbat University)

Research Planning Kwon, Hyeok-ryul(Jilin University)
Kim, Seo-young(Kwangwoon University)
Kim, Seok(Konkuk University)
Kim, Ye-rim(Yonsei University)
Noh, Dae-won(Jeju National University)
Moon, Hye-won(Ajoo University)
Pak, Dong-Ho(Kyunghee University)
Park, Soo-ye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Joo-taek(Kyeonghee University)
Sim, Won-seop(Dokkyo University)
Yang, Dong-kook(Sangmyeong University)
Um, Sung-won(CHA University)
Lee, Yun-Jong(Sogang University)
Lee, Chae-Won(Korea Nazarene University)
Lee, Hyeong-kw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ng, Cheol-hwan(Yonsei University)
Jeong, Ggeut-byeol(Ewha Women's University)
Jeoung, Eui-jin(Sangmyeong University)
Cho, Kang-sok(Yonsei University)
Choi, Chang-Reuk(Nanjing University)
Yeo, Tae-Chon(Dongduk Women's University)

Journal Editor Oh, Hyung-yup(Korea University)

Editorial Board 2020.9.1.~2022.8.31

Kang, Yong-hoon(Incheon University)
Kim, Gi-Bong(Kyonggi University)
Kim, Dong Gyu(Yonsei University)
Kim, Te-Gyung(Kyunghee University)
Kim, Ho-young(Hanyang University)
Do, Yoon-Jung(Inha University)
Park, Sung Ho(Kyunghee University)
Park, In-Seong(Catholic University of Pusan)
Yoon, Hye-joon(Yonsei University)
Lee, Kyung-soo(Chung-Ang University)
Lee, Jae-bok(Hanyang University)
Chang Seijin(Hallym University)
Jeong, Seung-hoon(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Jung Eui-jin(Sangmyung University)
Cho, Man-soo(Chungbuk University)
Cho, Jae-ryong(Korea University)
Jin, Joo-young(GeorgeMasonUniv.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 published three times a year in April, August, and December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Membership is open to researchers at home and abroad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The annual membership dues including subscription to the journal are 30,000 won (US $30) for individual members and 50,000 won (US $50) for institutional members. Manuscripts for publication and correspondences including change of address should be sent to the IACKS official contact point (E-mail : newiacks@empal.com).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2 AUGUST 2021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was organized in 1991 in Berlin and incorporated in 1992 in Paris to promote and develop Korean Studies in the world through interdisciplinary and comparative research.

권두언 / 9

| 비교한국학의 전망과 쟁점 | 한국학 연구의 확장과 변주

김영미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과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 — 15

최성민 노인 간병과 서사적 상상력 — 51
한국과 일본의 간병 소설을 통하여

| 비교한국학 리뷰 |

전훈지 한국학의 정의와 방법에 대한 고찰 — 87
김경일 저,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 비교 역사의 시각』의 서평

일반논문

강계숙 비평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인식 — 127
'신비평 논쟁'의 수용과 영향을 중심으로

우찬제 기억과 성찰의 변증법 — 169
김병익의 『시선의 저편』과 『생각의 저편』에 나타난 기억의 수사학

일반논문

이유정 호머 헐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203

허선애 죽음을 통한 이야기의 발견 255
이청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홍용희 낭만적 주체와 동경(憧憬)의 여정 287
조병화론

국제비교한국학회 연혁 / 313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명단 / 319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 320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 323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 325
논문 심사 요지서 / 328
연구 윤리 규정 / 329
편집위원회 규정 / 334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 336

Comparative Korean Studies | Vol.29 No.2 |

Preface / 9

| Issue and Prospect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

Expansion and Variation in Korean Studies

The Present Status of Translated Books of Park Wan-seo and New Possibility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 **Kim, Young-mi** — 15

Elderly Care and Narrative Imagination
Through Korean and Japanese Nursing Novels — **Choi, Sungmin** — 51

Comparative Korean Studies Review

A Research of the Genesis and Forming Process of Korean Studies
A Book Review on *Modern Figuration of Korean and Korean Studies-a Perspective of Comparative History* — **Jun, Hoonjee** — 87

General Topic

Kim Hyun's Meta Awareness of Literature Criticism
Focusing on Acceptance and Influence of 'Debate of New Criticism'
— **Kang, Gye-Sook** — 127

Dialectics of Memory and Introspection
Rhetoric of Memory across Kim, Byongik's *Beyond Gaze* & *Beyond Thinking*
— **Wu, Chan-je** — 169

General Topic

Homer B. Hulbert's Folktales and *The Korea Review*
Lee, Yu Jung 203

The Discovery of a Story through Death
Focus on Lee Chung-joon's Early Novel **Heo, Seon-ae** 255

The Romantic Subject and the Journey of Longing
Jo Byeonghwa Theory **Hong, Yong-Hee** 287

· 권두언 ·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2015년 하반기부터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란을 통해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학 연구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논문, 혹은 한국학 연구의 전망을 갱신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기획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의 주제는 ‘한국학 연구의 확장과 변주’이다. 한국학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보편성 확보는 향후 한국학이 인문학 연구분야의 한 단위로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자 동시에 본 학회가 추구하는 ‘비교한국학’의 주된 관심사라 하겠다. 이번 특집에서는 박완서라는 기존 한국문학 연구의 주된 연구주제가 ‘번역’과 ‘의료인문학’이라는 보편지향적 연구주제와의 접목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 연구의 외연을 확장·변주해나가는지에 대한 동향과 가능성을 타전해보고자 하였다.

김영미의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과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은 번역의 맥락 속에서 한국문학이 거쳐 온 여정을 검토하면서 이 과정에서 실천되어온 박완서 문학의 번역 현황을 정리하고 그 경향 내에서 어떠한 특징이 두드러지는지는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의 한국문학 번역이 종래의 기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요구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박완서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번역이 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이나 노년과 같은 보편적 주제와 수필, 동화 등 다양한 장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성민의 「노인 간병과 서사적 상상력 – 한국과 일본의 간병 소설을 통하여」는 의료인문학의 관점에서 ‘간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박완서의 「엄

마의 말뚝2」, 「포말의 집」과 더불어 일본의 개호 소설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질병과 간호라는 보편적 주제를 비교한국학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간호-개호 문학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서사적 상상력이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간성을 확인하고 동아시아가 직면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인문학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비교한국학 리뷰'란에 실린 전훈지의 「질문이자 방법인 한국학의 기원과 형성 과정」은 김경일 저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 비교 역사의 시각』(2020)을 중심으로 하여 1950~1960년대 한국학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미국의 지역연구와 미국학 사이의 상관성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한 저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한국학이 유념해야 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학은 식민사관과 서구식 근대화의 대립,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대립, 개성기술과 법칙정립의 대립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되어 왔으며,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개입에 의한 정체성 형성이라는 측면도 존재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것과 한국학의 정의에 대한 질문과 방법론이 지닌 가변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학을 고정적 실체로 파악하지 말고 지속 갱신 가능한 유동체로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 이번 호에 투고된 일반 논문들도 '비교한국학'이라는 본 학회의 문제의식에 여러 고민할 지점을 제기하고 있다. 강계숙의 「비평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인식 – '신비평 논쟁'의 수용과 영향을 중심으로」는 1960년대 프랑스에서 대두된 '신비평 논쟁'이 김현의 비평 의식에 미친 영향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신비평 논쟁의 이론적 전유는 김현으로 하여금 기만적 허위로 가장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탈신화화하고 비평적 자의식을 갱신하기 위한 자극의 원천으로 작동하였다. 우찬제의 「기억과 성찰의 변증법: 김병익의 『시선의 저편』과 『생각의 저편』에 나타난 기억의 수사학」은 2010년대 김병익

산문에서 기억이 담론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를 두 권의 산문집을 중심으로 하여 탐구하였다. 김병익은 해방과 전쟁, 4·19에 대한 공통 기억을 되살리고 그 세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와 지식,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압축 성장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기억을 통하여 진실 발견을 위한 방법적 성찰 기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유정의 「호머 헐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는 근대 초기 교육학, 역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간행했던 영문 잡지 『THE KOREA REVIEW』를 중심으로 한국의 설화가 수집·기록되는 과정과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설화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허선애의 「죽음을 통한 이야기의 발견 – 이청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는 이청준의 초기 소설 연구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그의 소설 의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죽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반성함으로써 이청준의 시야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홍용희의 「낭만적 주체와 동경(憧憬)의 여정」은 조병화의 시 세계를 낭만적 주체로서의 근원적 삶의 세계를 향한 탐색과 향유에 대한 지속적 추구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조병화는 죽음의 철학을 중심으로 인간적 삶의 빛으로서의 사랑과 꿈을 추구하는 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래적 삶의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깊이 환기시키고 있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소중한 원고를 투고해 주신 선생님, 기획과 편집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비교한국학의 전망과 쟁점|

한국학 연구의 확장과 변주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과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

김영미

노인 간병과 서사적 상상력

한국과 일본의 간병 소설을 통하여

최성민

10.19115/CKS.29.2.1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과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

김영미**

1. 서론: 새로운 한류의 시대, ‘K-’
2. 한국문학 번역, 출판의 어제와 오늘
3.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과 특징
4.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국문초록 |

이 글은 번역의 맥락 속에서 한국문학이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며 특히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정리된 바 없는 박완서 문학의 번역서지 현황을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다. 박완서는 한국문학의 번역이 이루어진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번역, 출판이 진행되는 작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특정 언어권에만 집중적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권에 널리 번역되었으며, 같은 언어권에서 여러 차례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과 특징을 토대로 이후 한국문학의 해외 수용과 번역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한국문학 번역이 주로 한국문학번역원과 같은 기관 지원 중심으로 이루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박완서 인문학 펠로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어졌던 것과 달리 최근의 경향은 수용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최근 주목받는 한국문학의 번역들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서 독자의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독자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언어권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소개할 수 있는 한국문화를 담은 매체로서 한국문학의 번역, 한국문학 내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박완서 문학의 번역이 최근의 한국문학 번역과 연계되며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젊은 작가들과 관계성을 고민하여 구성된 한국문학 여성작가 선집 등은 앞으로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기획 형태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또한 그동안 박완서 문학 번역이 초기의 한국전쟁 관련 작품 중심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여성 또는 노년을 다룬 후기의 작품들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언어권의 특성에 따라 박완서의 소설 외에도 수필, 동화 등 다양한 장르를 번역함으로써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박완서, 번역서지, 한국문학, 번역, 관계성

1. 서론: 새로운 한류의 시대, ‘K-’

1990년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특정 드라마와 케이팝 등 일부 대중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韓流, Korean Wave)’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K팝이 한류의 주요 콘텐츠로 대두되면서 아시아 중심의 한류라는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한류 콘텐츠는 유럽, 중동, 북남미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콘텐츠가 해외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이후로는 K팝의 주도하에 만화, 게임 등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는 한편 패션, 음식, 뷰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1] 이처럼 아시아권에서 시작된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부터는 ‘K-’라는 접두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K팝의 성공 이후 K드라마, K무비 등 한국문화의 다양한 영역을 비롯하여 여러 산업 분야의 앞에 ‘K’를 붙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K-’ 접두사의 남용에 대한 피로감과 비판적 시각 역시 대두되고 있다. ‘K-’ 접두사의 전성시대를 이끌어낸 계기인 K팝의 성공은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같이 국가 정책의 의도된 산물이 아니다.[2] 그러나 K팝이나 K드라마의 성공 이후 우후죽순 쏟아진 일련의 사례들 중에는 뚜렷한 실체 없이 남발되거나 관변 주도로 선제적으로 이름 붙여진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들은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쉽게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K문학’ 또한 한동안 의도된 어의 대신 조롱의 대상으로 인식된 측면도 있다.[3]

---

1 한류의 정의 및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김민지, 「K-Pop 번역 양상 연구: 번역 주체와 전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8~13쪽 참고.

2 김정수, 「탈바꿈의 문화행정」,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한류에서 교류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73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간재단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펴낸 '한류백서' 시리즈는 2008년 '한류총서'로 시작하여 2013~2015년 '한류백서', 2016년 '한류 메이커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시 '한류백서'라는 제목으로 매년 한류의 연간 동향을 분석하여 펴내는 기획 단행본이다. '한류백서'에서 다루는 분야는 매년 차이가 있지만, 주로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만화, 음식, 뷰티, 패션, 관광 등이다. 반면 문학을 포함한 '출판' 분야는 『2014 한류백서』에 등장했지만, "고급 번역자 확보, 외국 현지 출판 어려움, 협소한 시장 규모,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콘텐츠 부족, 외국어 도서 편집 인력 부족, 마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출판 한류'라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며,[4] "출판 한류의 트렌드는 음악, 영화 게임 드라마와 달리 시기적인 트렌드를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에 그친다.[5]

이후 한동안 '한류백서'에 포함되지 못하던 '출판 한류'는 『2018 한류백서』에 다시 등장하면서 실체 없이 부유하던 'K문학'의 가시적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 『흰』이 2018년에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 후보에 오른 것, 편혜영이 『홀』로 2017 셜리 잭슨상(Shirley Jackson Award)을 수상한 것,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 아시아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 등이 그것이다.[6] 특히 일본에서 2018년 12월 발매되어 현재까지 20만 부 이상이 팔리며 2019년의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은 『82년생 김지영』의 성공은 『2019 한류백서』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에서

---

3 오혜진은 'K문학'이라는 신조어는 한국문학의 해외 수출용 가치를 위해 만들어진 용어로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원래의 어의와 달리 최근 젊은 독자-대중에게 시장패권주의와 결합된 한국문학의 부정적 성격 전반을 경유한 조롱의 기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오혜진,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 『문화과학』 85, 문화과학사, 2016, 91~92쪽.

4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엮음, 『2014 한류백서』, KOFICE, 2015, 216쪽.

5 위의 책, 217쪽.

6 이구용, 「한국문학, 독자 저변을 확대하다」,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2018 한류백서』, KOFICE, 2019, 237~247쪽.

비롯된 한국문학과 여성작가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대표적 문예지 『분게이(文藝)』의 '한국·페미니즘·일본'이라는 주제의 한국문학 특집호로 이어졌는데, 1933년 문예지가 창간한 이래 처음으로 3쇄를 찍을 만큼 관심을 얻었다고 한다. 특히 이 특집호는 단순히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의 인기를 반영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이 이룬 성취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7] 이와 같은 해외의 관심은 최근 한국문학 번역 현황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한국문학의 해외 수용과 번역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그동안 한국문학 번역이 지나온 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문학의 번역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번역과 출판이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정리된 적 없는 박완서 문학의 번역서지 현황을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문학 번역, 출판의 어제와 오늘

한국문학의 번역과 출판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우선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진흥원)이 설립된 것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문학 번역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초기에는 국내 영문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출판하여 해외에 내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 들어 해외 출판으로 방향을

7 윤부한, 「한국문학, 한류에 합류하다」,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2019 한류백서』, KOFICE, 2020, 254~258쪽.

수정하면서 해외 번역 사업이 양적인 면에서 성장하였다.[8] 문예진흥원의 사업과 별도로 문화관광부는 1979년부터 국고로 번역, 출판 지원을 하다 1996년 한국문학번역금고를 설립한다.[9] 한국문학번역금고는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문예진흥원의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면서 한국문학의 해외 홍보 및 교류 수행 기관으로서 독자성을 갖추게 된다.[10] 한편 1992년 설립된 대산문화재단이 한국문학 번역 지원 사업에 가세하면서 이후의 한국문학 번역은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이라는 양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고 한국문학 번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국문학의 번역 및 출판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 출판 지원 사업 이외에도 각종 해외 교류 협력 사업, 번역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전문번역가 양성 및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산문화재단은 한국문학의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과 국제문학교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문학 교양잡지 『대산문화』를 통해 한국문학의 외국어번역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기고와 북리뷰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번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1]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한국문학의 번역이 해당 언어권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한국문학번역원이나 대산문화재단 같은 한국의 지원 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예진흥원이 해외 출판을 시작한 1980년대에 번역, 출판은 239종으로 1970년대 85종에

---

8 한국문학번역원 편, 『한국문학번역원 10년사』, 한국문학번역원, 2011, 25쪽.

9 곽효환, 「한국문학 해외 소개의 현황과 과제: 세계화를 향해 걸어온 긴 여정, 그러나 아직은 먼 길」, 『문예중앙』, 2002년 봄호, 331쪽.

10 한국문학번역원 편, 앞의 책, 26쪽.

11 심재기, 「한국문학의 외국어번역에 대한 국내 번역비평의 동향」, 심재기 엮음, 『세계 속의 한국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8쪽.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대산문화재단이 가세한 1990년대 이후에는 350종으로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였다. 1980~90년대 번역, 출판의 양상을 언어권별로 살펴보면 영어 137종, 일본어 125종, 프랑스어 96종, 중국어 82종, 독일어 50종으로 5개 언어권에서 번역된 경우가 전체 589종 가운데 약 83%에 달한다.[12] 또한 1980년대 이후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진 한국문학 번역, 출판이 주로 현대문학 작품에 집중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13]

지원 기관에 의한 한국문학 번역, 출판이라는 특징은 2000년대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출범한 2001년 7월 '번역 우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 독자 300인과 일반 독자 3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내용은 한국문학 번역 출판의 방향과 우선적으로 번역 대상이 되어야 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었다. 먼저 번역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로는 '체계적인 홍보 부족'(45.3%), '번역의 불완전성'(41.5%)에 대한 지적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할 개념을 묻는 질문에서는 '세계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성'(45.7%)보다 '한국적 특수성과 고유성'(54.8%)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문학을 선집 방식으로 해외에 소개할 때 필요한 주제 항목에 대한 질문에서는 '분단문제'(4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적 사상과 정서', '여성주의 문학', '민중문학', '산업화 시대의 문학'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로 진행된 한국문학 번역의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영화, 음악, 만화 등 다양한 문화 영역이 해외에서 놀라운 반응을 얻을 때에도,

---

12 곽효환, 「2000년 이후 한국문학 콘텐츠의 세계화 경험과 방향」, 『비교한국학』 19(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184~185쪽 '한국문학작품의 연대별·언어권별·국가별 출판현황표' 참고.

13 곽효환, 「한국문학 해외 소개의 현황과 과제: 세계화를 향해 걸어온 긴 여정, 그러나 아직은 먼 길」, 앞의 글, 328~329쪽.

한국문학의 번역은 꽤 오랜 기간 재판을 발간한 경우가 흔치 않을 정도의 미미한 반응을 얻는 상황에 머물렀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 사업과 국제교류 사업, 번역아카데미 운영 등 일련의 사업은 지속적인 운영 속에 점차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한국문학 연도별 출간 현황을 파악해보면, 2001년 15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10년 3분기부터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대상도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공모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번역가의 도서 선정과 저작권 동의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번역지원 신청을 증가시켰다는 장점도 있었으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는 번역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불만도 발생하였다. 2013년부터는 자유공모를 병행함으로써 대상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도 번역 지원의 길을 열어주었고, 2016년 8월 문학진흥법으로 기관 근거법령이 이동된 후에는 '번역지원 대상도서 선정' 과정이 폐지되어 번역지원 공모사업은 '한국어로 저술되어 국내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및 유통된 도서'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4년에는 2013년 54종 대비 두 배에 가까운 110종이 출간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9년 151종, 2020년에는 172종이 번역, 출간되었다. 한편 출간 현황을 언어권별로 살펴보면, 2001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루마니아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터키어 총 8개 언어권으로 번역된 이후 지속적으로 15개 언어권 내외를 유지하다 2017년 처음으로 27개 언어권으로 번역된 후 2018년 24개, 2019년 27개, 2020년 26개 언어권에 번역되면서 점차 다양한 언어권으로 번역,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기관의 노력은 해외에서의 반응으로 이어졌다. 일본에서 한국문학 출판에 관여했던 편집자 사이토 노리타카(斉藤典貴)는 해외문학이 팔리지 않는 일본에서 출판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

출판사 지원 사업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출판사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투어와 같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적극적 지원과 번역가 양성 등의 성과 역시 높이 평가하였다.[14] 프랑스 출판사 아틀리에 데 카이에(L'Atelier des Cahiers)의 디렉터이자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의 프랑스어 번역에 참여하기도 했던 벤자민 주아노(Benjamin Joinau) 역시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 등의 지원 덕분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한국문학의 번역과 출판을 선택하기 어렵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15]

이러한 지속적 지원과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면서 한국문학 번역의 경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원 정책 혹은 문화 교류 차원 이외의 한국문학 번역, 출판의 경우가 거의 전무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최근 현지의 자발적 출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총 수출 건수는 2014년 119권에서 2019년 306권으로 3배 가까이 양적으로도 대폭 성장했으며,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사업을 통하지 않은 수출이 2014년 전체 30%(34권)에서 2019년 70%(210권)로 늘어났다. 해당 언어권의 상업적 요구, 필요에 의한 출판이 증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16] 또한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해외 출판사가 먼저 저작권 계약을 한 뒤 공모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2014년 10여 종에 불과했던 사례가 2020년 9월 말 기준 109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선 계약, 후 지원'의 사례는 번역, 해외 출판사 섭외, 출간까지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

14 渡邊雄介, 「なぜ韓国文学ブーム？ フェミニズム文学で注目の若き女性作家たち」, 『Forbes JAPAN』, 2020.7.18. https://forbesjapan.com/articles/detail/35898/1/1/1

15 이하 벤자민 주아노(Benjamin Joinau)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교수의 의견은 2021년 6월 29일 유선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 근거한 내용임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16 박선희, 「영미권 넘어 日서도 흐름 탄 K문학… 번역가 키우면 지구촌 대세」, 『동아일보』, 2020.10.3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30/103708219/1

시의성 있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며, 출판사 자체적으로 작품과 번역가 선정은 물론 출간과 문학 행사 등 마케팅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 이전과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최근의 한국문학 번역의 상황은 온전히 수용자의 요구, 시장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문학의 번역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가 확연히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주목받는 한국문학 번역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소위 '정전'으로 평가받았던 작품 혹은 큰 작가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 한국 출판시장에서 주목받는 최신 문학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18]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독자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19] 앞으로 한국문학 번역의 성공이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권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소개할 수 있는 한국문화를 담은 매체로서의 한국문학 번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한 후에 최근의 한국문학 번역들과 연계되면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7 위의 글.

18 윤부한, 앞의 글, 270쪽.

19 하나의 텍스트는 특정한 독자층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문화기호 체계를 함축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나름대로 문화적 재코드화 과정을 수행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텍스트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유의미한 독자층'을 설명한 것으로 한지희, 「한국문학작품 영역서의 수용현황 분석」, 심재기 엮음, 앞의 책, 41~44쪽 참고.

3.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과 특징

박완서 문학 번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주로 특정 번역본에 대한 평가 또는 특정 언어권에서의 번역 양상과 특징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20] 그 외 각 언어권 별로 한국문학의 번역 현황을 정리한 연구사에서 박완서 문학의 번역 현황을 일부 파악할 수 있으나 박완서 문학 번역서지 목록 전체가 정리된 경우는 없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박완서 문학의 번역 현황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21]에서 확인한 번역서지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박완서 소설전집』(세계사, 2012)과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작가정신, 2020)에 실린 작가연보에 소개된 사례와 그 외 한국문학의 번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밝힌 사례를 참고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정보를 추가하여 작성한 것

---

20 박완서의 문학 번역을 다루거나 혹은 한국문학의 번역 양상을 다루면서 박완서 문학의 사례를 다룬 기존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경희, 「문학번역에서의 충실성의 문제: Les Piquets de ma mère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1), 한국통역번역학회, 2010; 박옥수, 「한영문학 번역에서 문체의 반영: 박완서의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의 분석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11; 양뢰, 「박완서 소설 중역본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의 번역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박옥수, 「저자의 의도가 번역문에 반영된 방식: 「아저씨의 훈장」의 영역본 분석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 50, 겨레어문학회, 2013; 박옥수, 「한영 문학 번역에서 주제문의 번역 방식: 박완서의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에 근거해서」, 『비교문학』 62, 한국비교문학회, 2014; 양뢰, 「박완서 소설의 중국어 번역에 나타난 축소번역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양뢰, 「박완서 소설 중국어 번역에 나타나는 모방 수법 연구」, 『중한언어문화연구』 11, 천진사범대학교 한국문화연구중심, 2016; 최미경, 「한국문학 작품의 프랑스어 재번역 현상 연구」, 『번역학연구』 19(4), 한국번역학회, 2018; 양레이, 「박완서 소설의 중국어 번역본에 나타난 '자국화(naturalizing)전략' 연구」, 『지식인문학』 1(1), 지식인문학연구회, 2019; 이상빈, 「마샬 필(Marshall R. Pihl)의 번역 자가교정(self-revision)을 통해 살펴본 한국문학 번역의 방향」, 『번역학연구』 21(5), 한국번역학회, 2020.

21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https://library.ltikorea.or.kr)은 2015년부터 운영되었으며, 한국문학 관련 15개 타입 24,654건(2019년 기준)의 다국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문학 다국어 온라인 정보플랫폼'이다. 이 글에서 참고한 번역서지정보(Translated Books)의 경우 6,089건이 제공 중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https://www.ltikorea.or.kr/kr/contents/business_lib_1/view.do

이다.[22] 해당 언어권에서의 수용 양상을 주목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출판된 번역본의 사례는 제외하고 해외 출판사에서 출간된 경우를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23]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 번역된 사례는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동일 작품이 다른 번역가에 의해 재번역된 경우는 물론, 동일 번역가에 의해 번역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다른 선집의 형태로 출간된 경우까지 새로운 번역의 사례로 간주하여 정리하였다. 번역본의 책 제목 및 수록작 제목과 번역자, 출판사 등은 번역어를 그대로 옮겼으며, 가능한 번역본의 목차를 직접 확인한 후에 수록작은 목차의 순서대로 기입하였다. 2차 자료 등을 통하여 출간 여부는 확인하였으나 번역본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제명 뒤에 *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6월 현재까지 출간된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 1>과 같다.

---

22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박완서 작가의 장녀 호원숙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3 한국에서 출판된 번역본의 경우 원문과 번역문이 동시에 실린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번역 대상은 동화가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림책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았다. 한국에서 출판된 번역본의 목록은 아래 출판 연도순으로 별도로 정리하였다.

책 제목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참고
Koreanische Erzählungen: zweisprachige Ausgabe Koreanisch Deutsch	「더위 먹은 버스」/ 「조그만 체험기」 (Hundstage im Überlandbus/ Ein kleiner Erlebnisbericht)	Holmer Brochlos	Eul-Ji-Mun-Wha-Sa	1997	원문/독일어 번역
Three Days in That Autumn	「그 가을의 사흘 동안」	Ryu Sukhee	Jimoondang	2001	영어 번역
Weathered Blossom	「마른 꽃」	Yu Young-Nan	Hollym	2006	원문/영어 번역
Mother's stake Ⅰ	「엄마의 말뚝 1」	Yu Young-Nan	Asia publishers	2012	원문/영어 번역
The bicycle thief 영어로 읽는 자전거 도둑	「자전거 도둑」	전승희	어린이작가정신	2014	원문/영어 번역
I am so happy I was born 영어로 읽는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전승희	어린이작가정신	2014	원문/영어 번역
7년 동안의 잠 다국어판	「7년 동안의 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어린이작가정신	2015	원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 번역
Дом из прошлого: рассказы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그 남자네 집」/ 「공항에서 만난 사람」 (Дом из прошлого/ Встреча в аэропорту)	Татьяна Акимова	The Korea Foundation	2018	러시아어 번역

〈표 1〉 박완서 문학 번역서지 목록(출판 연도순 정렬)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1	일본어	帝国幽霊·黄狗の悲鳴: 韓国現代小説選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この世に最も重い義歯)	李丞玉	同成社	1978
2	영어	Modern Korean short stories	「지렁이 울음소리」 (The Crying of an Earthworm)	Chung Chong-wha et al.	Heinemann Educational Books	1980
3	일본어	韓国現代文学13人集	「도둑맞은 가난」 (盗まれた貧しさ)	古山高麗雄	新潮社	1981
4	영어	The rainy spell and other Korean stories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A Pasque-Flower on That Bleak Day)	Suh Ji-Moon	Onyx Press	1983
5	일본어	韓国短篇小説選	「공항에서 만난 사람」 (空港で出会った人)	大村益夫/ 長璋吉/ 三枝寿勝	岩波書店	1988
6	프랑스어	L'OISEAU DE MOLGYEWOL	「공항에서 만난 사람」 (Celle que j'ai rencontree à l'aéroport)	KIM Wha-young/ Patrick Maurus	Le Méridien	1988
7	프랑스어	UNE FILLE NOMMÉE DEUXIÈME GARÇON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Une Vieille Anémone, Un Jour Lugubre)	CH'OE yun/Patrick Maurus	Le Méridien	1989
8	일본어	笑いの三千里: 朝鮮ユーモア文学傑作選	「어떤 역사의식」 (ある歴史意識)	金学烈/ 高演義	白水社	1992
9	일본어	結婚	『서 있는 여자』	中野宣子	學藝書林	1992
10	영어	Land of Exile	「겨울 나들이」 (Winter Outing)	Marshall R.Pihl/ Bruce Fulton/ Ju-Chan Fulton	M.E. Sharpe	1993
11	프랑스어	Le piquet de ma mère	「엄마의 말뚝 1」	Kang Gobae/ Hélène Lebrun	Actes Sud	1993
12	일본어	ガラスの番人: 韓国女性作家短編集 1925～1988年	「흑과부」 (黒やもめ)	めんどりの会	凱風社	1994
13	독일어	Das Familienregister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Helga Picht	Verlag Volk und Welt	1994
14	일본어	冬の幻: 韓国女性作家作品集	「티타임의 모녀」 (ティータイムの母娘)	ほんやくの会	朝日カルチャ-センタ-	1995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15	중국어	韩国女作家作品选	「세모」/「주말농장」 (岁暮/周末农场)	沈仪琳/ 毕淑敏	社会科学 文献出版社	1995
16	독일어	Die träumende Brutmaschine: Und andere Erzählungen über Frauen in Korea	「더위 먹은 버스」, 「꿈꾸는 인큐베이터」, 「티타임의 모녀」 (Drückende Heimkehr/ Die träumende Brutmaschine)/ Kaffee mit der Mutter)	Woon-Jung Chei/ Rainer Werning	Secolo	1995
17	영어	The Naked Tree	『나목』	Yu Young-Nan	Cornell Univ. East Asia Program	1996
18	영어	The Star: And Other Korean Short Stories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She Knows, I Know and God Knows but...)	Agnita Tennant	Kegan Paul International	1996
19	영어	Wayfarer: new fiction by Korean women	「닮은 방들」 (Identical Apartment)	Bruce Fulton/ Ju-Chan Fulton	Women in Translation	1997
20	영어	A sketch of the fading sun	「그 가을의 사흘 동안」/「도둑맞은 가난」/「저문 날의 삽화 5」/「엄마의 말뚝 1」/「엄마의 말뚝 2」/「엄마의 말뚝 3」 (During Three Days of Autumn/Poverty That is Stolen)/A Sketch of the Fading Sun/Momma's Stake, Part Ⅰ/Momma's Stake, PartⅡ/Momma's Stake, PartⅢ)	Hyunjae Yee Sallee	White Pine Press	1999
21	영어	My Very Last Possession and Other Stories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환각의 나비」/「이별의 김포공항」/「아저씨의 훈장」,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어떤 야만」/「공항에서 만난 사람」/「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그 가을의 사흘 동안」/「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She Knows, I Know and Heaven Knows/ Butterfly of Illusion/	Chun Kyung-ja	M.E. Sharpe	1999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Farewell at Kimpo/ Mr.Hong's Medals/ Thus Ended My Days of Watching Over the House/ A Certain Barbarity/ Encounter at the Airport/ Granny Flowers in Those Heartless Days/ Three Days in That Autumn/ My Very Last Possession)			
22	일본어	新女性を生きよ: 日本の植民地と朝鮮戦争を生きた二代の女の物語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朴福美	梨の木舎	1999
23	독일어	Am Ende der Zeit: Moderne koreanische Erzählungen	「어느 이야기꾼의 수렁」 (Im Sumpf steckengeblieben)	Helga Picht/ Heidi Kang(HG)	Pendragon	1999
24	폴란드어	Matczyna Droga	「엄마의 말뚝」 외*	Anna Wójakowska-Kurowska	Wydawnictwo Akademickie DIALOG	1999
25	일본어	現代韓国短篇選 下	「엄마의 말뚝 2」 (母さんの杭)	三枝寿勝 et al.	岩波書店	2002
26	독일어	Wintervision: Koreanische Frauenliteratur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Das Allerwichtigste in meinem Leben Erzälung)	Hi-Youl Kim/ Achim Neitzert	Haag+ Herchen	2002
27	스페인어	Aquella montaña tan lejana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Hye-Jeoung Kim/ Francisco Javier Martín Ortiz	Trotta	2003
28	일본어	韓国女性作家短編選	「해산바가지」 (出産パガヂ)	朴杓禮	穂高書店	2004
29	히브리어	Selected Contemporary Korean Short Stories	「도둑맞은 가난」*	Ruth Arazi	Hakibbutz Hameuchad	2004
30	일본어	祕密の花園: 韓国現代中・短編小説選	「꽃잎 속의 가시」 (花びらの中の棘)	ハナルム	素人社	2005
31	중국어	那麼多的草葉那里去了?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安金連	大塊文化出版股份有限公司	2005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32	독일어	Die Sympathie der Goldfisch: Neue Erzählungen aus südkorea	「엄마의 말뚝 2」 (Die Gezeichnete)	Rudolf Bussmann /Hoo Nam Seelmann	Suhrkamp Verlag	2005
33	태국어	ในความทรงจำ: แห่งชีวิตอนเยวจาย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กาญจนา ประสพเนตร	TPA Press	2005
34	영어	Modern Korean fiction: an anthology	「엄마의 말뚝 2」 (Mother's Hitching Post)	Bruce Fulton/ Youngmin Kwo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35	중국어	孤独的你	『너무도 쓸쓸한 당신』(「참을 수 없는 비밀」/「그 여자네 집」, 「공놀이하는 여자」/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환각의 나비」/ 「나의 웬수덩어리」/「J-1 비자」/ 「너무도 쓸쓸한 당신」/「꽃잎 속의 가시」/「마른 꽃」) (难以忍受的秘密/她的家/戏球的女人/当无聊的电影结束时/虚幻的蝴蝶/我的冤家对头/J-1签证/孤独的你/花刺/枯花)	朴善姬/ 何彤梅	上海译文出版社	2006
36	프랑스어	Les Piquets de ma mère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	Patrick Maurus/ Mun Shi-yeun et al.	Actes Sud	2006
37	스페인어	Por la escalera del arco iris: Muestra de literatura coreana actual	「배반의 여름」 (Traición en verano)	Joung Kwon Tae/ Yoo He Myung/ Raúl Aceves/ Jorge Orendáin	EDICIONES ARLEQUÍN	2006
38	스웨덴어	Det Kala trädet	『나목』	Byung-Eun Choi/ Gunnar Bergström	Axplock	2006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39	네덜란드어	Een huis in Seoel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 (Deel 1//Deel 2/Deel 3)	Imke Van Gardingen	De Geus	2006
40	중국어	裸木	『나목』	金莲兰	上海译文出版社	2007
41	중국어	那个男孩的家	『그 남자네 집』	王策宇/金好淑	人民文学出版社	2007
42	스페인어	Memorias de una niña de la guerra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LILLIAM MORO/SHIM SANG-WAN	Verbum	2007
43	헝가리어	Annak az ősznek három napja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 「그 가을의 사흘 동안」, 「꿈꾸는 인큐베이터」,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Anyám emléke I/Anyám emléke II/Anyám emléke III/Annak az ősznek három napja/Az álmodozó inkubátor/A legutolsó, ami megmaradt nekem)	Dzsin Kjang-e/Vargha Katalin	Nyitott könyvmühely	2007
44	중국어	感動韓國人的短篇小說	「너무도 쓸쓸한 당신」 (孤独的爱人啊)	金京善	民族出版社	2008
45	스페인어	¿Seguirá soñando?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Chyun Jin-Jae/Vilma Patricia Pulgarín Duque	Ediciones del Ermitaño	2008
46	영어	Who ate up all the shinga?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Yu Young-Nan/Stephen J. Epstei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47	영어	The red room	「부처님 근처」 (In the Realm of the Buddha)	Bruce Fulton/Ju-Chan Fulton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48	중국어	非常久遠的玩笑	『아주 오래된 농담』	金泰成	上海译文出版社	2009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49	중국어	跚跚的午后	『휘청거리는 오후』	李贞娇/ 李茸	上海文艺出版社	2009
50	우르두어	DOOBTAY SOORAJ KI TASVEER	「그 가을의 사흘 동안」/「도둑맞은 가난」/「저문 날의 삽화 5」, 「엄마의 말뚝 1」/「엄마의 말뚝 2」/「엄마의 말뚝 3」*24	Masood Ashar	Mashal Books	2009
51	포르투갈어	Contos Contemporâneos Coreanos	「조그만 체험기」/「그 가을의 사흘 동안」 (A pequena experiência/Três dias daquele outono)	Yun Jung Im	Landy	2009
52	영어	Questioning minds: short stories by modern Korean women writers	「마른 꽃」 (Dried flowers)	Kim Yung-He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53	영어	Waxen wings: The ACTA Koreana anthology of short fiction from Korea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We teach shame!)	Bruce Fulton	koryo Press	2011
54	일본어	天國の風: アジア短篇ベスト・セレクション	「친절한 복희씨」 (親切な福姫さん)	高樹のぶ子	新潮社	2011
55	프랑스어	Trois jours en automne	「그 가을의 사흘 동안」	Benjamin Joinau/ Lee Jeong-soon	L'Atelier des Cahiers	2011
56	프랑스어	Cocktail sugar et autres nouvelles de Corée	「그 가을의 사흘 동안」 (Trois jours en automne)	Choi Mikyung/ Jean-Noël Juttet et al.	Zulma	2011
57	러시아어	Как их много!	「저렇게 많이!」/「어떤 야만」, 「조그만 체험기」/「흑과부」, 「꼭두각시의 꿈」/「여인들」/「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낙토의 아이들」/「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Как их много!/	Хам Ён Чжун/ Ли Сан Юн	Время	2011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Ну что за дикость!/ Короткие записи о пережитом/Черная вдова/Сон марионетки/ Замужние/Цветы анемона тех дней, когда убивали в боях/Дети райской земли/Вот к чему привело мое правление в доме)			
58	프랑스어	Hors les murs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Hélène Lebrun	L'Atelier des Cahiers	2012
59	베트남어	ai đã ăn hết những cây sing-a ngày ấy?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Nguyễn Lệ Thu	Nhà Xuất Bản Trẻ	2012
60	영어	Lonesome You	『너무도 쓸쓸한 당신』(「마른 꽃」/「환각의 나비」/「참을 수 없는 비밀」/「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너무도 쓸쓸한 당신」/「그 여자네 집」/「꽃잎 속의 가시」/ 「공놀이하는 여자」/「J-1 비자」/「나의 웬수덩어리」) (Withered Flower/Psychedelic Butterfly/an Unbearable Secret/Long Boring Movie/Lonesome You/That Girls's House/Thorn Inside Petals/A Ball-Playing Woman/J-1 Visa/An Anecdote: The Bane of My existence)	Elizabeth Haejin Yoon	Dalkey Archive Press	2013
61	중국어	自行车小偷	『자전거 도둑』	周静	江苏少年儿童出版社	2013
62	일본어	慟哭: 神よ、答えたまえ	『한 말씀만 하소서』	加来順子	かんよう出版	2014
63	러시아어	Добрая Покхи	『친절한 복희씨』(「그리움을 위하여」/「그 남자네 집」/ 「마흔아홉 살」/「후남아, 밥 먹어라」/「거저나 마찬가지」/ 「촛불 밝힌 식탁」/「대범한	Азарина Лидия	Литературная Учаба	2014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밥상」/「친절한 복희씨」/「그래도 해피 엔드」) (Благословенная тоска/Его дом/сорок дебять лет/Хунам кушать!/Как бы даром/свеча на столе/щебрая трапеза/Добрая Покхи/все хорошо, что хорошо кончается)			
64	독일어	War der Berg wirklich dort?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Young-Suk Chang/ Regine Nohejl	EOS Verlag	2015
65	러시아어	Забытый вкус кисличк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Ли Санъюн/ Хам Енчжун	Время	2015
66	루마니아어	Cine a mâncat toată shinga?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Oum Tae Hyun/ Roxana Cătălina Anghelescu	Editura ZIP	2015
67	영어	The Future of Silence: Fiction by Korean Women	「닮은 방들」 (Identical Apartment)	Bruce Fulton/ Ju-Chan Fulton	Zephyr press	2016
68	중국어	亲切的福姬	『친절한 복희씨』(「그리움을 위하여」/「그 남자네 집」/「마흔아홉 살」/「후남아, 밥 먹어라」/「거저나 마찬가지」/「촛불 밝힌 식탁」/「대범한 밥상」/「친절한 복희씨」/「그래도 해피 엔드」) (只为思念/那个男孩的家/四十九岁那年/后男啊，吃饭喽/免费赠送/灿光照亮的餐桌/慷概的饭桌/亲切的福姬/结局依然美好)	李贞娇/ 陈亚男	清华大学出版社	2016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69	프랑스어	Manger cent façons	「식구와 인구」/「내 어린 날의 설날, 그 훈훈한 삶」/「이 세상에 맛없는 음식은 없다」(Bouches à nourrir/Le jour du Nouvel An/Aucun aliment n'a mauvais goût)	Benjamin Joinau/ Simon Kim	L'Atelier des Cahiers	2016
70	일본어	あの山は、本当にそこにあったのだろうか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橋本智保	かんよう出版	2017
71	러시아어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БЫЛА ТА ГОРА?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Ли Григорий	ГИПЕРИОН	2017
72	베트남어	Dành Cho Nỗi Nhớ	『친절한 복희씨』(「그리움을 위하여」/「그 남자네 집」/「마흔아홉 살」/「후남아, 밥 먹어라」/「거저나 마찬가지」/「촛불 밝힌 식탁」/「대범한 밥상」/「친절한 복희씨」/「그래도 해피 엔드」)(Dành cho nỗi nhớ/Ngôi nhà của anh ấy/Tuổi bốn mươi chín/Hunam ơi, về ăn cơm!/Giống như là cho không/Bàn ăn có nên thắp sáng/Mâm cơm hậu hĩnh/Bok-hee hiền lành/Cuối cùng vẫn là kết thúc có hậu)	Nguyễn Lệ Thu	Nhà xuất bản Phụ Nữ	2017
73	우즈벡어	Тоғ чиндан ўша ерда бўлганмид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Санъат Тажимуратов	Гафур Гулям	2017
74	영어	Gendered Landscapes: Short Fiction by Modern & Contemporary Korean Women Novelists	「저문 날의 삽화 2」(An Episode at Dusk, 2)	Yung-Hee Kim	Cornell East Asia Series	2018
75	영어	Was that Mountain Really There?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Hannah Kim	Kitaab International Pte. Ltd.	2018

번호	언어권	책 제목(번역어)	원제명(수록작)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76	중국어	故乡飘已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李丽秋	华中科技大学出版社	2018
77	러시아어	Очень одинокий человек	『너무도 쓸쓸한 당신』(「마른 꽃」/「환각의 나비」/「참을 수 없는 비밀」/「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너무도 쓸쓸한 당신」, 「그 여자네 집」/「꽃잎 속의 가시」, 「공놀이하는 여자」/「J-1 비자」/「나의 웬수덩어리」) (Высохший цветок/Воображаемая бабочка/Невыносимая тайна/Когда кончается длинный и неинтересный фильм/Очень одинокий человек/Колючка среди цветов/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играла с мячом/Виза J-1/Мой враг)	Ли Григорий Николаевич	ГИПЕРИОН	2019
78	베트남어	Kẻ Cắp Xe Đạp	『자전거 도둑』	Trần Hải Dương	Nhà xuất bản Phụ Nữ	2020
79	중국어	誰能說自己看見天空: 韓國小說大家經典代表作(戰後篇)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我畢生的摯愛)	游芯歆	麥田	2021

<표 1>을 통해 2021년 6월 현재까지 발간된 총 79종의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박완서 문학 번역의 현황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각 언어권에서 출판된 번역본의 종

24 이 책은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영역판 *A sketch of the fading sun*(표 1·번호 20)을 중역해서 출간한 것으로 실제 번역본의 목차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영역판과 동일할 것으로 추측하여 기입하였다.

류를 선집 형태와 단독 저서로 구분하고 발간 시기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를 많이 번역된 언어권 순으로 정렬한 것은 아래 <표 2>와 같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박완서 문학은 총 18개 언어권에서 전체 79종이 번역되었으며, 선집을 제외한 작가의 단독 저서는 45종이다. 번역이 많이 이루어진 언어권은 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 순이다.

〈표 2〉 박완서 문학 번역 출간 현황(시기별, 선집 및 단독 저서 구분)

번호	언어권	선집 포함 번역본 종수 (단독 저서 종수)	1970 ~1979	1980 ~1989	1990 ~1999	2000 ~2009	2010 ~2021
1	영어	17(6)		2(0)	6(3)	3(1)	6(2)
2	일본어	14(4)	1(0)	2(0)	5(2)	3(0)	3(2)
3	중국어	12(9)			1(0)	7(6)	4(3)
4	프랑스어	8(4)		2(0)	1(1)	1(1)	4(2)
5	독일어	6(3)			3(2)	2(0)	1(1)
6	러시아어	5(5)					5(5)
7	스페인어	4(3)				4(3)	
8	베트남어	3(3)					3(3)
9	네덜란드어	1(1)				1(1)	
10	루마니아어	1(1)					1(1)
11	스웨덴어	1(1)				1(1)	
12	우르두어	1(1)				1(1)	
13	우즈벡어	1(1)					1(1)
14	태국어	1(1)				1(1)	
15	폴란드어	1(1)			1(1)		
16	헝가리어	1(1)				1(1)	
17	포르투갈어	1(0)				1(0)	
18	히브리어	1(0)				1(0)	
	합계	79(45)	1(0)	6(0)	17(9)	27(16)	28(20)

<표 1>과 <표 2>를 토대로 박완서 문학 번역 현황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박완서 문학은 1978년 일본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가 실린 『帝国幽霊·黄狗の悲鳴』가 발간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6종, 1990년대 17종, 2000년대 27종, 2010년대부터 2021년 현재까지 28종이 번역되었다. 시대별로 번역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주로 1970년대 발표한 초기 단편소설이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선집에 실렸다. 이 시기에는 영어, 일본어, 불어와 같은 일부 언어권에서만 한정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문학 선집 형태의 번역이 계속되는 한편, 장편소설을 비롯하여 박완서의 작품만을 따로 모아 간행하는 소설집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일본에서 출간된 『結婚』은 『서 있는 여자』를 번역한 것으로, 박완서 장편소설의 첫 번역 사례이다. 이후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의 장편소설이 번역되었다. 같은 시기 박완서 단편소설만을 모아 발간한 소설집도 독일어권, 영어권 등에서 발간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이 시작된 2000년대 이후로 번역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선집 형태보다 작가의 단독 작품집의 형태가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총 45종의 단독 저서 가운데 2000년대에 번역된 것이 16종, 2010년대 이후 번역된 것이 20종으로 대다수에 해당한다. 또한 2002년 이후로 매년 한 편 이상이 꾸준하게 번역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단독 저서는 2020년 베트남어로 번역된 동화집 『자전거 도둑』이다. 2021년 1월 중국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선집은 해방 이후 발표된 이태준, 손창섭, 이청준, 오정희, 정찬, 공선옥, 천운영의 단편과 함께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이 실려 있다.

이처럼 박완서는 한국문학의 번역과 출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번역, 출판이 진행되는 작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특징은 박완서 문학의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박완서는 1970년 등단 이후 40여 년의 오랜 창작 활동 기간 동안 15편의 장편소설

과 100여 편의 중·단편소설을 비롯하여 수필과 동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문학적 성과들을 남겼다. 한국문학사를 통틀어도 이와 같이 긴 활동 기간 꾸준한 활동을 보인 작가를 찾기 힘들다. 또한 하나의 장르에 고착되지 않으면서도 장르마다 축적된 작품의 양 또한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이처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풍부하면서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 작가라는 점과 더불어 이른바 대중성과 문학성을 고루 갖춘 작가로 문단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는 점도 중요하다.[25] 이러한 박완서 문학의 특징으로 인해 작가 생전에도 지속적인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타계 10주기를 맞은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설 외에 수필과 동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문학적 성과를 남긴 작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79종의 번역 가운데 소설이 아닌 다른 장르의 번역은 5종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중에서 4종이 2010년대 이후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향으로 주목할 수 있다. 『자전거 도둑』은 2013년 중국어, 그리고 2020년 베트남어로 각각 번역되었고, 『한 말씀만 하소서』는 2014년 일본에서 번역된 바 있다. 2016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Manger cent façons*는 여러 작가의 한국 음식에 관한 시, 소설, 수필 등을 모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으로, 윤대녕, 성석제, 곽재구, 이육사, 피천득 등의 글이 실려 있다.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을 모은 기획이 흥미로운데 박완서의 수필 「식구와 인구」, 「내 어린 날의 설날, 그 훈훈한 삶」, 「이 세상에 맛없는 음식은 없다」 세 편이 번역되었다.

박완서의 소설 가운데 한 번이라도 번역된 장편소설은 총 여덟 편인데, 여러 차례 번역된 것은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 편이다. 가장 많이 번역된 장편소설은 『그 많

25 졸고, 「박완서 문학의 '저자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6쪽 참고.

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이다. 1999년에 일본어로 처음 번역된 이후에 2005년에는 중국어(대만 출판), 그리고 태국어로 번역되었다. 2007년 스페인어, 2009년 영어, 2012년 프랑스어와 베트남어, 2015년 러시아어와 루마니아어로 번역되었고 2018년에는 중국어(중국 출판)로 번역되는 등 총 9개 언어권에서 10종이 번역되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2003년 스페인어, 2015년 독일어, 2017년 일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2018년 영어 등 총 6개 언어권에 번역이 되었고, 『나목』은 1996년 영어, 2006년 스웨덴어, 2007년 중국어(중국 출판) 등 총 3개 언어권에 번역되었다.

단편소설을 모은 소설집 가운데에는 『너무도 쓸쓸한 당신』(「마른 꽃」, 「환각의 나비」, 「참을 수 없는 비밀」,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너무도 쓸쓸한 당신」, 「그 여자네 집」, 「꽃잎 속의 가시」, 「공놀이하는 여자」, 「J-1 비자」, 「나의 웬수덩어리」 수록)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친절한 복희씨』(「그리움을 위하여」, 「그 남자네 집」, 「마흔아홉 살」, 「후남아, 밥 먹어라」, 「거저나 마찬가지」, 「촛불 밝힌 식탁」, 「대범한 밥상」, 「친절한 복희씨」, 「그래도 해피 엔드」 수록)가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3개 언어권에서 번역되었다. 그 외에 3개 언어권 이상에서 번역된 단편소설은 「도둑맞은 가난」(일본어, 영어, 히브리어, 우르두어),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공항에서 만난 사람」(일본어, 프랑스어, 영어),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영어, 독일어, 헝가리어, 중국어) 등을 꼽을 수 있다.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은 1·2·3편 가운데 일부만 번역된 경우를 포함하면 가장 많이 번역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993년 「엄마의 말뚝 1」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것을 시작으로 영어, 일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우르두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등 총 8개 언어권에서 10종이 번역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경우 재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이다. 단편소설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권에서 출간된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헝가리어, 우르두어 등 5개 언어권에서 번역되었는

데, 이 또한 재번역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비교적 많은 번역이 이루어진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번역의 사례는 이미 번역이 존재하는 작품을 다시 번역한 것으로, 단순히 선행 번역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개선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번역가의 개별적 동기 또는 출판 관련 여러 여건의 변화 등 다양한 동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26] 이러한 재번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출판되지 않은 작품의 번역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작품 번역을 권장하는 한국문학 번역의 기관 지원 중심 환경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이다.[27] 구체적인 재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만, 번역이 진행되는 시기와 독자의 수용력이 변화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재번역의 필요성 혹은 중요성이 앞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박완서 문학의 번역은 같은 언어권에서 여러 차례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동시에 특정 언어권에만 집중적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권에 널리 소개되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의 번역은 동시대 한국문학의 번역과 출판 양상과 유사하게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일부 언어권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되는 한편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헝가리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번역이 시도되어 2021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총 18개 언어권에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학 번역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번역되고 있는 한편, 2010년대 이후로는 소설 외에 동화 또는 수필에 대한 번역도 시도되면서 보다 다양한 장르가 여러 언어권에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국문학의 번역 사례에서 찾아보기 드문 재번역의 경우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

26 재번역의 정의 및 동기와 관련하여 최미경, 앞의 글, 280~282쪽 참고.
27 위의 글, 290쪽.

4.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완서 문학의 번역 현황과 그 특징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근래 일본에서 놀라운 인기를 끌었던 『82년생 김지영』과 동일한 한국문학 번역의 사례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인기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한강, 조남주, 정세랑 등의 젊은 여성작가와 이들의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이다.[28] 그러나 그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완서 문학이 번역되고 있는, 또한 그러한 번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82년생 김지영』으로 촉발된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은 손원평의 『아몬드』와 같은 동시대 작가의 번역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문학의 원류' 시리즈로 이어져 염상섭의 『취우』 번역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아시아 여성 작가 시리즈로 이어져 은희경의 데뷔작 『새의 선물』 번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일본에서 단순히 한국 출판시장에서의 성취나 사회적 이슈에 따른 계기성 출간만이 아니라 시대적 연속성이나 한국문학 내의 관계성 위에서 그것을 조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29] 『82년생 김지영』의 번역가이자 2020 한국문학번역대상 수상자로 널리 알려진 사이토 마리코(斎藤真理子)가 2020년 7월부터 '한국현대문학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웹진에 글을 연재하면서 박완서를 소개한 방식 또한 이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박완서의 생애와 작품 세계, 박완서 문학의 원류로 지목되는 한국전쟁에 대한 긴 설명에 이어 덧붙인 내용은 박완서라는 작가와 최근 주목받는 젊은 작가들 사이의 '관계성'이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한국전쟁 체험이 황정은과 같은 여성작가들의 소설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 박완서를 추모하며 젊은 작가들이 기획한 '앤솔로지'

---

28 渡邊雄介, 앞의 글.
29 윤부한, 앞의 글, 258쪽.

가 있으며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피프티 피플』의 정세랑 등이 참여하였다는 것 등의 내용이다.[30] 최근 들어 여성작가와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동안 일본어 번역이 박완서 문학 세계의 단면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이나 「꿈꾸는 인큐베이터」,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환각의 나비」와 같이 여성의 삶과 연대의 가능성을 다룬 많은 소설들이 다른 언어권에서와 달리 한번도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과의 관계성을 고민한 결과로서 김애란, 전경린, 은희경, 오정희, 한강, 박완서 등의 소설을 선집 형태로 발간한 프랑스어 번역 *Cocktail sugar et autres nouvelles de Corée*와 강경애부터 최정희, 한무숙, 박완서, 최윤 등 여성작가의 소설을 통시적으로 묶어 발간한 영어 번역 *Gendered Landscapes* 등은 앞으로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기획 형태로 참고할 만한 사례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발간된 영역본 *Wayfarer*에 실렸던 오정희, 서영은, 박완서 등의 소설 일부와 한유주, 김사과, 천운영, 김애란 등의 소설을 더해 2016년 다시 출간된 영역본 *The Future of Silence*의 사례 역시 새로운 방향성을 시사한다. 다양한 작품들의 번역을 권장하기 위해서 번역되지 않았던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던 기관 지원 중심으로 번역이 이루어진 까닭에 한국문학의 재번역이 흔치 않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번역의 성과가 축적된 동시에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양적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용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따라서 미번역작의 새로운 번역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미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시대적 변화와 독자의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재번역하거나 새

30 斎藤真理子, 「斎藤真理子の韓国現代文学入門(4): 韓国文学の重鎮パク・ワンソに見る 女性たちの体験した朝鮮戦争」, 『WEZZY』. 2020.11.7. https://wezz-y.com/archives/82813

로운 기획을 통해 재출간하는 작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김지영』을 비롯하여 요즈음 주목받는 한국문학의 번역들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서 독자의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마중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따라서 맥락과 관계성을 고려한 번역의 기획을 통해 유의미한 독자층을 확보한다면 한국문학 번역의 성공 사례들이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인기 있는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한국문학의 토대를 마련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번역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완서 문학 번역의 가장 최근작으로 앞서 소개한 『誰能說自己看見天空』의 경우에도 이태준부터 천운영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선별이 눈에 띈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선집을 구성할 때 비교적 많이 선택된 작가로 꼽을 수 있는 박완서의 경우에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다. 박완서 문학의 번역이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문학의 번역들과 연계되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번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로 한국전쟁 체험과 관련된 자전적 소설의 계열, 그리고 박완서의 문학 활동 가운데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1970~80년대 단편소설 가운데 일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최근의 번역이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나 『친절한 복희씨』와 같은 후기의 소설집 위주로 진행된 것은 이러한 편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벤자민 주아노는 아직 프랑스어로 번역된 적 없는 『나목』의 번역이 진행 중이며 또한 단편소설 선집을 출간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특히 선집에 그동안 어떠한 언어권에서도 번역된 적 없었던 「카메라와 워커」, 「재이산」, 「빨갱이 바이러스」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번역은 보다 다양한 작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시대적 맥락을 반영한다면 지금까지 한번도 번역되지 않았던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이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와 같은 장편소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편소설 역시 여성과 노년의 일상을 다룬 후기의 작품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최근 활발히 번역되는 한국문학의 젊은 작가들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함께 소개하기 용이한 것은 물론 독자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에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박완서의 수필이나 동화와 같은 소설 이외의 장르에 대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박완서 문학의 번역 가운데 소설 이외의 장르가 선택된 경우는 양적으로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주목할 수 있다. 해당 언어권에 따라 특정 장르가 더 선호되는 경우라든가 한국문학이 어렵고 무거운 주제만을 다룬다는 선입견이 있는 경우, 비교적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수필이나 동화 등의 장르를 통해 한국문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특히 박완서는 1977년에 첫 수필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펴낸 이후 20여 권의 수필집을 발표했고, 1979년 펴낸 첫 동화집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이후 수많은 동화책을 발간하기도 했기 때문에 번역될 수 있는 충분한 문학적 성과를 가진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번역이 진행된다면, 박완서 문학의 다양한 측면이 알려질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많은 해외의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새롭게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근의 한국문학 번역의 성공 사례들이 일시적 유행으로 흘러가는 대신 유의미한 독자층의 지속적 확보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효환,「한국문학 해외 소개의 현황과 과제: 세계화를 향해 걸어온 긴 여정, 그러나 아직은 먼 길」,『문예중앙』, 2002년 봄호.

_____,「2000년 이후 한국문학 콘텐츠의 세계화 경험과 방향」,『비교한국학』19(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2018 한류백서』, KOFICE, 2019.

_____,『2019 한류백서』, KOFICE, 2020.

김민지,「K-Pop 번역 양상 연구: 번역 주체와 전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영미,「박완서 문학의 '저자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심재기 엮음,『세계 속의 한국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유럽문화정보센터 편,『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편,『한국문학의 해외 수용과 연구 현황』,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왕염려,「중국의 한국 현대 문학 번역 및 수용 양태 연구: 수교 이후 번역된 소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양레이,「박완서 소설의 중국어 번역본에 나타난 '자국화(naturalizing)전략' 연구」,『지식인문학』1(1), 지식인문학연구회, 2019.

오혜진,「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문화과학』85, 문화과학사, 2016.

응웬 티 히엔,「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 소개 및 연구」,『열상고전연구』70, 열상고전연구회, 2020.

이한정,「일본의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1945~2016)」,『한국학연구』4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_____,「1945년 이후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 현황 개관」,『한국학연구』4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최미경,「한국문학작품의 프랑스어 재번역 현상 연구」,『번역학연구』19(4), 한국번역학회, 201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한류에서 교류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한국문학번역원 편,『한국문학번역원 10년사』, 한국문학번역원, 2011.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엮음,『2014 한류백서』, KOFICE, 2015.

한현희,「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판 현황에 관한 연구」,『번역학연구』19(4), 한국번역학회, 2018.

박선희,「영미권 넘어 日서도 흐름 탄 K문학 … 번역가 키우면 지구촌 대세」,『동아일보』, 2020.10.3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30/103708219/1

渡邊雄介,「なぜ韓国文学ブーム？　フェミニズム文学で注目の若き女性作家たち」,『Forbes JAPAN』, 2020.7.18. https://forbesjapan.com/articles/detail/35898/1/1/1

斎藤真理子,「斎藤真理子の韓国現代文学入門(4): 韓国文学の重鎮パク・ワンソに見る 女性たちの体験した朝鮮戦争」,『WEZZY』. 2020.11.7.

https://wezz-y.com/archives/82813

대산문화재단 http://www.daesan.or.kr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https://kofice.or.kr
한국문학번역원 https://www.ltikorea.or.kr

| Abstract |

The Present Status of Translated Books of Park Wan-seo and New Possibility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Kim, Young-mi | Hongik University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is to assess, for the first time, the current status of translated books of Park Wan-seo while reviewing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Park Wan-seo is a writer whose works have been consistently translated and published since the early days. Her works have several translated versions, and have been introduced to readers around the world without being overly focused on a specific region.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reception of Korean literature based on the translated works of Park Wan-seo, and explores new possibilitie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 the past, Korean literature was translated mostly with the support of organizations like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These days, however, translation is being performed in response to high demand among international readers. Recent works that have received the spotlight demonstrate the vast global potential of Korean literature on the global stage and their capacity to reach out to readers. A stable pool of readers should be secured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to solidify its position. This can be achieved by examining translated works that were well-received in the target language, and prioritizing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containing aspects of Korean culture that are likely to have international appeal.

In this context, a few strategies are needed for Park Wan-seo's works to continue being celebrated among translations of more recent works. An anthology of works by Korean female writers is a remarkable case for new projects of translation of Koran literature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Park Wan-seo and her influence over younger writers.

While earlier translations of Park Wan-seo were focused on works set during the Korean War, there is a need to take interest in later works that deal with women or old ag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regions, more diverse readers may be attracted

by translating not only Park Wan-seo's novels, but also other genres such as essays and children's stories.

Key words : Park Wan-seo, Translated Book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Relationship

논문접수일: 2021.07.15. 심사기간: 2021.07.16.~08.05. 게재확정일: 2021.08.10.

10.19115/CKS.29.2.2

노인 간병과 서사적 상상력*

한국과 일본의 간병 소설을 통하여

최성민**

1. 들어가며
2. 한국의 간병 소설 –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3. 일본의 개호 소설 –『장녀들』을 중심으로
4. 간병 소설과 간병 문화의 현실
5. 나오며

| 국문초록 |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과 일본에서 노인 질병의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가정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노인 질병이나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병을 필요로 하는 시간은 길어지기 마련이다. 절망적인 전망은 고통과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 간병의 고통은 의료진과의 갈등, 환자와의 갈등으로 증폭된다.

실제 자신이 이런 현실을 겪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 고통의 크기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실제 고통스러운 현실이 닥쳤을 때는 비관적 절망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는 간병의 고통을 다룬 문학 작품을 통해, 간병의 고통을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다. 박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학술연구교수.

완서의 소설에서는 환자를 간병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폭력, 외로움에 대한 묘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엄마의 말뚝2」, 「포말의 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의 개호 소설들은 간병의 서사를 하나의 장르로 부각시켰다. 시노다 세츠코의 『장녀들』은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간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우리는 이런 소설들을 읽으며 간병의 고통을 짐작해볼 수 있고,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 간병의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전망을 상상해볼 수도 있다.

간병 문학과 개호 문학을 통해, 우리의 서사적 상상력이 간병 문화의 개선을 향한 보다 밝은 전망에 도달하기를 기대해본다. 초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간병의 서사는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일 수 없다. 그러한 간병의 서사가 지향해야 할, 절망이 아닌, 죽음이 아닌 상상력의 방향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제어 : 간병, 간병 살인, 요양, 서사적 상상력, 치매, 박완서, 개호 소설

1. 들어가며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략)… 치매와 뇌경색 등을 앓던 아버지 B(80)씨와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수발 중 B씨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

암과 심장병으로 투병하던 노부부가 아파트에서 함께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8일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이 아파트에 살던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 부부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략)…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오래전부터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왔고 남편 A씨도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2]

언젠가부터 위와 같은 기사들이 익숙하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환자와 더불어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이다.

질병은 환자 자신의 몸과 정신을 병들게도 하지만, 병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의 고통은 환자의 주변으로 확산된다. 인간에게 보편적 측은지심이 있다면 누군가를 돌보고 도와주는 일은 그 자신에게 보람과 행복을 안겨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증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돌봄의 대상이 다름 아닌, 중증 혹은 고령의

---

1 김선영, 「치매 父 간병살인 아들, 항소심도 징역 3년」, ≪세계일보≫, 2021.3.18. (https://news.v.daum.net/v/20210318190815537 2021.3.20. 접속)

2 안태훈, 「암, 심장병 투병 노부부 동반 추락사, 부인 옷에 유서」, ≪JTBC≫, 2019.9.9. (https://news.v.daum.net/v/20190909074427005 2021.3.20. 접속)

가족일 때, 간병은 보람과 행복이기보다 헌신과 희생이 되고, 심지어 고난과 절망이 될 수도 있다. 육체가 질병을 이겨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간병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절망에 도달할 때, 간병인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거나 환자를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도 아주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는 동물이다. 인간은 태어난 지 1년은 지나야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주변의 도움이 없다면 생태계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한, 아주 나약한 영유아기를 거친다. 가족의 돌봄으로 하나의 인간 개체로서의 자율적 생활이 가능해지지만, 중증 질환을 앓거나 노년기에 들어가면 또 다시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어쩌면 간병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동조차 어려운 영아기의 아이를 돌보는 일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끝이 보이는 '보육'의 길 위에 있기에 쉽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인간의 삶이라는 '서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의 '조력자(helper)'의 역할 자체로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증 환자나 고령의 환자를 돌보는 일은 그렇지 못하다. 간병의 끝은 알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은 가중된다.

일반적인 서사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다가 해소되며 끝난다. 질병이라는 요소가 중심이 된 서사라면 질병이 발견되고 악화되다가 어렵사리 치유되며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노인 간병의 서사는 치료와 치유의 서사가 아니다. 그 끝에는 죽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일종의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이 작용한다.

여기서 '서사적 상상력'이란 삶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통해 사건의 추이나 인물 관계의 방향을 창조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

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상황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서사적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며 살펴볼 수 있는 문학을 통해서 습득,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문학적 상상력, 혹은 서사적 상상력이라 부를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청년이 노년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서사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처럼, 질병 역시 환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 이해되고 짐작될 수 있다. 질병으로부터 출발하는 서사적 상상력은 치유나 건강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정 반대로 죽음에 도달할 수도 있다. 노년의 환자에겐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앞서 언급한 간병 살인이나 동반 자살의 사례는 지금 현재, 질병과 간병의 서사가 '죽음'에 도달해야만 끝이 날 것이라는 비극적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2010년대 들어,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과 한국의 <서울신문>은 각기 취재를 통해 『간병살인』이라는 시리즈 보도를 게재했다. 그리고 각각 책으로도 그것을 펴냈다.[4] 일본과 한국에서 비슷한 기획의 취재보도와 책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간병' 서사가 죽음이나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나라이며,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간병의 책임이 오롯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높은 사회이다.[5]

---

3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1947~)이 제안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임옥희, 「서사적 상상력 : 인문학적 페미니즘의 가능성」, 『탈경계인문학』 제5권 3호, 2012, 5~29쪽.)
그러나 서사 문학 이론과 교육 이론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혹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인과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사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었다.
(김혜영, 「서사적 상상력의 작용 방식 연구」, 『문학교육학』 14호, 2004, 193~216쪽.)

4 마이니치 신문 간병살인 취재반, 남궁가윤 역, 『간병살인』, 시그마북스, 2018.
유영규 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5 구체적 통계와 사례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흔히『천일야화』에서 출발하곤 하는 많은 서사 이론들에서, 모든 서사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고 하지만, 본 논문은 아마도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어두운 서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어둡고 가슴 아픈 서사일지라도, 그것은 우리 현실의 한 단면이며, 치열한 '서사적 상상력'의 현장이기 때문에 소홀히 볼 수 없는 지점이다. 바로 그 지점들을 직시하고 있는 문학 서사 텍스트들을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가슴 아픈 비극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즉 또 다른 서사적 상상력에 대한 전망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이를 위해 분석의 대상이자 간병 문학의 예시로 활용할 작품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간병 소설들이다. 한국에서는 노년 질병과 간병의 문제를 가장 치열하면서 다각적으로 포착하여 서사화해온 박완서의 소설들이 대상이 되며, 일본에선 고령화 사회 문제를 주요 테마로 삼아 작품 활동을 해온 시노다 세츠코의 소설집『장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간병 소설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될 것은 노인 간병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간병이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적 상상력이 아니라, 희망의 서사적 상상력이다. 그러기 위해서, 본 논문은 문학 작품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우리 사회의 간병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탐색까지 도달하고자 한다.

2. 한국의 간병 소설 -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박완서는 1970년 40세의 나이에 소설「나목」으로 등단한 이후, 2011년 타계하기까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자리 잡았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등단하였기 때문인지, 박완서는 초기부터 삶과 죽음, 그리고 늙음에

대한 원숙한 성찰이 내재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1남 4녀 중 한 명의 딸이 의사였으며, 외아들 역시 서울대 의대를 나와 전공의 과정에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남편은 일찌감치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자 그들을 간병했다. 작가 역시 여러 성인병을 지니고 있었으며, 말년에는 담낭암 투병을 하였다. 박완서 작가의 딸인 호원숙은 어머니가 작가가 아니었다면, '의사'가 되었을 것이라며, 가족의 '가정의'로서 해박한 의학적 지식도 갖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6] 그러한 개인사 때문인지, 박완서의 작품에는 질병, 특히 치매와 같은 노인 질환이 자주 등장하며, 병원과 집에서의 간병 상황들도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박완서 소설 속의 노인 질병 문제를 주목한 바 있다.[7]

---

6 호원숙, 「어머니와 나-모녀의 시간」, 박완서 외, 『우리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닷컴, 2002, 65~66쪽.
(이영아, 「문학작품에 나타난 한국 현대 의료의 현실 :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학과학연구』 3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63(55~92)쪽에서 재인용.)

7 박완서 문학에서 치매나 노년 질병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소연,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김은정, 「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303~327쪽.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70집, 한국문학회, 2015, 293~332쪽.
김혜경, 『노년을 읽다: 박완서 소설로 읽는 노년의 삶』,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박산향, 「박완서 소설의 치매 서사와 가족 갈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학사회과학연구소, 2018, 347~370쪽.
박완서 문학과 다른 작품들을 함께 다루면서, 노년의 치매 질환을 중심에 둔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미영, 「소설에서의 치매 서사의 수용」, 『국어문학』 63호, 국어문학회, 2016, 231~255쪽.
김지혜,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 표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53~80쪽.,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 : '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권 1호, 2018, 285~321쪽.
박완서 소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의료 현장의 서사적 소통의 문제를 주목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영아, 「문학작품에 나타난 한국 현대 의료의 현실 :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6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5~92쪽.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치매를 비롯한 노년 질병과 그것을 둘러싼 가족간 갈등, 치매가 불러일으킨 망각과 환각의 증상과 그 상징적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병'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은 환자나 질병 그 자체보다, 가족의 간병 상황을 더 주목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간병의 상황을 주목하는 것은 소설 그 자체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노년의 인물을 '간병'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까지 '서사적 상상력'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1981년 제5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박완서의 소설 「엄마의 말뚝2」는 박완서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연작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한을 다루면서, 전쟁과 분단 역사의 아픔을 개인 가족사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8] 총상으로 인한 아들의 죽음이 어머니에겐 전쟁의 상처로 남겨져 어머니는 자주 악몽에 시달린다. 이 소설은 어머니의 투병과 악몽을 통해 여전한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형상화하였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 소설의 결말부를 보면, 어머니는 자신의 사후(死後), 아들과 마찬가지로 화장(火葬)을 해달라고 딸에게 부탁한다. 어머니에게 화장은 세월이 남긴 아픔과 분단이라는 괴물을 '무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렇다면, 아들을 화장하고 자신도 화장을 결심한 어머니를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특히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이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중이시다."로 끝맺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아들을 중심으로 한 '과거'가 아니라, 어머니-딸(화자인 '나')을 중심으로 한 '현재'로 초점을 맞춘다면, 이 소설의 핵심은 전쟁과 분단이 아니라, '노화'와 '간병'이라 할 수 있다.

---

8 「엄마의 말뚝2」 항목 설명, 네이버 두산백과. (접속 : 2021.7.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7881

이 소설에는 고령의 어머니가 낙상(落傷)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딸이 어머니를 간병하며 병원에서 겪은 일과 감정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간병의 고통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병원과 의사의 태도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

> 나는 허둥지둥 복도까지 쫓아가서 수고했다는 상투적이고 경박한 인사말을 중얼거리고 수술 경과에 대해 물었다.
>
> "잘 됐어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워낙 고령이니까 간병에 신경은 좀 쓰여야죠."
>
> 그에게서 처음으로 긴 말을 들은 게 황송해서 더 묻진 못했지만 미진했다.
>
> …(중략)… 수련의들과 간호원이 자주 드나들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몸에 매달린 여러 개의 줄을 점검했다. 내가 밤 동안 보살피고 기록해놓을 것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았다. 내가 할 일은 자주 기침을 시켜 가래를 뱉게 할 것, 링거가 다 되기 전에 알릴 것, 소변량의 체크, 수술 자리에서 흐르는 피를 흡입하는 비닐 팩이 다 차면 알릴 것 등이었다.
>
> 나는 홍박사에게 속 시원히 못 물어본 걸 그들에게 꼬치꼬치 물으려 들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에다 워낙 고령이시니까라는 주를 달기를 잊지 않았다. 하긴 고령이라는 건 이상도 병도 아닌 주(註)일 뿐이었다.[9]

고령의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나온 뒤에 환자의 보호자는 담당의사를 쫓아가 수술 경과를 물어본다. 이에 수술 집도의였던 홍박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 말한다. 짧은 몇 마디 말이었을 뿐이지만 환자의 딸인 '나'는 그 말조차 '긴 말'을 들은 것이라며 황송해한다. 환자의 보호자이자 간병인인 딸은 가래를 뱉게 하고 소변량을 체크하는 등, 보조적인 진료 행위까지 떠맡

9 박완서, 「엄마의 말뚝2」, 『대범한 밥상 : 한국문학전집3』, 문학동네, 2014. [전자책] (from Bookcube E-book, 140~141/298쪽)

는다.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담당해야 할 일까지 자연스럽게 떠맡은 것이다.

어머니는 밤마다 헛것을 보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잠에 들지 못한다. 체력이 약해지고 강한 약물을 쓰다 보니, 전쟁 중에 죽은 아들의 기억이 자꾸 떠오른 탓이다. 딸은 간호사에게 어머니가 잠이 들 수 있도록 수면제를 달라는 요청을 한다. 간호사는 마취 끝에는 더러 그런 환자가 있다며 심드렁한 반응이다. 한 번 더 수면제를 요청하자 간호사는 이미 신경안정제를 드렸다며 수면제를 줄 수는 없다고 쏘아붙인다.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떼쓰지 말라는 것이다.

> "그까짓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주든지 하세요."
> "그럴 순 없어요."
>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떼를 쓰시면 어떡해요?"[10]

이미 보조적인 진료 행위를 보호자에게 떠넘긴 점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알아서 하고 있다'는 말은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환자의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간호사도 문제지만, 환자의 상태나 다른 약의 투약 여부와 무관하게 무작정 수면제를 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의 요청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의료 현장에게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이 같은 요청을 미리 막기 위해서, 혹은 의료진의 불편을 줄이고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너무나 쉽게 내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와 과로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더 큰 친절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보호자에게 간병과 진료 보조 행위가 요구되는 상황들, 그리고 부정확한 의료 정보를 지닌 환자

10 박완서, 「엄마의 말뚝2」, 위의 책. [전자책] (from Bookcube E-book, 143/298쪽)

나 보호자의 과도한 개입이나 무리한 요구 등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의 절실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호자는 의료진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다.

「엄마의 말뚝2」에는 간병 상황 중에 환자와 간병인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도 드러난다. '나'가 환자인 어머니에게 돌아오자 어머니는 또다시 헛것을 보았는지 두 손을 휘두르더니, 커다란 힘으로 딸의 목을 휘감는다.

>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 "왜 그래 엄마!"
>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칵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든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11]

어머니는 수술 후의 쇠약해진 심신 탓인지, 한국전쟁 당시 좌익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찾아온 이들이 눈에 어른거리는 환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돌출 행동에 딸은 숨이 막힐 뻔하는 위급 상황에 처한다. 딸은 어머니의 예기치 못한 강한 힘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가까스로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딸은 심해지는 어머니의 광란을 떨면서 지켜보다 괴기스러움마저 느낀다. 얼마 후엔 결국 딸이 어머니를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다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진다.

---

11 박완서, 「엄마의 말뚝2」, 위의 책. [전자책] (from Bookcube E-book, 143/298쪽)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패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패륜에 패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12]

어머니를 간병하던 딸은 완력 다툼 끝에 뺨을 때리는 패륜적 행위까지 하게 된다. 어머니의 오랜 마음의 상처와 수술 후유증이 결합된 비극적 상황이지만, 딸은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통제해야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나 의료진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모녀간의 한바탕 몸싸움은 부풀어 오른 어머니의 뺨에 딸이 자신의 뺨을 비비며 소리 내어 통곡하면서 마무리된다.

박완서의 말년 후기작이라 할 만한 「친절한 복희씨」(2006)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제목을 패러디한 단편소설이다. 소설의 화자 '나'이기도 한 복희씨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한 상회에 취직을 하고 그 주인집에서 식모살이까지 하게 된다. 주인에게 강간을 당한 후 임신까지 하게 되고, 그의 후처로 살아가게 된 복희씨는 남편이 밉지만 아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 전처의 아들 한 명을 포함해 5남매가 모두 독립한 뒤,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진다. 결국 복희씨는 반신불수 남편의 병수

12 박완서, 「엄마의 말뚝2」, 위의 책. [전자책] (from Bookcube E-book, 147/298쪽)

발까지 들게 된다. 소설의 초반부에, 복희씨는 남편의 그런 상황이 “불쌍하지 않고 고소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복희씨는 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불안하다고도 말한다.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복희씨는 단골 약국에 갔다가 남편이 그 와중에도 욕망에 사로잡혀 정력제 비아그라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향한 살의를 느낀다.

> 죽이고 싶은 건지 죽고 싶은 건지 대상이 분명치 않은 살의가 극에 달한 채 집 안으로 돌진했다. 그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나를 맞이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침까지 흘리고 있다. …(중략)… 세상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내가 죽기도 억울하고, 누굴 죽일 용기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 죽고 나죽기를 선택한다. 나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죽음의 상자를 주머니에서 꺼내 검은 강을 향해 힘껏 던진다.[13]

어느 순간 쓰게 되리라고 젊은 시절부터 간직했던 아편 상자를 강물로 집어던진 복희씨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너 죽고 나죽기’를 선택했다는 복희씨는 어쩌면,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의 ‘금자씨’처럼 처절하고 끔찍한 피의 복수극을 실행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설은 그 뒷이야기를 보여주지 않고 끝이 나지만, 간병의 끝이 어떤 ‘살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노년의 질병을 직간접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박완서의 작품들에는 치매 환자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후기작으로 분류될 「후남아, 밥 먹어라」(2003), 중기작품들인 「해산바가지」(1985), 「환각의 나비」(1995)는 물론, 초기작품인 「포말의 집」(1976)에도 치매 환자가 등장한다. 초기작인 「포말의 집」

---

13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5.[전자책] (교보문고 eBook 도서관 239/392쪽)

에서 치매는 당시의 일상적 표현대로 '노망'이라는 단어로 등장한다.[14]

「포말의 집」의 화자 '나'는 남편도 없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엄마에게 점점 말수가 적어지는 아들 동석이 학교에 간 후에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보고 있자면, 시어머니는 양변기에 고인 물로 세수를 하며 '물이 다 식었다'며 투정을 한다. 남편은 미국으로 긴 출장을 간 지 2년이 넘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나'는 시어머니와 아들이 없을 때 청년을 끌어들여 불륜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시어머니는 밤이면 이 방 저 방, 문을 두드리며 다니곤 했다. '나'는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약사 친구에게 수면제를 얻어오기도 했다. 친구는 몸에 이로울 것은 없지만 습관성 외에는 크게 해로울 것은 없다며, '젊은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지'라며 수면제를 건네주었다. 환각과 망상 증상이 나타난 시어머니에게 복용하도록 할 생각으로 받아온 약이었지만, '나'는 차마 어머니에게 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것을 먹고 잠에 든다.

> 나는 어쩌면 그게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약이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알약을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드리지 않았다. 내 바람이 무서워서 드릴 수가 없었다. 대신 내가 먹는다. 이제 그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잠든 후 시어머니는 아마 방마다 굳게 잠긴 문을 두드리며 "얘야, 문 좀 열어다우. 얘야 나 문 좀 열어다우" 슬피 울부짖겠지.[15]

---

14 과거에 쓰이던'노망'이나 '망령'이란 어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어감 때문에라도 잘 쓰지 않게 되었고, '치매'라는 질병명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완서는 어휘의 차이에 대해 조금 다른 입장이다. 박완서는 산문집에 실린 「말이 먼절까? 병이 먼절까?」에서, '노망'이나 '망령'은 쇠약해지는 인생의 한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 '치매'는 노인을 구박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 가족을 동정하게 된다면서, 치매라는 병은 말이 만들어낸 병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박완서, 「말이 먼절까? 병이 먼절까?」, 『나를 닮은 목소리로』, 문학동네, 2018. [전자책] (from Bookcube E-book, 42~43/150쪽)

15 박완서, 「포말의 집」, 『배반의 여름: 박완서 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2011. [전자책] (from Bookcube E-book, 62/317쪽)

내심으론 시어머니의 수명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 그 바람이 실현되는 것은 정작 두려웠던 것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남편이 보내오는 편지는 '동석이 엄마 보시오.'로 시작해서 '어머님은 안녕하시오? 당신이 극진히 보살펴드리라 믿소.'로 이어진다. '나'는 어머니의 안녕을 물을 때마다, 사실 남편이 어머니가 더 이상 안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소설은 커다랗고 견고하게 지어진 1970년대 초창기 아파트의 규모와는 달리, 금방 포말(泡沫)처럼 사라져버릴 듯 약한 중산층 가정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치매'는 주제의식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처럼 쓰인 것으로 보인다. 치매를 '노망'이라고 표현하던 시대의 작품이기 때문이겠지만, 이 소설 속의 치매는 질병이라기보다 노화의 한 과정처럼 보이고, 가족 내에서 돌보는 것 이외의 어떤 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간병의 고통, 공포, 그리고 '살의'로 이어지는 감정의 고리를 엿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다.

박완서의 소설들 중 노인을 간병하거나 돌보는 세 편의 소설을 살펴보았다. 「엄마의 말뚝2」에서는 딸이, 「친절한 복희씨」에서는 아내가, 「포말의 집」에서는 며느리가 간병의 주체이다. 이들은 모두 간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간병 대상에 대한 살의, 혹은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소설 속의 허구만은 아닌 것은 실제 노인 간병의 고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더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들이 겪는 간병의 고통에서 시달릴 동안, 병원이나 전문 의료진, 혹은 사회적 제도에 의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에 대한 치료나 투약은 있을지언정,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의 고통에 대한 사회 제도적, 혹은 의료적 관심은 부족했다.

3. 일본의 개호 소설 - 『장녀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노인 간병 상황을 중심에 둔 문학 작품은 박완서 소설들을 제외하면 그다지 많지 않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介護)' 소설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장르가 있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있다.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1990년대 세계적인 '고령 사회'가 되었다. 2007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16] 일본에서 2000년에 시행된 '개호보험법'은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 대한 수발과 간병에 관한 법률이다. '개호'는 일본어로 "고령자와 병자 등을 돌보고 간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노인을 돌보고 간병하는 내용을 중심에 둔 문학 작품을 '개호문학'이라 하고, 소설의 경우에는 '개호소설'이라고 칭한다.

일본에서 개호문학, 혹은 개호소설이 주목받게 된 것은 당연히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 깊다. 특히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가 「노인 개호문학의 탄생(老人介護文学の誕生)」이라는 글을 2003년에 발표하면서, '개호문학'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17]

'개호소설'의 효시로 꼽히는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꿈꾸는 사람(恍惚の人)』(1972)을 비롯해, 대부분의 일본 개호소설들은 며느리가 개호의 주체가 되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개호의 대상이 되어 있다. 물론 일본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의 논문[18]에 따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호의 주체는 '남편', '아들', '딸' 등으로 다양화되고, 2000년

---

16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1%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현재 예측으로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진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승훈, 「30년 시행 착오 일본…… 한국엔 고령화 반면교사」, 『매일경제』, 2021.6.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58538/) 접속일 2021.7.20.

17 정연욱, 「일본 '개호소설'의 구조연구」, 『일본어문학』 제70집, 2016, 253~273쪽.

18 정연욱, 위의 논문.

대 이후에는 가정이 아닌 요양소에서의 개호를 다룬 작품들과 손자가 개호의 주체가 되는 작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모브 노리오의 『개호입문』(2004)은 손자의 할머니 개호를 다룬 작품으로,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개호문학 가운데, 시노다 세츠코의 소설집 『장녀들』[19]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노다 세츠코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나오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이다. 수상작은 『여자들의 지하드』라는 작품이었는데, 영화화됨으로써 더욱 유명해진 아사다 지로의 『철도원』과 함께 1997년 나오키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시바다 렌자부로상, 중앙공론문예상, 요시카와 에이지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은 바 있는 작가이다. 그녀는 실제 치매를 앓는 어머니들 20년 이상 돌봄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사회와 치매, 개호를 중요한 문학적 테마로 삼고 있는 작가이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

『장녀들』은 시노다 세츠코의 2014년 작품으로, 중편 분량의 개호소설 세 편이 함께 실려 있다. 「집 지키는 딸」의 나오미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며 직장 생활을 포기하게 된다. 「퍼스트레이디」의 게이코는 의사 집안의 장녀로, 당뇨와 합병증을 앓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지역 명사인 아버지를 보좌하는 '퍼스트레이디' 역할까지 감당한다. 「미션」의 요리코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어머니의 암투병 과정에서 의대에 진학하고 의료 봉사 활동을 하러 히말라야로 떠난다. 이 소설들은 모두 어머니를 돌보는 '큰 딸', 즉 장녀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개호소설은 하나의 장르를 이루며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하였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며 사회적 상황도 달라지다보니,

---

19 시노다 세츠코의 『장녀들』 본문 인용은 번역본의 쪽수만 밝혀 적는다.
시노다 세츠코, 안지나 역, 『장녀들』, 이음, 2021.

개호 상황에서의 주체와 대상의 입장이 다각도로 형상화되어 왔다. 다만, 대부분의 개호소설은 개호의 주체인 며느리나 자녀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한 『개호입문』은 특히 간병의 대상인 노인의 입장에서 간병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부각시켰다.[20] 가족 간병인이 겪는 고통을 당연시하지 않고, 손자 간병인에 대한 할머니의 감정과 자존감, 그리고 스스로 지키고자 한 노년의 존엄을 주목한 것이었다.

시노다 세츠코는 『장녀들』의 세 편의 소설을 통해, 과거의 맏아들 못지않게, 현대적 가정에서 큰 책임과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큰 딸의 처지를 묘사하고, 그녀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동시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만 드러날 수 있는 미묘한 감정 관계를 세밀하게 드러내려 하였다. 다시 말해서, 간병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상호적 영향,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집 지키는 딸」에서 어머니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져 '요개호' 대상자, 즉 밀접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되게 되었다. 큰 딸 나오미는 어머니에게 단지 골다공증과 거동 불편의 문제 이상의 심각한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된다. 어머니는 밤마다 환각에 시달리는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다. 동생 마유코에 비해 학창시절부터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성공적 생활을 하던 나오미는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질병으로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 나오미가 생각지 못한 것은, 어머니가 자립하지 않고 늙어갔다는 점이었다. 나오미는 어머니가 나이 아흔에 가까워져도 마음만은 정정하게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고 바자회나 자선 콘서트에 참여하느라 분주한 지

20 정연욱, 앞의 논문, 266~268쪽.

인의 어머니들처럼 늙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19)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은 스스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어머니였다.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 덕분에 성장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도리어 어머니가 자신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나오미도 그러했던 것이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머니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겠지만, 딸인 나오미에게도 그러했다.

역시 치매 중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거기까지는 상정한 범위 내였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했다. 하지만 그 후의 전개는 나오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받아들이세요."

누마노가 말했다. 환영을 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어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이니 가족은 그것을 이해하고 대응해야만 한다. 노인이라고 관리하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실수를 고치려 하지 말고 허용할 것. 절대 설득하려 하거나 이야기를 부정해서 자존심이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극을 주려고 새로운 걸 강요하는 것도 노인을 지치게 만들 뿐이니 역효과. 있는 그대로 노인을 받아들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모친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35~36)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을 받아들이려 하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각종 복지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그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부터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어머니는 점점 새로운 행동을 했고, 그때마다 딸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덕에 살아갈 집과 생활비는 있었지

만,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간병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보다가도 한계를 느껴 다른 이의 도움을 요청하려 하면, 어머니는 “그렇게 곱게 귀하게 키웠는데, 애정도 아무것도 없구나.”(54) 라며 타박하고 딸에게 자신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지극히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어머니의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나오미의 고통과 고립감은 더 커져만 갔다.

급기야 나오미는 동반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미쳐간다는 생각에 이를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 순간적으로 이대로 차를 돌려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을까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통증과는 이별이다. 저세상에서라면 영원히 사이좋은 모녀 노릇을 해줄 수 있었다.(54)

> 어머니는 망령이 났고, 자신은 미쳐간다. 그렇게 해서 행복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면 별로 나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어차피 자신은 망령이 나기도 전에 객사할 거라고 체념하자, 나오미의 마음은 명랑한 무기력으로 풀어졌다.(132)

나오미는 결국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처지가 될 것을 걱정하였고,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어머니의 땅에 공적 돌봄 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계획한다. 그러면서 소설은 끝을 맺는다.

「퍼스트레이디」의 게이코는 당뇨와 관련 합병증을 앓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보좌하는 일까지 담당하여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면서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

장을 이식해주어야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게이코는 어쩌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자신에게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쏘아붙일까 걱정하던 게이코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 보았다.

>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기이하게 쾌활한 표정으로 눈동자를 빛냈다.
> "네 거라면 제일 좋지."
> 귀를 의심했다. 조금 맥이 풀렸다. (219)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망설임 없이 자식에게 신장을 이식받겠다는 어머니의 태도에 게이코는 다소 당황한다. 혹시 검사 결과 적합성이 부족해 이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 "너는 내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 "엄마 몸이나 마찬가지라고?"(220)

자신이 낳은 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적합할 거라고 확신하는 어머니의 말에 게이코는 위화감을 느낀다. 게이코는 어머니를 태운 휠체어를 절벽 쪽에서 살짝 놓아버릴까하는 충동에까지 사로잡힌다. 실제로 게이코는 휠체어를 미끄러져 보냈지만, 결국 다시 손잡이를 움켜잡는다. "결국 이 어머니의 딸"일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며 게이코는 다시 병동을 향해 휠체어를 밀며 돌아온다. 간병과 장기 이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게이코는 "섬뜩한 결합체로서의 모녀관계를 어머니에게 강요받았다"(224)고 생각한다.

「미션」에서 요리코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담당해야 했던 노동의 고통을 실감한다. 아버지와 오빠가 자신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는 듯하자, 그것을 거부하고 의대에 진학한 뒤 히말라야로 의료 봉사를 떠난다. 과감한 선택이었지만, 그 이후 아버지의 고독한 죽음은 요리코에게 죄책감으로 남겨져 있다.

척박한 환경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요리코는 문명과 의료 기술이 생명을 위해, 그리고 가치있는 삶을 위해,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한다.

> "죽음에 이르는 병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일 리도 없다. 어젯밤까지 보리를 베던 사람이, 오늘 아침 야크 젖을 짜 버터를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 그중에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이들도 있지만 한순간의 일이다. '조금 피곤해. 잠깐 쉬게 해줘'라며 자리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다. 공덕을 쌓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편안한 죽음이다."(304)

마을의 약초의의 말을 듣고 요리코는 작은 충격을 받는다. 현대 의학이 수명을 연장시키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년의 시간을 늘린 것은 과연 의학의 성과였을까. 어쩌면 의학적으로는 성취일지 모르겠지만, 가치 있는 삶의 시간을 늘리기보다 돌봄의 대상과 주체 양쪽의 고통을 키워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시노다 세츠코가 『장녀들』의 세 편 소설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노년의 질병을 앓는 이들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은 행복을 나누지 못하고, 고통을 주고받으며 삶을 이어간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깝고 다정해야할 이들은 살의를 느낄 만큼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만다. 특히 그 누구보다 다정한 관계여야

할 어머니와 딸의 관계도 서로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종활(終活)'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종활'은 생명의 끝, 즉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 죽음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확산되고 있다.

시노다 세츠코의 『장녀들』에 실린 소설들은 간병의 문제와 종활에 대한 고민이 가족의 헌신이나 개인의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집지키는 딸」의 결말부에서 공적인 돌봄 시설의 필요성을 자각한 것은 노인 간병의 문제가 공공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퍼스트레이디」는 치료와 간병을 위해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문제 제기를 던지고 있다. 「미션」에서는 오직 질병의 치료와 퇴원, 그리고 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발전해온 현대 서양 의학의 성과가 어쩌면 간병 문제를 둘러싼 비극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4. 간병 소설과 간병 문화의 현실

박완서 소설들에서도 그렇고, 시노다 세츠코의 『장녀들』에서도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은 자신의 삶을, 시간과 생명을, 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한 고통은 때로 스스로 죽음에 대한 유혹에 빠져들게도 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간병 대상에 대한 살의를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일본에서 개호문학이 주목을 받는 장르로 이어져 온 것은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노년의 간병 문제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모든 세대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소설은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의 고통을 묘사하는 데에 집중했었지만,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간병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고통을 노골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때로는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때로는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노년과 간병의 문제에 대한 독자와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21]

간병의 문제를 다루는 문학은 단순한 감동이나 슬픔을 이끌어내는 독서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치열한 논쟁, 혹은 이 문제를 둘러싼 '서사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노년의 질병은 특히 죽음으로 향하는 삶의 끝에 놓여 있다. 완치나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동반자 같은 것이 노년의 질병이다. 노년의 질병에서 출발하는 서사적 상상력은 사실 '죽음'을 벗어나기 어렵다.

박완서의 소설들과 『장녀들』이 보여주는 간병은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간병이다. 그리고 간병이 온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남겨지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특성과도 관련 깊은 것으로 보인다. 부끄러운 치부까지 모두 드러내야 하는 노년 간병의 특성상, 그것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집 지키는 딸」에서 나오미의 어머니의 생각처럼 말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가족에 의한 노인 간병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경우들 중 일부의 사례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다. 본 논문 도입부에

---

21 『장녀들』의 번역자이기도 한 안지나는 일본 개호문학의 역할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있다고 보고, 우리 문학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한다.
안지나, 「개호문학의 계보와 죽음-사에 슈이치(佐江衆一)의 『황락(黃落)』(1995)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45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317~345쪽.

서 인용한 사건 사고의 유사 사례들이다. 간병인이 간병의 대상을 죽이거나, 동반 자살을 하는, 이른바 '간병 살인'이라는 경우이다.

『간병살인』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의 취재진들이 2010~2014년 사이 5년 동안 일본에서 일어난 간병 살인 중 재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계자를 취재할 수 있었던 44건의 사건을 취재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다.[22] 마이니치 취재진이 245명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가 살인을 생각하거나 동반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70%의 사람은 간병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23]

이와 비슷한 취재 기획이 한국에서도 진행되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2018년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8회에 걸쳐 내놓았다. 2006년부터 10여 년간의 간병살인 관련 판결문과 자살사망자 사례 분석을 거친 결과였다. 2006년 이후 간병살인 가해자 수는 154명, 희생자수는 213명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달 한 명 이상 간병살인이 벌어지고 있었다.[24] 292명의 가족 간병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진단을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인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비율이었다.[25]

일본과 한국의 취재 내용들은 흉악한 심성을 지닌 범죄자들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눈물 나도록 가슴 아픈 평범한 가족들의 사연이었다. 가족 간병인들은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기 마련이었다. 돌봄의 대상인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간병살인이 그로 인해서 변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 모두 간병 살인은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가해자 감형 대상이 된 경우가 많

22 마이니치 신문 취재반, 남궁가윤 역, 『간병살인』, 시그마북스, 2018, 55쪽.
23 마이니치 신문 취재반, 위의 책, 215쪽.
24 유영규 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25쪽.
25 유영규 외, 위의 책, 101쪽.

다. 한국의 경우, 108건의 간병 살인 사례 중 절반 이상이 판결문에 명시적인 감형 사유를 적시하고 있었다. 그 중 50건은 유족의 선처 호소를 사유로 들었다. 물론 이때 그 유족은 피해자의 가족이자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경우이다.[26]

일본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간병보다 재택 간병, 가족 간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정책을 펴고 있다.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 재택 간병, 방문 간병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27] 하지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한국과 일본의 실정에서 이러한 방향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70대의 자식이 90대의 부모를 간병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이 밝고 희망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놓고 있다. 공적인 대책과 시설,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요양 서비스의 공적 강화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요양(療養)이란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휴양하며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혹은 환자)들은 '병의 치료'가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퇴원이 곧 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한 것을 보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매일 요양병원에서는 평균 240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600여 명이 사망한다고 한다.[28] 요양원에서의 사망자 통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응급 후송되어 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요양병원

---

26 유영규 외, 위의 책, 172쪽.

27 마이니치 신문 취재반, 앞의 책, 223쪽.

28 김정현, 「정은경, "접종 무관 65세 이상 사망 600명, 인과성 신속판단」, ≪뉴시스≫, 2021.3.22. (https://news.v.daum.net/v/20210322153404066)

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29] 노인들 절반 정도는 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은 일종의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 된 셈이다. 요양시설 자체가 비극이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 제도에 대한 요청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2020년 9월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는 8조원을 돌파했다.[30] 2018년 8월 현재, 전국에 요양원은 3328곳, 요양병원은 1548곳[31]이 있다. 그러나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들에 대해 해마다 심사를 진행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어느 정도 선택의 도움이 되고 있다. 등급이 높은 곳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크게 높거나 장기간 대기를 해야 입소를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장기요양보호사는 150만 명에 이른다. 환자와 보호자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간병인인 장기요양보호사들 역시 불만이 많다. 가족도 힘겨워하는 간병의 업무를 하며 강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재가요양의 경우에는 간병 업무 외의 '가사도우미' 역할까지 떠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32] 가족이 스스로 가족 간병인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가족 간병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9 요양원에서의 사망자 통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응급 상황 발생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이고, '사망확인서'는 의사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원에는 상주 의사가 없다.

30 김은영,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8조원 돌파」, ≪청년의사≫, 2020.9.3.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492

31 유영규 외, 앞의 책, 180쪽.

32 유영규 외, 앞의 책, 183쪽.

5. 나오며

아툴 가완디는 질병과 노화의 공포는 단순히 생명의 소멸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고립과 소외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33] 가족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공포를 한 개인이나 가족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일본의 개호소설들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지점이며, 새로운 서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전망을 세워야할 출발점이다.

요양시설이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 한계가 뚜렷하고 극복해야 할 부분도 많다. 현재 요양시설들은 중증의 만성질환을 앓거나 죽음이 멀지 않은 고령의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치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상태의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 되곤 한다. 그러다보니 안전과 규칙이 중시되기 마련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심신의 휴식과 여유가 보장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가완디는 요양원은 '안전'하지만, 그 때문에 평범하고 보통의 삶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고 말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다. 가족 간병인들이 절망하고 심지어 간병 살인 충동에 빠지는 이유는 간병의 서사가 낙관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힘든 '비관적 서사'이기 때문이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서사에 갇힌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에 빠져들고 충동적인 판단에 현혹되기 마련이다. 한 며칠만의 휴식이라도 주어지길, 그리고 아이보다 단 며칠이라도 더 살기를 꿈꾸는 중증장애인의 부모 이야기를 듣곤 한다. 치매 노인을 간병하며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간병 가족의 이야기들을 보곤 한다. 그들에게 완치의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잠시 삶의 여유를

33 아툴 가완디, 김희정 역, 『어떻게 죽을 것인가 :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부키, 2015, 227쪽.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요양제도의 확산, 그리고 국가와 시설의 개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역시 안심하고 환자를 맡기기 어려운 현실에서, 감염의 확산도 막으면서 보호자와의 소통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제도와 기술, 시설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가완디는 '좋은 죽음'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34] 아직은 비현실적인, 말 그대로의 상상일 뿐이지만, 다음의 사례는 '서사적 상상력'에 있어서의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여름 MBC에서 방송된 시네마틱드라마 <SF8 - 간호중> 편에서는 휴머노이드 형태의 간병 로봇이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소통하는 내용이 등장했다. 이 드라마 속의 로봇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터무니없는 공상에 불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말동무나 투약 시기를 알려주는 보조적 역할로서의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이미 활용되고 있다. 2014년 EBS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영화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는 치매 노인들의 우울증과 분노를 덜어주기 위해, 추억이 담긴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간병의 서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서사가 되곤 한다. 오히려 적극적인 서사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다. 그 상상력의 전망 앞에서 생명의 유한함에 대한 겸손한 존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란 질병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질병으로부터 분리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을 필요도 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분리되어야만 의료적 진료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노인의 요양이나 간병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시간 끌기이거나 기다림일지 모른다. 오히려 간병 살인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간병 역시 환자의 질병 못지않은 고통이

34 아툴 가완디, 위의 책, 373쪽.

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간병은 고통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간병 문학과 개호 문학을 통한 우리의 서사적 상상력이 따뜻한 기술적 시도들, 그리고 사회적 관심들과 결합되기를 기대해본다. 초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간병의 서사는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일 수 없다. 그러한 간병의 서사가 지향해야 할, 절망이 아닌, 죽음이 아닌 희망적 상상력의 방향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완서, 「엄마의 말뚝2」, 『대범한 밥상 : 한국문학전집3』, 문학동네, 2014.

_____, 「친절한 복희씨」, 『그리움을 위하여: 박완서 단편소설전집7』, 문학동네, 2015.

_____, 「포말의 집」, 『배반의 여름: 박완서 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2011.

_____, 『나를 닮은 목소리로』, 문학동네, 2018.

시노다 세츠코, 안지나 역, 『장녀들』, 이음, 2021.

2. 논문 및 단행본

김미영, 「소설에서의 치매 서사의 수용」, 『국어문학』 63호, 국어문학회, 2016, 231～255쪽.

김소연,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식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김은정, 「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1집, 2012, 한국문학회, 303～327쪽.

_____,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70집, 2015, 한국문학회, 293～332쪽.

김지혜,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 표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53～80쪽.

김혜경, 『노년을 읽다: 박완서 소설로 읽는 노년의 삶』,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_____, 「서사적 상상력의 작용 방식 연구」, 『문학교육학』 14호, 2004, 193～216쪽.

마이니치 신문 취재반, 남궁가윤 역, 『간병살인』, 시그마북스, 2018.

박산향, 「박완서 소설의 치매 서사와 가족 갈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학사회과학연구소, 2018, 347～370쪽.

박윤재, 『한국현대의료사』, 들녘, 2021

유영규 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 : '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권 1호, 2018, 285～321쪽.

이영아, 「문학작품에 나타난 한국 현대 의료의 현실 :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학과학연구』 3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5～92쪽.

임옥희, 「서사적 상상력 : 인문학적 페미니즘의 가능성」, 『탈경계인문학』, 제5권 3호, 2012, 5～29쪽.

정연욱, 「일본 '개호소설'의 구조연구」, 『일본어문학』 제70집, 2016, 253～273쪽.

아툴 가완디, 김희정 역, 『어떻게 죽을 것인가 :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부키, 2015.

3. 기사

김선영, 「치매 父 간병살인 아들, 항소심도 징역 3년」, ≪세계일보≫, 2021.3.18.
김은영,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8조원 돌파」, ≪청년의사≫, 2020.9.3.
김정현, 「정은경, "접종 무관 65세 이상 사망 600명, 인과성 신속판단」, ≪뉴시스≫, 2021.3.22.
김진경, 「'좋은 죽음'인가 '좋은 삶의 실패'인가」, ≪시사IN≫, 702호, 2021.3.6.
안태훈, 「암, 심장병 투병 노부부 동반 추락사, 부인 옷에 유서」, ≪JTBC≫, 2019.9.9.
이승훈, 「30년 시행 착오 일본…… 한국엔 고령화 반면교사」, ≪매일경제≫, 2021.6.9.
홍혜림, 「억지로 잠자는 노인들 ... 요양병원에 무슨 일이」, ≪KBS≫, 2020.9.10.

| Abstract |

Elderly Care and Narrative Imagination

Through Korean and Japanese Nursing Novels

Choi, Sungmin | Kyung Hee University

Korea and Japan have entered super-aged societies. Nursing for the elderly is no longer limited to some individuals' family problems. Caring for the elderly or seriously ill is a very difficult task. As the chances of the elderly fully recovering from their health are not great, the length of time they need care is increasing. A hopeless outlook exacerbates pain and conflict. The pain of nursing is magnified into conflict with the patient and conflict with the medical staff.

It is difficult for anyone to fully understand the pain of caring until they actually experience this reality. It is difficult to escape from pessimistic despair when the painful reality is real. We can imagine the pain of caring through literature dealing with the pain of caring. In P*ark Wansuh*'s novels, we can find many descriptions of the pain, violence, and loneliness experienced in caring for patients. “Mom’s Stakes 2” and “House of Foam” are representative examples. Nursing novels in Japan turned the narrative of nursing into a genre. <Eldest Daughters> by Setsuko Shinoda realistically depicts the pain of nursing, which is an excessive burden on the family. By reading these novels, we can guess the pain of caring, and we can imagine the prospect of reducing the pain of caring through narrative imagination.

Through the nursing literature, we expect our narrative imagination to reach a brighter prosp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nursing culture. In the age of super aging, the narrative of nursing is never irrelevant to m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hopeful direction that the narrative of nursing care should aim through through narrative imagination.

Key words : Nursing care, Caring murder, Convalescence, Narrative imagination, Dementia, *Park Wansuh*, Nursing novel

논문접수일: 2021.07.15. 심사기간: 2021.07.16.~08.05. 게재확정일: 2021.08.10.

『비교한국학』 리뷰

한국학의 정의와 방법에 대한 고찰

김경일 저,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 비교 역사의 시각』의 서평

전훈지

10.19115/CKS.29.2.3

한국학의 정의와 방법에 대한 고찰

김경일 저,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 비교 역사의 시각』의 서평

전훈지*

1. 들어가며
2. 미국의 지역연구와 미국학
3. 조선학의 기원과 형성 과정
4. 한국학의 형성 과정과 그 정의
5. 결론을 대신하며

| 국문초록 |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 비교 역사의 시각』은 한국학(조선학)의 기원과 개념을 정리하며, 미국의 지역연구와 미국학과의 상관성과 차별성을 서술한 책이다. 필자는 미국의 지역연구의 기원과 그 전개과정을 개괄하면서 동시에 '미국적인 것'과 '미국의 정체성'이 미국학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주요 논쟁들을 분석하면서 설명하였다. 특히, 이 책은 1950~1960년대의 한국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에서 각각 고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괄하였다.

미국이 미국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 나간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일제 식민 지배라는 근대와 서구의 근대라는 두 개의 타자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규정해야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했다. 그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토대로 한국학은 형성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의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유학파 출신의 학자들은 서구라는 근대화의 타자로서 전통을 이야기하고, 국내파 학자들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의 대항으로 전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문·사·철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과 서구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회과학과의 대립구도도 한국학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즉, 한국학은 식민사관과 서구식 근대화의 대립,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대립, 개성기술과 법칙정립 즉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대립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조선학(조선적인 것)과 한국학(한국적인 것)의 또 다른 특징은 각 시대의 지배 권력에 의해 그 정체성이 적극적으로 소환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있었던 국가 권력에 의한 한국의 정체성 연구도 이 책을 통해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것과 한국학의 정의에 대한 질문과 방법론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그 해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서, 한 사람의 독자로써 한국학의 기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한국학, 미국학, 지역연구, 본질주의, 역사주의, 안재홍, 김수영

1. 들어가며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1](이하, 『한국학』)의 저자 김경일은 사회학자로 한국의 근대성의 개념과 그 정의를 오랜 시간 탐독해왔다. 그의 다른 저서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2003),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2004),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2012) 등의 도서 목록만 보더라도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에 대한 그의 연구가 얼마나 오래, 깊이 이어져 왔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질문과 대답이 현재진행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학』은 저자의 지난 연구가 압축적으로 정리된 결과물로 보인다. 책의 서두에는 저자가 한국학까지 오게 된 지난 과정이 소략되어 있다. 미국의 지역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미국으로 건너가 시작한 연구의 내용 및 과정, 그리고 귀국한 뒤 그의 거취 등의 서술을 통해 저자의 지역연구와 한국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학』은 미국의 지역연구와 조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학의 형성 과정을 풀어내고 있지만, 뚜렷한 저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에 지역연구에 대한 저자의 연구 및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등 지역연구의 대표격 이론가들의 글을 함께 엮은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의 머리말을 참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1990년대의 문민 정부의 학술 정책에서 새롭게 등장한 두 가지 주제로 한국학과 지역연구를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학과 지역연구는 언뜻 보기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의 분과 학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이 두 주제는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지식의 프로젝트”라고 설명한다.[2] 저자의

---

1 김경일,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이하 인용 시에는 면수만 표기함)

2 김경일,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학과학사, 1998, 8면.

이 생각은 이후의 연구 성과물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학』에서도 이 두 주제의 적절한 상호보완적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학'이 현재진행형의 질문이자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적인 것의 실체에 대한 물음은 그 자체로서는 답이 없는 질문이며, 늘 일정한 전제와 제약을 지닌 시대 현실에서 일정한 양식의 표상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어느 시기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불변의 실체로서 한국적인 것을 보는 견해를 본질주의(essentialism)라고 부른다면,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역사주의(historicism)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264면)

인용문은 『한국학』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이자 답이다. "한국적인 것의 실체에 대한 물음은 그 자체로서는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정의는 이 책의 주제이자, 저자가 지난 오랜 시간 한국의 근대성을 이해하고 한국학을 분석해 온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학』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지역연구의 개괄이 4장과 5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2장, 3장에는 한국 근대의 기원과 함께 조선학이 어떻게 시작되어 식민지시기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6장과 7장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전통에 대한 연구자들의 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해방 이후 사회에서 형성된 한국학의 개념과 그 범위를 짚어보고 있다. 8장에서는 한국학의 개념과 그 대상 범위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3] 즉, 이 책은 개화기 시대부터 최근의 k-pop 열풍까지

---

3 각 장의 제목은 이 책이 어떤 방식과 소주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2장 한국 근대 형상의 기원, 3장 조선학의 형성과 실천, 4장 비교 시각과 자국 연구, 5장 미국학과 미국의 정체성 논쟁, 6장 한국의 전통과 민족, 민중, 7장 근대 주체성의 등장과 전통의 변용, 8장 한국학의 성립과 모색이다. "한국학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독자라면 다른 장은 생략하고 3장과 7~8장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있다면 비교 시각에서 미국의 사례를

한국학 또는 한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통시적 접근과 각 시대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시적 접근이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해설서로 여겨진다. 『한국학』은 비교 연구의 시각에서 한국학에 접근하였다. 미국의 지역연구의 통시적 고찰은 한국학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거칠게나마 미국의 지역연구를 통시적으로 이해하면서, 저자의 해설을 따라 조선학과 한국학의 형성 과정과 그 개념, 범위를 정리하고 한 사람의 독자로써 궁금했던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덧붙여, 『한국학』에서 두드러지는 두 인물, 안재홍과 김수영에 대한 저자의 논지를 함께 살펴보며, 한국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2. 미국의 지역연구와 미국학

지역연구는 선진국이 제삼세계를 연구하는 경우나 제삼세계가 선진국을 연구하는 경우나 연구자가 처한 국가의 맥락에서 각자의 이해를 반영한 실용적 학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지역학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학문을 지향한다. 지역학은 사회문화의 보편적 법칙에 대한 사회과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한다.[4]

논의한 4장과 5장을 건너뛸 수도 있을 것이다."(11~12면)라는 저자의 안내를 참고하여, 본 고에서는 이해와 서술의 편의를 위해 미국의 사례를 먼저 서술, 조선학과 한국학에 해당하는 2장과 3장, 6~8장을 후술하였다.

4 이현송, 「타자로서 미국 연구하기」, 『영미연구』 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미연구소, 2003, 171면.

비교 연구의 시각에서 편의상 미국이 유럽 이외의 지역을 연구하는 것을 지역학, 미국이 미국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을 미국학이라 했을 때, 지역연구의 특징은 위의 인용문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학 또는 지역연구는 각 국가의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목적과 대상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국학』의 4장 비교 시각과 자국 연구는 미국 내 지역연구의 기원과 미국의 자국 정체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 기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반면에 5장 미국학과 미국의 정체성 논쟁은 미국학의 주요 쟁점들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비교 서술하였다. 저자가 『한국학』을 조선학 – 미국학 – 한국학으로 구분 지은 이유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데, 한국 내에서 필연적으로 미국식 근대화를 수용한 한국적 특수성과의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지금까지의 미국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치외교, 사학, 문학의 소설, 그리고 문화의 영화와 같은 소분류"가 "한국의 미국학 연구의 핵심적인 요소, 혹은 연구 분야"[5]라는 실정에서 보다 학술적인 한국학과의 비교 연구의 시각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한국에서의 미국학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학이나 일본학과가 갖는 전문성과는 달리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오래 생활했다는 이유로 연구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지역에 대한 연구자들이 결집하여 학문적 교류를 하는데 방해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사회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부족"하고 "학문 분야간의 통합적 교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지역학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방법론적인 측면에

5 김영훈.유현주.정준하, 「한국에서의 미국학: 『미국학논집』에 대한 정량 분석」, 『미국학논집』 47(2), 한국아메리카학회, 2015, 66면.

서의 학문적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항상 발생"하며,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정책지향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라 연구의 방향과 목적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6] 한국에서의 미국학 연구가 가진 이상의 한계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학』은 미국 내 지역연구를 통시적으로 개괄함과 동시에 주요 논쟁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논란을 파악할 수 있는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저자의 서술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미국의 지역연구와 지역학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저자는 앞선 2장에서 조선학의 기원을 추적한 것처럼 미국 내 지역연구의 기점을 서술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에서 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1800년 이후의 시기부터 시작되었다.[7] 해외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선교사나 상인 등이었으며, 학계와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외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국의 경우에도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 과정에서 선교사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115면) 그리고 이후, 이들-선교사와 그들의 자녀들-은 해외 지역연구 연구소의 중요한 일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 시기 지역 연구의 특징은 조선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비전문으로서 개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학 제도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대중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116면)

---

6 류두하, 「한국에서의 미국지역 연구현황과 과제」, 『국제학논총』 7,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3, 180~181면.

7 저자는 일찍이 다른 연구에서 미국의 지역연구를 네 시기로 나누어 고찰했었다. 『한국학』에서도 이 시기 구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시기는 "(1) 1800년 무렵부터 1900년에 이르는 지역연구의 전사기, (2) 1900년대 이후 제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1941년 무렵에 이르는 지역연구의 형성기, (3) 1941년 이후 전쟁기를 거쳐 1973년 무렵에 이르는 지역연구의 발전기 (4) 1973년 무렵 이후 최근에 이르는 지역연구의 재정립기"로 나뉜다. 김경일,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3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6, 223면 참고.

19세기 후반, 미국의 대학은 '학술 혁명(academic revolution)'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으면서 1920년 즈음부터는 미국 지성계의 중심이 되었지만, 지역연구는 하나의 분과로 인식되지 못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역사학이 지역연구를 도맡고 있었다.(118면) 지역연구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일종의 수요부족 현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면서 지역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역연구의 중심이 군부에 있었고, 대학 및 학계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은 미국의 지역연구와 미국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121면) 이 시기에 미국 내에서는 제2차 학술혁명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해외 지역연구의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1960년대에는 지역연구가 미국 내 대학과 학술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8] 그러나 전후의 지역연구는 새로운 창구를 모색해야만 했으며, 전후의 미국은 전쟁의 승리로 세계의 중심인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전통적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생각이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지역연구는 '현대'라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125면) 전성기를 맞은 미국의 지역연구의 배

8 이 시기의 미국 내 지역연구의 폭발적 성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지역연구는 오리엔탈리스트의 인식과 유산을 갖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그에 따른 미국중심의 세계재편 과정에서 태어났다. (중략) 미소간의 냉전 발생 속에서 그에 따른 미국의 반공주의와 공산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을 위해 태어난 것이 미국의 지역연구이다. 따라서 194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의 지역연구는 애초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미국정부의 정책적 고려 속에서 성장, 발전했고, 많은 지역연구자(area specialist)들도 그러한 구조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많은 급진적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학문과 (지배를 위한) 권력의 비정상적 결합 속에서 태어난 것이 미국의 지역연구이다." 황동연은 지역연구자들도 일종의 오리엔탈리스트라고 지적하면서 전지구화 현상이 오리엔탈리스트 스스로의 지역연구를 재고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전지구주의자들의 지역연구에 대한 비판은 전지구주의자들 스스로 지역연구를 대신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오리엔탈리스트 및 미국지역연구의 기원에 대한 비판이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보았다. 황동연, 「21세기 전야 미국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운명-전지구화와 그에 따른 지역연구의 방향에 대한 미국학계의 비판적 논의-」, 『동아시아역사연구』 6권, 동아시아역사연구회, 1999, 194면 참고.

경에는 냉전체제의 성립, 포드 재단(Ford Foundation)과 같은 민간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일부 연방 정부의 지원 그리고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미국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미국 대학의 성장 등의 원인도 있었다.(130면) 그러나 1967년부터 포드재단의 지원 중단과 결정적으로 베트남전은 미국 지역연구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미국 국내의 사회 문제가 급증하면서 지역연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132면)

> 지역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는 자체의 논쟁점을 포괄하고 있었다. 하나는 지역과 분과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개성기술(idiographic) 대 법칙정립(nomothetic), 또는 인문학 대 사회과학의 접근 방법을 둘러싼 방법론 논쟁이었다. 지역연구에서 지역과 분과의 대립은 특정한 지역이나 문화, 또는 지역에 전문화한 연구자들(area specialists) 및 일반적·분과 지향의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discipline generalists)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134)

위의 인용 부분은 미국 지역연구의 방법론 논쟁에 대한 설명이다. 이상의 방법론 논쟁은 후술할 한국(조선)의 지역연구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라 할 수 있다. 분과 보편주의자들은 지역 연구자들이 지역의 상세성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지역 연구자들은 분과 보편주의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역연구의 초기 시점에는 지역 연구자들의 논의가 우세했지만, 지역연구의 성장과 함께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보편지식을 주로 추구하게 되었다.(135)[9]

---

9 개성기술과 법칙정립의 대립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대응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적인 것을 찾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문·사·철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과 서구에서 유입된 사회과학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 글의 다음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학 즉, 미국의 정체성 연구는 미국의 지역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학』의 4장에서 5장으로 연결되는 미국의 정체성 연구를 통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특수한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주의(Americanism)라는 개념을 필두로 특히 1930년대 이후에 미국학(American Studies)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심성(American mind)이나 국민성(American character), 미국의 정체성(American identity)이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미국의 정전(American canon)이나 미국의 신조(American creed), 혹은 미국의 합의(American consensus)와 같은 표현들은 보수 학계와 일정한 친연성"을 갖기도 한다.(150) 19세기 이래 국가 정체성은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미국학의 급속한 발전은 "냉전과 이로 인한 미국의 부의 축적의 산물"이었다. 외부적으로 인디언과의 전쟁, 영국과의 독립전쟁, 멕시코, 스페인, 필리핀과의 전쟁을 거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1950~1960년대였다. 민주주의 나라 혹은 세계 평화와 자유의 수호라는 미국을 규정하는 어떤 것이 전세계의 동의를 구하게 된 계기는 양차 세계대전을 거쳐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소련과 중국, 동유럽에 대한 전략적 연구를 진행한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역연구 및 내적으로 제국을 경영하는 강대국의 학문을 창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10]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가 정체성은 문화의 동일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자기 보호와 방어를 강요하는 미국주의의 양식을 발전"시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려고 했지만,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의 시민권 운동과 베트남 반전운동을 이끈 주요 활동

---

10 권석우, 「미국학(미국문화연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하여 : 패링턴으로부터 신화상징학파, 새로운 미국학에서 다문화주의에 이르기까지」, 『미국학논집』 37(3), 한국아메리카학회, 2005, 220~221면.

가들”이 정부의 이념을 문제시하였고, “미국인이 하나의 성격이나 관념의 통일된 집합, 혹은 동일 역사를 공유한다는 견해를 거부”하며, 국가의 다양성 “즉, 이민자들, 흑인들, 노동자들, 이들 각각의 여성들의 실체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였다.(144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국가 정체성 연구는 “지식체계의 중심 흐름을 형성한 다원주의와 다양성의 개념”으로 진행되면서 “미국식 예외주의”[11]는 주변화되기 시작하였다.(145) “예외주의는 더이상 미국의 순수함과 명백한 운명을 감싸주는 이데올로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바로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는 상징적 개념으로 전락”한 것이다.[12]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리건(Ronald Reagan), 앤더슨(Benedict Anderson), 홉스봄(Eric Hobsbawm) 등에 의한 민족주의적 문화와 이데올로기로서 미국주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145)

『한국학』은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정체성의 특징과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서술되는 부분은 “리스먼(David Riesman)-벨라(Robert N. Bellah)로 이어지는 한 흐름과 로스토우(Walt H. Rowtow)-립셋(Seymour Martin Lipset)”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립셋은 정치사회학자이며, 벨라는 종교사회학자이다. 두 사람의 논의는 학계를 비롯하여 대중의 차원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리스먼-벨라로 이어지는 흐름은 “연대와 집단의 전통에 기반한 미국의 가치가 붕괴하면서 시장과 조직의 지배에 따라 세속화되어 가는 미국의 가

---

11 미국식 예외주의 또는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처음 지적한 사람은 프랑스인 토크빌(Ales Tocquevile)이었다. “그는 1831년 미국을 방문하여 유럽 사회가 신분 중심 사회인 것과 구분하여 미국을 ‘예외적’이라고 표현했다. 토크빌은 미국의 국가 구조,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그리고 종교 제도에 주목하며 미국이 지닌 특별함이 미국적 민주주의의 성공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적 예외주의는 미국의 사명감을 부각시킬 때나, 변방이론을 통하여 미국적 민주주의 발전을 설명할 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진희, 「미국적 예외주의, 혹은 ‘좀바르트식 질문’에 대한 재고찰」, 『미국학논집』 36(2), 한국아메리카학회, 2004, 97면의 각주 3) 참고.

12 권석우, 앞의 글, 239~240면.

치를 비판"하였고, 파슨즈(Talcott Parsons), 로스토우에서 립셋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성취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의 가치는 불변이라는 전통의 독자성과 연속성을 주장"하였다.(15) 미국학은 이와 같은 쟁점들 사이에서 "전체적 문화관과 다원적 문화관이라는 두 가지의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학』에 서술된 미국의 지역연구 및 미국학의 특성과 전개 과정에 대한 내용이 갖는 의미는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는 한국적 특수성과 미국적 특수성의 단적인 차이와 미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리스먼(David Riesman)의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1950)이 사실은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출간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보편'을 표방하는 하나의 교과서처럼 수용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15) 더불어 최근의 한국학의 흐름에서 '한국적인 것'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과정 - 예를 들면, BTS를 비롯한 K-pop은 '한국 음악'이라기 보다는 한국에서 기획된 내지는 한국에서 유래된 음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처럼 한국적인 것이 꼭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논의들 – 처럼 미국 역시 미국학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전지구화의 맥락에서도 유의미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아쉬운 것은 4장과 5장에 걸친 미국학의 형성 과정과 주요 논쟁들의 쟁점이 너무 방대한 분량이었던 점이다. 저자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의 양이 요약되기에는 두 개의 장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미국의 지역연구와 미국학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미국학의 정체성이 단일화된 민족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3. 조선학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한국학』의 2장 한국 근대 형상의 기원은 타자로서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짚으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었던 식민지시기 조선학의 시작을 분석한다. 이 책에서의 시기 구분은 다소 모호한데, '개항기' 또는 '근대 이행기'라 지칭되는 개화기와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식민지시기가 섞여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이 개화기를 거쳐 식민지시기까지, 또는 식민지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그 연구가 지속되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이 대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근대 이행기에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 외교관, 상인 등의 서술들에 의해서였다. "이방인에 의한 서술"을 통해 조선적인 것의 기원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미개지'를 바라보는 "서양의 시선은 다분히 편견와 오해를 담고 있으며, 일정 부분 비난과 부정이 주를 이루게 된다."(47면) 서양 자신을 위한 동양의 관찰 즉, 타자의 관찰을 통해 조선(또는 조선학)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선 안에 있는 권력 정치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이와는 반대의 맥락에서 한국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는 1888년 10월부터 1889년 사이에 중국 옌타이를 거쳐 제물포에 도착하여 조선의 내륙지방을 직접 여행한 프랑스의 바랏(Charles Varat)과 1901년 6월 중국을 거쳐 제물포로 들어와 11월 초까지 대략 6개월에 걸쳐 서울과 강원도 당고개 금광, 금강산을 횡단한 이후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한 독일의 겐테(Siegfried Genthe)이다.(49~50면) 이들은 자신의 문화 기준으로 한국인의 불결함과 낯섦, 기이함을 언급하며, 앞서 언급한 서구 중심의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서술은 암묵적인 백인우월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편견과 부정을 반박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서구인의 시선을 통해 타자화된 조선의 모습이 조선(또는 조선학)을 인지하게 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인의 부정적인 시각은 이후, 서구를 통해 근대화를 학습한 조선인 지식인과 일본에게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서구의 근대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조선의 지식인이나 일제강점기의 지배층인 조선총독부의 가치관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근대 이행기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윤치호(尹致昊, 1865~1945)이다. 그가 쓴 일기가 갖는 의미는 자국민에 의해 타자화된 최초의 시선이라는 점이며, 그가 드러낸 조선에 대한 혐오와 환멸은 결국 서구의 동양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윤치호가 갖는 인식은 이후 일제강점기 식민 권력의 전형으로 발전하며, 조선 민족 스스로에 의해 재현된다.

흥미로운 것은 윤치호가 보여준 태도가 이후 식민지시기의 지식인층에서 확대 재생산된다는 사실이다. 식민지시기의 일부 지식인층 이른바, 민족주의 우파 지식인들은 조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구습타파와 문명개화를 위한 계몽과 개조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정>의 작가 이광수이다. 민족의 계몽을 부르짖었던 이광수는 여러 논설을 통해 조혼 등 구습타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의 논설은 봉건적 질서에서 비롯된 구습을 개화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그 구습이 타파되면 문명의 질서가 회복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광수의 주장이 갖는 한계는 그가 계몽의 성패를 구습타파에 달렸다고 전제했기에 문명개화의 과정을 직접 상술하기보다 구습에 대한 비판에 주력했다는 점이다.[13]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과 유사한 지점에 있는 다른 사람은 최남선이다. 최남선은 '조선학'이란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는데, 1916년 10월 24일부터 1917년 1월 16일까지 연재한 『江戶繹書記』와 『東都繹書記』에 처음 등장한다.[14] 1919년 3.1운동 이후 최남선의 조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극대화되었고, 이후 2년 8개월의 수감생활을 거치면서 조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15] 최남선이 역설한 민족 개조의 필요성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그 결이 유사하지만, 모든 구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이광수와는 달리 최남선은 민족성에 방점을 찍고 긍정적인 민족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최남선이 바라보는 조선인의 부정적인 민족성이 강조되면서 친일의 논리로 흐르게 된다. 이처럼 이광수와 최남선 등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부정하고 개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한 지식인들의 관점은 앞서 언급했던 윤치호의 그것과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 우파의 한계는 조선(또는 조선인)을 봉건적 질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열등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개조와 개화를 통해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지점에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일본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 권력도 비슷한 맥락에서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인의 부정적 속성이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20집, 1927)에 수록된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의 제2편의 제목은 「조선인의 성정(性情)」이다. 방종, 사치, 낭비, 사행(射倖), 게으름, 분열,

---

13 강헌국, 「이광수의 민족계몽 이론과 그 실천」, 『우리어문연구』 56집, 우리어문학회, 2016, 9면.

14 류시현,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권, 역사문제연구소, 2007, 156면.

15 "최남선은 한말 이래로 『소년』, 『청춘』을 통해 서구의 근대지식을 소개하고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소개하는 등, 조선 민족의 계몽을 염두에 둔 글쓰기를 했다. 계몽의 핵심은 민족적 자각에 있었다. (중략) 1910년대 자조와 자주정신을 서구사상의 보급으로 이루고자 했다면, 1920년대에는 이를 조선학, 특히 역사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위의 글, 162면.

형식의 추구, 부화뇌동, 모방성, 무기력, 겁이 많고 나약함, 이기적 판단, 진지함의 결여, 의뢰심과 은의감(恩意感)의 결여, 독립심의 결핍, 감각의 무딤 등 20여 가지의 부정적 속성들이 나열되어 있다. '성정'이란 말은 "가치와 성격, 감정에 대한 일정한 위계와 평가를 전제"로 한다. 감정을 바탕으로 성격이 형성되며, 그 성격이 모여 하나의 가치관을 만든다고 본 것이다. 이는 "조선의 발전 단계를 낮은 차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그에 조응하는 감정의 차원에서 조선인의 성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제국 일본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72면)

2장에서 살펴본 조선학은 그 기원이 서구라는 타자에 의해 규정된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서구=근대'라는 인식과 그 지향성은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며, 조선(또는 한국)은 미개하고 저속하며, 개화되고 근대화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줄곧 이어지게 된다.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 권력이 갖고 있었던 인식 역시나 피식민자인 조선의 지식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바, 해방 이후의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남게 된다. 해방 이후 사회에서 서구의 이론을 수용한 지식인들이 전통 자체에 대해 부정하거나, 이른바 국내파 지식인들이 식민 사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 고유의 전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학』의 3장 조선학의 형성과 실천은 저자의 「좌절된 중용-일제하 지식 형성에서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16]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관점에서 조선학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본격적인 조선학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조선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조선의 특수한 근대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

16 김경일, 「좌절된 중용-일제하 지식 형성에서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사회와 역사』 51집, 한국사회사학회, 1997(이하, 김경일1997로 표기함.)

더구나 뒤늦게 자본주의적 발전의 도상(途上)에 오르고 황급히 제국주의적 계단으로 돌입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일본 제국주의 자신이 후진국이었다는 사정은 그 밑에 예속된 조선민족의 불행을 한층 더 깊게 하였다.

일본의 조선 통치는 근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라느니보다도 고대에서 볼 수 있는 강한 민족에 의한 약한 민족의 정복의 성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로마(羅馬)에 침입한 게르만족이나 폴란드(波蘭)에 나타난 몽고족과 같이 일본은 통치자이기보다 정복자에 가까웠다.

첫째로 일본이 전래의 문화수준에 있어 조선보다 높지 못했던 것.

둘째로 자기의 문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제3자의 문화를 매개한 데 지나지 못한 것.

세째로 그런 때문에 조선을 통치하는 대신 민족적으로 동화시키고자 한 것.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 조선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지배되어 있었다느니보다 차라리 정복되어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후진성은 일관하여 36년간 조선민족의 전(全) 생활에 작용하고 있었다.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 중에서[17]

임화는 1946년 6월에 발표한「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라는 글에서 해방 이후 식민지 36년간의 식민 지배 권력이 어떤 취지와 방식으로 조선을 지배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선택한 동화주의가 필수불가결했던 상황을 지적하며 조선의 특수한 상황을 예리하게 짚어 내었다. “조선에 있어 반봉건적 투쟁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 되지 아니할 수 없었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또한 언제나 내부에 있어 봉건잔재에 대한 투쟁과 연결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18]다는 임화의 분석은 후술할 저자의 분석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식민지시기의 민족주

17 임화,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489~490면.
18 위의 글, 491~492면.

의자들은 그 이상과 주장하는 바가 달랐음에도 결국은 봉건 잔재인 전통과 식민 지배라는 상황 내에서의 근대화 사이에서 그 양 극단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한국학』의 저자 역시 식민지시기 조선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특수한 상황, 바로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짚고 있다. 일본 역시 일본적 특수성이 있었는데,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시기에 이르러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한학의 전통을 거부하고, 자민족중심주의를 고취하기 시작하면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 등장하였다. 일선동조론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하는 것이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한편으로 자민족중심주의가 고취되면서 일본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동화주의가 더 설득력을 얻었다. 일본식 동화주의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토대로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구별(차별)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동화주의 사상 자체에 내포된 계몽주의의 이념이 극대화되면서 무력을 통한 강제병합을 정당화하게 되었다.[19]

개항 이후 조선 내에서는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사학이라 불리는 국학의 흐름이 진행되었다. 이후, 1930년대에 이르러 1920년대 문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학술 운동으로서 조선학이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학이 활성화된 이유를 저자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 일제의 식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민족주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부정하고 혐오했던 전통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다. 구습타파와 민족개조는 결과적으로 식민 권력의 식민 지배 방침과 상통하는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 권력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전통의 강조가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학술 연구

19 김경일, 「일제의 식민지배와 동화주의」, 『한국사회사상사연구』, 나남출판, 2003, 354~358면 참고.(이하, 김경일2003으로 표기함.)

의 기반이 될 신진 연구자들이 학계나 언론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88~90면) 이러한 기반에서 조선학이 형성되었고, 그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조선학은 그 자체로 다양한 흐름이 있었다. 저자는 이를 타협적 민족주의(민족주의 우파)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민족주의 좌파)로 구분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서도 일부 조선학의 진흥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광수, 최남선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비판적 조선학의 진흥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제학에서 백남운(白南雲), 철학의 신남철(申南澈), 문학의 홍명희(洪命熹), 김태준(金台俊) 등이 그들이었다."[20] 1930년대의 조선학은 서로 다른 관심 분야와 주제, 이념 지향에도 이들 각각의 근대 지향성이 강했다는 점과 학문적 경계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뒤늦은 학문 발전의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칸막이로(compartmentalized) 경직된 분과 학문의 틀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이들은 사회 현실의 상호관련성을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95면)

또 다른 조선학의 공통점은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나 전지구적 상황에서나 동아시아적 상황에서 등 여러 맥락에서 '주변성'을 띄고 있었고, '타자'로서 자신을 규정지어야 했다. 이 타자성은 크게 두 가지의 맥락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했는데, 하나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제와 서구에서 비롯된 외래 사조였다. 두 맥락에 대한 대타의식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면서, 일종의 가치 판단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를테면, '박은식이나 신채호, 정인보가 강한 민족주의의 가치 지향을 보였다고 한다면 백남운과 같은 연구자들은 마르크

20 김경일1997, 87면.

스주의의 역사 유물론에 대한 헌신을 표명'하는 식이었다.(99면) 이로 인한 한계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박은식과 신채호를 시작으로 정인보, 손진태로 이어지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역사학은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식민 지배 권력이 동일한 민족주의의 원리를 사용하여 군국주의와 대동아공영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손진태는 대표적인 실증주의 역사관으로 과학적이라는 객관성을 내세우지만 그 기저에는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이론과 그 결이 다른 민족주의 사이에서 통합을 시도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안재홍이었다. 안재홍은 '신간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신간회' 활동으로 민족의 통일과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을 인정하는 열린 민족주의였다.

> 통일을 말하기 쉽되 실현되기는 용이한 바 아니니 객관적 정세에 있어서 지장되는 바 많은 것이 중대한 조건이요, 장구한 기간의 전통적인 습벽(習癖)으로서도 이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통일을 요구하는 것은 조선뿐이 아니니, 선진국가에 있어 자본과 노동,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대립이 날로 첨예해 가는 데서는, **초계급적인 종적(縱的) 통일을 기한다면 그는 공상이고, 계급적 견지와는 달라서 동일민족적 견지로서 통일을 요구하는 것**은 그 현저한 예가 많다.[21](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민세 안재홍이 쓴 사설이다. 여기서 안재홍은 "초계급적 민족 통일"과 "동일민족적 견지로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이념과 그 성격이 달라도 통합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그의 생각이 담겨 있는

---

21 안재홍, 「통일난과 통일의 요구-현하정세에 감하여」, 『조선일보』 1929년 6월 30일, 『선집』 1, 297면.(이경미, 「1920년대 민세 안재홍의 민족론과 그 추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0, 131면에서 재인용.)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같은 민족 내의 모든 계급을 아우르는 ‘계급공존적’인 의미로 발화된 주장”으로 보아야 하고, 민세가 추구했던 민족주의는 “‘반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2] 민족주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자의 서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안재홍이 “조선학의 이론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안재홍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류 사회 발전 법칙의 공통성을 강조”하였고 특수주의의 입장에 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나 역사·문화의 특유성과 독자성”에 몰입해 있었다. 양자는 민족 해방 운동의 목표와 전략 및 전술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23] 그러나 안재홍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연구에서 과학이 지니는 역할을 강조”하였고, “실천론을 강조한 사회과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였다.(315면) 이러한 안재홍의 노력은 해방 이후에도 줄곧 이어졌다.[24] 식민지시기에 민족 해방을 위해 움직였던 다양한 노선들은 서로 자신의 이념을 앞세우며 자기와 다른 민족주의 운동가들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서로 투쟁하거나 대립했기에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통합은 어려웠다. 하지만 안재홍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고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물이 1927년 2월 15일에 창립

---

22 이경미, 위의 글, 132면.

23 김경일1997, 88~90면.

24 안재홍은 해방 이후에 「순정우익의 결집」이라는 글을 쓴다. “‘순정 우익’은 공산주의와 ‘봉건적’, ‘대주적’인 ‘극우’를 배격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우익세력 즉 그의 표현에 따르면 ‘진보민족주의 세력’을 의미”한다. “안재홍은 분단 상황에서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남한의 민주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순정우익은 이를 위한 주체로 정치세력화 하고자 했다.” 류시현, 「해방 후 안재홍의 일제강점기에 관한 기억과 감성」, 『민족문화연구』 5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106~107면 참고.

된 신간회였다. 안재홍이 신간회를 창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족의 독립 과제는 민족운동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운동이란 일단 민족독립을 이룬 후의 과제이기 때문에 민족의 공동목표를 향해 공동전선을 결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25] 이러한 안재홍의 인식은 당시의 보기 드문 통합 노선으로 그가 민족주의의 여러 이념의 갈래들을 통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에 한국적인 것의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

4. 한국학의 형성 과정과 그 정의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전통과 한국적인 것의 의미가 어떻게 자리 잡아 갔는지를 『한국학』의 6~8장을 읽으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식민지시기의 지식인들은 한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하기 이전부터 ‘전통=반근대’ 혹은 ‘서구=근대’라는 의미망이 형성되어 있었고, “1950년대는 형식은 전통적이면서도 내용상으로는 근대적인 것이 압도한 시기”[26]였다. 미국 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이라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인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거칠게 말하면, 서구 유학파 지식인들에게 전통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자 갈아엎어야 할 봉건의 잔재였고, 국내파 지식인들에게는 지키고 보존해야 할 집착과 애정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기원을 앞선 시기의 조선학에서 찾을 수는 없다. 1950년대의 상황은 식민지시기와 다른 맥락에서 민족 주체성이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280면)

---

25 주인석, 「민세 안재홍(民世 安在鴻)의 정치노선-비타협적 민족운동과 신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9(3), 한국민족사상학회, 2015, 162면.

26 김경일2003, 「근대성의 경험과 근대주의」, 84면.

『한국학』의 6장 한국의 전통과 민족, 민중에서는 해방 이후인 1950년대의 상황을 분석한다. 해방 직후인 195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상 전통과 민족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였고, "한국의 고유성, 혹은 한국적인 것과 관련하여 전통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논의는 196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난다."(218면) 한국전쟁 이후 붕괴된 사회의 재건이라는 전 사회적 목적의식과 다른 한편에서는 기아와 궁핍에서 벗어나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뒤섞인 상황에서 전통의 문제는 대중에게 있어 관심 밖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일제에 의한 근대화와 달리 이른바 '양키문화'라 칭하는 비교적 친근하고 거부감이 덜한 서구의 근대화가 한국 사회에 급물살을 타며 들어왔다. 많은 지식인들이 앞다투어 서구식 근대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그 배경에 "봉건의 관행과 사고가 여전히 지배하던 1950년대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222면) 자유당 독재 정권이 보여준 부정 부패는 봉건의 잔재로 여겨졌다. 따라서 서구식 근대화를 통한 현실의 극복이라는 낙관론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되기도 하였다.[27] 다만, "한국 근현대사에서 1950년대가 가장 서구 지향의 시기였던 만큼 이 시기의 정치 권력이 동시에 가장 독재적이었다고 한다면, 서구 지향은 독재적인 정치 권력이나, 또는 반독재를 지향한 지식인 모두가 공유한 공통의 속성이기도 했다."(223면) 그 이유는 이 시기의 전통이 독재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전통이 이용되었는데 하나는 '권력에 의한 부정과 부패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의와 윤리가 적극 동원'되면서 1950년대의 많은 윤리강령에 충(忠)과 효(孝)를 강조하는 전통 사상과 규범이

27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친서구화는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1945년 이후에 그야말로 급속도로, 그리고 이전과 다른 강도로 '미국화'되기 시작했다. 즉 '미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 또는 '현대적인 것'으로, 그뿐 아니라 선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됐다. 미국의 제도와 가치를 베끼고 이식하려는 노력도 본격화됐다."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279면.

강조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놀이와 여가 및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전통의 활용이었다. '연날리기 대회'나 '과거시험 재현', 주택의 온돌 사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전통의 활용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서구 지향적 지식인이 많은 이승만 정권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력에 의한 '전통의 날조(invention)'는 식민지시기에 이어 이 시기를 거쳐 다음에 오는 시기로 지속하여 이어졌다."(227면) 그러나 이러한 "전통의 부활"이 지배 권력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국어와 국사, 전통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학자와 예술가들의 요청을 국가가 수용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의 의도와는 별개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전통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실제로도 여러 논의가 제기되었다.

전통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의 민족주의는 배타적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 저자는 당시 미국의 원조와 냉전체제라는 상황에 의해 한국의 특수성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식민지배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억압과 독재를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국민적 동원과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자의적으로 이용됐다. 대외적으로 보면 냉전체제를 배경으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 (중략)
>
> 냉전체제 안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시기 제3세계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의 근대성에 내포된 활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28]

저자의 이전 저서에서 1950년대의 민족주의가 배타적 특수성을 갖고 있었던 배경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언급을 인용하였다. 덧붙여, 저자는 이 시기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 정리하면서 지배계급이 선점한 민주주의의 선언은 상대적으로 지배계급에 대항했던 지식인, 학생 계층의 반발이 있어야 비민주적인 것을 인지할 수 있으나 "이 시기 민족주의의 표방은 지배블록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비민족주의적 지향을 가진 것이었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지배적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일종의 길항관계에 놓이게 됐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반민주주의적 이념으로 간주됐던 것"[29]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1950년대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52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 강의가 개설되었고, 1958년에는 와그너(Edward Wagner)가 이 대학의 한국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 외의 유럽 등지에서도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구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설령 그것이 서구의 타자화된 시선일지라도 한국 내의 한국학 연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된다.(282면)

『한국학』의 7장 근대 주체성의 등장과 전통의 변용과 8장 한국학의 성립과 모색은 1960년대와 그 이후의 상황을 논하고 있다.[30] 식민지시기의 일제에 의한 근대화와 1950년대의 서구식 근대화의 주입은 1960년대에 비로소 그 자각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에 일부 지식인들은 무조건적인 근대화 수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근대화에 대한 자각 증상은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청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4.19세대를 필두로 195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주체성 모색은 1960년대에 본격화되면서 "한국적인 것이 더 이상

28 김경일2003, 「1950년대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167면.

29 위의 글, 170~171면.

30 『한국학』의 7장과 8장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그 서술이 교차되고 있다. 필자는 통시적인 흐름으로 각 장의 내용을 시기 및 주제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았다.

과거의 낡은 전통이나 인습이 아니라 근대화를 통한 새로움과 미래 지향을 강조하는 주체성의 표상"으로 탈바꿈하였다.(242면) 이른바 "민족주체성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시기에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강조될수록 '한국적인 것'의 의미가 주목받는 상황이 조성"되었다.(245면) 그러나 '한국적인 것'이 강조되고 그 실체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기였음에도 1950년대의 모호함은 여전히 남아 있어 '한국적인 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적인 것의 실체에 대한 물음은 그 자체로서는 답변될 수 없는 질문이며, 거기에는 늘 일정한 시대의 전제와 제약이 따르는" 법인 것이다.(249면)

한편으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요청된 서구의 한국학 연구 동향이 한국인 스스로의 자아 탐구와 맞물리면서 1960년대의 한국학 연구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학'이라는 용어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자리를 잡으면서 대학을 비롯하여 일반의 범위에서도 쓰임의 빈도수가 늘어난 데에서 알 수 있다. 덧붙여, 이 시기의 특이점은 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성립이 학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지역연구가 학계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인데, 한 예로 군사 정권은 서울대학교에 한국학과를 신설하고자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학계 차원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한국학과는 신설되지 않았다.(292면)

1960년대 한국학의 쟁점은 1950년대의 독재 정권이 이용했던 '전통의 날조'가 더욱 심화되어 "국부 독재 정권에 의한 전통의 동원이 전면적이고 노골적이며 공공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260면) 한국적인 것 또는 한국학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법과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외국 유학을 통한 서구의 시각을 가진 유학파 지식인들의 시각과 이른바 국내파 지식인들의 시각 차이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홍사중,

유종호를 필두로 하는 미국 등 유학으로 서구의 이론을 익힌 지식인들은 한국적 전통에 대한 멸시와 비판을 바탕으로 전통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김지하나 조동일과 같은 국내파 지식인들은 식민 사관을 극복함과 동시에 지키고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전통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쟁점은 분리될 수 없는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통에 대한 인식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의미 부여와 그 대상 찾기가 학계와 연구자들 그리고 정부와 일반의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전통이 독재 정권에 의해 이용된 측면에서 주의할 점은 이 시기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 정책과 맞물려 한국적인 것의 수출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다른 계기도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의 등장은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 주도의 한국학 연구가 강조되기도 했는데, 이는 박정희에 의해 제창된 제2경제론과 연관이 있다. 박정희가 직접 제창한 이 정치 구호는 "국가 위기의 원인을 국민 정신의 후진성과 도덕적 해이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정신의 개조'를 제창한 정치 캠페인이었다."(307면) 서울대학교의 한국학과 설치도 이 맥락에서 시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재 정권의 초기에는 한국학의 중흥이라는 점에서 지식인과 지배 권력의 의도가 어느 부분 일치해 있었지만, 위로부터의 한국학의 강조는 그것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많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음으로 본질주의(essentialism)와 그에 반하는 역사주의(historicism)의 대립 구도를 살펴보겠다. 본질주의의 기원은 서구의 시각에서 타자화된 개화기의 윤치호나 조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구습을 타파하고 봉건적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광수, 최남선 등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식민 지배 권력이 사용했던 '조선인의 성정'들이 일부 지식인들에게 내재화되어 지식인들이 한국인의 특성으로 "분열, 무기력, 의뢰심이나 이기심, 나태, 불결함, 과장, 거짓말, 사악함"으로 구분했던 것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협동심, 사교성, 강인성, 용감함"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65면)

반면에 역사주의는 "한국적인 것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 가는 어떤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구체화한 시공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268면) 역사주의의 급진적인 예는 유종호를 들 수 있다. 그는 「한국적이라는 것 –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사상계』, 1962)에서 한국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한국적'이라는 수식어는 한국의 로컬리즘을 규정한 것으로, 문학이나 정신 측면에서의 개성이나 특수성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273면)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작가는 저자도 전통의 문제에서 언급했던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이다. 1960년대에 전통을 바라보는 두 갈래의 시선에서 빗겨난 사람이 김수영이다. 저자는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1964)를 언급하며, 김수영에게 있어 전통은 "열등감이나 설움, 후진성의 기호로 읽히는 어떤 것으로, 수치심의 대상"(254)이라고 해석하였다. 김수영의 전통을 "타자로서의 대상화나 일정한 거리 두기가 아닌 자신의 몸에 새겨져 살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것"(255)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새겨져 있는 누적된 시간을 전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김수영이라면, 그가 생각하는 전통은 민족주의나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전통의 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전통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저자의 생각에 일부 동의하나, 김수영이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전통에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나희덕은 김수영의 시 「거대한 뿌리」에 대해 "그가 발견한 '거대한 뿌리'란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스스로 고착된 전통 속에 군림하기를 거부하

는 데서 발견되는 시적 진실에 가깝다.”고 평하며,[31] 엘리어트와 테리 이글턴의 말을 인용하였다. 엘리어트의 “한 예술가의 진보란 끊임없는 자기 희생이요, 끊임없는 개성의 몰각과정”[32]이라는 말에서 ‘개성의 몰각과정’을 “전통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역사의식”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엘리어트의 이런 해석에 테리 이글턴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보수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고 비판하였다. 나희덕은 이 두 인용을 통해 “‘전통’에 대한 어떤 견해도 초역사적인 권위를 지닐 수 없으며 각기 일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주체에 의해 성립되고 형성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덧붙여 홉스봄의 “‘전통(tradition)을 가변적이면서 상징적 기능을 별로 지니고 있지 않은 ‘관습(custom)’이나 ‘관례(convention)’와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홉스봄의 이 주장이 “‘전통’이 누려온 절대적 권위를 깨뜨리는 데 도움을 주고, 특정한 전통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고 풀이하였다.[33]

김수영에게 있어 전통에 대한 감각은 4.19와 5.16을 몸소 겪으면서 체화해 낸 것으로, 작가의 후기시 특히, 그는 「거대한 뿌리」에서 전통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 (전략)
>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환(寅)네
> 처갓집 옆의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

31 나희덕, 「김수영 시에 있어서 ‘전통’의 문제」, 『배달말』 29호, 배달말학회, 2001, 91면.

32 T.S. 엘리어트, 「전통과 개인의 재능」, 황동규 편역, 『엘리어트』, 문학과지성사, 1978, 148면(위의 글, 92면에서 재인용.)

33 위의 글, 92~94면.

이 우울한 시대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숍 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놋주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중략)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 제3인도교의 물 속에 받은 철근 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좀벌레의 솜털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괴기영화의 맘모스를 연상시키는
까치도 까마귀도 응접을 못하는 시꺼먼 가지를 가진
나도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대한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 「거대한 뿌리」(1964.2.3.) 중에서[34]

김수영이 「거대한 뿌리」에서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라는 시구

34 김수영, 「거대한 뿌리」(1964), 『김수영 전집1; 시』, 민음사, 2010, 286~287면.

를 통해 의도한 바를 그의 산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시에서 '전통'과 '역사', '진창'이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데 김수영의 이면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전통에 대한 집착은 자칫 민족주의로 귀결될 수 있지만, 김수영은 보존해야 할 전통이나 더러운 전통이나 그 모든 것을 안고 가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거대한 뿌리」의 발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김수영은 시에서 쓰인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곰보, 애꾸" 등의 어휘를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칭하며 민족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 그러나 이런 향수에 어린 말들은, 현대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의 정의——즉, 쾌락의 정의——가 바뀌어지듯이 진정한 아름다운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열거해 보았대야 개인적인 취미나 감상밖에는 되지 않고, 보편적인 언어미가 아닌 회고 미학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고작이다.
>
> 그러면 진정한 아름다운 우리말의 낱말은? 진정한 시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있는 낱말들이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반드시 순수한 우리의 고유의 낱말만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이 점에서 보아도 민족주의의 시대는 지났다. 요즘의 정치풍조나 저널리즘에서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이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에 대한 대칭어에 지나지 않는다.
>
> 우리들의 실생활이나 문화의 밑바닥의 정밀경(情密鏡)으로 보면 민족주의는 문화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언어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요, 그 생활은 민중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민중의 생활이 바뀌면 자연히 언어가 바뀐다. 전자가 주(主)요, 후자가 종(從)이다. 민족주의를 문화에 독단적으로 적용하려고 드는 것은 종을 가지고 주를 바꾸어보려는 우둔한 소행이다. 주를 바꾸려면 더 큰 주로 발동해야 한다. -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1966) 중에서[35]

35 김수영,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1966), 『김수영 전집2; 산문』, 377~378면.

김수영은 오래된 “고유의 낱말”을 아무리 나열해봐야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곧 민족주의나 전통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그는 민중의 생활이나 문화를 민족주의에 담으려고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민중의 생활이 바뀌면 자연히 언어가 바뀌”며, 언어가 바뀌면 곧 그것이 우리의 민족 정서가 됨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김수영의 산문은 저자가 강조했던 한국학의 의미와 그 맥락이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적인 것의 실체에 대한 물음은 그 자체로서는 답이 없는 질문이며, 늘 일정한 전제와 제약을 지닌 시대 현실에서 일정한 양식의 표상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서술처럼, 김수영은 우리의 전통 역시 이 범주 안에서 접근해야 함을 「거대한 뿌리」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짚어 볼 것은 한국학에 접근하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만의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미국학의 오래된 방법론의 논쟁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 한국의 특수성이란 “문·사·철을 중심으로 하는 국학의 전통이 인문학의 주류를 이룬 반면에 사회과학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에서처럼 주로 수입 학문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295면) 사실 국학과 양학의 대립의 기원은 서구 학문의 방법론에서 제기된 개성기술(idiographic)과 법칙정립(nomothetic)의 논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서구의 “개성기술과 법칙정립,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대립 구도”에 한국에서는 “전통과 근대, 토착과 서구라는 변수가 개입”되어 서로 간의 대립과 중첩이라는 복잡한 양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구에서 진행되는 한국학은 “교양 국학, 관광 국학, 번역 국학”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행하는 한국학이 “학문 국학, 정공(正攻) 국학, 과학 국학”이라는 존칭을 받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배경에는 서구에서 진행되는 한국학을 “선진국이 후진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식

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국학은 민족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자아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서구의 한국학 연구는 일종의 피해자 의식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는데, 사실 미국 등 서구에서의 지역연구라는 개념이 한국에 전달되지 못한 이유도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한국 내의 국학과 서구에서 유입된 한국학의 대립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한국학에 조응하면서 동시에 전통과 근대, 인문학과 사회과학, 개성기술과 법칙정립의 각각에 해당하는 쟁점들과 연계"되었다. 한국적 특수성-식민 사관을 바탕으로 한 근대화와 서구에서 유입된 근대화라는 두 개의 대항 세력-은 지속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한국만의 고유성과 독자성의 발견에 몰두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고유성의 추구는 폐쇄적으로 한국의 특수성에 몰입되는 우려가 있다. 이는 식민지시기 민족주의의 강조로 인한 일제의 군국주의와 유사한 방식의 민족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의의 의미의 한국학은 민족주체성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가치의 문제로 넘어가기 쉽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치와 방법이라는 양자의 중용과 조화"가 필요하다.

5. 결론을 대신하며

『한국의 근대 형성과 한국학-비교 역사의 시각』은 "해방이후 '한국적인 것'의 역사적 형성"이라는 과제로 수행된 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19) 1950년대부터 196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의 한국적인 것 또는 한국의 정체성은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발전과 변형을 거쳐왔다. 이 책은 그 과정을 면밀하게 또 방대한 양의 참고할 만한 논쟁들을 서술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학과의 그 특이성은 서로 다르지만, 기반이 되는 조선적인 것, 조선학의 기원과 형성과정도 함께 서술하면서 한국학만의 특수성과 그 흐름을 개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지역연구와 미국학의 흐름을 정리한 비교 시각적 연구의 적절한 조합은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수혜와 영향이 한국 내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 과정은 꽤 흥미롭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한국적인 것' 내지는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몰두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 저자의 연구량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꽤 오랜 시간 한국의 '근대성'에 대해 고민해 온 흔적과 미국의 지역연구와 미국학의 흐름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온 것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강점은 지난 많은 논쟁과 흐름들을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여러 논쟁들의 허점과 주요 주장을 파악하고 구분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저자의 의도는 상세한 서술과 개괄을 통해 독자에게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을 주었던 게 아닌가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한국학은 "한국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단순한 명제 이외에 그것이 기원하고 실행되어 온 개개 역사 맥락의 현실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최근에 이르러 한국학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해체가 운위되는 상황"(19)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앞으로 한국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고 전방위적으로 넓게 생각해봐야 한다. 본 고에서는 저자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이 책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였다. 비교 시각의 관점에 관한 서술에서 지역연구는 단순히 더 근대화된 선진국이 후진국을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일차원적인 연구가 아니라, 철저히 미국의 국익과 전세계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한 국가의 권력 유지의

일환이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학 역시 그 배경은 다르지만 많은 연구자들을 거치며 논쟁과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는 여전히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의 한 징표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적인 것'과 '한국의 정체성'은 일제강점기의 식민 사관과 해방 이후 단기간에 급속도로 들어온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서구의 근대화라는 두 물줄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어떤 것이었다.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은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한국적인 것'의 기원과 그 정의를 찾기 위해 고심하였고, 이 책은 그 고심의 흔적들이 압축된 일종의 결과물이다.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지만, 한국학에 접근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자가 이 책에서 거듭 이야기한 "한국적인 것의 실체에 대한 물음은 그 자체로서는 답이 없는 질문이며, 늘 일정한 전제와 제약을 지닌 시대 현실에서 일정한 양식의 표상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어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식민지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민족주의 학자들과 사회주의 이론가 사이에서 통합과 통일을 추구했던 안재홍의 노력과 전통을 과거의 부산물로 여기지 않고, 지금-여기 우리가 만들어나가며 축적하는 과정 그 자체로 인지했던 김수영의 시와 시론은 한국학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포즈의 모범적인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강헌국, 「이광수의 민족계몽 이론과 그 실천」, 『우리어문연구』 56집, 우리어문학회, 2016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권석우, 「미국학(미국문화연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하여 : 패링턴으로부터 신화상징학파, 새로운 미국학에서 다문화주의에 이르기까지」, 『미국학논집』 37(3), 한국아메리카학회, 2005

김영훈·유현주·정준하, 「한국에서의 미국학: 『미국학논집』에 대한 정량 분석」, 『미국학논집』 47(2), 한국아메리카학회, 2015

김경일,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_____, 『한국사회사상사연구』, 나남출판, 2003

_____,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학과학사, 1998

_____, 「좌절된 중용-일제하 지식 형성에서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사회와 역사』 51집, 한국사회사학회, 1997

_____,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3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6

김수영, 「거대한 뿌리」(1964), 『김수영 전집1; 시』, 민음사, 2010

_____,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1966), 『김수영 전집2; 산문』, 민음사, 2009

김진희, 「미국적 예외주의, 혹은 '좀바르트식 질문'에 대한 재고찰」, 『미국학논집』 36(2), 한국아메리카학회, 2004

나희덕, 「김수영 시에 있어서 '전통'의 문제」, 『배달말』 29호, 배달말학회, 2001

류두하, 「한국에서의 미국지역 연구현황과 과제」, 『국제학논총』 7,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3

류시현,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권, 역사문제연구소, 2007

_____, 「해방 후 안재홍의 일제강점기에 관한 기억과 감성」, 『민족문화연구』 5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이경미, 「1920년대 민세 안재홍의 민족론과 그 추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0

이현송, 「타자로서 미국 연구하기」, 『영미연구』 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미연구소, 2003

임화,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주인석, 「민세 안재홍(民世 安在鴻)의 정치노선-비타협적 민족운동과 신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9(3), 한국민족사상학회, 2015

황동연, 「21세기 전야 미국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운명-전지구화와 그에 따른 지역연구의 방향에 대한 미국학계의 비판적 논의-」, 『동아시아역사연구』 6권, 동아시아역사연구회, 1999

| Abstract |

A Research of the Genesis and Forming Process of Korean Studies

A Book Review on *Modern Figuration of Korean and Korean Studies-a Perspective of Comparative History*

Jun, Hoonjee | Korea University

Modern figuration of Korea and Korean Studies -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History is a book that summarizes the origins and concepts of Korean studies (Chosun Studies), and describes the relevance and differentiation between regional studies and American studies. The author outline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regional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explain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American thing' and 'American identity' as American studies by analyzing major debates. In particular, this book outlines how the United States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1950s and 1960s in a way that can be considered both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Unlike the United States, where the United States defined its own identity, Korea had to define itself against two others: the modern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modernity of the West. Based on such peculiarities of Korea, Korean Studies has been formed. In particular, the discussions in the 1960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Scholars who studied abroad spoke of tradition as the other of modernization in the West, while scholars who studied in Korea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radition as a counter to the colonial view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contrast between the liberal arts, centered on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and the social sciences, which actively embraced Western studies, is also a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n studies.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Korean studies was formed through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colonialism and Western modernization, universalism and specialism, and idiographic and nomothetic, that is, the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In addition, another characteristic of Chosun Studies (Chosun-like) and Korean Studies (Korean-style) is that their identities are actively recalled by the ruling powers of each era. Through this book, we can understand the flow of Korea's identity study by the state power, which was inevitable in the process

of Korea's modernization.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re have always been questions and methodologie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Korean and Korean studies, but the answer is not fixed. The answer changes over time and space. In this article, I try to understand the origins of Korean studies and the process of its figuration as a reader,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Modern figuration of Korea and Korean Studies'.

Key words : Korean studies, American studies, regional studies, essentialism, historicism, Kim-suyoung, An-Jaehong

논문접수일: 2021.07.15. 심사기간: 2021.07.16.~08.05. 게재확정일: 2021.08.10.

일반논문

비평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인식
'신비평 논쟁'의 수용과 영향을 중심으로
강계숙

기억과 성찰의 변증법
김병익의 『시선의 저편』과 『생각의 저편』에 나타난 기억의 수사학
우찬제

호머 헐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이유정

죽음을 통한 이야기의 발견
이청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허선애

낭만적 주체와 동경(憧憬)의 여정
조병화론
홍용희

10.19115/CKS.29.2.4

비평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인식

‘신비평 논쟁’의 수용과 영향을 중심으로

강계숙*

1.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메타적 응답
2. 실증주의 비평에 대한 비판 및 그 상호텍스트성
3. ‘담론에 대한 담론’—비평의 객관성과 주관성
4. 비평의 방법과 기능—내재적 분석, 상동성, 구조/형태
5. 나오며 — “이론적 실천”으로서의 비평

| 국문초록 |

본고는 196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대두된 ‘신비평 논쟁’이 김현의 비평 의식에 미친 영향관계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김현은 이 논쟁과 관련된 글을 편역하여 간행(『현대비평의 혁명』, 1979)할 만큼 논쟁 과정 및 핵심 내용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평문에서 이에 대해 직접 논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신비평 논쟁의 주요 쟁점을 수용 · 검토하면서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인식이 어떻게 그 내적 논리를 획득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평의 객관성과 주관성, 문학연구의 새로운 방향 전환,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문학작품의 구조적 이해, 작품 평가의 기준과 비평가의 역할 등 신비평 논쟁의 핵심 주제는 비평에 대한 김현의 메타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다. 문학이해에 필수적인 이 주제들은 그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의해 재검토되는 숙고의 과정을 거쳐 비평을 위한 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를 통해 그의 실제비평은 고유한 논리적 체계를 갖춘 담론의 수행과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신비평 논쟁의 이론적 전유는 그에게 절대적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 객관성의 명제화야말로 진리 추구의 과정을 강제하는 오류임을 각인시켰고, 비평적 글쓰기는 과학적 실증의 영역이 아니라 타자의 담론을 자신에게 주어진 기호체계의 규약에 따라 재구성하는 담론의 담론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비평의 객관성은 내적 조리 정연함에 의해 유도되는 논리적 타당성이자 주관성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론적 엄격성을 재구하는 작업을 뜻하며, 비평의 주관성은 내재적 분석의 엄밀한 방법화 및 그러한 방법의 일관된 적용을 통해 객관적인 것으로 기술 · 현상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바슐라르, 바르트, 제네바 학파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수용은 그가 자신의 비평적 자의식을 갱신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제공한 자극의 원천이었고, 비평가로서의 그의 자기 갱신은 비평의 역사와 당대 비평의 경향을 안팎으로 살피는 이중의 작업 속에서 시대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문학이론의 수입을 적극 도모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작품의 구조와 형태를 규명하는 내재적 분석을 실제비평의 방법론으로 삼아 이를 문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 동시대 한국 비평문학의 한계를 타개할 방책으로 실행해 보인 그의 노력은 자신의 비평이 텍스트 내부에 한정되기를 거부하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현실에 유의미한 발언이 되길 바란 내적 고투의 과정이었다. 비평이 진정한 비평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데올로기 비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김현에게 일종의 정답과 같은 것이었다. 기만적 허위로 가장된 지배 이데올로기의 탈신화화야말로 “이론적 실천”으로서의 비평이 가닿고자 한 궁극적 목적지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주제어 : 김현, 비평, 메타적 인식, 신비평 논쟁, 객관성, 주관성, 작가와 작품의 관계, 비평가의 역할, 담론의 담론, 구조, 형태, 내재적 분석, 방법론, 이데올로기 비평, 이론적 실천

1.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메타적 응답

김현은 1981년 『세계의 문학』 겨울호에 김치수의 편역서[1]에 대한 서평 「실제 비평으로서의 번역」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소설사회학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한 문학비평가가 왜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얼핏 보기에는 공연히 어렵기만 한 책들을 번역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 세 권의 역서를 눈앞에 두었을 때 곧 생겨난다. 그러나 그 세 권의 역서를 꼭 그가 이것들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관점에서 공들여 다시 읽어보면, 그것들이 그의 실제 비평의 이론적 근거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며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번역했겠구나 하는 인식론적 안도감을 갖게 된다."[2] 그리고 이어서 기술하기를 "그 서지학적 고찰은 그의 번역이 그의 자의적 선택이 크게 작용한 것임을 보여준다. 선택이란 무의식적으로도 주체자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게 마련인데, 김치수 교수의 그것에도 그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3] 이 문장의 요지를 정리하면, 비평가가 문학이론서를 번역할 때 그 번역의 선택은 비평가의 성향—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를 내재한—에 따른 것이며, 특히 '비평가'가 번역 주체일 때, 그의 번역은 그 자신의 실제비평의 '이론적 근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김현은 김치수의 번역서들이 그의 이론적 바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서술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 형식주의, 누보 로망, 구조주의를 관류하는 "같은 정신"[4]은 "굳어 있는 형식에만 집착하는

---

1 여기서 가리키는 김치수의 편역서는 『구조주의와 문학비평』(홍성사, 1980) 『누보 로망을 위하여』(문학과지성사, 1981) 『러시아 형식주의』(이화여대출판부, 1981)이다.

2 「실제비평으로서의 번역」 『존재와 언어/현대 프랑스 문학을 찾아서- 김현문학전집 12』, 문학과지성사, 1992, 484쪽. (이후 특별한 서지를 제외하고 김현의 글은 전집에서 인용하며, 이하 전집 인용의 경우 『전집 권호』(년도)로 표기함)

3 위의 글, 485쪽.

4 위의 글, 485쪽.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내용과 형식을 이분하는 완고한 시각을 비판하고 형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모험적 태도인 바 이들 이론의 이러한 특징은 당대 문학의 쇄신을 요구하는 김치수 비평에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김치수의 실제 비평이 자주 "도덕적 엄숙주의에 대한 비판"[5]으로 이어지는 까닭도 기존 형식에의 고착을 거부하는 비평가의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논리를 비평가이자 번역가이기도 했던 김현 그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번역 대상을 선택하는 (무)의식적 의도는 비평가인 그의 어떤 성향을 노출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의 비평에 어떤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가? 김현은 생전에 세 권의 이론서를 편역하였다. 『현대비평의 혁명』(홍성사, 1979), 『수사학』(문학과지성사, 1985), 『장르의 이론』(문학과지성사, 1987)이 그것이다. 이 중 뒤의 두 권은 문학작품의 구조, 문채, 텍스트성에 관심을 두었던 김현의 비평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문학 연구의 과학화가 현대비평의 주요 흐름임을 간파하고 한국문학의 연구 수준이 텍스트의 구조적 · 기호학적 분석을 방법화하는 데서 향상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던 그에게 작품의 원리를 담론의 체계와 장르 형성의 특수성을 통해 밝히려는 시도들은 꾸준히 소개되어야 할 이론들이었다. 무엇보다 1980년대 중반 편역된 이 두 책은 "문학이 절규만으로 존재하고 있던 시대"[6]에 문학비평이 이데올로기의 인정투쟁에 좌우되는 목적론적 산물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 시대와 문학에 대해 더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사학』과 『장르의 이론』은 현대 이론을 취합한 문학 원론적 성격이 짙다.

---

5 위의 글, 489쪽.

6 「비평의 유형학을 향하여」,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김현문학전집 7』(1992), 238쪽.

그에 비해 70년대 말 간행된 『현대비평의 혁명』은 여러모로 주목을 요한다. 이 책은 1970년대 중반부터 그가 여러 평문에서 언급한 '신비평 논쟁'의 핵심 글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편역되었다. 신비평 논쟁에 대한 그의 비상한 관심은 두브로브스키의 『왜 신비평인가』(1966)를 서평한 「바리에테-왜 신비평인가」(1973)를 필두로 「현대비평의 여러 양상」(1974), 「문학적 구조주의」(1978), 「벵상-테리엥의 한 문단의 비판」(1979), 「신비평 논쟁의 전개와 의미」(1981) 등 여러 글에서 확인된다. 서구 비평의 현재적 양상을 개괄한 이러한 글들을 통해 김현은 논쟁을 부분적으로 발췌 · 소개해 왔으나 논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대비평의 혁명』을 번역한 것이다. 그만큼 신비평 논쟁은 그에게 중요한 이론적 주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가 이 논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1960년대 중반 프랑스 지성계에서 소위 '신비평'으로 분류되었던 비평가들이 누구였는가를 검토하면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실존적 정신분석의 사르트르, 이미지 현상학의 바슐라르, 구조주의 기호학의 바르트,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골드만, 그리고 주제비평을 일군 제네바 학파 등이 바로 그들로 김현은 이들에게서 받은 영향을 여러 지면을 통해 밝힌 바 있다.[7] 그가 비평가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신비평가들이 미친 영향은 분명하다. 비평가로서의 그의 자의식과 방법론은 비유컨대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통시적 · 공시적으로 성찰하고

---

7 김현의 비평 문학을 서구 이론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해명하는 것은 김현 연구의 주된 흐름 중 하나다. 다음의 연구들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한래희, 「김현 비평에서 '공감의 비평론'과 '현실 부정의 힘으로서의 문학'론의 상관성 연구-아도르노 미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3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한래희, 「김현의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 『한국학연구』 37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박연희, 「김현과 바슐라르-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구보학보』 20집, 구보학회, 2018; 한래희, 「김현 비평과 정신분석 방법론」, 『현대문학의 연구』 6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김영욱, 「김현 문학연구의 체계성: 『제네바학파 연구』의 경우」, 『불어불문학연구』 123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20; 한래희, 「김현 비평과 프로이트」, 『현대문학의 연구』 7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졸고, 「김현 비평의 사르트르 수용 양상-'실존적 정신분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2집, 한국근대문학회, 2021.

이를 보편적인 것으로 견인하려는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서구의 비평론과 문학론을 참조하여 이를 이론적 전거로 수용하고 전유하려는 노력이 줄기를 이루고 있다. 신비평은 그러한 후자의 경향이 집중되었던 대상[8]으로, 신비평이라는 용어 자체를 확산시킨 계기가 된 신비평 논쟁은 문학비평을 둘러싼 원론적 질문들이 재탐색되었던 역사적 분기점으로 이해되었다. 번역서의 제목을 '현대비평의 혁명'으로 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신비평 논쟁은 비평사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 사건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이 번역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번역-주체자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김현의 비평에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비평 논쟁이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메타적 응답이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중반 프랑스 지성계는 새롭게 제기된 이 물음을 앞에 두고 원색적 비난이 오갈 정도로 시끄럽고 요란했다. 이 논쟁이 야기한 영향력과 파급력은 논쟁의 "사실적 대응 현상"이 "1968년 5월 혁명"[9]이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신비평 논쟁에서 김현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고, 그러한 고찰이 그의 비평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논쟁의 핵심 내용을 수용하면서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인식은 어떻게 그 내적 논리를 획득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비평가에겐 그 대답을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물음과 같다. 그것은 비평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물음이며, 비평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그러한 메타적 질문에

---

8 실제로 김현은 『바슐라르 연구』(1976), 『제네바학파 연구-제강의 꿈』(1986) 등의 연구서를 펴냈다.

9 「신비평 논쟁의 전개와 의미」, 『프랑스 비평사 근대/현대편-김현문학전집 8』(1991), 148쪽.

답함으로써 정립된다. 김현의 말처럼, 비평가가 어떤 특정 이론을 번역할 때 그것은 자기 비평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받기 위한 (무)의식적 의도를 품고 있다. 선택이란 주체의 욕망의 투영이자 실현이기 때문이다. 김현은 신비평 논쟁의 수용을 통해 비평에 대한 자신의 메타 이론을 어떻게 논리화하고 있는가? 비평가로서의 그의 욕망은 어떠한 답을 논쟁에서 얻고 있는가? 이것이 본고의 궁극적 질문이다.

2. 실증주의 비평에 대한 비판 및 그 상호텍스트성

김현의 평문 중 비평 그 자체를 주제로 다룬 글은 많지 않다.[10] 그나마도 당대 비평문학의 양상과 유형을 살핀 글이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김현의 답은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다른 글의 내용을 참조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11] 그 중 「비평 방법의 반성」(1973)은 그가

10 초기 평문에 해당하는 「비평고」(1962)는 예외적인 글이다. 이 글은 비평이란 무엇인가, 비평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근현대 비평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비평 자체를 주제로 삼은 것 중 메타적 성격이 가장 짙은 글이다. 하지만 초기 평문인 탓에 논리 전개가 성기고 사유의 진전은 미숙하다. 다만 비평에 막 입문한 초심자의 사고와 태도를 살피기엔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비평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프랑스 비평사를 개괄한 것은 김현이 비평 초기부터 무엇에 관심을 두었고 어떤 이론에 공명하였는지를 시사한다. 하지만 김현 비평의 메타 의식을 「비평고」에서 본격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신비평 논쟁이 있기 전 글이므로 「비평고」는 본고에서 논외로 한다.

11 혹은 자신보다 앞선 세대인 50년대 비평가들에 대한 비판 가운데 그가 상정한 비평의 내용과 목적, 방법과 지향을 추론할 수도 있다. 또는 한국 현대비평사를 통사적으로 조망한 글 속에서 각 비평가들에 대한 평가—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로부터 그가 생각한 바람직한 비평의 형상을 유추할 수도 있다. 전자는 「한국비평의 가능성」(1968)를 통해, 후자는 「문학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1976)를 통해 확인된다. 예컨대 후자에서 김현은 문학이라는 용어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한 최초의 비평가는 이광수이며, 그가 정립한 문학 개념은 "문학을 정치에 종속된 것에서 분리해내서, 정치와 맞서는 위치에 그것을 올려놓는 것"으로, "문학을 정치와 대등한,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는 문화적 장치로 만든 것" (『한국문학의 위상/문학사회학-김현문학전집1』(1991), 171쪽)을 그의 비평이 지닌 역사적 의의로 꼽는다. 이 말은, 달리 이해하면, 비평가는 우선 문학이라는 개념의 내포를 정치로부터의 이반과 분리,

부정적으로 인식한 비평 형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방법론에서 우선 배제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준다. 그는 이 글에서 1970년대 초반 한국의 비평 풍토를 진단하면서 두 가지 비평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실증주의와 교조주의가 그것으로, 교조주의는 말뜻 그대로 원칙에의 집착과 강요가 주의주장의 특성인 탓에 글쓰기의 다양성과 개성의 표출을 중시하는 김현에게 그것은 당대의 비평이 경계해야 할 길이었다. 문제는 민족주의, 민중주의가 이러한 교조주의적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이분하여 편내용적인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회 구조와 계층 간의 갈등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한 교조주의 비평이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단순화하는 잘못을 피하기 어렵다는 김현의 지적은 비평이 이념의 도구로 수단화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실증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이다. 그 자신이 대학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본산으로 한 실증주의 비평을 비판의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그는 두 가지 층위에서 실증주의 비평을 문제 삼는다. 하나는 한국의 실증주의 비평이 보여주는 개별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실증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일반적 한계이다. 김현에 의하면, 전자는 과거 문학사—임화, 백철, 조연현으로 대표되는—의 답습과 식민주의적 문학관의 무의식적 수용으로 현상된다. 그는 대학에서의 문학연구가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원문 비평을

그 과정에서 성립되는 예술의 자율성의 추구, 그에 따른 문화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전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을 함축한다. 문학의 뜻이 이러하다면, 비평가의 작업은 이러한 개념적 내포를 논거의 기준으로 삼아 작품과 작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비평이 담당해야할 첫 번째 임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 개념에 충실한 비평은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김현의 관점에서라면, 이러한 질문은 응당 제기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비평문학사가 다시금 고찰될 수도 있다. 실제로 김현은 자기세대인 4 · 19세대의 비평적 성과 및 1960년대 비평문학의 상황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하고 진단한다. 「한국비평의 가능성」은 이를 주제화한 대표적 평문이다.

연구의 선결조건이자 제일의 목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문제시한다. 그런데 이 같은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증주의 비평이 이미 방법론적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증주의 비평은 대체로 원문 비평의 형태를 취한다. 원문의 출처와 제작 연대, 원천 탐구와 영향력 조사 등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다].”[12] 원본 확정 및 제작 원천의 사실적 추적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방식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복원시키겠다는 이념적 기도(企圖)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문학은 역사와는 달리, 복원시키는 행위를 담당한 개체의 개인적인 정서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최소 단위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13] 게다가 한국의 실증주의자들은 “작품 자체보다도 그것을 산출한 사회적 정황을 더욱 문제 삼음으로써 (…중략…) 문학연구의 대상이 작품 자체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며 (…중략…) 어떤 작품이 왜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는가, 왜 그것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등의 작품 연구보다는 한 작가의 최초작을 찾기에, 한 장르의 선구작을 찾기에”[14] 몰두하고 있다. 문학작품이 감동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고 개인의 심리적 감응에 따라 감상과 향유와 이해가 각기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은 결국 “비평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15]로 직결된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비평이 사실 그 자체로서의 절대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순간 문학이 감정적 · 미학적 향유물이라는 점은 등한시되고 작품이 촉발하는 모든 주관성의 영역, 즉 연구대상을 선정한 이유와 기준, 가치판단에 미치는 호불호와 취향, 각기 다른 독자들의 서로 다른 심리적 반응, 그것의 영향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모호함과 불확실성 등은 모두

---

12 「비평 방법의 반성-실증주의 · 교조주의 비평에 대한 비판」,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김현문학전집 2』 (1991), 183쪽.

13 위의 글, 184쪽.

14 위의 글, 184쪽.

15 위의 글, 184쪽.

비평에서 배격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문학의 비평에서 가능한 것인가? 비평의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압축되는 이 문제는 실증주의 비평을 원론에서부터 비판하는 순간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물음이다. 1960년대 프랑스의 신비평 논쟁은 이러한 "대학비평"[16]을 공격한 데서 촉발된 논쟁이다. 김현의 실증주의 비판은 이 논쟁의 당사자인 바르트의 문제제기와 담론을 논리의 근거로 공유하고 있다.

신비평 논쟁은 1963년 바르트가 「두 개의 비평」「비평이란 무엇인가」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17] 17세기 후반의 신구논쟁에 버금가는 이 논쟁의 발단은 바르트가 당시 프랑스 문학계를 장악하고 있던 랑송주의의 대학비평을 낡은 결정주의 철학에 연계되어 문학의 이해에 심각한 오류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서 비롯한다.[18] 바르트는 이 글에서 랑송주의가 배격하고

---

16 바르트, 「두 개의 비평」, 『현대비평의 혁명』 (이하 『혁명』으로 표시), 홍성사, 1979, 27쪽.

17 김현은 「현대비평의 여러 양상」(1974)에서 신비평 논쟁을 처음으로 자세히 논한다. 「구조주의의 확산」(1968)이 논쟁을 언급한 맨 처음 글이지만, 이 글에서는 구조주의가 프랑스에서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신비평 논쟁이었음을 밝히는 데 머물러 있다. 「현대비평의 여러 양상」에서 서술된 내용은 이후 『프랑스 비평사: 현대편』(1981)의 1장 「신비평 논쟁의 전개와 의미」에서 더 상세히 다뤄진다.

18 『현대비평의 혁명』은 글의 목차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현은 이 책의 서두에 논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클로드 살르의 「프랑스 인텔리겐차의 현주소」(1977)를 배치하였다. 이 글을 맨 앞에 둔 의도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글의 내용이 논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지성계의 현재적 상황을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68혁명 이후 대학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지식인들이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출판 간행 및 잡지 편집의 역할을 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인간적 친밀도와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입장 차에 따라 밀폐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글을 책의 서문으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신비평 논쟁의 배경과도 관련 있지만, 비평 행위가 아카데미-언론-지식 생산-이익 창출이라는 사회제도의 메커니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환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평 또한 제도의 산물이며, 그러한 제도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비평 논쟁이 기존의 '대학비평'을 비판하면서 프랑스 지성계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논쟁 후 10여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비평가들이 여전히 대학과 출판과 언론 제도를 뒷받침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비평이 그러한 제도로부터, 제도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편역자인 김현이 「프랑스 인텔리겐차의 현주소」를 『현대비평의 혁명』의 서문으로 '선택 · 배치'한 데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번역 과정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있는 비평 방법, 즉 작품을 그것 이외의 '다른 것'[19]에 기대어 해석하기를 거부하고, 작품 내부에서 작동하는 기능과 구조의 발견을 통해 작품을 결정짓는 원리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평 경향[20]을 옹호한다. 이후 제네바 학파에 속하는 리샤르, 스타로벵스키가 자신들의 비평을 설명하는 「프랑스 문학비평의 새로운 양상」(1963), 「새로운 방향의 비평적 탐구」(1965)를 발표함으로써 신비평의 등장을 공론화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당시 소르본 대학의 교수이자 랑송주의의 대표자였던 피카르가 「새로운 비평이나 새로운 사기냐」(1965)를 발표하면서 반기를 들게 되고 바르트와 베베르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논쟁은 격화된다. 김현의 기술에 따르면, 1965년 『르 몽드』지는 '롤랑 바르트를 화형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을 정도로 논쟁의 격렬함은 프랑스 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21] 이에 바르트는 「비평과 진실」(1966)을, 베베르는 「신비평과 구비평」(1966)을 발표하면서 반격에 나서게 되고, 1966년 스리지 라 살르에서 신비평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콜로퀴움[22]이 열리면서 랑송주의에 반하는 새로운 문학이론과 비평 방법이 대중에게 적극 표명된다. 당시 프랑스 지성계를 대표하는 잡지들은

---

19 바르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언제나 연구되는 작품을 '다른' 어떤 것, 문학과는 '다른 곳'과 관련시킨다는 말이다. 이 '다른 곳'cet ailleurs은 (그 이전의) 다른 작품일 수도 있고, 전기적 정황일 수도 있고, 작가가 실제로 느껴서 작품 속에 「표현한」(계속 '표현'이다) 「정념」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오레스트는 사랑에 빠져 질투하는 26세의 라신느이다."(위의 글, 30쪽) 이 문장은 「벵상-테리엥의 한 문단의 비판」(1979)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데, 바르트가 작품을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자명한 것-바르트는 이 외부 요인을 작품의 '원천'으로 표현한다-으로 상정하는 실증주의의 관점을 문제시한 것에 대해 김현이 적극 동의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김현의 바르트 인용은 『전집11』, 186쪽 참조.

20 바르트는 이것을 "내재적 분석"이라 칭한 후 이러한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는 신비평을 현상학적 비평, 주제 비평, 구조 비평으로 분류한다. 그는 이 세 경향을 통칭하여 '해석비평'이라 명명한다. 바르트, 위의 글, 33쪽.

21 「현대 비평의 여러 양상」, 『현대비평의 여러 양상-김현문학전집11』(1991), 24쪽.

22 스리지에서 발표된 글들은 김붕구에 의해 편역된 『현대비평의 이론』(홍성사, 1979)에 실려 있다. 이 책의 출판사 및 출판 년도를 볼 때, 김현의 『현대비평의 혁명』과 짝을 이루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비평의 이론』의 출간으로 콜로키움의 발표문은 『현대비평의 혁명』에 수록되지 않았다.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신비평가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사소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두브로브스키의 『왜 신비평인가』(1966)가 간행된 후에도 피에르 데 등 다른 비평가들의 참여로 논쟁은 한 동안 지속되었다.[23]

김현은 이 논쟁의 의의로 문학상의 중요 쟁점이 전면에 부각된 것을 꼽는다. 그는 "비평가의 객관성과 주관성, 문학과학science de la littérature의 가능성, 문학의 구조, 작가와 사회의 관계 등등"[24] 문학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가 부상하면서 논쟁이 첨예화된 것으로 본다. 우선 절대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실증주의와 대상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 구조주의의 충돌을 그는 논쟁이 발생하게 된 근본 요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 방법을 관통하는 세계관의 차이가 논쟁을 예각화시킨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라고 파악한다. 19세기 이래로 절대적 · 객관적 · 과학적 지식을 진리 추구의 원리로 확립해온 세계관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객관성이란 어느 시대의 정신적 조류에 지나지 않는다는"[25], 즉 "객관적이고 진실한 고립된 지식은 있을 수 없다는 상대주의"[26]의 세계관과 전면적으로 대립하면서

---

23 비평 초기부터 사르트르, 바슐라르, 바르트, 제네바 학파 등의 이론을 읽고, 프랑스 잡지의 동향에도 관심이 많았던 김현이지만, 1960년대 중후반부터 전개된 신비평 논쟁의 전모를 그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듯하다. 논쟁이 매우 과격했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 논쟁의 성격과 내용, 전개 상황, 핵심 주제와 의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두브로브스키의 『왜 신비평인가』를 접하고 난 후로 보인다. 1978년 무렵부터 『프랑스 비평사: 현대편』를 집필하던 1981년 즈음까지 신비평 논쟁과 관련된 글이 연이어 발표된 것을 보면 이 시기에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고민이 심화되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논쟁의 참조와 인용, 그에 대한 소개와 해설, 편역서의 간행 등은 그가 비평의 방법과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논쟁을 통해 참고함으로써 자기 비평의 방법론을 객관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김현의 다음 문장이 뒷받침해준다. "문학비평은 문학비평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자신에 대한 질문과도 싸워야 한다. 80년대 문학비평은 무엇일 수 있을까, 80년대의 앞자리에 나는 그 질문을 나에게 되풀이하여 던진다."(「비평의 방법-70년대 비평에서 배운 것들」, 『문학과 유토피아: 공감의 비평-김현문학전집4』(1992), 346쪽)

24 『전집 11』, 28쪽.

25 위의 글, 28쪽.

학문 추구의 목적 및 지식을 다루는 방식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요컨대 신비평의 주된 이론적 전거인 실존주의, 정신분석, 구조주의, 마르크시즘은 모두 "모든 부분들은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 가치를 획득한다는" 소쉬르적 명제를 공유하며, "다양한 실제의 현상 밑에는 그것들을 지탱시키는 내적 통합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27] 전제에 따라 그 내적 통합의 형태를 표면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것의 가치가 각 부분들 간의 관계 및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19세기의 결정주의적 철학"의 절대성 · 객관성 · 과학성을 거부하게 만들며 이전에는 비학문적 · 비과학적이라고 폄하된 "주관성subjectivité 혹은 의도성intentionalité을 중요시하게"[28] 만든다. 그런데 이 주관성과 의도성이야말로 문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실증주의에 대한 김현의 비판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듯, 그것은 문학작품이 감상 주체의 정서적 반응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작품은 '해석'되는 것이라는 점, 인물의 심리든 작가의 심리든 독자의 심리든 작품의 해석은 인간의 '심리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 문학연구에서 주관성과 의도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바르트와 피카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가 비평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것이었다. 바르트는 「두 개의 비평」에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 그러나 문학이란 무엇인가? 왜 글은 쓰는가? 라신느는 프루스트와 같은 이유로 글을 썼던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지 않는 것도 또한 거기에 대답하는 길이다. 그것은 (반드시 역사적인 의미랄 수는 없는) 상식적인 전통적 생각을, 다시 말해 작가란 아주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쓰며, 문학의 존재는 감

26 『전집8』, 146쪽.
27 『전집11』, 27쪽.
28 위의 글, 27쪽.

정과 정념의 「번역」속에 있다는 생각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의도성을 건들이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그걸 건들이지 않고서 문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냐), 실증주의 심리학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중략…) 역설적인 것은 역사비평이 여기서 역사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시간을 초월한 문학의 본질은 없으며, 있는 것은 문학이라는 이름 밑에 (하기야 그 이름 자체가 최근의 것이지만), 생성되어 가고 있는 형태, 기능, 제도, 근거, 아주 다른 기획들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들의 상대성을 역사가는 우리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중략…) 문학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게 비록 삽화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은 그 시대의 심리적 틀 속에 자기 열쇠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틀은 우리의 틀이 아니다. 비평가는 그에게 저항하거나 그에게서 달아나는 것이 저작자의 전기적 「비밀」이 아니라, 그의 대상 자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문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29][30]

위에서 바르트는 실증주의도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상대성을 간과하고 역사의 변화를 고착화하여 문학의 이름으로 생성 · 변화하는 모든 것을 등한시한다.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 즉 작가의 주관적 심리 혹은 글쓰기와 관련된 모든 감정적 · 정신적 자극과 요인들을 그 시대의 '심리적 틀' 속에서 해명하려는 노력을 제외하는 비평은 사실상 문학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바르트의 이러한 견해에 김현이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비평은 과학이 아니

29 바르트, 위의 글, 29-30쪽.

30 바르트의 이러한 입장을 피카르는 "비평의 주관화 현상"(『혁명』, 98쪽)이라 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 새 비평의 특성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을 비판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비평은 그걸 알고 있다. 바르트 씨는 그 정황의 이론을 만들기까지 한다. 「라신느에 대해 '진실을 말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서, 그는 겁도 없이 비평가로서 자신을 완전히 주관적 존재로 자처한다. 그러니 계속해서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그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무슨 이유로 독자가 나의 주관성을 그의 주관성보다 좋아하리라고 가정할 수 있겠는가." 피카르, 「새로운 비평이냐 새로운 사기냐」, 위의 책, 76-77쪽.

다”[31]라고 단언한 데서 확인된다. 그는 두브로브스키의 말을 빌려 “작품의 객관적 구성 요소들이 드러나는 것은 비평가의 주관적 의도성에 의해서이다”라고 기술한 후 “같은 작품이 비평가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갖고 나타나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32]라고 부연한다. 또한 “진실이나 객관성은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략…) 진실이란 감추어져 있으며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주관성의 한 변형일 따름이다”[33]라고 서술한 뒤 이후 “진실은 진실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34]라는 명제를 내놓는다. 비평은 바르트의 말처럼, 그리고 그것을 긍정하는 김현의 요약대로 “주관성의 제도화 institutionnalisation de la subjectivité”[35]이다. 그렇다면 비평은 객관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 김현이 신비평의 논쟁 중 더 주목하여 본 것은 비평의 주관성이 어떻게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바르트의 답이다.

3. ‘담론에 대한 담론’—비평의 객관성과 주관성

> 만일 비평이 단지 메타-언어라면 그것은 비평의 임무가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효성validités**」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서 언어는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지 않다. 그것은 유효하거나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는 것은 논리정연한 기호 체계를 이룬다는 뜻**이다. 문학언어에 작용하는 규칙은 (사실주의 유파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에 언어가 일치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작자가 고집한 기호체계 (물론 여기에서

31 『전집8』, 157쪽.
32 위의 글, 162쪽.
33 「바리에테-왜 신비평인가」, 『전집11』, 135-136쪽.
34 「책 머리에」, 『전집4』, 9쪽. 이 문장은 “객관성은 객관화 과정으로써만 나타난다”는 바슐라르의 명제와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다. 바슐라르의 명제에 대해서는 『전집8』, 146쪽.
35 『전집8』, 155쪽.

는 '체계'라는 말에 아주 강한 뜻을 부여해야 한다)에 언어가 복종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비평은 (…중략…) 그것의 역할은 단지 **조리 있고 논리적**이며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체계적인 언어를 그 자체로 완성**하여 (…중략…) 어떤 **추론의 유효성**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 비평의 임무는 (…중략…) 마치 좋은 목공이 복잡한 가구의 두 조각을 「지혜롭게」 더듬어가며 결합시키듯이, 그 시대가 비평에 제공한 언어(실존주의, 마르크시즘, 정신분석)를 언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시대에 따라 작가가 완성한 논리적 제약의 형식체계에 '맞추는' 것이다.[36](강조-인용자)

비평가의 객관성이란 그러므로 규정의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그가 선택한 모델을 적용하는 엄격성rigueur**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건 하찮은 게 아니다. 하지만 신비평은 기술descriptions의 객관성의 조건을 **조리정연함**에 두고자 하여 그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37](강조-인용자)

김현은 비평의 객관성에 대한 바르트의 위 주장을 신비평 논쟁에서 도출된 중요한 결론이자 바르트 문학비평의 논리적 근저로 생각한다. 『프랑스 비평사: 현대 편』에서도 위 내용은 되풀이 인용되는데, 그만큼 비평의 객관성을 주관성만큼이나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바르트는 「비평이란 무엇인가」에서 비평이 '진실'을 원칙으로 삼아 올바르게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가령 실증주의는 문학은 '진실'을 품고 있고, 그 '진실'은 자명한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므로 그 명확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는 것이 비평의 목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실증주의가 그러한 '진실'의 밝힘을 비평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은 비평의 대상이 문학작품이며, 작품의 인식은 인식 과정의 주관성에 영향 받는다는 사실을

36 바르트, 「비평이란 무엇인가」, 『혁명』, 40-41쪽.
37 바르트, 「비평과 진실」, 위의 책, 139쪽.

간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본다. 문학작품은 작품이 다루는 세계의, 인간의, 대상의 진실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평은 인간-세계의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평은 작품에 대해 말한다. 즉 비평의 대상은 '타자의 담론'이다. 비평은 메타-언어로서 "담론에 대한 담론"[38]인 것이다. 그러니까 비평은 문학작품이라는 타자의 담론이 담론으로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따져 묻고 그것의 유효함 혹은 유효하지 않음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때 유효함이란 작품은 언어 체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논리정연한 기호 체계를 이룬다"는 것을, 그리고 독자에게 주어진 그 체계는 언어화의 규칙 혹은 제약에 따라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므로 그러한 완성에 작가가 '고집한' 체계가 얼마나 제대로 기능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것을 뜻한다.[39] 따라서 비평의 역할은 작품의 언어적 체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작품의 유효성의 검토란 문학 언어에 작용하는 규칙에 작품이 얼마나 '복종'했는가를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품의 의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완성시키는 규칙, 제약을 재구성하는 것"[40]이 비평이다. 그리고 유효성의 발견은 비평 또한 언어 체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만큼 자신이 정한 "추론의 유효성"을 시험하고 준수할 때 성취된다. 이를 김현은 다음과 같이 되새겨 정의한다. "비평은 (…중략…) 그 시대가 비평에 제공한 이데올로기-언어에 따라 작가가 완성한 논리적 제약의 형식 체계에 맞추는 형태적인 조작이다."[41]

비평의 객관성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랑송주의의 절대적 객관성만큼 그 자신의 비평도 절대적으로 주관적이지 않은가라는 피카르의 비

---

38 앞의 글, 39쪽.

39 바르트는 문학작품이 "아주 특이한 의미론적 체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비평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위의 글, 41쪽.

40 위의 글, 41쪽.

41 「바르트의 문학비평」, 『전집8』, 257쪽.

판에 대해 바르트는 더 간결하게 비평의 객관성을 정리한다. 피카르에 따르면 라신을 해석하는 바르트의 오류는 비평가의 자의적인—"자기 마음대로 쓸모 있는 것을 끄집어 내"[42]는 "비평적 헛소리"[43]—선택과 규칙의 제정에서 비롯한다. 비평은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바르트는 논리의 근거를 임의로 정하여 선택한 규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르트는 비평의 객관성이 비평가의 객관성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면, 비평가의 객관성이란 "규정의 선택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랑송주의는 문학은 '자명한 것'이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를 규칙화하였지만, 자명한 것이란 '자명한 것으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44] "그것들은 '벌써' 해석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심리학적 혹은 구조적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45] 규정의 선택이 해석에 근간하고, 해석이 비평가의 주관성에 결부되어 있는 한 절대적으로 자명한 것,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46] 따라서 "규정의 선택"

---

42 『혁명』, 112쪽.

43 위의 글, 123쪽.

44 이에 대해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이 자명한 것들은 그러므로 선택에 불과하다. (…중략…) 작품의 담론이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고, 문헌학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의미를 밝혀 준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한 적이 없고 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문자적 담론 속에서 그것에 모순되지 않는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전이 아니라 언어의 상징적 본질에 대한 총체적 결정이다."(『혁명』, 138쪽)

45 위의 글, 139쪽.

46 학문의 주관성과 상통하는 이 문제에 대해 김현은 『한국문학의 위상』4장에서 바슐라르의 "인식론적 방해물"의 개념을 빌어 "순수하게 객관적인 사유란 없다"고 적고 있다. 학문의 주체는 객관적 사유에 전념하기 마련이지만, 주체의 "심리적인 복합체는 순수한 사변적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객관적인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식론적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중략…)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이나 편애는 전부 인식론적 방해물을 이룬다.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감정은 그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인간성 그 자체이다. 그것을 제외할 때 사유자는 없어지고 사유만 남게 될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할 때의 사유인(思惟人) 나는 인식론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나이다. 그 나는 동시에 인식론적으로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이다. 사고는 그 두 자아의 싸움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객관적인 사유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선택'과 '해석'이 주체의 주관성을 벗어나 순수하게 객관적인 활동이 될 수 없다는 김현의 이러한 상대주의적 인식론은 비평의 객관성을 규정하는 바르트의 이론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그가 바르트의 견해에 공감하리

을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판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일 비평(가)의 객관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가 선택한 모델—약호code—을 그 대상에 엄격하게 적용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비평의 객관성이란 "자명성이 아니라, 비평가가 선택한 모델을 적용하는 엄격성"[47]을 의미한다. 그러한 엄격성을 따를 때, 비평은 타당성과 논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 비평의 과학성과 객관성이란, 요컨대, 논리적 엄격성 · 타당성 · 조리정연함cohérence을 뜻한다. 비평의 주관성은 이러한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더 이상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비난 받을 까닭이 없다. "비평은 모순되게도 그러나 진정하게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고, 역사적이면서 실존적이며, 전체주의적이면서 자유주의적일 수 있[다]."[48] 비평의 객관성은 주관성의 영역 속에서 주관성을 극복하는 내적 조리정연함을 담론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평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는 김현에게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의미한 해답으로 그 자신의 메타적 인식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상호 조응관계에 있는 대표적 예들이다.

> i) 방법 역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쉬르가 단언하고 있듯 달라지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관점이다. 관점의 변이를 비과학적 · 비객관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타당성 · 논리 연관성이 과학성 · 객관성**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니다.[49](강조-인용자)

> ii) 비평사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70년대 비평은 비평의 객관성/주관성, 절대

라는 점은 이런 맥락에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론적 사유의 주관성에 대해서는 『전집1』, 67쪽 참조.

47 『전집8』, 157쪽.

48 『혁명』, 42쪽.

49 「무넹의 바르트의 비판에 대하여」, 『전집11』, 227-228쪽.

성/상대성, 보편성/특수성의 대립 문제에 깊이 매달린 비평이다. 70년대 비평이 보기에 그 이전의 비평은 비평의 객관성 · 절대성 · 보편성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었다. 비평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절대적 비평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범이 문학 밖에 있어야 했는데, 그 절대적인 규범은 70년대 이전의 비평에 있어서 거의 언제나 외국 이론이었다. 그 외국 이론의 절대성이 무너지자, 70년대 비평의 새 지평이 열린 것이다. 70년대 비평의 다양성은 **비평의 객관성은 객관화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비평의 보편성은 보편화 과정에, 그리고 비평의 절대성은 절대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데서 생겨난다. (…중략…) 70년대 비평이 바란 것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성 · 절대성 · 보편성이란 없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객관성 · 절대성 · 보편성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객관적인 것, 절대적인 것, 보편적인 것은 없고 있는 것은 객관 지향적인 것, 절대 지향적인 것, 보편 지향적인 것뿐이다.[50](강조-인용자)

iii) 주제 분석의 주관적 성격에 대해 비난할 수 있으나, 모든 이해는 언제나 주관적인 것이며, 내부에서 작업해야 동화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문학에서의 객관성이란 내적 조리 정연함** la cohérence interne일 뿐이다.[51](강조-인용자)

i)은 무넹의 바르트의 기호학에 대한 비판[52]을 재비판하는 가운데 서술된 내용이며, ii)는 70년대 한국 문학비평의 성과를 되짚어 보면서 당대 비평의 특징으로 요약된 내용이다. iii)은 제네바 학파에 속하는 리샤르의 주제

50 『전집4』, 342-343쪽.

51 김현, 『제네바학파 연구-제강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6, 96쪽.

52 『세계의 문학』(1980년 가을호)에 곽광수 번역으로 무넹의 「롤랑 바르트의 기호론」이 수록되는데, 무넹은 이 글에서 바르트의 기호학이 언어학의 개념을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언어학적으로도 기호학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한다. 「무넹의 바르트 비판에 대하여」(1980)는 이 글을 재비판하려는 의도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비평과 그 방법론을 설명하면서 기술된 내용이다. 각 문단의 요지는 일관적이고 분명하다. 어떤 학문 영역이든, 문학연구든 문학비평이든,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없다. 지켜야할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을 정확히 따르면 객관성과 과학성이 확보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환상이자 관점의 변이를 인정하지 않는 강박적 사고이다. 객관성과 과학성을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외적 기준의 충족으로 간주하는 한, 문학비평은 보편성의 획득과 추구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닫힌 주관적 집착이 된다. 그러한 인식론적 선험성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이 요청하는 방법과 관점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 반복컨대, 비평의 객관성과 과학성은 내적 조리 정연함이 결과 짓는 논리적 타당성이다. 그것은 객관화를 추구하는 과정, 보편화를 추구하는 과정, 절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수립되는 이론적 타당성과 내적 정합성이 비평의 객관성과 과학성이다. 김현은 70년대 문학비평이 이룬 새로운 지평의 확대 및 다양성의 분출이 비평의 객관성에 대한 그간의 이해가 수정된 데 따른 결과로 본다. 물론 당대 비평을 평가하는 이런 시각이 역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되지만, 그가 한국 비평계의 변화를 "비평의 객관성/주관성, 절대성/상대성, 보편성/특수성의 대립"으로 파악했다는 점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신비평 논쟁의 핵심 쟁점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비평의 무대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시각이 유의미해 보이는 까닭은 비평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그의 메타적 인식이 그의 비평에, 즉 비평을 대하는 태도와 그것의 방법화에 모종의 변화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비평 작업에서의 '주관성의 수락과 옹호'이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주관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니, 그것을 비평의 고유성, 비평의 욕망으로 받아들인다.

ⅳ)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자료를 대하려 해도, 자기의 주관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객관성이란 주관적 오류가 최소한도로 줄어든 것에 다름 아니며, 추상적인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것은 내가 분석한 비평가들이 내 비평가들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평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내 비평가라는 말에 나는 이제 아무런 저항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며 동시에 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내 속에 투영된 그들이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가 실존적 정신분석에 매달릴 때, 혹은 바슐라르가 문학적 정신분석을 체계화하려 할 때, 제네바 학파의 비평가들이 정신의 모험으로 문학을 문제 삼을 때, 골드만이 소설 속에서 문제 제기적 인물을 찾을 때, 블랑쇼가 낯섦성을 제기할 때, 그리고 바르트가 즐김의 공간을 보여줄 때, 그들은 내 속의 그들이다.[53]

ⅴ) (…전략…) 나는 나에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강박관념의 대부분은, 내가 소박한 문학비평가로 남아 있고 싶다는 욕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론 서적을 뒤지기보다는, 아직도, 작품을 앞에 두고, 연금술사들의 고독한 몽상을 즐기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마음대로 오류를 범하고 싶다**는 욕망에 다름 아니다.[54] (강조-인용자)

ⅳ)는 김현이 『프랑스 비평사: 현대 편』을 집필할 당시 자기의 작업에서 느낀 체험과 생각을 기술한 대목이고, ⅴ)는 프랑스 비평사의 집필을 모두 마친 후 『프랑스 비평사: 근대 편』서문에서 밝힌 소회의 일부이다. ⅳ)에서 그는 자료의 검토와 분석을 객관적으로 하려할수록 할 수 있는 것이란 '주관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일 뿐 절대적 객관성은 추상적 사고 속에서만 존재

53 「자료와 이론」, 『전집12』, 474쪽.
54 「책 머리에」, 『전집8』, 11쪽.

함을 솔직히 토로한다. 그는 순수한 객관성은 없고, 그것의 추구에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문제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심적 저항의 대상이 아니다. 비평의 주관성, 즉 그 스스로 명명한바 '공감'의 주관성[55]은 그의 글쓰기 작업에서 배척되거나 표백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객관적이고자 하는 노력을 추동하는 조건이며 비평적 글쓰기가 논리연관성과 타당성을 갖도록 요구하는 필연적 계기이다. 이를 깨달았기에, 그는 자기가 분석한 비평가들이 '다른' 비평가가 아니라 '내 비평가'라고 인정한다. 나의 주관성이 객관화 과정 속에서 타자의 주관성에 동화되는 경험, 이를 일컬어 김현은 "그들은 그들이며 동시에 나다"라고, "그들은 내 속의 그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논리적 정황을 이해해야 v)의 "마음대로 오류를 범하고 싶다"가 함의하는 바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v)에서 그는 프랑스 비평사를 쓰기 위해 이론과 자료를 살피는 동안 '객관적 연구 작업'이 아니라 작품을 읽고 몽상하고 비평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떨치기 어려웠음을 고백한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달리 새기면 '비평이란 문학작품에 대해 마음대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란 뜻이 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오류'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논의된 맥락에 비춰볼 때, 오류란 정해진 논리와 체계를 벗어나 절대적 객관성/과학성/보편성에서 이탈하는 잘못, 즉 인식과 추론과 검산 과정에 주관성/비과학성/개별성을 끌어들이는 실수를 뜻한다. 객관적 과학의 관점에서 오류는 논리적으로 검증된 체계를 따르

55 『문학과 유토피아-공감의 비평』(1980)을 펴내면서 김현은 자신의 비평을 가리켜 '공감의 비평'이라 칭한다. 그는 "비평이란 두 개의 의식의 능동적 부딪힘-울림"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비평의 지향을 공식화한다. 프랑스 비평가들에 대한 메타 비평론을 쓰면서 그가 체험한 "그들은 그들이며 동시에 나다" "그들은 내 속의 그들이다"라는 깨달음은 그가 의미한바 "두 개의 능동적 부딪침-울림"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공감'의 비평은 바르트의 다음 문장과 연동되어 있다. "비평작품의 내부에서 이렇게해서 두 역사, 두 주관성, 작가의 것들과 비평가의 것들의 대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김현의 '공감의 비평'에 대해서는 『전집4』, 9쪽; 바르트의 문장은 『혁명』, 43쪽.

지 않고, 보편적 법칙을 간과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품에 대해 오류를 꺼리지 않겠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의 추구와 그것의 표명을,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는 모험과 자유로움을, 그리고 그것의 개별적 구현을 감행하겠다는 것을 가리킨다. "연금술사들의 고독한 몽상"이란 표현은 그래서 등장한 것이다. 연금술사들이야말로 오류투성이를 겁내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의 산출을 마다하지 않는 비평이란 결국 작품 각각의 개별적 자질에의 몰두 · 감상 · 향유를 스스로 제어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비평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평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비평의 욕망이다. 오류의 생산을 터부시하지 않는 이러한 주관성의 용인은, 그러나, 말뜻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56] 이것은 절대적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 객관성 그 자체가 오류임을 자각한 비평가가 비평에 대한 명료한 메타적 인식과 이론적 바탕을 그 자신이 지니고 있음을 자신하는 데서 사용한 수사적 표현이다. 물론 그의 자신감은 비평의 객관성이 어떻게 획득되는가를 알고 있는 자의 자신감이다. 그것은 비평의 조리정연한 방법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4. 비평의 방법과 기능—내재적 분석, 상동성, 구조/형태

> 그의 비평은 비평이 미적 이상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에 의해 작품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략…) 그는 거기(『춘원 연구』-인용자)에서 근대 소설이 갖고 있는, 시점 · 성격 · 사건 전개 · 묘사 등의 유기체적 결합에 의거해서, 이광수를 날카롭

56 김현의 비평을 간혹 인상주의적 비평으로 오해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주관성의 의미를 축어적으로, 마치 바르트를 비난한 피카르처럼, 비평가 마음대로 작품을 읽는 것으로 이해한 데서 기인한다.

게 비판하였다. 특히 성격의 불일치나 시점의 부적합성은 그가 제일 싫어한 소설적 결함이었다. 그것은 소설적 효과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비평은 작품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것의 구조를 분석하려고 하는 구조 시학적 관점을 채택한 충격적인 비평이었다. 그것에서 한국 비평은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술 비평의 전형적 예를 갖게 되었다.[57]

「문학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1976)에서 김현은 『한국 근대 소설고』『춘원 연구』등에 나타난 비평가로서의 김동인의 면모를 위와 같이 고평한다. 위 내용은 무엇보다 비평가의 임무는 작품의 전언을 해독하는 데 있지 않고 "작품을 기능의 체계로 취급"[58]하여 "그 체계를 재구성"[59]하는 데 있다고 말한 바르트의 논의를 상기시킨다. 그가 이름 붙인 김동인의 "기술 비평"은 문맥상 바르트가 신비평의 방법론으로 칭한 "내재적 분석"[60]을 가리킨다. 내재적 분석은 작품의 내적 구조 분석을 목적으로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각 기능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 가령 김동인의 경우처럼 시점 · 서사 · 성격 · 묘사 등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검산'[61]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은 이러한 내재적 분석의 기본 방식과 형태가 김동인의 소설 비평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그의 비평을 가리켜 "충격적인 비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대를 앞서나간 구조 시학의 선구자로 김동인을 재평가한다.

작품의 내재적 분석은 김현의 실제 비평을 일관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이다.[62] 『상상력과 인간』(1973) 『사회와 윤리』(1974) 『문학과 유토피아-공감의

57 『전집1』, 180쪽.
58 『혁명』, 33쪽.
59 『혁명』, 42쪽.
60 각주20) 참조.
61 바르트는 비평이 "작가가 완성한 논리적 제약의 형식 체계에" 시대가 제공한 자신의 언어를 "'맞추는' 것"을 일컬어 "비평의 「검산」"이라 표현한다. 위의 글, 41쪽.
62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졸고, 「시를 발견하는 비평의 기술(記述/技術)-김현 시 비평의

비평』(1980) 등은 시와 소설을 아우르며 작품 구조의 재구성이 비평의 우선적 역할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인 평론집들이다. 작품을 분석한다고 할 때 "'분석' 그 자체의 의미에 부합하는 글쓰기와 문학적 평가란 바로 그러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말의 엄밀한 뜻에서 제대로 구현해 보인 비평가는 김현이 처음이었다"[63]는 평가에서 알 수 있듯, 그의 비평 방법은 문학작품은 작가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언어 체계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로 "완성시키는 규칙, 제약을 재구성"하여 작품을 다른 언어체와 달리 "아주 특이한 의미론적 체계"[64]로 만드는 내적 원리를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 분석의 주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이미지의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의 구조 혹은 형태 분석이다. 전자의 이론적 토대는 사르트르 · 바슐라르의 현상학적 비평 및 제네바학파의 주제비평이고, 후자의 그것은 그가 언급한대로 바르트의 구조주의이다. 먼저 전자의 방법론에 대한 김현 그 자신의 가장 간명한 서술을 살펴보자.[65]

> 그 다음 왜 이미지 분석인가? 이미지 분석은 크게 보아 일종의 주제 비평 critique thématique적 방법으로, 프루스트에 의해 촉발되고, 바슐라르에 의해 더욱 풍요해져서, 프랑스의 중요한 문학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그것은 풀레, 리샤르, 루세, 스타로벵스키 등, 흔히 제네바 학파로 불리는 학파의 중요한 방법론을 이룬다. 엄격히 말하면, 이미지는 주제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 학파의 비평가들에게 있어 주제thème와 이미지image는 그 개념의 변주에도 불구하고 상당량 겹쳐 있다. 특히 주제를 유년기의 시간이나 정황이라고 규정한 베베르식의 단일 주제주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제 비평가는 다주제

방법론적 특징」, 『현대문학의 연구』 7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참조.

63 위의 글, 159쪽.

64 『혁명』, 41쪽.

65 이미지 분석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평문으로는 같은 시기에 쓰인 「시인의 상상적 세계-고은론」(1968)과 「바다의 이미지 분석 · 서-샤토브리앙의 바다」(1968)가 있다.

주의에 속하며, 한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여러 주제란 집요하게 나타나는 이미지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미지의 분석은 그러므로 우선은 분석자가 다주제주의를 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지를 되풀이되는 주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이미지 분석 역시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66]

위 인용문은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대상으로 한 평문의 서두이다. 여기서 김현은 자신의 비평 방법이 이론적으로 무엇에 의거하는지를 밝힌다. 비평 초기부터 그의 이미지 분석은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 원칙으로서 작가의 상상 체계의 뿌리racine를 이루는 되풀이되는 도식에 착목하여 그러한 반복적 모델이 파생하고 주조하는 "의미의 변모, 의미 변용의 과정에 주의"[67]를 기울이는, 다시 말해 이미지의 변주와 편성에 주목하는 내재적 접근법이었다. 그의 이러한 분석 방법은 「꽃의 이미지 분석」(1965)에서부터 김춘수의 시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평문들[68]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실천된 바 있다. 특히 작품 내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주제thème를 "상상적인 것의 편향", 예컨대 어린 시절의 외상과 같은 무의식상의 압박이 의식에 가해짐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의식의 편향"[69]으로 보고, 이를 '원초적 경험expérience originelle'으로 재개념화하여 작가의 상상체계를 여는 분석의 열쇠로 활용한 점[70]은 김현의 실제비평을 관류하는 고유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러한 이미지 분석이 이미지든 주제든 그것을 체계—전체로서의 상상 체계—의 상징적 기호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잠재

66 「『마담 보바리』의 이미지 연구-세 개의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해석」, 『전집12』, 295-296쪽.
67 『제네바학파 연구』, 95쪽.
68 「김춘수와 시적 변용」(1970), 「김춘수의 유년 시절 시」(1980)가 그 예이다.
69 「시인의 상상적 세계-고은」,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김현문학전집3』(1991), 253쪽.
70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졸고, 「김현 비평의 사트르르 수용 양상-'실존적 정신분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43집, 한국근대문학회, 2021, 363-364쪽 참조.

태로서의 상상 체계는 현실태로서의 기호를 통해 우리에게 인식된다"라는 말이나, "한 사회가 만들어 내는 모든 기호란 그 사회의 상상 체계가 만들어 내는 상징적 힘을 갖는 어떤 것이다"[71]라는 말은 이미지의 상상 체계란 사회의 기호 체계, 구체적으로는 언어 체계—언어 기호의 한계 내에서든 혹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 체계를 부수고 해체하든—에 의지하여 그것의 규칙과 원리에 따라 인식되도록 주어진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이미지/상상-기호/언어의 체계성에 대한 김현의 이러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구조주의로의 경도를, 무엇보다 바르트의 구조 개념 및 기호학과의 만남을 예비한다. 『현대비평의 혁명』에 실려 있는 「구조주의적 활동」은 김현의 구조주의에 대한 이해가 바르트의 이 글에서 비롯함을 잘 보여준다. 그가 바르트의 구조주의에서 먼저 주목한 것은 '상동적인 것homologique'의 개념이다. '상동(相同)'은 본래 레비스트로스에게서 유래한 개념인데, 김현은 이 단어의 뜻과 그 함의의 중요성을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바르트의 논의에서 발견한다.

vi) 대학비평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연계를 보여주는 두 번째 것은 유추의 가정postulat d'analogie[72]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비평 작업이 주로 「원천」탐색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언제나 연구되는 작품을 '다른' 어떤 것, 문학과는 '다른 곳'과 관련시킨다는 말이다. 이 '다른 곳'cet ailleurs은 (그 이전의) 다른 작품일 수도 있고, 전기적 정황일 수도 있고, 작가가 실제로 느껴서 작품 속에 「표현한」(계속 '표현'이다) 「정념」일 수도 있다.[73]

---

71 「바다의 이미지 분석 · 서」, 『전집12』, 273쪽.

72 『혁명』에서는 'postulat d'analogie'가 "유사의 가정"으로, 「벵상-테리앵의 한 문단의 비판」에서는 "유추의 가정"으로 번역되는데 'analogy'는 논리학에서 흔히 '유비' '유추'로 번역되므로 여기서는 "유추의 가정"으로 바꿔 인용한다. 아래 인용문에서의 '유추적'이라는 단어도 『혁명』에는 '유사적'으로 번역되어 있다.

73 『혁명』, 30쪽.

vii) 만일 저자와 작품 사이에 관련이 있다면 (…중략…) 그것은 세세한, 비연속적이고 「깊은」 닮은 점을 덧붙여 가는 점묘파적 관계가 아니라, 그 정반대로 전 저자와 전 작품 사이의 관계, 관계의 관계, 유추적이 아니라 상동적인 homologique 교감이다.[74]

viii) 그러므로 구조주의란 본질적으로 모방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사실인즉 과학적 구조주의와 특별한 예를 들자면 문학, 일반적으로는 예술 사이에 '기술적인' 차이란 없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사실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예술에서처럼) 실체의 상사(相似)에 의거한 게 아니라(레비스트로스가 '상동(相同)'이라고 부른) 기능의 상사에 의거한 '모방'mimesis에 속한다.[75]

vi)은 실증주의를 비판할 때 김현이 거듭 인용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실증적 비평 방법의 기본 전제는 작품과 '원천'의 관계를 '유추적인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이다. 이 때 '유추'란 작품과 원천을 유사(/유비)의 관계, 즉 서로 '닮은 것(相似)'으로 파악하여, 가령 라신의 주인공은 26세이던 라신의 실연의 체험이 투영된 작가의 닮은꼴로 이해하는 것으로, 작품을 이처럼 '번역'하고 다시 그 "번역 속에서 그 번역의 원본을 찾아내려"는 방식은 "문학의 존재가 작가의 감수성과 정열의 번역 속에 있다고 믿는"[76] 오류를 양산한다. 김현은 바르트의 말을 빌려 "작가와 작품의 관계는 상동적 homologique이지, 유추적이 아니다"[77]라고 규정한다.[78] vii)은 바로 이러한

74 위의 글, 32쪽.
75 바르트, 「구조주의적 활동」, 위의 책, 47쪽.
76 『전집11』, 186쪽.
77 위의 글, 187쪽.
78 이 문장은 김현의 비평 작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은을 찾아서」(1974)는 시인 고은을 직접 인터뷰하여 쓴 일종의 작가론인데, 이 글에서 그는 「시인의 상상적 세계-고은」에서 자신이 분석한 바 있는 시인의 원초적 경험('누이 콤플렉스')과 이미지 변주 간의 관계가 '유추의 가정' 하에 도출된 결론이라는 사실을 고은의 지적—그에게는 누이가 없었다—을 통해 자각한 경험을 적고 있다. "그의 진술은 나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다"(『전집3』, 439쪽)고 서술할 만큼 김현은

규정에 논리적 참조를 제공하는 바르트의 설명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련성은 실증주의 비평처럼 '닮은 점'을 찾아 그것을 계속 덧붙여 가는, 마치 점묘파적으로 덧칠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가(들)과 작품(들) 전체의 관계, 관계의 관계를 '상동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발견'[79]할 때—명시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동'의 뜻은 구조주의를 설명하는 viii)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viii)에서 알 수 있듯 "실체의 상사에 의거"하는 것, 달리 말해 작가가 실체라면 작품을 그것의 닮은꼴('상사')로 관련짓는 것이 '유추적'인 것이라면, '상동적'인 것은 각각의 실체가 "기능의 상사", 즉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같은 관계에 있음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김현은 '상동적인 것'의 의미를 "유질동형적인 것(類質同形的) isomorphisme"[80]이라고 부연한 후, 이에 대해 레비스트로스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레비-스트로스를 다시 따르면 미개인의 얼굴 장식은 그 미개인이 사는 마을의 지형과 흡사하다는 것, 곧 그 지형에 대응한다는 식이다. 얼굴과 마을이 동일한 모형에 따라 밝혀지는 것이다."[81] 얼굴 장식과 마을 지형이 기능적으로 동형(同形)이라는 것, 이것이 '상동적인 것'의 정확한 의미이다.

이러한 기능적 상동성의 발견이야말로 "구조주의적 활동"에 해당하는데, 바르트는 이것이 '절단'과 '정돈'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82] 김현은 이 "절단과 정돈이라는 구조주의적 활동"을 가리켜 "전체/부분의 대립(=체계=구조)을 선명하게 하려는 방법론적 조작"[83]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유추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그것이 자신의 평문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다. "작가와 작품의 관계는 상동적이지, 유추적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김현에게만큼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졸고, 앞의 글, 168-169쪽.

79 『혁명』, 41쪽.

80 「구조주의의 확산」, 『전집11』, 44쪽.

81 위의 글, 44쪽.

82 『혁명』, 48쪽.

83 「문학적 구조주의」, 『전집11』, 61쪽.

개념들을 통해 구조와 구조화, 구조주의적 활동의 의미가 정리된다. 요컨대 "모든 구조주의적 활동의 목적은, 그게 반성적이건 시적이건 어떤 「대상」을 재구성하는 일, 그러한 재구성 속에 그 사물의 기능 작용(기능단위들)의 법칙을 드러내 보이게끔 어떤 대상을 재구성하는 일"[84]이며, 이 때 '구조'란 어떤 단위(/요소)들과 단위들의 결합, 그러한 결합에 따른 단위들(/요소들) 사이의 관계의 총체가 규칙적인 표시를 얻는 것이고, '구조화'란 그러한 결합의 표시가 사물(/대상)의 기능 작용의 법칙을 드러내 보이도록, 즉 '구성'이라 일컬어질 수 있도록 사물/대상을 정리하는 것을 뜻한다.[85]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의 개념이 문학작품으로 옮겨갈 때, '형태' 개념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 ix) 예술과 담화의 구성 양식syntaxe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극히 다양하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의도를 지닌 모든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은 규칙적 구속에의 복종이다. 이러한 구속의 형식주의는, 부당하게 비난을 받아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다. 왜냐하면 모의활동(模擬活動)('절단'하고 '정돈'하는 구조주의적 활동-인용자 주)의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 그것은 우연에 대한 일종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의 회귀에 관한 구속은 거의 창조주와도 같은 가치를 갖는다. 작품이 구축되어 나타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미를 부여받고 나타나는 것은 단위들의 규칙적인 회귀, 그리고 단위들의 결합의 규칙적인 회귀에 의해서이다. 언어학자들은 이 배합법칙을 '형태'라고 부른다. 아주 낡은 이 말이 그 같은 엄밀한 의미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이로운 일일 것이다. 인접한 단위들이 순전한 우연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형태라는 것이다.[86]

---

84 앞의 글, 46쪽.
85 위의 글, 46-47쪽.
86 위의 글, 49쪽.

문학작품이 의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위들의 (결합의) 규칙적인 회귀'[87] 때문이며 이 규칙적 회귀가 '형태'라는 설명은, 단위들의 기능적 결합이 구조라고 정의하였던바 구조의 규칙적 회귀가 곧 '형태'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는 동어반복이다. 구조는 이미 그 결합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구조라고 인식되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조의 규칙적 회귀란 구조가 구조로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인식되고 발견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의 드러남—이 드러남은 당연히 결합, 규칙, 반복의 형태를 띠므로 형식화된 것이다[88]—이 '형태'인 것이다. 김현은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의 구조를 '형태'로 이해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비평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하면서 각주로 덧붙인 다음의 설명이다. "formel은 미학적 의미로는 relatif à la forme(형태에 관한)의 뜻을, 논리적인 의미로는 qui concerne la forme(구조와 관계되는)의 뜻인데, 그 때의 forme는 여러 요소 사이의 관계의 총체를 뜻해서 structural에 가깝다."[89] 비평적 활동은 본질적으로 형식적 활동이라고 서술한 바르트의 문장에 덧붙인 김현의 이 각주는 형식이란 단어를 미학적으로는 형태로, 논리적으로는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김현에게는 작품 비평에서의 구조, 형태, 형식은 다른 말이 아니다. 『한국문학의 위상』에서도 확인되는 바지만, 그가 형식을 "침전된 내용이라는 형식" "내용화된 형식"[90]으로 정의하면서 형식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오해—내용과 형식을 이분하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래서 작품의 '형태'를 언제나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현에게 작품의 형태란 곧 작품

87 바르트는 이를 추상미술의 예를 들어 "조립의 규칙성"이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위의 글, 50쪽.

88 바르트가 예술작품을 '우연에 대한 투쟁'이라고 비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인간이 우연에서 빼앗는 것이다." (위의 글, 49-50쪽)

89 『혁명』, 41쪽.

90 『전집1』, 49쪽.

의 구조를 뜻한다. 작품의 '형태=구조'라는 그의 이러한 정리는 ix)에 대해 설명한 다음의 서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 그 부분들의 배합 법칙을 언어학자들은 형태formes 라고 부른다[바르트, 1964 a: 217; 파쥬, 171]. 형태란 의미를 부여받고 나타나는 단위들의 규칙적인 회귀의 법칙이다. 인접해 있는 단위들이 순전한 우연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형태이다. **그 형태는 내용/형식의 그 형식이 아니라 내용-형식을 방법론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조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형태주의 formalisme[바르트, 1964 a: 253]이다. 그 형태의 유효성은 그것이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것까지를 관계 맺어 주는 데에 있다. 비록 형태 대신에 구조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리샤르의 다음 문장은 그것을 선명하게 요약한다. (…하략…)[91](강조-인용자)

김현의 실제 비평에서 작품의 형태분석이 곧 구조분석인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그의 비평의 방법화는 작품의 형태를 언어로 현상된 작품의 내적 구조로 이해하고, 작품의 구조란 각 요소들과 단위들이, 전체와 부분이 규칙적 · 체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내용-형식을 포괄하는 방법론적 개념('침전된 내용으로서의 형식')을 선취한 데서 그 이론적 틀을 구축한다. 그의 비평을 가리켜 '주관성의 체계화'라고 이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조리 정연한 이론의 정립과 내재화를 통해, 비평에 대한 다양한 메타 담론을 참조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만의 고유한 방법론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91 『전집11』, 62쪽.

5. 나오며 — “이론적 실천”으로서의 비평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비평 논쟁의 핵심 주제인 비평의 객관성과 주관성, 문학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및 그 타당성,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둘러싼 인식의 전환, 작품 평가의 기준과 비평(가)의 역할, 문학 텍스트의 구조적 이해 등은 비평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문학이해에 필수적인 이러한 본질적 주제들은 그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따라 내적으로 재검토되는 숙고의 과정을 거쳐 비평을 위한 이론으로 체계화되었고, 그의 실제비평은 고유한 논리적 체계를 갖춘 담론의 수행과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신비평 논쟁의 이론적 전유는 그에게 절대적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 객관성의 명제화야말로 진리 추구의 과정을 강제하는 오류임을 각인시켰고, 비평적 글쓰기는 과학적 실증의 영역이 아니라 타자의 담론을 자신에게 주어진 기호체계의 규약에 따라 내적으로 재구성하는 담론의 담론임을, 주관성의 제도화이자 체계화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비평의 객관성은 내적 조리 정연함에 의해 유도되는 논리적 타당성이자 주관성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론적 엄격성을 재구하는 작업을 뜻하며, 비평의 주관성은 내재적 분석의 엄밀한 방법화 및 그러한 방법의 일관된 적용을 통해 객관적인 것으로 기술 · 현상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신비평의 대표주자인 바슐라르, 바르트, 제네바학파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수용은 그가 자신의 비평적 자의식을 갱신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제공한 자극의 원천이었고, 비평가로서 그의 자기 갱신은 비평의 역사와 당대 비평의 경향을 안팎으로 살피는 이중의 작업 속에서 시대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문학이론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도모하는 가운데 수행되었다. 작품의 구조와 형태를 분석하는 내재적 비평방법을 자신의 실제비평의 본류로 삼고 이를 문학에 대한 잘못

된 이해를 교정하고 동시대 한국 비평문학의 한계를 타개할 방책으로 실행해 보인 그의 의도와 노력은 그의 비평이 문학텍스트에 한정되기를 거부하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현실을 향한 유의미한 발언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비평이 한편으론 이데올로기 비평이기를, 그러한 비평이 되기를 원한 것은 그의 비평적 욕망의 목적지가 어디였는가를 이해하면 그리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비평이 진정한 비평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데올로기 비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김현에겐 일종의 정답과 같은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비평을 "이론적 실천"[92]의 하나로 분류하였을 때, 그가 의미한 "이론적 실천"은 바르트의 "의미작용의 비평critique de signification"[93]과 깊이 공명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비평의 궁극적 목적이, 그리고 비평가의 최종 목표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사회적 억압과 강제를 은폐하여 기존 체제를 공고히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비판임을 암암리에 지시한다.

바르트의 "의미작용의 비평"이란, 김현의 설명에 따르면, "의미작용의 기호학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작품이라는 기호를 해독décodage하는 비평"[94]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해독'은 사회와 역사에 대한 글쓰기 주체의 "의도적 투기"[95]를 전제로 한다. 사르트르가 말한바 '실존적 결단'의 의미를 지닌 이 "투기"는 비평 주체가 자기 자신을 걸고 감행하는 의식적 선택과 자유의 이행을 뜻한다. 그렇다면 비평가가 글쓰기 주체로서 사회와 역사에 대해 의도성을 갖고 "투기"를 결행하는 글쓰기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김현이 바르트의 "의미작용의 비평"에서 주목한 것은 그것이 "형태 파괴적 글쓰기[96]"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기

92 『전집4』, 345쪽.
93 『전집8』, 253쪽.
94 위의 글, 253쪽.
95 위의 글, 242쪽.
96 위의 글, 245쪽.

술이었으나 사회적 기구와 제도로 안착한 문학이 또 하나의 형식적 신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밝혀내는 글쓰기다. 바르트는 비평이 그러한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바르트의 형태 파괴주의는 형태가 내용보다 훨씬 끈질기게 자기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힘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형태 파괴 없는 내용 파괴는 있을 수 없다는 근거 위에 세워져 있다. 사르트르에게서 작가의 참여는 필연적이라는 명제를 읽은 그는, 작가의 선택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고 그의 명제를 고쳐 이해한다. 그 방식이 바로 형태이다.[97]

그러므로 어떤 작품의 형태가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형식적 신화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이 비평적 글쓰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형태—"언어를 사용하는 방식"—를 분석하는 것, 즉 그것의 기호로서의 의미작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행해져야 한다. 김현은 "의미작용으로서의 비평"이 형태 파괴적 글쓰기를 통해 이데올로기 비평이 된 예를 바르트의 『신화론』(1957)에서 확인한다. 바르트의 신화 분석은 고대의 신화가 아니라 현대 부르주아 사회의 신화를 겨냥한다. 바르트는 역사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가짜 자명성을 현대의 '신화'로 보고 대중매체와 예술 등이 그러한 자명성 뒤에서 역사를 자연으로 만드는 가짜 신화의 창출에 매진한다는 점을 의미작용의 분석이라는 기호학적 방법을 통해 규명해낸다.[98] 따라서 기호로서의 텍스트 분석은, 그것의 내재적 비평은 형태 파괴적 글쓰기를 지향할수록 이데올로기 비평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김현

---

97 위의 글, 246쪽.
98 위의 글, 247-248쪽 참조.

의 "이론적 실천"으로서의 비평 개념이 바르트의 이러한 비평론에서 자극받았으리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 실천"으로서의 비평은 "비평가들[이] 작가들의 상징적 작업의 의미를 해독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을 떠맡았"[99]을 때 과연 "작품의 해석이 현실의 개조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100] 문제제기 속에서 등장한 것이자 비평의 현실 개조의 역할이란 작품의 현실 변혁 의지의 유무를 따지고 그로써 작품의 사회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정당한 해석을 통해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숨은 기만성을 적발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함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주창하기 위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김현은 '해석'이 세계의 개조에 기여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당대 비평이 취한 태도를 둘로 나눈다. 하나가 "실천적 이론"이고 다른 하나가 "이론적 실천"이다. 전자가 "폭력적 억압이 지배적인 세계에 작품이 투항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항하고 있는가를 분별"[101]함으로써 작품의 "현실 개조 의욕의 명백한 노출"[102]을 중시한 반면, 후자는 작품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지해서 현실 개조의 도구로 쓰이는 당의정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한 삶이라는 이름 밑에 이데올로기적인 허구를 드러내는"[103] 것이고, 허구를 드러내는 그 작업은 "기존 질서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104]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작품이 보여주는 현실을 재구성"[105]하려 한다. 창작방법론 및 작품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이 두 경향은 당대 비평을 바라보는 김현의 주관적 관점에 따른 구분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99 『전집4』, 343쪽.
100 위의 글, 344쪽.
101 위의 글, 344쪽.
102 위의 글, 345쪽.
103 위의 글, 344쪽.
104 위의 글, 344쪽.
105 위의 글, 345쪽.

것은 “이론적 실천”이라는 표현 속에 그가 함축하고자 했던 자기 비평의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빌어 그가 도달하고자 한 비평의 궁극적 형태는 무엇인가? 작품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때, ‘현실 그대로’란 사회와 인간의 훼손을, 그것의 정도와 실체를 적시함으로써 세계 개조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형태를 띠기 마련이다. “이론적 실천”으로서의 비평은 작품이 기만적 허위로 가장된 이데올로기를 탈신화화하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음을 밝혀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작품의 상징적 해독이라는 방식, 즉 작품 외부의 근거와 기준을 끌어와 그것의 도구적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부의 의미작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김현의 비평적 지향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의 실천적 형상을 목표로 한다. 그의 비평을 작품의 주관적 · 내재적 분석에 집중한 일면적 작업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와 시대를 향한 자기성찰적 비판담론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도 분명하다.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김현의 진지한 물음과 대답은 문학과 예술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화적 · 제도적 기구로 기능하는 현실이 엄연히 존속하는 한 현재진행형의 비판적 사유로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화두이다.

참고문헌

1. 자료

『한국문학의 위상/문학사회학—김현문학전집1』, 문학과지성사, 1991.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김현문학전집2』, 문학과지성사, 1991.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김현문학전집3』, 문학과지성사, 1991.
『문학과 유토피아—김현문학전집4』, 문학과지성사, 1992.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김현문학전집7』, 문학과지성사, 1992.
『프랑스 비평사 근대/현대편-김현문학전집8』, 문학과지성사, 1991.
『현대비평의 양상—김현문학전집11』, 문학과지성사, 1991.
『존재와 언어/현대 프랑스 문학을 찾아서-김현문학전집12』, 문학과지성사, 1992.
김현 편역,『현대비평의 혁명』, 홍성사, 1979
김현,『제네바학파 연구-제강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6.

2. 논문

강계숙, 「김현 비평의 사르트르 수용 양상-'실존적 정신분석'의 영향을 중심으로」,『한국근대문학연구』22집, 한국근대문학회, 2021.
_____, 「시를 발견하는 비평의 기술(記述/技術)-김현 시 비평의 방법론적 특징」,『현대문학의 연구』7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김영욱, 「김현 문학연구의 체계성:『제네바학파 연구』의 경우」,『불어불문학연구』123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20.
박연희, 「김현과 바슐라르-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구보학보』20집, 구보학회, 2018.
한래희, 「김현 비평에서 '공감의 비평론'과 '현실 부정의 힘으로서의 문학'론의 상관성 연구-아도르노 미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의 연구』53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_____, 「김현의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한국학연구』37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_____, 「김현 비평과 정신분석 방법론」,『현대문학의 연구』6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_____, 「김현 비평과 프로이트」,『현대문학의 연구』7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 Abstract |

Kim Hyun's Meta Awareness of Literature Criticism

Focusing on Acceptance and Influence of 'Debate of New Criticism'

Kang, Gye-Sook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Debate of New Criticism' in France in the mid-1960s on Kim Hyun's critics. He was interested in the process and content of this debate, and wrote several articles explaining it. *The Revolution of Modern Criticism* (1979) translated by him is a book about this debate. The main theme of the 'New Criticism debate' were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of criticism, new directions in literary research,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er and work, structural understanding of literary works, and the role of critics. These key them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tion of Kim Hyun's meta awareness of literature criticism. Essential to the understanding of literature, these subjects wer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his relativistic epistemology, and through this deliberation he organized his critical theory. By looking at the 'Debate of New Criticism', he realized that absolute objectivity does not exist, and that literary criticism is not a product of scientific proof, but a reconstruction of the discourse of the other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language symbol system given to him.

Kim Hyun's interest in and acceptance of theories of Bachelard, Barthes, and Geneva School was to provide himself with the impetus to renew his criticism. And he continued his efforts to look inside and outside at the trends of literary criticism of the time, agonizing over his role as a critic. He used an intrinsic analysis that revealed the structure and form of the work as his methodology of criticism. Through this methodology, he tried to correct people's mis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Korean literary criticism at the time. This efforts illustrate his hope that his criticism would become a meaningful statement in his own society and times. He thought true criticism was bound to be ideological criticism. Criticizing a deceptive dominant ideology is a good indication that criticism as a "theoretical practice" was the ultimate goal to reach.

Key words : Kim Hyun, criticism, meta awareness, objectivity, subjectivity, relationship between writer and work, role of critics, structure, form, intrinsic analysis, methodology, ideological criticism, theoretical practice

논문접수일: 2021.07.15. 심사기간: 2021.07.16.~08.05. 게재확정일: 2021.08.10.

10.19115/CKS.29.2.5

기억과 성찰의 변증법*

김병익의 『시선의 저편』과 『생각의 저편』에 나타난 기억의 수사학

우찬제**

1. 서론
2. 4·19세대의 기억과 시차 성찰
3. 활성적 기억의 재구성과 담론의 생성
4. 진실 발견을 위한 방법적 성찰 기제로서의 기억
5. 결론

| 국문초록 |

이 논문에서 필자는 비평가 김병익의 『시선의 저편』과 『생각의 저편』에 나타난 기억의 수사학의 구성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2010년대 김병익 산문에서 기억이 담론을 형성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두 권의 산문집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간지 『한겨레』에 연재한 칼럼을 정리한 책이다. 신문사 기자로 시작하여 문학 비평을 한 이력이나 글을 통해 삶의 진실을 넓고 깊게 성찰하려 했던 그의 글쓰기 스타일로 보더라도, 칼럼은 그의 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르라 할 것이다. 이 두 권에는 '만년의 양식을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의 시간대에 탐문한 글의 성격에 맞는 부제로 보인다. '기억'의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7S1A6A3A01079727).

** 서강대 국문학과 교수.

문제를 중심으로 이 칼럼들의 수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4·19 세대를 대표하는 비평가의 한 사람인 김병익은 자기 세대의 기억을 예리하게 추적하고 그것을 질서화한다. 특히 해방과 전쟁, 4·19에 대한 공통 기억을 되살리고 그 세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와 지식,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압축 성장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둘째, 활성적 기억을 재구성하고 담론을 새롭게 생성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이 나타난다. 기억을 통해 맥락을 창출하고, 맥락을 통해 기억을 성찰한다. 재구성된 기억은 저장되고 전달되는데, 그럼으로써 기억은 재생산되고 역사 속에서 지속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셋째, 김병익의 산문에서 기억은 진실 발견을 위한 방법적 성찰 기제이다. 기억과 성찰의 대화를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삶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산문적 수고의 결과가 바로 이 두 권의 책이다.

주제어 : 기억, 기록, 기대, 성찰, 기억의 재구성, 기억의 재생산, 기억의 수사학, 내면화된 현존, 수사적 상황, 저자 변수, 화제 변수, 김병익, 『시선의 저편』, 『생각의 저편』

1. 서론

이 논문에서 필자는 비평가 김병익의 『시선의 저편』과 『생각의 저편』에 나타난 기억의 수사학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2010년대 김병익 산문에서 기억이 담론을 형성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두 권의 산문집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간지 『한겨레』에 연재한 칼럼을 정리한 책이다. 인류사 전환기의 지구촌 문명비평에서 생태 환경 위기 문제부터 한국 현대사와 세대 문제, 지식인/지성인 문제, 문화적 자존감이나 역사에의 관용, 타자지향적 배려의 윤리 문제,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적 소통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다룬 화제가 최근 한국 사회의 중핵적 현안에 맞닿아 있거니와, 그것을 다루는 방식 또한 매우 종합적이고 포용적인 시선과 개성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보인다는 점, 특히 기억을 중심으로 '기억-기록-기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맥락과 의미 전환의 지평을 구안한 그의 글쓰기 스타일은 그의 문학 비평의 특성을 고찰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수사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신문사 기자로 시작하여 문학 비평을 한 이력[1]이나 글을 통해 삶의 진실을 넓고 깊게 성찰하려 했던 그의 글쓰기 스타일로 보더라도, 칼럼은 그의 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르라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할 것이다. 이 두 권에는 '만년의 양식을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2]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의 시간대에 탐문한 글의 성격에 맞는 부제

---

1 1938년 상주에서 태어난 김병익은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로 시작하여 평생 기자이고 싶었으나 1974년 동아투위 사건 때 해직된 다음 문학전문 출판사인 문학과지성사를 창사하여 책을 만들었고, 이후 인하대 국문학과 초빙교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 산문에서 그는 "내 평생 책을 만들고 팔고, 읽고 쓰는 일을 업으로 삼아왔기에 결국 시간 죽이기의 방편으로는 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중 만만할 터이다."(「마지널리언의 한가한 책 읽기」, 『조용한 걸음으로』, 문학과지성사 2013, 60쪽) 라고 쓴 적이 있는데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칼럼집 역시 책이 기억과 성찰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다.

로 보인다. ‘기억’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칼럼들의 수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논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4·19세대를 대표하는 비평가의 한 사람인 김병익이 자기 세대의 공통 기억과 개별 기억을 어떻게 직조하고 현재화하면서 현실을 성찰하고 있는가? 둘째, 칼럼 텍스트에서 기억이 현재화되는 양상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의미화 맥락을 창출하는가? 셋째, 칼럼 텍스트에서 기억은 진실 발견을 위한 방법적 성찰의 기제로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2010년대 김병익 산문의 핵심적인 특성을 밝힘과 동시에 밀레니엄 시대를 거쳐 21세기로 진입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한국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특징적인 성찰 담론의 수사학적 구성 방식과 메시지 및 텍스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의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 논자들이 언급한 것처럼,[3] 김병익은 한국 문학사의 지성적 전통을

---

2 김병익은 자유로운 인문학적 읽기-쓰기 과정에서 ‘만년의 양식’과 그 즐거움을 발견했음을 말한 바 있다: “읽고 싶거나 손 가까이 있어 들게 된 책을 보다가 까다롭거나 지루하면 내려놓기도 하며 애써 겨루기보다 편한 상대를 골라 독서를 하게 된 것이 이즈음의 내 책 읽기 태도였다. 쓰기에서도 그랬다. 청탁이 까다로우면 거절하기도 하고 굳이 써야 할 경우도 마치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가볍게 늘어놓으며 생각이 내키고 글줄이 흘러나오는 대로 따라갔다. 이런 내 읽기-쓰기의 태도에 나는 ‘자유로운 읽기-쓰기’라고 방자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인문학적 읽기-쓰기’라고 현학적인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어떻듯 읽고 쓰기에 부담감을 갖지 않고 편하게 문자생활을 누리게 된 것은 내게 따뜻한 즐거움이었고 ‘만년의 양식(樣式)’으로 얻은 자연의 선물이기도 하리라.”(「자유로운 읽기-쓰기를 누리며」, 앞의 책, 7쪽.)

3 「김병익의 초기 비평 연구」에서 김세령은 김병익에 대한 기존 평가를 요령 있게 정리했다: “김병익 비평에 대해 ‘논쟁적·배제적이 아닌 포용적·개방적 비평’(고종석), ‘자유주의적 휴머니즘과 다원주의’, ‘자기 지키기와 타자 감싸기’(구모룡), ‘열린 문화주의, 관용적 역사주의, 비평 대상에 대한 애정으로서 감동하는 의식’(김현), ‘반성적 인식과 비판적 사유, 대화적 지성’(권성우), ‘겹의 사유와 열린 비평’(박성창), ‘유연하게 열린 지성과 전망’(박혜경), ‘문학적 지성과 실존적 선택’, ‘반성적 성찰과 열린 보수주의’(성민엽), ‘4·19세대 문학주의자의 대화적 읽기’,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한 새로운 현실과 문학의 전망 열어가기’(우찬제), ‘다른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4·19세대의 자기 인식 심화시키기’(이광호), ‘균형 잡힌 개혁지향적 자유주의’(이재현), ‘대화적 비평’(임우기), ‘깊어져 열리기’(정과리), ‘온건한 너그러움’(홍정선)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세령, 「김병익의 초기 비평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5권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06. 30쪽.)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조망하고 있음을 서재원의 연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병익은 시대 상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내면적 성찰을 중시하고, 디지털 시대의 전위에

발견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정리한 비평가, 지성이 '문학'의 본질과 미학에 연결되는 접점을 탐문함으로써 '문학'이 문학 외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미학적 품격을 더하게 하는 데 기여한 평론가, 특히 4·19정신의 바탕 위에서 문학의 자율성과 이를 통해 확보되는 인간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성찰한 문학가, 순한글 세대 이후 새로운 감수성의 근원을 탐사하면서 고난스러운 비평적 싸움으로 오늘의 한국문학이 자립적인 전통과 향취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부단히 강조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지성적 위의를 두드러지게 한 비평가, 현실의 고통을 부드럽게 껴안으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인간적 문화적 전망을 열어왔던 평론가, 자신의 읽기와 쓰기의 모든 순간이 한국 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궤적이 되기를 꿈꾸었고 결과적으로 시대정신의 심연에서 지성의 탈주선을 그릴 수 있었던 문학가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각의 저편』 출간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글쓰기의 의미 혹은 목적을 두 가지로 간추렸다. "하나는, 내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와 당신, 나와 세계 사이를 잇기 위해서."[4]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그가 글을 쓰는 목적이라면, 칼럼의 저자로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 공공연한 의미로 내 뜻을 넓혀 읽는 이들의 공감을 얻을지, 그러려면 어떻게 글줄을 늘이고 구성을 짜야 할지 고심했던"[5]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의 저편』을 마무리하는 글인 「'늙은' 칼럼니스트

동참하면서도 문학의 위의를 이야기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껴안으려는 '열림의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작품을 품으려는 '일굼의 성실성'을 잃지 않는다. 비평의 미래를 부단히 탐구하는 정신이야말로 40년을 한결같이 비평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다.…중략…김병익의 비평은 사회의 환경의 변화라는 상황에 대한 부단한 탐구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언어적 참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서재원, 「김병익 문학비평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7집(9권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8, 299~300쪽.), 본고의 대상으로 삼은 두 권의 칼럼집에 대한 학계의 기존 논의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기존 논의 검토는 김병익 비평 전반에 대한 수용 경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4 신준봉, 「신준봉 전문기자의 책과 사람(16): 칼럼집 펴낸 원로 문학평론가 김병익」, 『월간중앙』 2021년 7월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4239

5 김병익, 「'늙은' 칼럼니스트의 심사」, 『생각의 저편』, 문학과지성사, 2021, 195쪽.

의 심사」에서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 나는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는 기사나 해설, 혹은 사설처럼 객관적 주장이나 규명으로 엄격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과 사태에 대한 내면의 사유나 회상을 '수필'이란 용어처럼 흐르는 대로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다. 설정한 주제는 큰 틀에서 짚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사유와 접근은 부드러운 사고의 진행에 따라 풀어간다는 것, 그것은 시나 소설 같은 개인적 상상의 분방을 유보하는 대신 익명의 공적 주장이나 설명이란 비개인성에 빠지지 않고, 바로 나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쓰는, 또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면서도 그만큼 객관적·공론적 성격으로 벼러진 말이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새 책, 옛 기록을 찾고 묵은 기억들을 헤집어내며 이 생각과 저 사건을 맺고 거기서 보태고 뺄 것을 정리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 글의 주제가 당시의 현실적 상황에 매이지만 그 접근 방법과 태도는 여유 있고 탄력적이며, 글의 내용은 통개인적이고 공론적이지만 글의 형태와 쓰기는 유연하고 사유와 추리는 필자의 개인적 특성과 자유로움을 보장해줄 것이었다. 제약 속의 자발성, 한계 속의 제멋대로임을 열어주는 '칼럼'의 형태는 그래서 노년의 내 바람에 어울려가는 것 같다.[6]

그러니까 일간지라는 매체에 칼럼을 쓰면서 나름대로 수사학적 기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화제 변수(topic variables)의 측면에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개성적인 것과 공론적인 것 사이의 변증을 통해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청중과 온당하게 논의될 수 있"[7]는 화제를 고르고, 소통과 설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 책, 옛 기록을 찾고 묵은 기억들을 헤집어내며 이 생각과 저 사건을 맺고 거기서 보태고 뺄 것을 정리하는 수고"를 하면서 상호작

---

6 앞의 책, 196~197쪽.

7 Roderick P. Hart, *Modern Rhetorical Criticism*, Boston: Allyn and Bacon, 1997, p. 50.

용을 위한 수사학적 정련을 거듭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 면에서 이 대목은 이 칼럼 텍스트의 화자 변수(speaker variables)를 분석하는데 요긴한 자료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 화제를 발견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책을 포함한 '기록'과 '기억'의 상호작용이 텍스트 생산의 기본적 필요조건임을 시사한다는 점도 주목에 값한다.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 창안한 담론을 설득장(說得場; persuasive field)에서 청자에게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다는 '기대' 혹은 텍스트 효과 또한 연쇄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요컨대 김병익의 칼럼 텍스트는 '기록'과 '기억', 그리고 '기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름의 수사적 관습(rhetorical cinventions)을 창안하려 한 시도로 분석할 수 있겠다.

화자와 기록의 관련성은 앞에서 『조용한 걸음으로』의 서문인 「자유로운 읽기-쓰기를 누리며」를 통해 언급한 바 있거니와, 『생각의 저편』의 「한갓진 글쟁이의 다행」 등 여러 편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자와 기억의 문제는 『기억의 타작』(2009)을 경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 책의 「책머리에」서 김병익은 나름의 기억론을 제안한다. "문학이란 기억으로 살아남기 위한 소망을 위한 것", "특히 문학은, 인간과 세상을, 삶과 정신을, 그래서 이 세계 전모를 재구성하고 재생함으로써 이후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기억해두기를 요구하고 그 실존을 환기하며 그 인격을 추념토록 하는 것이고, 기억은 문학을 통해 인간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회상되고 재현하며 의미화하고 추모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영원의 것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작가는 그 기억을 살아 있는 존재로 환원하며 인간과 세계의 모든 것을 현존의 생생함으로 살려내려 하고 있고 작품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세계를 되살리면서 한 순간의 것들을 시간을 뛰어넘어 영구한 존재상으로 현상시켜 주는 한편 그 자신을 창조한 작가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찾아내줄 것을 기억의 명의로 주문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묘사와 문체, 서술과 소재, 기법과 주제 등 모든 장치와 방법들은 그 기억을 진하게, 생생하게, 아름

답게 만들기 위해 동원된 안쓰런 노력"이라는 말로 수사적 관습과 기억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인간은, 기억을 매개로 한 문학을 통하여 부활하며 혹은 문학을 매개로 한 기억으로 상존하여, 영원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라면서 이 기억의 주제를 더욱 천착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낸다.[8] 정리하자면, 1) 문학은 기억의 미학적 공간이다. 작가의 기억은 문학 텍스트로 형상화되어 영원성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 지평을 마련한다. 2) 문학에서 기억은 인간과 세계의 현존을 생생하게 살려내는 기제가 된다. 3) 문학의 주제와 형식 양면 혹은 수사학적 장치와 방법들 역시 기억의 문제와 심층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기억을 더욱 그럴듯하게 재현하기 위한 방법적 고안의 산물이다.

이런 기억에 대한 사유는 발터 벤야민의 논의와도 친연성을 갖는다. 「시인들의 옛집」에서 "내면화된 현존의 모든 힘이 기억으로부터 생겨난다. 기억은 미의 정수"라는 벤야민의 언급을 직접 인용하면서 기억의 문화론을 펼치는 것도 그런 까닭일 터이다.[9] 「프루스트의 이미지」, 「베를린 연대기」 등에 나타난 벤야민의 기억론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도 기억의 수행적 현재화 양상이다. 기억은 체험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기억하는 현재 시간에 수행적으로 구성된다는 벤야민의 기억의 정치학은 문학과 수사학에서의 기억 논의에도 의미 있는 참조의 틀을 제시한다. 그는 체험한 사건과 기억된 사건을 구분한다. "어떤 체험한 사건은 유한하고 대개 체험의 한 영역 안에 종결되어 있다면, 기억된 사건은 그것이 그것 전과 후에 오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라는 이유만으로 무한하기 때문이"며, 텍스트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작가의 인격도 줄거리도 아닌 "오로지 기억하기라는 순수 행위(actus purus) 자체"라는 것, 심지어 "작가나 줄거리에 의해 생겨나는 중단들은 기억하기라

8 김병익, 「책머리에」, 『기억의 타작』, 문학과지성사, 2009, 8~9쪽.
9 김병익, 「시인들의 옛집」, 『시선의 저편』, 문학과지성사, 2016, 181쪽.

는 연속체의 이면, 양탄자의 뒷면의 무늬일 뿐"이라는 것이다.[10] 또 기억은 "과거를 탐색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가 펼쳐지는 무대"라는 점을 벤야민은 강조한다. "죽은 도시들이 묻혀있는 매개체가 땅인 것처럼, 기억은 체험된 것의 매개체"여서 "묻혀있는 자신의 고유한 과거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땅을 파헤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11] 그렇게 고고학적 집중과 몰입을 강조하는 벤야민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한 생애 전체를 정신이 최고도로 깨어 있는 상태로 충전하려는 부단한 시도"를 예리하게 주목한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몰입하고 전후 맥락을 가려 깨어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현재화(Vergegenwärtigung)" 기제로 기억을 설명한다. 프루스트가 행한 방식이 바로 현재화였다는 것이다.[12]

발터 벤야민의 맥락에서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은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부닥쳐 온다.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기억이 하는 일이고, 그 사실들은 기억의 수행적 종합에 의해 변증법적으로 구성된다. 벤야민이 "지극히 정교하게 구성된 변증법적 전환으로 드러내는 필연적이고 강렬한 경험이 꿈에서 깨어나기"라고 한 「파리의 파사주」 관련 노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를 "고정점으로 보지 않고 현재로부터 관찰"한다는 것, 역사 인식의 방점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에서 "그것이 현재화하는 지금, 기억하기라는 행위"로 옮겨진다는 것, 14번 테제에서 벤야민이 강조하는 것처럼 역사는 "구성의 대상이며, 이때 구성의 장소는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시간(Jetztzeit)으로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정리하면서

---

10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프루스트의 이미지」, 『서사・기억・비평의 자리』, 길, 2012, 237~238쪽.

11 발터 벤야민, 윤미애 옮김, 「베를린 연대기」, 『1900년 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베를린 연대기』, 길, 2007, 191쪽.

12 발터 벤야민, 「프루스트의 이미지」, 『서사・기억・비평의 자리』, 253쪽.

최성만은 “기억에서 기억된 사실이 아니라 기억하는 주체와 기억의 행위가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13] 이런 발터 벤야민의 기억론과 김병익의 기억론의 친연성을 확인하면서 두 권의 칼럼집에 나타난 기억의 수사학의 특성을 몇몇 국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예정이다. 먼저 수사적 상황에서 저자 변수에 주목하면서 4·19세대 저자가 기억을 현재화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기억이 재구성되면서 텍스트에 현재화되는 양상과 의미화 맥락 창출의 관련성을 추론한 다음, 삶과 세계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저자의 방법적 성찰 기제로서 기억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피기로 하자.

2. 4·19세대의 기억과 시차 성찰

(1) 4·19세대의 기억과 ‘압축 성장’에의 성찰

김병익은 자기 세대가 겪어온 20세기의 곡선을 이렇게 요약 제시한다: “일제 말기에 태어나 해방되던 해 초등학교 첫 학년에 일본말과 우리말을 잇달아 배운 나의 세대는 분단과 6·25전쟁, 남북 대치와 반공주의, 4·19와 5·16, 유신과 민주, 5·18과 6·29의 잇단 대결과 갈등에 속박당하면서 경제 성장과 자유 민주주의의 역동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었다.”[14] 이런 4·19세대의 경험과 역정을 기억 작업을 통해 생생하게 현재화하고 있는 몇 장면을 먼저 보자.

---

13 최성만, 『발터 벤야민 기억의 정치학』, 길, 2014, 377~378쪽.
14 김병익, 「지난 세기에의 미련」, 『생각의 저편』, 문학과지성사, 2021, 104쪽.

① 내 오랜 기억 중의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 꽤 많은 어른이 낯선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만세를 외치는 함성의 행렬이었다. 그 시위의 뜻을 깨달은 것은 새 학기가 되면서였다. 등사판으로 급히 만들어졌을 교재를 놓고 우리말로 수업을 받으면서, 나는 지난 학기 무심코 쓴 조선말 한마디 때문에 뺨 맞은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해방이 되었고 독립한 것이었으며 내 이름을 찾고 우리말로 공부하며 훗날의 김현의 말대로 기표와 기의가 같은 글쓰기를 할 수 있었던 첫 '한글 세대'가 된 것이었다.[15]

② 6·25에 대한 내 회상은 바로 그 전쟁 벽두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6학년에 오른 지 몇 주 안 된 1950년 6월의 마지막 일요일, 내가 자란 지방도시의 중심가에서 "외출 중인 국군 장병 여러분, 어서 귀대하십시오"라며 마이크로 외치는 지프차 방송을 들었다. 반동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은 오직 전쟁을 피하겠다는 심정으로, 현명하게, 멀찍이 부산으로 피난했다. 덕분에 나는 인민군을 보지도, 폭격소리를 듣지도 못한 채 외려 초량 밤바다 외국 원조선들의 휘황한 불빛들을 환상처럼 바라보았다. 석 달 후의 10월, 기차 지붕에 실려 사흘 만에 내린 대전의 정거장에서 보인 건 멀리 산자락까지 질펀하게 펼쳐진 벌건 폐허였다. 밝아오는 새벽빛에 어스름이 드러나는 시내는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어진 황무지였고 시청 등 두어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어 그 황폐가 더욱 살벌하고 적막했다. 어른이 되어 배운 '그라운드 제로'의 현장이었다.[16]

③ 사회학과생의 "학우들이여, 우리 친구들이 광화문에서 당하고 있다. 나가자!"란 외침을 앞세우고 일군의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뛰쳐나간 후, 라일락이 화사하게 꽃피운 교정은 차라리 교교했다. 멀찍이 맞은편 벤치에는 여학생 두어 명이 조용히 소곤거리고 있었고 나는 무겁고 우울한 기분에 젖어 멀거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59년 전의 4월 19일 오전 10시 즈음. 드디어 나는 버스를

15 김병익, 「전범국의 자기기만」, 앞의 책, 128쪽.
16 김병익, 「역사에의 관용」, 앞의 책, 123~124쪽.

버리고 걸어서 돈암동 숙소로 돌아와 몸과 마음이 혼곤에 빠졌고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중1 때 내 앞줄에 앉았던 사범대생 친구가 총탄에 숨졌다는 뉴스를 들었다.[17]

인용문이 다소 길어졌지만, 화자의 기억 행위의 구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가져왔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해방, 한국전쟁, 4·19를 경험한 세대로서 각각 공통의 기억과 개별적인 기억의 혼효되어 있다. 이 기억의 현재화 작업은 단지 그 순간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함에 있지 않다. ①은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의 그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했는데, 정작 식민지배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은 그런 반성적 성찰이 없었다는 비판적 성찰의 실감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기억이고, ②는 "혐오에서 증오로 살벌해지는 시대"에 "역사에의 품위 있는 관용"을 주제화하기 위해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기에 일어난 잘못된 전쟁"의 사례를 극화하기 위한 기억의 현재화이고, ③은 4·19세대의 공과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그 시효와 관련한 판단을 모색하기 위한 기억 작업이다. 이런 기억의 현재화 작업을 경유하면서 4·19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찰을 이어간다.

우리 또래는 이렇게 해서 '한글-민주화-산업화'의 3중의 과제를 실천한 '4·19세대'라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호를 얻는다. 미완의 학생혁명을 통해 이 세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리적 진화도 이루었다. 미래와 세계에 대한 자신감 획득이었다. 이전의 우리 역사는 동학혁명 다음에는 주권 상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분단과 전쟁 등 미증유의 비극을 당함으로써 큰 사태 후 더 큰 비극을 맞는다는 시대변화의 불행감에 짓눌려왔다. 그러나 4·19세대는 자신들의 행동으로 구세대의 정권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그 자신감으로

17 김병익, 「4·19세대의 시효」, 앞의 책, 116쪽.

낙관적이고 성취 지향의 역동적인 전망을 얻어냈다. 미지의 미래와 불안의 세계에 대해 비로소 자신감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세대는 한국전쟁이 요구한 희생을 피할 수 있었고 운동권 세대들의 수난을 비켜갈 수 있는 행운까지 가졌다. 고백한 바 있지만, 나는 부모 세대들의 노고로 대학교육을 받았고 후배들의 열정 덕분에 사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18]

"'한글-민주화-산업화'의 3중의 과제를 실천한 '4·19세대'"라는, 요약에서 분명하듯이 4·19세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압축 성장을 시도하고 성취한 세대라는 인식을 보인다. 그러나 「4·19세대의 시효」, 「역사에의 관용」, 「'촛불 시위'의 정치 시학」, 「지식사회의 압축 성장」, 「6·25에서 60년, 뒤돌아봐야 할 '세월(호)'」, 「한반도의 지정학-건널목에서 알박이로」, 「'성장 없는 발전'을 향하여」, 「'검소한 풍요'를 소망하다」, 「2020, 그 자부심의 세대」 등 여러 편의 칼럼에서 압축 성장의 문제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가령 「역사에의 관용」에서 저자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선진국 반열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압축 성장의 덕이지만, '압축'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양산했던가를 헤아린다. "정치적 독재가 압박했고 경제적 왜곡이 자행되고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됨에도 "성장으로 풍요를 성취"했다는 것, 따라서 "그 풍요는 강요와 압박, 부정과 부패의 패러독스"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질문한다: "뒤집어 크게 보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힘은, 그것들이 없으면 무능하게 여겨질 바로 그 불법, 불의들 때문은 아니었을까, 성장은 부정에서 힘을 얻었기에 역동적일 수 있었고 발전은 부도덕에서 자양을 쌓았던 것은 아닐까. 서구 자본주의처럼 불의를 자산으로 하여 형성되고 그 불의의 일상화가 우리의 압축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아닐까."[19] 정치 경제 사회 도덕

18 앞의 책, 118~119쪽.
19 김병익, 「역사에의 관용」, 앞의 책, 125~126쪽.

적 측면만 그런 게 아니다. 지식 사회의 압축 성장 또한 매우 문제적임을 김병익은 지적한다. “실용주의로의 일방적 기울어짐, 상아탑 연구들의, 버크가 말하는 바 ‘지식의 맥도널드화’, 그럼으로써 성과의 성급한 환금주의, 학문의 권력화로 말미암은 속류화”, “지식과 사유들이 세계화 명분 속에서 왜곡되고 연구 작업이 실적주의로 퇴화하며, 기초학문과 인문학의 냉대로 ‘다르게 생각하기’의 창조적 정신의 위축” 등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20] 또 세월호 사건을 통해 이른 다음의 성찰은 압축 성장의 대가에 대한 매우 일목요연한 진단에 해당한다.

> 전근대적 봉건의 타성, 운동권의 근대적 이념, 탈근대의 디지털 문화 등 세대 간의 이질적 의식의 충돌, 지역 간 직종 간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 물신주의와 교환가치의 지배, 세계화와 토착성의 길항, 당리당략이 우선하는 정치적 후진, 환경 파괴와 생명의 폄하, 정서적 천박과 태도의 허황, 갈수록 두터워지는 증오의 심리가 오늘의 한국과 한국인의 인격과 인성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21]

이렇게 김병익은 4·19세대 비평가로서 지난 현대사의 문제적 장면을 정직하게 기억하고 성찰하는 대화적 과정을 통해, 과거 돌아보기와 현재 바라보기 및 미래 내다보기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즉 기억의 현재화를 통해 4·19세대의 공과를 정시하고, 소망스러운 미래를 위해 변증법적 시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압축 성장’의 문제점이 중핵적 화제 변수로 등장하고, 이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와 생태 문명과 생태 윤리 쪽으로 화제를 확산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

20 김병익, 「지식사회의 압축 성장」, 앞의 책, 65~66쪽.
21 김병익, 「6·25에서 60년, 뒤돌아봐야 할 ‘세월(호)’」, 『시선의 저편』, 81쪽.

(2) 시차 적응과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

"모든 미래는 미래와 과거, 현재에 분점되고 인류사의 책임과 가능성은 그 모두에 서로 얽혀 상호 의존의 인과를 이룬다"[22]고 생각하는 김병익은 늘 예민하게 시간과 대화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시차 적응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세기 마지막 10년과 21세기 20년에 걸친 인류사적 전환의 시기는 그와 그의 세대에게 각별한 시차 적응을 요청하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기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적인 인식 체계로 바뀌었고, 지구적 차원에서 우주적 시야로 확장되었으며, 실제를 넘어 가상세계 속의 거주와 향유가 가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적 DNA 조작이나 AI 기술 발달로 휴먼에서 포스트휴먼으로의 새로운 성찰이 로 진행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호모 사피엔스 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환기를 맞아 그는 이전까지 나름대로 "자부해오던 '4·19세대의 시효'가 다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식에게 컴퓨터를 배우고 손자로부터 스마트폰 용법을 익혀야 하는,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교육의 역류를 경험하면서 과거의 성취를 내세워 호령하는 내 또래들의 '세월 모르는' 완매함이 불편해"졌다고, "60년 전의 자부심 높던 세대가 자존심을 앞세워 반성 없이 여전한 주역으로 착각하고 전날의 반공주의와 성장주의에 물려 여전히 그 위세를 휘두르며 21세기 젊은이들에게 호령하려 든다면 빈 수레의 헛소리로 그 시끄럼만 크게 울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제부터는 "달라진 세계를 다시 바라"보며 "새 세대들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것이 좋겠다는 논지를 펼친다.[23]

이런 생각은 「2020, 그 자부심의 세대」에서 더 구체화된다. 역사 인식이

---

22 김병익, 「지나간 세기에의 미련」, 『생각의 저편』, 108쪽.
23 김병익, 「4·19세대의 시효」, 앞의 책, 121쪽.

나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사고 등 여러 면에서 4·19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자부심을 보이는 새 세대에 대한 기대를 전면에 내세운다. 김병익은 지난 역사의 불행에서 오히려 '창조적 파괴'를 발견하며 "중심부의 문명을 받아들여 내재화함으로써 사회를 진화시킨 과정"을 바로 볼 것을 권하는 복거일의 전언을 김승호·백승호·양승훈 등 30대 저자 6명이 공저한 『추월의 시대』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젊은 세대 저자들이 한국 사회가 어느덧 '추격의 시대'를 지나 '추월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김병익은 식민지를 경험했고 내전을 겪은 여전한 분단국이지만 그럼에도 "한국인으로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성공담이었다"는 그 "콤플렉스 없는 자신감" 내지 "서슴없는 자부심에서 솟은 당당한 자기 세대 선언"에 감동했다고 고백한다.[24] 그러면서 자신의 4·19세대 의식과 대비적인 성찰을 이어간다. 앞서 언급한 바 "'한글-민주화-산업화'의 3중의 과제를 실천한 '4·19세대'"라는 자부심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획득된 것이고, 젊은 시절에는 "'식민-후진국'의 열등감에 젖어 부끄러워" 했었는데, 신세대는 "지난 시절의 '약소국 설움'들을 이 코로나 역병의 시대에 오히려 '강한 장점'으로 바꿔보라며 '반전의 시선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통일 강박에서 탈피하고 세계화 시대에 잘 적응하면 "주관적 약소국이지만 객관적 강대국"일 수 있을 "약소국의 축복"을 멋지게 누릴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는 결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흡수되는 전개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신세대의 자신감을 적극 응원한다.[25] 요컨대 한국의 현대사와 현단계 전지구적 전환을 성찰하면서 김병익은 시간의 대화를 통한 시차 적응을 모색하는 가운데 4·19세대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그 시효가 다했음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전

24 김병익, 「2020, 그 자부심의 세대」, 『생각의 저편』, 문학과지성사, 2021, 191~192쪽.
25 앞의 책, 192~193쪽.

향적 담론을 펼치는데, 그 과정에서 4·19세대 기억의 현재화 작업은 기억-기록-기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3. 활성적 기억의 재구성과 담론의 생성

(1) 기억과 맥락 창출

경험주의적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는 살아있는 인간들을 결속하는 것으로 '공동 기억'을 주목한다. 알박스의 기억론에 대한 알라이다 아스만의 정리를 따라가자면 "기억이 집단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집단이 기억을 고정하기도 한다."[26] 즉 알박스의 '집단적 기억' 연구는 "그런 기억의 고정성이 직접적으로 집단의 단결 및 존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27]를 도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28] 알박스가 공간적·시간적 결속력의 측면에서 집단 기억을 논의했다면 프랑스 출신 역사가 피에르 노라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상징으로 매개되는 추상적 공동체로 집단을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기억은 항상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이며 영원한 현재에서 체험한 구속력이지만, 그에 반해 역사는 과거의 재현에 불과"하며, "기억은 집단에서 성장하여 맥락을 창출한다."[29]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기억이 맥락을 창출하면 의미 전환의 지

---

26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177쪽.

27 같은 곳.

28 알박스의 본문을 직접 보기로 하자: "집단적 기억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된 집단이 갖는 특수한 기억이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이 가지는 전체성을 단지 유일한 상(像)에 대한 전제하에서 조합하여 그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 속에 지니고 있는 각 집단의 기억으로부터 그 사건들을 분리한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발생했던 당시 사회적 환경 범위 안에서, 그 환경과 관련된 심리적 삶과 결부된 굴레를 분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단의 연대기적·공간적 도식만을 취한다."(Maurice Halbwachs, *Das kollektive Gedächtnis*, Frankfurt am Main, 1985, PP. 72이하, 여기서는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178쪽에서 재인용함.)

평을 열 수 있다. 기억에서 “의미가 담긴 요소들과 의미 중립적 요소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알박스는 “회상이 집단적 기억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의미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라이다 아스만은 정리한다.[30] “모든 인격과 역사적 사실은 이미 이러한 기억으로 들어감으로써 학설이 되고, 개념이 되며, 상징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를 갖게 되고 사회의 이념체계의 요소가 된다.”[31] 아울러 “특정한 의미구조의 자장 안으로 들어가는 회상들은 과거의 감각 자료, 경험과 구분된다”는 점, “기억은 의미를 발생시키고 의미는 기억을 고정한다”는 점, “의미는 항상 구성의 문제이자 나중에 부과된 해석물”이라는 점을 아스만은 강조한다. 또 기억 작용은 활성화된 요소와 잠재적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나갈 수도 있다.[32] 아스만은 비활성적 기억과 변별되는 활성적 기억의 특성을 넷으로 정리한다. “1) 기억은 집단, 제도, 개인일 수 있는 보유자와 결부되어 있다. 2)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 3) 이것은 기억하고 저것은 잊어버리면서 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한다. 4) 가치들을 중개하는데, 그 가치에서 정체성의 특성과 행동 규범이 생기게 된다.”[33] 기억으로 맥락을 창출하고 의미 전환의 지평을 연다는 것은 김병익의 칼럼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가령 「지식사회의 압축 성장」의 이런 대목을 보자.

> 내가 지식 사회사의 진행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해 갑작스레 우리 정치, 경제, 과학계에 ‘4차 산업혁명’이 크게 논의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

29 Pierre Nora, *Zwischen Geschichte und Gedächtnis*, Berlin, 1990, pp.12이하, 여기서는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179쪽에서 재인용함.

30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183쪽.

31 Maurice Halbwachs, *Das Gedächtnis und seine sozialen Bedingungen*, Frankfurt am Main, 1985, PP. 389이하, 여기서는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183쪽에서 재인용함.

32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183쪽.

33 앞의 책, 180쪽.

재구성 작업을 독촉하는 움직임을 본 때문이고, 젊은 국문학도 안서현의 「계간지 시대의 비평 담론 연구」에서 나도 참여했던 1970년대 계간지 운동이 학위논문 주제가 된 것을 보고 '현존에서 역사로의 이월'에 대한 감상어린 **소회**에 젖어든 때문이기도 하며, 1970년대 초에 활발했던 '한국사 시대 구분론' 토론을 **회상**한 때문이기도 하다. 분명 이 시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실재에서 가상현실로, 자연지능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과 비약의 단계로 오르고 있다. 이 변화를 실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전망해야 할지 내 좁은 지력으로는 갈무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새해에 **바라볼** 것은 없이 **돌아볼** 일만 엄청난 80년의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콘트라티에프의 50년 주기가 아니라 10년 주기로 압축되어야 했다.(진한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이하 같음.)[34]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화자 자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연구 대상이 된 시점을 소환하고 시간의 대화를 시도한다. 1970년대초 한국사 시대 구분론 토론 때의 기억을 활성화하며, 그때의 맥락과 의미를 현재 시점에서 재성찰한다. 그동안 지식 사회의 압축 성장의 결실과 더불어 현재의 인류사적 전환 상황에서 새로운 맥락을 창출하고 의미 전환의 바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김병익의 담론은 전개된다. 이렇게 김병익의 칼럼에서도 활성적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를 회통하게 하는 가교가 되며,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는 가운데 새로운 의미 전환을 위한 맥락을 제공한다.

「『무정』 100년」에서도 활성적 기억은 비슷하게 작동한다. 오래 전의 기사 뭉치 속에서 「『무정』 이후 소설 문학 50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된다.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발표된 것이 1917년. 올 1967년으로

34 김병익, 「지식사회의 압축 성장」, 『생각의 저편』, 63-64쪽.

꼭 50년이 되었다."[35] 본인이 쓴 그해 7월 2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서 저자의 기억은 활성화된다. 예전에 「작가와 상황」에서 당대의 억압적 상황에 문학인이나 지식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숙고한 바 있거니와, 한 세기 전에 활동한 이광수를 놓고 그 수용 환경이나 맥락이 기사를 썼던 50년 전과 지금 사뭇 달라졌다는 점이 기억 활성화의 계기라 하겠다. 그 시간의 대화를 통해 김병익은 작가와 상황의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거듭 성찰하고 인식과 맥락을 탄력적으로 보정하자고 제안한다. "친일과 좌경의 부정적 자의식을 넘어서 자기 긍정의 자신감으로 반성하며 콤플렉스 없는 새로운 세대의 신선한 시선으로 분석하고 자유롭고 열린 정신으로 평가하며 그 의미를 찾을 때 우리 문학과 문화도 그만큼 높고 넓어지며 의미 있고 풍요해질 것이다. 오늘의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향한 자부심도 든든해지리라."[36] 기억을 통한 맥락 창출과 의미 전환의 지평 마련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2) 기억의 재구성과 재생산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책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책에는 기록자가 진실되거나 거짓된 심상들과 결부된 진실이거나 거짓된 말을 기록한다고 했다. 대화편 『테아이테토스』에서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의 선물인 밀랍판 심상을 사용하여 회상(원상)과 지각(모상)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연관성이 믿을 만한 인식 행위로서의 회상 행위의 전제"가 되며, "인식이 얼마나 분명한가 또는 흐릿한가는 '영혼의 정수'에 그것이 각인된 정도에 달려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설명한다.[37] 김병익의 「기억으로서의 크리스마스」는 기억 작용에서 원상과 모상의 연관성 문제 내지 기억의 재구성과 재생산 문제와

35 김병익, 「『무정』 100년」, 앞의 책, 32쪽.
36 앞의 책, 38쪽.
37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202쪽에서 재인용함.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은 텍스트다. 제목에서도 환기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화자는 본인과 가족의 크리스마스 기억을 되살린다. 고1 때부터 대학 2학년 4월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껏 신자를 벗어난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 "청소년 시절 그 짧은 기독교 체험은 눈 오는 12월이면 성탄절과 새해맞이가 겹쳐 아득한 그리움으로 되살아나면서 가슴은 설레고 머리는 신선한 기대에 이끌리던 어린 정서에 젖어들"게 된다는 것, "기억 속의 크리스마스는 그처럼 집요하게 조용한 감동을" 일으킨다는 것, 심지어 교회 체험 없이 살아온 자식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축복의 다사로움을 여전히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는다.[38]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 그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기억을 범주를 넘어서는 것임을 성찰한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과 성찰의 대화가 심화되는 계기를 화자는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기록을 통해 마련한다. 무신론과 교회의 폐해를 지적하는 도킨스는 "기독교가 2천년 동안 지은 잘못도 크지만 세계가 무지와 혼란으로 고통스러웠던 '축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의 미덕을 가르치고 그 윤리와 가치관이 신을 잃은 세속 사회에 여전히 엄숙한 규범에 되어왔음을" 놓쳤거나 무시했다고 화자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기억의 관계를 논의한다.

> 미국 목회자의 반 넘어가 인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기보다 정신의 평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오늘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랑의 윤리는 기독의 그 진정성에서 비롯되었고 그 인간학과 예술을 통해 **정신적 연대와 정서적 공감으로 기억**해온 때문이었다. 폴 콜리어는 『자본주의의 미래』에서 "그러나 '신이 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 의무는 우리에

38 김병익, 「기억으로서의 크리스마스」, 『생각의 저편』, 182~183쪽.

게 더욱 확고하게 지워진다"고 쓰는데, 그 의무는 **2천 년 동안 쌓이고 넓혀진 기억**들이 오늘의 인류에게 부여한 보편적 정언명령이 되었다.[39]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위시한 기독교 신화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천 년 동안 인류사에서 축적되고 각인된 기독교의 정서와 윤리, 교리와 이야기에 대한 기억은 각인의 깊이만큼 인간의 영혼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상의 실제나 진실성 여부와 상관 없이 기억에 의해 재구성된 기독교 그리고 크리스마스 풍경은 계속 재생산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어져 내려왔음을 숙고하게 한다. 화자 자신이 배교자가 되었음에도 자식들은 전혀 교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보편적인 성탄절 정서에 공감하게 되는 것도 이런 집단적 기억 작용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많은 경우에 재구성된 기억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성서 같은 기록 혹은 담론을 창출하고 그 담론을 통해 다시 기억의 재생산 회로를 이어가게 마련임을 논의하는 흥미로운 글이 바로 「기억으로서의 크리스마스」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류의 문화와 문명, 종교, 역사 등 많은 것들이 기억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진실 발견을 위한 방법적 성찰 기제로서의 기억

(1) 기억과 성찰의 대화

서론에서 확인한 것처럼 김병익은 칼럼의 수사적 상황을 숙고하면서 개인적인 것과 통개인적인 것, 개성적인 것과 공론적인 것 사이의 변증을 강조했

39 앞의 책, 186쪽.

다. 기억과 성찰의 대화를 통해 그가 나누고자 했던 것은, 현재 우리 삶과 현실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발견과 진단 및 새로운 질문 던지기가 기억과 성찰의 대화를 통해 역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행되기를 희구했던 것 같다. 가령 「2020년, 그 설운 설에 '다시'」에서 화자는 "잘살게 되었는데 잘살기의 경쟁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했고 자기 성장을 위해 출산도 결혼도 단념함으로써 삶의 자연적인 단계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혼자-살기, 홀로-죽기 판으로 졸아들고 있다"[40]며 문제적 현 단계의 증후에 대한 진단을 이어간다.

> 내가 정녕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성장이 반드시 발전이 아니며 풍부가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전과 풍요가 인간 행복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 편리가 반드시 즐거움이 아니고 빠름은 오히려 두려움일 수 있고 개혁이 개선과 같지 않다는 것, 신념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권력은 정의를 버리며 문명이 공정함과 관계없고 진보가 평화를 괴롭힐 수 있다는 등의 것들이다. 그래서 희망은 실망을 불러오고 기대는 회의를 안고 있는 것이리라.[41]

경제 발전, 인간 행복, 문명, 권력 등 여러 측면에서 그야말로 전면적인 성찰을 거쳐 도출된 진단의 요체다. 이런 진단을 위해 화자는 한국전쟁 중에 한 반 80명이 화판을 놓고 공부했던 장면이나 20여 년 전 밀레니엄을 맞으며 나름대로 기대했던 기억을 현재화하며 그런 기억들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성찰 사이의 밀도 있는 대화를 수행한다. 그런 기억과 성찰 사이의 대화 결과 위와 같은 진단을 한 화자는 그럼에도 "'마지막'이란 단절의 말로 단념하기에 앞서 '다시'로 하여금, 절망을 유예하며 한 줄기 다시-삶의 희망을 갖자고

---

40 김병익, 「2020년, 그 설운 설에 '다시'」, 앞의 책, 149~150쪽.
41 앞의 책, 150쪽.

당부"하고 싶어 한다. "내 안타까운 희망 속에서 나는 이 세계가 아직은 더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결코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싱싱하게, 이 세상-삶을 버텨내기를 바라"[42]는 것이다.

「'성장 없는 발전'을 향하여」, 「네메시스의 복수」, 「'검소한 풍요'를 소망하다」, 「(탈) 성장 사회의 길—이스터섬 혹은 월든」, 「'거리두기' 문화론」 등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까지 기억들을 복합적으로 소환하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나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의 측면에서 반성적으로 진단하고 다른 출구를 모색하자는 제안을 한 칼럼들이다. 예컨대 「'성장 없는 발전'을 향하여」에서는 "더 많이의 광기에서 충분의 윤리로 목표를 바꾸고 성장의 한계를 받아들여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를 건설"할 것을 제의하는 로버트 디에츠와 대니얼 오닐의 『이만하면 충분하다(Enough is Enough)』를 통해 작금의 경제성장주의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향한 길을 안내한다: "'더 많이'의 욕망에서 '충분'의 윤리로 반전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인버그의 '부탄으로의 귀환'을 좀더 실현가능한 정책인 '정상상태경제론'으로 구체화한다. 여기서 제안되는 '참 진보지표'는 국민경제에서 재화goods만 계산하고 환경 파괴, 재앙, 범죄 등 악화bads는 제외한 '국민 총행복'개념의 오류를 수정하는 실질적 행복의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43]

「네메시스의 복수」에서는 "더욱 심해진 빈부 격차와 무력한 자의 억눌린 항의, 법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불통, 사람들의 표독한 증오심과 할퀴 등 오늘의 우리 삶 곳곳에서 압축 성장의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는 악덕들"[44]을 진단하는데, 이 또한 36년 전 10.26 사건 때의 기억을 현재화하며 성찰한

---

42 앞의 책, 151쪽.

43 김병익, 「'성장 없는 발전'을 향하여」, 『시선의 저편』, 61쪽.

44 김병익, 「네메시스의 복수」, 앞의 책, 117~118쪽.

결과로 나타난다. 「'검소한 풍요'를 소망하다」에서는 오스트리아 언론인 앙드레 고르스가 『에콜로지카』에서 추구한 '충분한 것의 공통규범'을 응용하여 '검소한 풍요'론을 제안한 경제학자 자크 들로르의 논지를 주목한다.

>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추세와 결별하고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더 잘하기를 지향하는 삶의 모델"을 가리키는 이 '충분한 것의 공통규범'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움을 통해 사회적 성숙을 이루고 정신적 풍요를 안겨줄 활동을 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창출된 '내재적 부'는 "생물환경의 질, 교육의 질, 연대관계, 상부상조 조직, 공통의 상식과 실질적 지식의 확산,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 반영되고 펼쳐지는 문화 등" 상품 형식으로는 교환될 수 없는 내면 가치들이다. 요컨대 '검소한 풍요'란 가격을 붙일 수 없는 삶의 질과 그 의미로써 성숙한 정신과 세련된 품위를 보여준다.[45]

앞에서 거론한 「네메시스의 복수」를 비롯한 여러 편에서 진단한 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함께 숙고하고 모색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요컨대 김병익의 칼럼 텍스트에서 기억은 진실 발견을 위한 방법론적 성찰 기제다. 기억과 성찰의 대화는 압축 성장해온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등 여러 국면에서 전면적인 반성과 진단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발견되고 진단된 문제들을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희망의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한 간절한 제안들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 내면화된 현존과 성찰적 담론

기억과 기록을 가로지르고 성찰적으로 대화하면서 김병익은 산문적 사유

---

45 김병익, 「'검소한 풍요'를 소망하다」, 앞의 책, 131~132쪽.

의 심연으로 내려간다. 그 깊이에서 동시대 인식과 윤리의 벼리가 될 여러 지혜의 담론을 독자와 나누고자 한다. 가령 「역사에의 관용」에서 화자는 "증오는 지혜와 양심이 아니다. 적대적인 감정은 국가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야만적인 삶으로 악화시키고 사회의 관용과 인간성을 파괴한다. 또 국가가 자유와 민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중국 반체제 인사의 메시지, 그리고 이 대목은 들은 마종기 시인이 보내온 시 「고아의 정의」의 이런 대목, "세상에는 정의보다 훨씬 굵은 것이 있지/ 세상에는 정의보다 훨씬 밝은 것이 있지/정의보다 훨씬 높고, 맑고, 다뜻한 것이 있지." 부분을 인용하면서 불의에의 즉각적인 보복에 앞선, 만델라가 아파르트헤이트의 폐기를 선포하며 다짐했다는 말을 기억해낸다. "용서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는 톨레랑스를 현재화하면서 내면적 성찰을 심화한다. "혐오에서 증오로 살벌해지는 시대에, 아아, 역사에의 품위 있는 관용을!"[46] 벤야민의 말처럼 기억으로부터 발원된 내면화된 현존의 에너지를 몰입하여 깊이 있는 성찰적 대화를 시도한 결과로서의 이런 도저한 담론이야말로 김병익의 칼럼 텍스트의 순금 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인용이 좀 길어지더라도 구체적 논거 확보를 위해 그 중 일부만 간추려 보도록 하자.

> ① 나는 이것을 '역사적 관용'이란 말로 에둘러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보되, 약자와 패자의 아픔을 부드럽게 싸안으며 옳음을 추키되 고집 센 미움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형용모순들이 문리를 얻어 우리 정신의 폭을 열어 넓히면 우리 역사도 적폐를 넘어 적선의 긍정적 역사로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세계를 큰 눈으로 보고 먼눈으로 받아들일 때……"[47]

---

46 김병익, 「역사에의 관용」, 『생각의 저편』, 127쪽.
47 김병익, 「큰눈, 먼눈: 『한겨레』 10000호」, 앞의 책, 163쪽.

② “이 세계가 허망하기에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시대가 죄스럽기에 존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사회가 위선이기에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 인간들이 포악한 존재이기에 선의가 피어나야 한다는 것, 삶이 고통스럽기에 유머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48]

③ 소외감의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호프스태너가 “사회로부터 점차 인정받고 편입되고 활용됨에 따라 그저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어 창의성과 비판정신을 지닌 참으로 유용한 인간은 사라져간다”며 한탄하는 데 공감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니라는 희망을 캐어내고 싶다.[49]

④ 세계란 그리고 삶이란 지적 성찰을 무디게, 혹은 버리게 만드는 구조이며 인간은 반지성의 공고한 틀에 갇힌 존재다. 그럼에도 가끔은 소외 속에서 질문하고 사유하며 의미를 캐고 진정성을 추구한다. 나는 그 진정성이 고양된 아름다운 촛불 행진을 보았고 거기서 한 세대 전의 역사로부터 우리야말로 ‘지성의 삶’을 추구해왔다는 축복을 발견했다. 내 젊음을 괴롭히던 ‘반지성의 세대’에 대한 가냘픈 항의에서 이제 당당하게 ‘행동하는 지성’을 감축할 수 있게 된 기쁨![50]

⑤ 과학혁명은 사상혁명과 종교혁명을 통해 이성과 진실의 세계를 새로이 인식하고 무지와 편협의 전근대적 어둠을 밝히며 관용과 이해의 눈을 열어 세상을 자유와 평등의 세계로 진전시켰다. 계몽과 지성, 자유와 인식의 근대적 사유는 인종주의, 국가주의, 이념주의, 계급주의, 몽매주의 그리고 종교, 윤리, 우생학, 혹은 벌/파/색(閥派色), 성/직/위(性職位)의 별의별 배타적 논리들을 지우고 고쳐 유적(類的) 존재로서의 사람들 간의 공감의 진화를 추구해왔다. 인간의 역사는 아마도 에고센트리즘에서 벗어나 타자 포용의 인식론적 확산을 향한

48 김병익, 「고흐의 증례, 앞의 책, 73쪽.
49 김병익, 「‘지성과 반지성’ 재론」, 앞의 책, 42쪽.
50 앞의 책, 44~45쪽.

느린 진보의 기록이리라.[51]

⑥ '선비'로서 검소하고 유식하면서 고결한 인간들이 술잔 기울이며 마음속 깊은 정신으로 자유롭게 세계와 삶에 관해 토의하는 장면은 …중략… 성찰과 모색의 진지한 담소의 모습일 것이다. …중략… 은근하고 내성적인 문화에서는 검소한 풍요와 자유로운 진실이 빚는 아름다운 사유의 문화가 피어날 것이다. 나는 이 가을에 "빛나되 번쩍이지 않는[光而不輝]" 문화생태를 꿈꾼 듯하다.[52]

⑦ 진영 권력이 역병의 만연 속에 더욱 기승한다면 "탐욕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억지를 낳고 억지는 탄압을 낳고 탄압은……"의 '묵시록적 낳고'의 변증을 부를지도 모른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는 참담한 자기 미래를 꿈에서 만나고 잠을 깨지 뜨겁게 회개하고 변신한다. 우리도 치열하게 솟구치는 4·19, 5·18, 6·29의 기억들로 21세기사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스크루지처럼 세상을 고쳐 살 수 있다면![53]

①은 역사적 관용을 위해 세계를 큰 눈 먼눈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②는 이 두 권의 칼럼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김병익의 주제에 값하는 메시지다. 역설적 인식의 깊이와 미학적 심연을 함께 갖춘 이 대목이야말로 화자의 심층 생철학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억과 성찰의 대화가 이토록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다. ③은 어렵지만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간절한 희망의 전언이고, ④는 반지성의 시대에 행동하는 아름다운 지성의 가능성을 가늠해 본 것이며, ⑤는 타자 포용의 인식론적 확산과 공감의 진화를 요청한 담론이다. ⑥은 비속한 세속문화를 넘어서 빛나되 번쩍이지 않는 선비 문화의 생태를 소망한 것이고, ⑦은 묵시록적 탐욕과 거짓,

51 김병익, 「금, 긋기와 지우기」, 앞의 책, 93쪽
52 김병익, 「문화 생태계 변화와 내면의 문화」, 『시선의 저편』, 48쪽.
53 김병익, 「기억으로서의 크리스마스」, 『생각의 저편』, 187쪽.

억지와 탄압을 지양하고 새로운 역사를 고쳐 살아보자고, 지난 역사에서 그런 기억이 있지 않냐고 제안하는 메시지다.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이런 메시지와 담론들은 20세기와 21세기 전반 한국 현대사와 동시대의 현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기억, 그것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맥락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기록/책, 과거-현재-미래 사이의 복합적 대화와 미래 및 새로운 세대에 대한 소망스러운 기대 등이 상호작용하고 종합적으로 변증되는 과정에서 추론된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더불어 희망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성찰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이상에서 '기억'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병익의 칼럼 텍스트의 수사학적 특성을 논의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4·19 세대를 대표하는 비평가의 한 사람인 김병익은 자기 세대의 기억을 예리하게 추적하고 현재화하면서 그것을 질서화한다. 특히 해방과 전쟁, 4·19에 대한 공통 기억을 되살리고 그 세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와 지식,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압축 성장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둘째, 활성적 기억을 재구성하고 담론을 새롭게 생성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이 나타난다. 기억을 통해 맥락을 창출하고, 맥락을 통해 기억을 성찰한다. 재구성된 기억은 저장되고 전달되는데, 그럼으로써 기억은 재생산되고 역사 속에서 지속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기억과 기록의 상호작용으로 맥락을 창출하고 의미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대 지평을 기획하는 '기억-기록-기대'의 구조가 나타난다. 셋

째, 김병익의 산문에서 기억은 진실 발견을 위한 방법적 성찰 기제이다. 기억과 성찰의 대화를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삶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산문적 수고의 결과가 바로 이 두 권의 책이다. 이와 같은 김병익의 기억의 수사학은 인류사적 전환기에 한국의 비평가가 수행한 기억과 인식과 성찰의 도정을 극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억과 인식의 맥락을 창출하고 발견된 문제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환의 맥락 또한 대화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동시대의 의미심장한 산문정신에 값한다고 하겠다.

기억의 수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했기에 지면 관계상 내용적 주제적 측면에서의 심화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이다. 특히 역병의 시대에 그가 성찰한 생태 문명이나 지속가능성 문제는 생태비평적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높은 것이어서 후일의 작업을 통해 보고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기억-기록-기대'의 구조 혹은 패턴은 그의 칼럼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 비평에서도 발견되는 형성 원리 혹은 심층구조의 하나인데 역시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했다. 역시 다른 지면에서 수행하기로 한다. 작가 최인훈은 『화두』에서 '기억이 곧 존재'라는 명제를 풀어 보인 바 있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한 기억 연구자들의 논의가 이를 입증한다. 김병익 칼럼 텍스트와 비평 텍스트들은 기억론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논의할 여지가 많다. 계속적인 작업을 통해 기억 논의가 심화 확산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병익, 『기억의 타작』, 문학과지성사, 2009.

_____, 『조용한 걸음으로』, 문학과지성사, 2013.

_____, 『기억의 깊이』, 문학과지성사, 2016.

_____, 『시선의 저편』, 문학과지성사, 2016.

_____, 『생각의 저편』, 문학과지성사, 2021.

김세령, 「김병익의 초기 비평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5권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06.

서재원, 「김병익 문학비평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7집(9권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8.

신준봉, 「신준봉 전문기자의 책과 사람(16): 칼럼집 펴낸 원로 문학평론가 김병익」, 『월간중앙』, 2021년 7월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4239

우찬제, 『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5.

최성만, 『발터 벤야민 기억의 정치학』, 길, 2014.

발터 벤야민, 윤미애 옮김, 「베를린 연대기」, 『1900년 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베를린 연대기』, 길, 2007.

_____, 최성만 옮김, 『서사・기억・비평의 자리』, 길, 2012.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Hart, Roderick P., *Modern Rhetorical Criticism*, Boston: Allyn and Bacon, 1997.

| Abstract |

Dialectics of Memory and Introspection

Rhetoric of Memory across Kim, Byongik's *Beyond Gaze & Beyond Thinking*

Wu, Chan-je | Sogang University

In this thesis, I aim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ow memory plays a role in forming discourse in Kim, Byongik's prose in the 2010s by contemplating the configuration aspect of the rhetoric of memory in Kim, Byongik's B*eyond Gaze* & *Beyond Thinking*. The two collections of prose, Kim, Byongik's B*eyond Gaze* and *Beyond Thinking*, are collections of columns published in *The Hankyoreh*, daily newspaper, from 2013 to 2021. From Kim's early career as a press journalist to his background in literary criticism, as well as his writing style that aimed to introspect the truth of life, it can be determined that columns are the genre in which he can exhibit his greatest strengths. The collections of prose have the subtitle "Searching for the Pattern of the Evening of One´s Life", which aligns with the period of his life in which the columns were written –his mid-70s to early 80s. In examining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lumns focusing on the theme of "memory", I was able to arrive at three main findings. First, Kim, being one of the main literary critics representing the April 19 Revolution era, has the ability to trace recollections from his generation in detail and further establish a set order. He resuscitates collective memories of Korea's liberation and war eras as well as the April 19 Revolution era and reflects on the process of compressed growth of Korea's economy, knowledge, and sciences that took place in the eras. In doing so, he demonstrates a gentle, flexible attitude of identifying the possibilities of a new generation and indicating that they can be counted on. Secondly, Kim's prose forms a dynamic process of the reconstitution of active memory and creation of new discourse. Context is created through memory, and memory is introspected through context. Through the restructured memory being preserved and passed on, memory is reproduced and further can be sustained or transformed throughout history. Thirdly, in Kim's prose, memory serves as a methodological reflection mechanism for discovering the truth. The two collections of

prose are the result of Kim's writing to approach the truth of life, while dynamically conversing on memory and introspection.

Key words : memory, record, expectation, introspection, reconstruction of memory, reproduction of memory, rhetoric of memory, internalized existence, rhetorical situation, author variables, topic variables, Kim, Byongik, B*eyond Gaze, Beyond Thinking*

논문접수일: 2021.07.15. 심사기간: 2021.07.16.~08.05. 게재확정일: 2021.08.10.

10.19115/CKS.29.2.6

호머 헐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이유정**

1. 들어가며
2. *The Korea Review* 와 헐버트의 설화연구
3. 나가며

| 국문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근대 초기 교육학, 역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발간했던 영문 잡지 *The Korea Review*를 영역(英譯) 설화집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살펴보며, 이 잡지에 수록된 한국 설화 목록을 작성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근대 초기 서양인들에 의해 영역된 한국의 고소설, 설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최근 연구들은 단행본으로 출판된 영역 설화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근대 잡지, 특히 *The Korea Review*를 통해 소개되었던 영역 한국 설화의 목록을 작성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잡지는 Hulbert의 주도적인 편집으로 한국 감리교 출판부(Methodist Publishing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House)에서 1901년부터 1906년까지 발행되었으며, 이 잡지에 소개된 설화의 상당 부분이 Hulbert에 의해 수집, 채록, 영역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기 간행물로서 매달 고정적으로 작품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수와 다양성에 있어서는 개화기부터 일제 식민시기에 영역된 어떤 설화집보다도 다수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e Korea Review*에 수록된 설화들의 목록을 정리하기에 앞서, 본문 1장에서는 *The Korea Review*의 전체적인 구성, 창간 경위, 목적, 주요 필자, 독자층, 편집 의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2장에서는 Hulbert의 민속학 연구에 대한 시각과 설화 수집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The Korea Review*에 수록된 설화 목록을 작성하여 향후 영역 설화 연구의 주요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 호머 헐버트, *The Korea Review*, 민속학, 설화, 영역본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근대 초기 교육학, 역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발간했던 영문잡지 *The Korea Review*를 영역(英譯) 설화집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살펴보며, 이 잡지에 수록된 한국설화 목록을 작성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초기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한국의 역사, 제도,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속학(folklore studies)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종교, 신앙, 풍물, 관습, 자연, 의상, 놀이, 건축, 한국인의 기질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범주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기록하여 남겼다. 이 많은 기록 중에는 설화, 즉 한국에서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folktale)를 수집 혹은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도 드물게 포함되어 있다. 영역 설화집의 경우,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일상생활을 관찰할 수 있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작성되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선교지의 언어, 교회 교리 등의 정확한 번역, 사전과 문법서 제작, 문헌 출판을 담당하였던 James Gale과 Homer Hulbert와 같은 문서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설화의 영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1] 특히 다방면의 한국 연구를 진행했던 Hulbert의 경우 유독 한국 전설, 민담, 속담 등 한국인 일상 생활언어와 한국의 '이야기'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처음으로 서양인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기록된 설화 연구는 일찍이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들이 천주교 선교 과정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을 최초로 보고 있다.[2] 이후 북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설화가 영역되기 시

---

1 류대영에 따르면 선교 업무는 문서선교, 교육선교, 사목선교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선교사들에게 구분된 직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 담당하는 분야가 있었으며, Hulbert의 경우는 교육선교, 문서선교를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류대영, 「초기 북미 선교사들의 한국 연구 이해」,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제14회 근대한국학포럼 <북미 선교사들의 조선 연구와 근대한국학> 발표, 2021년 4월 21일.

2 프랑스 신부 리델(Felix Clair Ridel, 1830-1884)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간한 *Grammaire*

작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Horace N. Allen이 번역하여 북미 G.P. Putnam's Son 출판사에서 발간한 *Korean Tales*(1889)가 처음으로 영역된 한국의 설화 자료로 확인된다.[3] 선교사들에 의해 1890년대 제작되었던 영문 잡지 *The Korean Repository*에는 Allen, George Heber Jones 등이 남겨 놓은 영역 설화들이 몇 편 수록되어 있다.[4] 1910년대 이후에는 William E. Griffis의 *Fairy Tales of Old Korea*(1911), James S. Gale의 *Korean folk tales: imps, ghost, and fairies*(1913), Homer Hulbert의 *Omjee the Wizard*(1925), Berta Metzger의 T*ales told in Korea*(1932)로 이어지며 근대 초기 지속적으로 한국의 설화들이 북미 지역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물론 이 작품들은 각각의 저자가 각기 다른 저본(전설, 민담, 고소설 등)들을 기반으로 편집, 번역하였거나 혹은 일부는 구전되는 내용을 직접 채록한 것들로, 각각의 단행본에 수록된 이야기의 구성은 다양하다.

최근 근대 초기 서양인들에 의해 영역된 한국 설화집 연구의 필요성이 고전문학 연구자 및 번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영역 설화집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윤선은 근대 초기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나 영역자들의 번역과 다시 쓰기 양상을 연구하며 Allen, Griffis, Hulbert, Metzger, Carpenter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김성

Coreenne(1881)에는 조선의 민담, 필기, 야담에서 채록, 번역한 것으로 생각되는 한국 단형고전서사의 한국어, 프랑스어 번역문이 22항목 실려 있으며, 여기에는 민담뿐만 아니라, 유몽인의 『어우야담』, 홍만종의 『명엽지해』 등에 전하는 한국 고전 서사가 번역되어 있다고 한다. 신상필, 「파리외방전교회가 남긴 동서양 문명교류의 흔적-*Grammaire Coreenne*(1881) 소재 단형고전서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2014), 349~380쪽.

3 H. N. Allen, *Korean Tales: 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tive of Korea* (New York: G. P. Putnam, 1889).

4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Horace Allen, "Legends of Chong Dong and Vicinity (Mar, 1895); I Ik Seup, "A Tiger" (Apr, 1895); Horace Allen, "The Wise Fool or The Korean Rip Van Winkle" (Sep, 1895); Horace Allen, "Folk Lore: A Reward to Filial Piety" (Dec, 1895); Geo. Heber Jones, "The Magic Cat" (Feb, 1896); X, "The Straight Hook" (May, 1897); X, "Pak: The Spoon-Maker" (Nov,1897); X, "The Beauty and the Beast: A Korean Version" (Jun, 1898); X, "Sin the Squeezer" (Nov, 1898).

필은 Allen, Aston, Hulbert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서구중심적인 번역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임정지의 경우 Allen과 Gale의 설화집을 중심으로 영역본에 나타난 조선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한국 설화 및 고소설 등 다수의 작품을 영역했던 James Gale의 경우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의 번역관과 번역저본, 용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5] 다만, 이러한 근대초기 서양인들에 의해 영역된 한국의 고소설, 설화 사례 연구들은 단행본으로 출판된 영역 설화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The Korea Review*와 같은 근대 잡지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던 영역 한국설화의 목록을 작성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사이 *The Korean Repository*와 *The Korea Review*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들 잡지 안에 실린 시가, 민요, 여성관, 한글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 설화 부분에 주목한 연구는 없어왔다.[6]

---

5 오윤선, 「근대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Allen, Griffs, Hulbert, Carpenter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3 (2012), 205~231쪽; 오윤선, 「19세기말~20세기 초 영문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연구」, 『우리문학연구』 41 (2014), 146~179쪽; 오윤선, 「외국인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 호랑이 소재담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3 (2014), 191~227쪽; 김성철, 「일제 강점기 영역된 한국 동화집 *Tales told in Korea*의 편찬 경위와 구성의 의미」, 『고전과 해석』 19 (2015), 257~284쪽; 김성철,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서양인들의 한국문학인식 과정에서 드러나는 서구중심적 시각과 번역태도-Allen, Aston, Hulbert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9 (2013), 89~116쪽; 유경민, 「개신교 선교사가 정리한 한국어 속담과 수수께끼 연구-외국인의 한국언어문화 습득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오늘』 59 (2014), 78~103쪽; 황인순, 「1900년대 전후 외국어 설화집의 연구방법론 구축」, 『리터러시연구』 10(4) (2019), 665~702쪽; 이민희, 「20세기 초 외국인 기록물을 통해 본 고소설 이해 및 향유의 실제-*The Korea Review* 수록 'Korea Fiction' 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8 (2012), 123~158쪽; 임정지, 「고전서가 초기 영역본에 나타난 조선의 이미지-Korean Tales와 Korean Folktales의 경우」, 『돈암어문학』 25 (2012), 7~36쪽; 이상현, 「게일의 한국고소설 번역과 그 통국가적 맥락-『게일유고』 소재 고소설 관련 자료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에 관하여」, 『Comparative Korean Studies』 22(1) (2014), 11~53쪽.

6 석주연, 「『한국학휘보 Korean Repository』의 한국어와 한국어 학습 관련 기사 연구」, 『언어학』 83 (2019), 75~95쪽; 이상혁, 「근대 초기 영문 잡지에 나타난 서양인의 '조선어' 인식에 대하여-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Review를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25 (2016), 185~212쪽; 석주연, 「『한국학휘보 The Korean Repository』와 『중국휘보 The Chinese Repository』의 비교 연구」,

이 잡지는 Hulbert의 주도적인 편집으로 한국 감리교 출판부(Methodist Publishing House)에서 1901년부터 1906년까지 발행되었으며, 이 잡지에 소개된 설화의 상당 부분이 Hulbert에 의해 수집, 채록, 영역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기 간행물로서 매달 고정적으로 작품이 소개가 되다보니 실리는 이야기의 수와 다양성에 있어서는 개화기부터 일제시기 사이에 영역된 어떤 설화집보다도 다수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e Korea Review*에 수록된 설화들의 목록을 정리하기에 앞서, 본문 1장에서는 *The Korea Review*의 전체적인 구성, 잡지의 창간 경위, 목적, 독자층, 편집 의도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2장에서는 Hulbert의 민속학 연구에 대한 시각과 설화 수집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향후 영역설화 연구의 주요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The Korea Review*에 수록된 설화 목록을 소개한다.

2. *The Korea Review*와 헐버트의 설화연구

(1) *The Korea Review*의 개요 및 구성

*The Korea Review*는 Hulbert의 편집으로 1901년부터 1906년까지 한국의 감리교 선교지부 출판부에서 발행되었던 영문 잡지이다. 이 잡지는 1892년을 시작으로 1898년까지 출판되었던 *The Korean Repository*의 후속 잡지로

『한글학회』 81(1) (2020), 243~272쪽; 송민규, 「『The Koprean Repository』에 소개된 SONG 연구」, 『비교한국학』 21(1) (2013), 227~254쪽; 강혜정, 「*The Korean Repository*의 학술 자료적 가치」,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4) (2017), 179~204쪽; 이영미, 「『코리안 리포지터리』(1892-1898)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60 (2021), 9~35쪽; 심경석, 「서양인과 '거인'의 근대조선 여행기-*The Korean Repository*에 실린 기행문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0(1) (2021), 5~35쪽.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잡지의 양식이나 전체적인 구성, 독자층, 창간 의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The Korean Repository*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독자층으로는 당시 조선 내에 거주하는 선교사, 비즈니스 및 외교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조선 관련 소식을 필요로 했던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로 볼 수 있으며, 전문 학술지로 볼 수는 없지만 한국에 관한 긴요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자, 선교사, 외교 종사자, 언론인과 일반 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성, 대중성, 시의성을 확보한 잡지였다.

Hulbert는 *The Korean Repository*와 *The Korea Review* 두 영문 잡지의 발간에 모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Hulbert는 1886년에 한국에 온 뒤 6년 만인 1891년에 육영공원 교사직을 사직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듬해 1892년 Henry G. Appenzeller 선교사의 권유로 다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감리교의 교세 확장을 위한 삼문출판사(Trilingual Press, 이후 Methodist Publishing House로 변경)의 운영과 배재학당 교사, 교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조선에 재입국하게 된다.[7] 학구열이 높아 언어학, 역사학, 민속학 등 다방면에 박학다식하고, 특히 출판업에 대한 일가견이 있었던 Hulbert는 한국 선교지에서 문서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Hulbert는 *The Korea Review*가 1901년부터 1906년까지 매해 12권씩 총 5년간 60호 발행되는 기간 동안 주요 필자이자 편집자였다. *The Korea Review*와 *The Korean Repository*의 다른 점을 꼽는다면 후자가 선교 잡지의 색채가 보다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두 잡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주요 편집자가 달랐다. *The Korean Repository*의 경우 감리교회 선교사들이었던 Appenzeller, Jones와 함께 Hulbert가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면, *The Korea Review*의 경우는 Hulbert가 "편집장이자 주필이

7 김동진,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서울: 참좋은친구, 98쪽.

었으며 운영도 직접" 맡았다.[8] 1898년에 *The Korean Repository*의 발간이 중단된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 Hulbert는 후속 영문 잡지 발간의 필요성이 제기하는데, 그는 회고록에서 *The Korea Review* 창간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1901년 초 서울에서 영문 잡지를 발간할 시간이 된 것처럼 보였다. *The Korean Repository*가 훌륭한 역할을 해냈지만 1898년 이후로 계속 잡지 발간이 미뤄져왔다. 나는 많은 동료 특히 미국인 동료들의 의견을 구했고, 전체적인 의견은 이러한 잡지 발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양인 거주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명할 길이 열리게 되면, 조선 정부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었다.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비록 잡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지만—, 외부 세계에 한국 사람들의 삶, 그들의 역사, 민속, 경제, 사회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잡지를 채울 내용은 이미 충분히 있었고, 더 많은 내용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나는『한국사』원고를 마친 상황이었다. 이 나라의 완전한 역사를 일반인 앞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내가 *The Korea Review*라고 이름 지었던 이 잡지에 이 원고들을 시리즈물로 출판하는 것이 타당해보였다. 이 잡지 발간은 겨우 40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그리 대단하지는 않은 작업이었다. 이 잡지가 유럽과 미국에서 즉각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잡지의 높은 수준에 대한 증거는 아니었고, 점점 임박하고 있던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다툼이 곧 펼쳐질 장소로서 전 세계의 이목이 이미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한국에서 나오는 영어로 된 어떤 것이라도 주목을 끌 상황이었다.[9]

그의 회고에 따르면, Hulbert가 *The Korea Review*의 창간을 주도하였으며,

---

8 앞의 책, 136쪽.

9 Homer Hulbert, *Echoes of the Orient: A Memoir of Life in the Far East*,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자료총처 2,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0, 234~235쪽.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 정치관계의 변화에 따라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되면서 "외부 세계에 한국 사람들의 삶—그들의 역사, 민속, 경제, 사회—에 대한 믿을만한(authentic)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즉, "한국의 입장(pro-Korean)"에서 서술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잡지의 창간 동기였다. 대상 독자층은 "외부 세계(outer world)", "일반 대중(general public)"이라는 표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학술적이고 선교적인 목적의 독자층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전 세계 영문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he Korea Review*의 경우 *The Korea Repository*와 다르게 판매처와 판매가격, 구독대상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광고, 혹은 잡지 구독을 독려하는 홍보물이 잡지 내부나 타 매체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잡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10] 일종의 독자 투고란처럼 *The Korea Review* 독자들이 보낸 서신을 소개하는 서신란에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Jones와 같은 선교사들이 지난 잡지 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서신이 실리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잡지가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혹은 서양인 거주자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890년대 발간되고 있던 영문 잡지 *The Korean Repository*와 영자신문 *The Independent*은 1898년 발행 중단되었고, 또 다른 영자신문 *The Korea Daily Newspaper*와 *The Seoul Press*가 1907년 이후에 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The Korea Review*는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발행되던 유일한 영문 대중 및 학술잡지로서 조선 내 서양인 거주자들에게 주요한 정보지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해주었다.[11]

물론 이 잡지의 대상 독자는 한국 내에 국한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외부의

---

10 *The Korean Repository*의 경우 잡지 광고면에 잡지 홍보와 구독 신청 안내가 수록되고 있으며, 동일한 시기에 출판되고 있던 『독립신문』의 광고면에 잡지 구독 광고가 실리고 있다.

11 1900년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가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나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학술지였던 이 잡지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학자와 언론인들에게도 확장되어 있었다. 논평란과 서평란에 *Kobe Chronicle, New York Herald, Outlook*과 같이 해외 신문에 실리는 한국 기사에 대한 논평, 국·내외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한국 관련 단행본들에 대한 서평—예를 들어 Lillian Horton Underwood의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904), Carlo Rossetti의 *Corea e Coreani* (1904)—이 실리는 것을 보면 한국에 관한 국·내외 영문 서적 및 기사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 외교적인 상황에 대한 논평, 한국 관련 서적에 관한 서평뿐만 아니라, 서신란은 학술적 쟁점을 다루는 논의의 장이 되기도 했다. Griffis는 서신을 통해 *The Korea Review*에서 기사로 다루면 좋을 내용들을 요청하고 있으며, 1902년 10월호에는 독일의 의학자이자 인류학자였으며, 1876년에서 1902년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도쿄대 교수로 재직하며 일본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던 Erwin Baelz가 'The Origin of Korean People' (한국인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Hulbert의 한국사 서술에 여러 의문점들을 제기하는 서신이 실리기도 한다.[12] *The Korea Review*는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수 있으나, 적어도 한국에 관한 정보와 학술 서적을 필요로 했던 선교사 집단, 언론계, 학계 독자를 대상으로 주요 매체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5년에 Hulbert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구독료를 이미 지불한 독자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잡지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발간하였다는 언급을 보면, Hulbert가 *The Korea Review*를 일정하게 구독하고 또 필요로 했던 독자층을 염두하고 잡지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3]

---

12 Editorial Comment, *The Korea Review* (Apr 1901); Correspondence, *The Korea Review* (Oct 1902) & Veronika Fuechtner eds., "Measuring Asianness: Erwin Baelz's Anthropoloigical Expeditions in Fin-de-Siècle Korea" in *Imagining Germany Imagining Asia* (Boydell & Brewer, 2013), pp.173~186.

13 Hulbert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나의 하찮은 출판물이 그런 큰 물결의 흐름을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예견된 결과였으며,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이 나라에 대한 충성과 그곳에서의 교육자로서의 나의 경력의 끝을 의미했다. 단지 출판을 멈추는 것은 일본의 편에

*The Korea Review*의 주요 편집자와 필자는 Hulbert였다. 이 잡지에서 '한국인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점, 특히 Hulbert의 『한국사』 원고가 외부 세계에 처음 소개된다는 점은 이 잡지의 편집자뿐만 아니라 주요 필자가 Hulbert 본인이었다는 근거가 된다.[14] Hulbert는 당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루가 너무 바빠 편지를 쓸 시간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고[15] 그의 회고록에서는 "이 작은 잡지는 간신히 꾸려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잡지의 편집자가 자기 글의 유일한 교정자, 영업 관리자, 유통 책임자이자 발송책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고 회상한다.[16] 즉 이 잡지의 필자가 따로 수록되지 않은 대다수의 글은 Hulbert가 제3자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는 자신의 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잡지 대부분의 원고를 Hulbert 본인이 채우고 있었고, 사실상 혼자서 거의 편집, 교열, 출판, 배송을 책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he Korea Review*는 매 호마다 바뀌는 주제 기사를 제외하면 고정된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는 잡동사니란(Odds and Ends), 문답란(Question and Answer), 사설란(Editorial Comment), 주요소식란(News Calender), 서신란(Correspondence), 서평란(Review), 한국사(Korean History)로 구성된다.[17] 주제 기사의 경우 매 호마

서는 것만큼이나 최악의 것이었다. 나는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일시적인 휴가를 떠나는 것이었다. 한국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말고도 할 일이 많이 있었다. 나는 번역 작업, 학교 교과서 출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구에 매우 바빴다. *The Korea Review* 출판은 중단되지 않았고, 좋은 친구들에 의해서 지속되었다." Hulbert, 앞의 책, 275쪽.

14 이 잡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글에 저자의 이름이 표기 되지 않으며, Hulbert가 아닌 외부 필자가 쓴 글의 경우에만 글의 말미에 필자의 이름이 부기된다. 필자가 없는 잡지 대부분의 글은 "we"를 주어로 서술되는데, Hulbert가 잡지의 글을 모아 발간했던 *The Passing of Korea*(1906)에는 글쓴이의 주체가 "I"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we"는 Hulbert가 자신의 의견을 객관화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잡지 대부분의 글을 Hulbert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 김동진, 앞의 책, 137쪽.

16 Hulbert, 앞의 책, 226쪽.

17 가끔 광고가 2~3면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홍콩 상하이 은행연합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의 광고와 Seoul-Fusan Railway Company의 서울-제물포간 기차 시간표 광고, 성서회가 판매하는 책 목록 광고 정도가 수록된다.

다 다른 주제로, 긴 글의 경우 일종의 시리즈 형태로 2~3달에 걸쳐 연재가 된다. George Heber Jones의 “설총, 한국 문학의 아버지”(1901년 3월), James Gale의 “한국에서의 한자 도입”(1901년 4월), C.T. Collyer의 “조선 왕조의 건국”(1901년 11월), H.O.T. Burkwall의 “부산에서 원산까지”(1903년 1~3월) 등 외부 기고자에 의한 주제 기사 10여 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제 기사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 “한국의 속담” “한국의 언어” “한국의 산물” “한국의 소설” “장례 풍습” “무당과 판수” “한국과 일본의 관계” “시베리아열차 기행기” 등은 모두 Hulbert가 작성한 글이다.

주목할 것은, 이 잡지에 수록되는 한국의 설화이다. 이들 이야기 역시 대부분 Hulbert에 의해서 수집, 영역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가 수록되는 지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짧게 축약된 형태의 이야기가 여러 편 소개되는 잡동사니란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제목으로 소개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The Vagary of Fortune(운명의 장난)”, “The Wizard of Tae Baek San(태백산의 마법사)”과 같은 이야기는 평균 1년에 6편 정도 1901년 1월부터 1906년 5월까지 총 34편 정도가 실려 있다. 이러한 ‘이야기’ 글은 매 호마다 실리는 특정 주제 기사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며, 잡동사니란에 짧게 수록되고 있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 잡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이야기가 수록된 것은 이 잡지가 완전히 학술적인 성격의 잡지가 아니라 흥미를 주기 위한 대중 잡지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Hulbert가 한국의 민속, 설화를 가치 있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헐버트의 민속학과 설화 연구

*The Korea Review*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 민속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속 혹은 민간전승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는 'folklore'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서사 중심의 구비설화뿐만 아니라 수수께끼, 속담, 음악, 춤, 미신, 종교/신앙, 풍속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물론 좁은 의미로서, 구전으로 전승되는 설화에 한정하여 folklore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folktale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he Korea Review*에는 설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수께끼, 속담, 무당/판수, 유적/유물, 장례절차 등 한국의 민속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설화 folktale의 수록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The Korea Review*에서 한국 설화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Hulbert가 갖고 있던 민속학에 대한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은 근대 학문으로서의 민속학, 즉 인류의 문화에서 구전으로 전승되는 문학, 음악, 미술, 신화, 전설, 민담 등을 연구하여 특정 지역, 민족(folk) 문화의 근원을 밝히는 학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시기이다. 인류, 민족의 기원을 탐구하고자 하는 Hulbert의 학문적 열정은 한국을 사례로 구체화되어 나타났으며, 한국의 역사, 언어의 기원에 대한 그의 가설은 하나의 이론으로서 당시의 학술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18] *The Korea Review*의 글들은 Hulbert의 주장—한국은 단일한 국가로서 독자적이고 고유한 역사를 갖으며, 한국의 구술 언어(한글)는 중국의 한자문화권과 별개로 드라비다어족과 연관성을 갖는다는 주장—과 이론에 대한 학문적 확신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으며, Hulbert에게 한국의 설화는 이러한 이론적 주장에 대한 하나

---

18 *The Korea Review*의 표지에 Hulbert는 자신의 호칭을 A.M.,FRGS 로 표기하고 있는데, 1887년 다트머스대학으로부터 수여 받은 문학박사 Artium Magister(Master of Arts)의 약자 A.M.과 1899년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정회원이 되면서 Fellow of Royal Geographical Society의 약자 F.R.G.S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Hulbert 자신이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있었지만, *The Korea Review*에는 왕립지리학회 회원, 왕립아시아학회 회원 등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는 서술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국내외 언론계를 통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평론가로서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근거로 제시된다.[19] Hulbert가 1901년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 발표한 "Korean Folk-tales" 논문을 살펴보면 Hulbert가 민속학 연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 민속(folklore)이란 어휘는 매우 모호한 것으로, 설화(folktale)뿐만 아니라 민요, 미신, 부적, 점, 속담, 수수께끼 그리고 다른 주제어로 분류하기 힘든 국내 전통의 많은 잡다한 것(odds and ends)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민속이란 다락방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다락에는 어엿한 역사라는 품질로 보증되지 못하고, 그 기원이 너무 애매하거나 그 성격들이 하나같이 이질적인 것들이어서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분류법으로 질서 있게 정돈된 아래층 거실에 두기 힘든 것들, 바로 흥미롭지만 민족의 오래된 가구들이 밀려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민족의 삶을 느끼고 또 알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전기 불빛 아래 거실에 앉아서 그들의 기록(annal)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며,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들의 민속 사이에서 케케묵은 시절의 옷들을 뒤져내고, 오래된 연애편지를 묶어둔 끈을 풀어야만 한다. 기록된 역사는 하나의 큰 사건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몇 백 년의 세월을 한걸음에 건너뛰며, 그 시간 사이에 놓인 것들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을 뿐이지만, 민속은 우리 손을 잡고, 계곡 밑으로 끌고 내려가 집, 가족,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까이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외국어 실력을 알려면 그 나라 언어로 농담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알아보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나는 한 민족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민속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20]

---

19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의 발족과 함께 게일과 헐버트의 한국사, 한국문화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1900년게일과 헐버트으로 시작되는데 (J. S. Gale,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 H.B.Hulbert, "Korea Survival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1901년 Hulbert가 동일 학술지에 발표한 "Korea Folktales" 민속학 논문은 헐버트의 한국사, 한국의 기원에 관한 그의 이론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연구라고 볼 수 있다.

20 이 논문은 Hulbert가 1906년에 *The Passing of Korea*를 발간할 때 "Folklore" 라는 제목으로도 실린다. 원고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논문에서 w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 단행본 서술에서는 연구와 필자의 주체가 I로 변경되는 점, 그리고 기존의 "Folk-Tales" 원고 마지막에 'Proverb'라는 부분을

위의 내용에 따르면, Hulbert는 사실상 역사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미시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만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민속의 범주로 정의하며 이러한 민속연구가 거시적 관점의 역사서술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한 민족(folk)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미시적인 접근으로, Hulbert가 민속이라는 범주 안에 설정하고 있는 것은 설화 이외에도 민요, 미신, 부적, 점, 속담, 수수께끼, 그리고 그 이외 분류하기 힘든 전통적인 것들, 다양한 성격의 풍속들—Hulbert 의 표현으로는 잡동사니(odds and ends)—이다. 그의 민속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The Korea Review*에서 잡동사니란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였던 주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Hulbert가 설화와 풍속 관련 일화를 수집했던 과정은 크게 문헌 수집과 구술 채록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인용문에서 Hulbert가 힘들게 한국의 문헌을 수집하던 과정을 엿볼 수 있는데, 위의 지문에서 보이는 '다락방'의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 가정의 '다락방'에 쌓인 '케케묵은' 한국의 오래된 문헌을 찾아내기 위해 발품을 팔면서 느낀 그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1902년 7월 *The Korea Review*에 수록한 "Korean Fiction" 글에서 Hulbert가 기술한 부분이다.

> 각 (양반)집안의 문헌들은 여러 권으로 계속 기록되는 역사를 갖는다. 이런 많은 문헌들이 필사본이며, 집안 누군가가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 이 필사된 문헌들을 가문 대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인쇄본으로 출판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서적의 목록들을 꽤 모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소수의 한국인들만이 이러한 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양반이라면 다양한 종류의 6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중에 우리가 소위 서고(library)라고 부르

포함하여 "Folklore"라는 확장된 제목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 정도이다.

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돈에 관해서는 인심이 좋은 반면, 그것이 책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주 인색해진다. 개인적으로 나는 서울에 책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서고를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인이 책을 한권도 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자에게 한권도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다...서울을 제외하고는 공공 서고(public library)도 없으며, 정말로 가치 있는 상당수의 책은 너무 방대한 분량이어서 소수만이 구입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112권으로 된 백과사전인『문헌비고』인데.....나는 아직까지 그 사본을 3질 이상 보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심지어 한 번만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 시장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살 기회를 얻었던 것은 갑자기 몰락한 한 집안이 이것을 시장에 내다팔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때도 (이 책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외교술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알아보고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보지도 못한 가장 중요한 한국 문헌들이 6권 정도나 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Hulbert는 한국에서 오래된 한문문헌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전한다. 이런 문헌들을 수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시 한국에 머물고 있던 서양인들에게 Hulbert의 서재가 도서관으로 불렸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방대한 서적을 수집하고 읽었던 것을 알 수 있다.[21] 물론 아쉽게도 Hulbert가 수록하고 있는 영역 설화에서 그가 참고한 문헌 혹은 구술 채록 여부가 제대로 표기 되지 않는 점은 후대 연구자들에게 참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Hulbert가 한국사를 서술할 때는 가치 있는 자료로 자주 조선 후기 역사서『동사강요』를 언급하면서 인용하였다.[22] 이 외에도 *The Korea Review*에서

21 국내문헌뿐만 아니라 Hulbert는 부모를 통해 책을 사고 신문, 잡지를 구독했다고 하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The Century, New York Tribune* 의 구독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동진, 앞의 책, 48쪽.

22 소요한, 「헐버트 선교사의 한국사 연구-새로 발굴된『동사강요』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0 (2016), 105쪽.

간혹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였다고 언급이 되는 서적들 중에는『고금잡기』,『금릉집』,『서산일기』,『고려사』,『삼국유사』,『삼국사기』등이 언급된다. 이 잡지에 수록되는 설화의 경우 Hulbert가 정확히 어떠한 문헌을 참고하였는지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삼국유사』,『삼국사기』,『고려사』등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라시대, 고려시대의 전설 속 인물 일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참고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려 후기에 패설, 잡록을 수록한 문헌들이 잇달아 편찬되면서 지명 및 인물 전설과 함께 단편적인 인물일화가 많이 수록되었고, 조선시대의 전설의 경우 조선 후기 각 지역의 읍지가 많이 간행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Hulbert가 수집했던 다양한 종류의 문헌에서 찾은 '이야기'들을 영역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23]

물론 이러한 문헌을 통한 설화 수집 외에도 구술로 전해지는 내용을 채록하기도 했다. 물론 Hulbert의 구술 채록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그가 직접 채록을 했는지 혹은 이러한 구술 현장에 그를 돕는 한국인 조사가 함께 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Hulbert가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한국인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짐작을 해볼 수는 있다.[24] 당시 양반가의 사랑방에서 활약했다는 수많은 이야기꾼이나 장터, 청계천에 모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꾼 등의 이야기 문화가 조선에서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기록들에 따르면, Hulbert가 이러한 구연의 장소에서 이야기꾼의 구연 내용을 채록한 이야기

---

23 강등학 외.『한국 구비문학의 이해』서울: 월인, 2000, 99쪽.

24 Hulbert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한국인 개인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교실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통역사들 이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비용으로 고용된 개인'선생님'이 있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언어를 공부했고, 수업에 사용할 자료들을 작업했다. 두 번의 실패 후에, 인품에서나 학식에서나 아주 높은 수준의 한 한국 신사의 도움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그에게 지었다. 그는 영어를 그 때도 그 이후에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배우기 전에 그에게 나를 어떻게 가르칠지 가르쳐야했다. 더 총명한 정신과 더 빠르게 개념을 이해하고, 어려운 언어적 미로의 복잡성 안으로 뛰어들 이 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은 없었다. 그는 그야말로 대단히 귀중한 존재였다." Hulbert, 앞의 책, p.54.

일 수도 있다.[25] 구술 채록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1925년 미국에서 출판한 설화집 *Omjee the Wizard: Korean Folk Stories*(엄지 마법사: 한국 설화)의 서문에는 그가 사람들과 만나는 일상생활을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찾아냈다는 서술이 언급되어 있다.

> 다음 이야기들은 한국의 민속에서 직접 가져온 것들이다. 이것들은 한국에서의 약 20여 년 동안의 거주경험과 한국 문학을 상당히 연구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민속이 가장 잘 보존되어있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에서 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동양의 사람들에게는 기록문학이라는 개념이 매우 전형적이고 격식을 차린 것이어서, 가장 훌륭한 작품들의 대부분은 기록된 적이 없으며, 말 그대로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들춰내야 한다.[26]

위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Hulbert가 이야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구술 채록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록 문학, 혹은 문헌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구술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Hulbert가 *The Korea Review*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의 설화들은 이 두 가지 모두의 방식을 통해서 수집되어 영역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의 한국어 실력이 구술된 이야기를 그대로 채록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 아니면 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특히 잡동사니란에 소개되고 있는 짧은 이야기들에서, 역사적 인물명, 지명 등의 영문 표기

---

25 이민희.「20세기 초 외국인 기록물을 통해 본 고소설 이해 및 향유의 실제: *The Korea Review* 수록 'Korean Fiction'을 중심으로」,『인문논총』69 (2012), 123~158쪽.

26 Homer B. Hulbert, *Omjee the Wizard: Korean Folk Stories*. (Springfield, MA: Milton Bradley Company, 1925) 서문. 오윤선, 앞의 논문 147쪽에도 이 책 서문의 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으나, '한국의 설화 현장에서 직접 채록해온 것이다' '구연되고 있는 곳에서 바로 그 상태로 채록한 것이다'라고 한 번역에는 번역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소 과장되어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논문에서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여 실었다.

가 가독성이 떨어져 특정하기 힘들게 표기한 경우가 발견 되는 것을 보면 구술 채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Hulbert가 이러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구술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한문 문헌은 한국인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기록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The Korea Review* 1902년 "Korea Fiction"에 나오는 부분이다.

> 한국에 소설(fiction)은 항상 다른 문학적 산출물, 문학의 큰 두 줄기로 여겨지는 시가(poetry)와 역사서(history)보다 저급한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이것은 한자 문화권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들에 해당된다. 한자의 사용은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토착의 구술언어와 문자언어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어 말하는 대로 대화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 자체가 미학적 소설이 적절하게 발달하는데 큰 장애물이다. 정확하게 (말하는 대로) 대화를 기록할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야기의 생생함과 활력이 거의 사라져버린다. 지방의 생생한 사투리와 등장인물의 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역사물 혹은 시가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한자의 문학적 이상에 대한 복종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설도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진짜 로맨스(romance)가 '조상근전'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전기물에 숨어 있는 것을 찾곤 한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언어의 힘을 제한시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이야기꾼이 살아남게 되었고, 마찬가지 이유로 한문 역사 문헌이나 시조에 비해 한글 소설이 열등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Hulbert는 한문을 문자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인의 구어체와 맞지 않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문학적 기법이 발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술언어 문자언어 사이의 차이로 인해 "말하는

대로 대화를 기록할 가능성"이 사라지고, "이야기의 생생함과 활력이"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구어체로 만들어진 소설이 발달하지 못했고, 한글 소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문으로 된 역사 문헌이나 시조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그는 더더욱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해지는 생생하고 활력 있는 '이야기'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헐버트가 한문 문헌에 "숨어 있는" 한국의 로맨스—즉, 사치스러운 등장인물, 외딴 곳과 이국적인 장소, 매우 흥미진진하고 영웅적인 사건, 열정적인 사랑,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이 나타나는 장르—를 발견하곤 했다는 기록인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한국의 로맨스'는 *The Korea Review*에서 그가 이야기 형식으로 영역하여 수록하고 있는 일부이기도 하다. Hulbert는 한문 문헌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 예를 들어 신라시대 최치원의 작품부터 이후 시기별 그가 한국의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임경업전』,『홍길동전』,『두껍전』,『창선감의록』,『구운몽』,『금산사몽회록』,『사씨남정기』등을 언급하면서, 이어서 "이상의 열거된 작품들은 대략 윤곽만 살펴본 것이다. 한국 소설들(Korean novels)의 목록이 이 잡지의 여러 호(numbers)들을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Hulbert의 여러 글들을 종합해볼 때, 그가 소설 romance, fiction, novel로 지칭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설화 folktale로 지칭하는 이야기가 다소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소설(Korean Romance), 한문 문헌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The Korea Review*에 소개하려는 것이 잡지 창간부터의 그의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A Vagary of Fortune: A Korean Romance" (운명의 장난: 한국의 로맨스)가 *The Korea Review*의 1901년 4월에 처음 수록되면서 1906년까지 총 34여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고 있다(<표 2> 참고).

요약하면, Hulbert는 민속, 또 구전으로 전해지는 한국의 설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한국의 이야기 수집은 그의 문헌수집과 다독의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기도 했고,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구전으로 전해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사실상 이러한 한국 설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채록하는 과정, 번역하는 과정은 육영공원 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던 1886년 이후 1891년까지, 그리고 1892년 감리교의 선교사로 재입국하여 1900년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The Korea Review*의 발간이 시작됐던 1901년 이전에 이후 매월 수록될 연재물 기사의 원고가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895년 시카고 박람회 학술대회에서 그의 한국 민속 관련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바 있으며, 앞서 언급된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의 학술 모임에서 1901년 발표했던 "Korean Folk-Tales"의 원고에도 *The Korea Review*에 소개되는 설화들이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3) The Korea Review 수록 설화 목록

다음의 <표 1>과 <표 2>는 *The Korea Review*에 수록된 설화 목록을 각각 두 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은 축약된 형태로 짧게 소개되는 이야기 잡동사니란 설화를 정리한 것이고, <표 2>는 독립된 이야기 제목으로 소개된 설화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잡동사니란에는 설화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들은 기타 풍속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다. 설화의 경우 주제어를 함께 표기하여 설화유형을 대략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으며,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목록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는 유사 설화를 함께 표기하였다.

<표 1> 잡동사니란의 목록을 보면, 매 호마다 적게는 한 가지, 많게는 다

섯 가지가 넘는 다양한 소재의 짧은 이야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적절한 분량을 맞추기 위해 축약된 형태로 한국의 전설(인물, 지명, 지형, 사물)을 소개하거나, 민담(동물담, 소화)의 이야기를 짧게 서술하는 방식이다. 설화가 아닌 기타 풍속으로 분류한 것은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당시 당대의 사건이나 그가 관찰한 한국적인 특성들을 서술하는 경우이다. 즉 1890년대, 190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로 한국의 진주, 금 캐는 방식, 조기 잡는 배와 같이, 이야기(folktales)라기 보다는 민속의 또 다른 하위 범주에 둘 수 있는 내용들이다.

표에 정리된 설화의 유형을 보면, 인물, 지형/지명, 사물 전설, 일화들—예를 들어, 고구려 왕 후궁에 얽힌 전설, 신라 유리왕과 석탈해에 얽힌 일화, 정몽주 전설, 강감찬 전설, 고려시대 우탁의 활약, 고려멸망과 조선 건국과 관련된 전설들, 아산 현감을 지낸 이지함 일화, 단종의 유배시절에 얽힌 전설, 유성룡에 관한 전설, 이항복에 관한 전설, 이태조에 관한 유년시절 전설, 성삼문의 이름에 얽힌 전설, 추사 김정희에 관한 일화, 열녀전설, 부석사 창건에 관한 전설, 용문산에 얽힌 전설—처럼 각 시대별 문헌들에 수록된 지명전설과 인물전설, 사물전설을 수록했던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의 체험과 관련된 많은 전설들에서 이순신 관련 전설과 일화, 백성들의 삶의 고난을 해결해주는 인물처럼 이인에 관한 설화들이 다수 수록되어있다.

이러한 전설 이외에도,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인물명, 마을의 정확한 지명이나 사찰명 등 증거물을 갖지 않는 이야기들, 즉 주인공을 정확히 역사적 인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사실로서의 역사와 일치될 수 없고 허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흥미 위주의 옛날이야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송도의 한 여인이 서울 구경을 왔다가 호랑이 그림에서 금을 찾아낸 이야기, 자신의 허벅지로 부모님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 고승이 꽂아둔 지팡이가 거목으로 자랐다는 이야기, 경상도 도지사가 누명을 쓴 여인 혼령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 가난하지만 똑똑한 청년이 양반의 딸을 살리고 그 양반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 사람이 호랑이로 변한 이야기,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던 진나라의 첫 번째 왕이 만든 칼을 가지고 서적을 구한 양반 이야기, 여우와 호랑이, 개미의 허리가 잘록한 이유, 콩쥐 팥쥐, 물고기가 된 낚시꾼 이야기, 문어와 갑오징어 이야기, 준치에 가시가 많은 이유, 거위 세 마리와 세쌍둥이 아들 이야기, 바다의 제물이 되었다가 큰 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 두 도둑이야기, 수염 긴 노인과 젊은 도둑 이야기, 은이 들어있는 대나무 화살 이야기 등이 소개된다.

위의 전설과 민담과 같은 '이야기' 형식이라고 볼 수 없는 서술자의 관찰로 기록된 당시 한국의 풍속들, 혹은 바로 당대의 이야기 개화기의 정치, 역사적 상황, 예를 들어 일본의 통제가 강화되고 정치 사회적 혼란기에 떠도는 여러 가지 풍문들을 기록하는 내용이나, 새로운 근대적 문물의 등장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며 대응하는 한국 사람들의 여러 풍속적인 면을 담아내는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설화, 즉 이야기의 형태가 아닌, 개화기 당시 서울 정동 등지에서 Hulbert의 관찰에 의한 한국의 풍속,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Hulbert의 언어로 다시 서술된 글이다. 예를 들어, 운산의 미국 광산에서 광부가 죽을 때마다 악령에 의한 것이라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악령을 쫓아내는 방식에 관한 일화, 서울 정동 근처의 한 우물의 정령에게 산모가 젖을 구하는 풍습, 외국인 거주지 정동 주변에 떠도는 머리 없는 남자귀신의 이야기, 정동 주변에 나타나는 빈대에 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적는 내용 등이다. 이런 이야기는 서술자의 시선으로 조선의 풍습을 희화화하는 형태의 서술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 2>에서 주목할 것은, 1901년부터 1905년 2월까지의 글은 글쓴이의 이름이 병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Hulbert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소개되는 내용은 '정몽주 관련 설화', '남원부사 김세평 관련 설화', '해인사 유래설화', '주역을 가지고 온 우탁 선생', '이여송 출생담'과 같이 소위 '전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설화들이 많다. 반면에 1905년 3월 이후부터 1906년 12월 사이에 수록되는 글의 경우 글쓴이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시기는 Hulbert가 한국을 떠나 편집을 하지 못하던 시기와 일치하며, Hulbert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잡지를 끝까지 낼 수 있었다는 시기와 일치한다. 앞선 Hulbert의 영역 설화와는 다르게 이 시기의 글은 '민담'으로 분류되는 이야기가 다수 수록되고 있다.

〈표 1〉 잡동사니란 Odds and Ends에 수록된 설화 목록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1/01	A Curious Cup	기타 풍속	구멍이 뚫려 있으나 물이 쏟아지지 않는 신기한 대나무 컵의 원리	
	Off His Guard	설화 (지혜담)	서당 마루로 스승을 내려오게 하는 제자의 지혜, 황해도 해주, 서당, 마당	훈장보다 지혜로운 아이
	The Growing Buddha	설화 (고려멸망)	고려 말 신돈 승려. 콩을 이용해 땅 속에 묻은 금박 입힌 부처상이 올라오는 기적 행함, 고려 몰락, 부패	신돈 파계승
	Small but Mighty	설화 (지혜담)	기지를 발휘하여 호랑이를 속이고 위기를 모면한 여우	호랑이를 골탕먹인 여우
1901/02	Rip Van Winkle	설화 (신령, 이인)	못된 아내의 바가지, 나무꾼 박순이, 장기 두는 신령, 노인이 된 박순이	노인장기 대국해주고 부자된 나무꾼
	The First Bicycle	기타 풍속	한국인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 서양인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의 차이	
	Seat of Intelligence	기타 풍속	서양인 스승, 한국인 학생이 생각하는 지식의 자리, 머리와 뱃속	
	Tight Lacing	설화 (동물유래)	지렁이와 지네의 중매를 선 개미. 개미 허리가 얇아진 이유	개미 허리가 잘록한 이유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1 /03	Prophecy	설화 (건국시조)	계룡산에 세워질 왕조가 지금의 왕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예언, 충청도 계룡산, 누에 머리, 암탉(계)	건국시조(이성계/계룡산/도읍지)
	Mathematics vs. Chinese	설화 (인물담)	조선 헌종대왕때, 신 이란 사람, 8살 손자, 신광후(?) 장군 유년 일화, 천자문 공부를 안하던 8살 손자, 수를 세는 재능	
	The Story Did It	설화 (지혜담)	영조대왕 어머니의 시녀의 모략을 벌하려다 잡힌 재상, 곱추 일화를 통해 왕에게 억울함을 전하고 벌을 면함	
	Cinderella	설화(어머니, 계모)	콩쥐 팥쥐, 도깨비, 질투, 가시덤불	콩쥐팥쥐
	An Engineering Feet	기타 풍속	동쪽으로 기운 동대문을 긴 줄로 수표다리에 묶은 일화	
	Brains vs Muscle	설화 (동물담)	호랑이에게 잡힐 위기에 처한 토끼, 욕심을 부리다가 얼음 위에서 죽게 된 어리석은 호랑이	호랑이를 물리친 토끼
1901 /04	Exorcising Spirits	기타 풍속	한국인이 악령을 쫓는 방법에 대한 운산미국광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The Shogun	기타 풍속	일본의 Shogun에 해당하는 관백 용어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Small Pox	설화 (속담유래)	호구별상, 천연두 귀신을 싸리말에 태워 보내면 천연두가 낫는다는 풍속, “싸리말을 태운다” 의미	
1901 /05	Native Gold Mining	기타 풍속	한국의 구식 금캐는 방식	
	Pearls	기타 풍속	한국진주의 질	
	A Korean Heroine	설화 (열부, 충성)	17세기 만주공격 때 의주만주로 간 남편의 시신을 찾으러 간 아내. 충성, 열녀, 남편을 고향 땅에 묻어주고 남편을 따라감	
	Nemesis	설화 (인과응보)	이덕재라는 제주도지사, 제주도 연안에서 난파된 류큐제도 왕자를 살려주지 않은 이후로 후손이 없게 됐다는 이야기	
	Consanguineous Marriage	설화 (고려, 혼인)	고려의 친족결혼 유래, 용으로 알려진 고려의 왕들, 그들의 몸에 있는 용의 비늘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1 /05	Cure for Leprocy	설화 (인물담)	아산현감 토정 이지함, 일부러 나병에 걸림. 지네의 둥지와 호두를 먹으면 치료됨, 아전의 속임수로 죽음, 아산의 아전은 나쁜 평판을 얻게 됨	토정 이지함 관련 설화
	Snakes	설화 (지형 유래)	연산군 때 뱀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 충청남도 아산 '사전' 마을에 뱀이 많은 지역에 관한 이야기	
	Oppert	기타 풍속	오페르트. 충청도 덕산에 위치한 남연군의 묘 도굴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전하는 이야기	
1901 /06	Fishing Boats	기타 풍속	조기 잡는 배에 대한 자세한 묘사. 조기에 얽힌 민담, 한국의 조기잡이문화	
	A Red Sea Path	설화 (단종 유배)	단종의 강원도 영월 소양강 근처 유배 시절, 강이 홍해처럼 갈라져 건너편 사는 엄씨라는 양반이 단종에게 식량을 전했다는 이야기	
	A Curious Asset	설화 (지혜담)	가난한 양반이 팔려는 과거 합격증을 사지 않는 현명한 사람	
1901 /07	Substitute for Vaccination	설화 (인물담)	신석. 전염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들의 조상 이야기. 공민왕 시절 한 여자의 아들들	
	Could not Bell the Cat	설화 (지형 유래)	한강 근처 보강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지 않는 이유. 콜레라를 쥐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바로 이 지역이 고양이 등처럼 생긴 언덕이라 전염병이 돌지 않는 다는 이야기	전염병이 돌지 않는 초도
1901 /08	Unwelcome insects	기타 풍속	빈대(혹은 전염병) 의 출현, 정동지역에 대한 이야기	
	Death in the pot	기타 풍속	항아리 장수와 장사를 치르는 집안. 장사치르는 집안의 사람은 절대 새 항아리를 사면 안 되고, 혹시라도 죽은 사람의 집 근처로 항아리를 가져간 장수는 모두 깨버려야 한다는 풍습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1 /09	A Snake Story	설화 (동물보은)	은혜 갚은 새와 뱀이 몸에서 나오는 이야기	
	The Seventh Daughter	설화 (효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 지팡이를 쓰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인도에 가서 약을 구해오는 일곱 번째 딸의 효행	
	Confidence Restored	기타 풍속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을 때, 새로 부임한 서울 도지사가 서대문에서 동대문으로 막대기를 옮겨 다시 신뢰를 회복한 일화	
	When Thieves Fall Out	설화 (치우담)	원님, 두 명의 도둑, 서로 불신하고 모두 망한 도둑	
	Tricks of the Trade	설화 (암행)	충청도의 한 부자. 암행어사	
	Bones Wanted	설화 (동물유래)	준치에 가시가 많은 이유	
1901 /10	Blue Tile	설화 (속담 유래)	청기와장수: 어떤 일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차지하려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속담에 얽힌 전설	
	A Rebellious Mountains	설화 (지형, 풍수)	죽산마을 조피산. 서울을 등지고 있는 산이라 반란의 산으로 여겨짐. 반역자들의 시신이 묻힘	
1901 /11	Horse Sense	설화 (인물담)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 양령대군의 후손들. 남대문 밖, 관왕묘 반대편에 거주. 이지광. 집 앞에 자란 세 개의 전나무. 고양군수. 그 사람의 일화. 말을 잃어버린 소년. 소금. 동대문 밖 왕십리	먹던 죽을 시주한 이지광(李趾光)
	Quid pro Quo	설화 (지혜담)	보상의 대가. 이지광이 함경도 안변에서 관직 중 즉시 판결. 석왕사라 불리는 절에 큰 땅을 기부한 부자 조상, 후손을 돌봐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 땅을 돌려주라고 명령한 이지광의 판결	이지광 관련 설화
	Caught in Her Own Trap	설화 (인과응보)	자기 꾀에 넘어간 후궁, 고구려의 12번째 왕, 아름다운 후궁, 질투. 제 꾀에 넘어간 후궁의 처벌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1 /12	A Prophetic Dream	설화 (이인, 꿈)	지역 전통. 이순신 꿈이야기	이순신 관련 설화
	The Stone Doctor	설화 (지형 유래)	2백년 전 서울 근처 포천, 휘목 Hu Mok, 신비로운 돌. 후대, 여전히 포천에 가면 볼 수 있다는 조정석	
	Oxen could not draw him	설화 (인물담)	강감찬. 460여년 전, 사람들이 높은 관료들도 짐승들도 복종하던 인물. 헌병사령부 연못에 있는 개구리	강감찬과 개구리 울음소리
	A Just Division	설화 (지혜담)	고려 때 마을 맹요정(Mang Yo jung), 원님 즉시 판결. 여우 사냥. 가죽과 고기로 나누라는 판결	
	A Military Manoeuvre	설화 (인물담)	이순신 장군의 전략	이순신 관련 설화
1902 /01	A Cuttle-fish Story	설화 (동물유래)	문어와 갑오징어 이야기	
	The Hanging Stone	설화 (사찰유래)	경상도 선흥, 부석사,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 뜬 돌의 기적	부석사의 유래
	Good Old Age	설화 (사찰유래)	부석사에 흥미로운 대나무줄기. 신라시대 의상대사 인도에서 가져온 대나무, 그의 생사를 가늠했던 선비화, 17세기 한 료가 지팡이를 만들려고 잘랐는데 그 자리에서 두 개의 새싹이 자라. 비선화수라 불림	부석사 사명당 지팡이
	A Hunter's Mistake	설화 (동물앙갚음)	가금 세 마리를 한 번에 화살로 죽인 앙갚음으로, 나중에 세쌍둥이 아들 모두 잃는다는 이야기	
	The Donkey Maker	설화 (인물담)	정몽주, 구미호, 선죽교 예언	정몽주 관련 설화
1902 /02	Good Policy	설화 (인물담)	서산일기라는 책(350여년 전 고대와 현대의 잡지식)에 나오는 이야기. 황희가 농부에게 얻은 교훈	황희 정승과 농부
1902 /03	Ai-go	기타 풍속	아이고! 경인선 건설의 속도에 놀라는 한국인에 읽힌 일화	
1902 /04	How Bribery Began	설화	가난한 입법 관료, 무관 친구의 뇌물. 한국에서 뇌물의 악습이 언제 시작되었나. 중종대왕 시절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A Korean Canute	설화 (암행)	정두경, 함경도 암행어사로 보내짐. 닭이 울기 전에 시를 완성함. 최치원의 유명한 시	
1902 /05	A Snake's Revenge	설화 (동물앙갚음)	경기도 풍덕 군수, 280여년 전 도착해서 바로 부소산 경춘사? 방문. 거기에 있는 뱀을 죽인 댓가로 나중에 혀가 두 갈래인 아들 얻음. 죽이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모두 죽음	뱀 죽이고 죽은 아들
	The Essence of Life	설화 (이인)	사람으로 둔갑한 500년 묵은 여우, 백여우 보석, 유성룡, 백여우의 보석을 삼켜 훌륭한 학자. 나중에 그 부인이 꾼 꿈. 갈대가 용이 되어 올라감	유성룡 관련 설화
1902 /06	A Look Beyond	기타 풍속	*Kobe Chronicle*의 대원군 관련 기사	
1902 /07	A Government Stock Farm	설화 (지형, 풍수)	도선대사 예언, 남산의 남쪽기슭, 조상의 묘자리로 명당이기는 하나, 6조각이 나서 처형이 된다고 예언. 지금 그 곳에 천상소로 불리는 장소. 양, 돼지, 도축장이 됨	
	The Goose that Laid the Golden Egg	설화 (욕심)	이씨 (Mr. Plumtree)난징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베푼 은혜로 은을 주는 신비한 까치 그린 그림 얻음. 그 아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사라짐	
1902 /08	The Marks of Royalty	설화 (인물담)	신라 유리왕과 석탈해가 서로 왕위를 양보한 이야기. 한국 경상도 사람 신라 후손	
	Tadpoles	설화 (속담유래)	한국 속담. 올챙이때는 생각 못하고 지금만 생각한다. 맹꽁이 이야기	
	A Jade Bowl	설화 (보물)	8월 15일에, 구창 출신의 사람 이종묵이 내무부에 녹색 옥을 가져와 재상에게 선물	
	The Doom Deferred	설화 (인물담)	이항복과 그 친구에 얽힌 이야기. 예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음	
1902 /09	Cats and the Dead	설화 (인물담)	관위로 고양이. 사재. 이후 유명한 학자	
	Crow-talk	설화 (인물담)	사재 동생 모재	
	A Convert to Buddhism	설화 (인물담)	전라도 한 훌륭한 학자, 김이라고 하는 진사계급. 왜시를 치르러 지리산을 건너가는 이야기. 불교로 귀화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2 /10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설화 (지혜담)	북쪽지방에 박 이라는 철학자. 주변사람들에게 선지자, 카운슬러가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 말 때문에 다리를 다친 아들. 결국 전쟁에 안 나감. 불행이 오히려 행운이 됨	
	Not Dead Yet	설화 (지혜담)	영조의 사적인 곳에 왕실의 재정을 쓰려고 하는 지나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재상. 화가 난 왕은 병든 말을 보내 살려낼 것을 명함. 재상의 기지로 왕의 화가 풀림	
	Expert Archery	설화 (건국시조)	이성계 태조의 유년 시절. 사격의 명수였다는 일화	
1902 /12	A Korean Jonah	설화 (이인)	풍덕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 상인들 무리와 함께 황해의 섬들 근처까지는 잘 갔으나, 바다정령이 노하여 제비뽑기로 바다의 제물로 바쳐짐	
	A Cure for Blindness	설화 (이인)	이성각 100년 전 유명한 의사가 치료하는 법	
	A Burglar's Implement	설화	훔친 손에 대한 이야기 마마자국이 있는 소년의 절단된 손. 막대기의 끝에 매달린 것	
	A Recipe for Getting Rich	설화	부자가 되는 법. 꽉 붙들고 있는 것	
	An Intelligent Plant	기타 풍속	국가의 깃발 만드는데 쓰이는 귀한 나무 구하는 법	
1903 /02	A Novel Mail Delivery	설화 (기적, 혼인)	이강윤. 강릉을 여행하던 양반 방문. 그 집 딸과 사랑에 빠지나 집안의 정혼자가 아니어서 혼인하지 못하나, 그들의 애틋한 사랑, 물고기가 편지를 전달하여 결국 사랑이 이루어짐	
	Fortune's Formula	기타 풍속	한국에서 아이들의 미래 운세를 알아보는 방법, 봄, 여름 가을 겨울	
	A Moral From Go-bang	기타 풍속	바둑 게임에서 승리는 집을 짓는 것	
	A Costly Drug	설화 (지명유래)	황해도에서 발견 500년된 침향, 향나무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A Brave Governor	설화 (혼령, 원귀)	경상도에 새로 부임된 원님이 연속으로 죽음. 아전이 그 형제의 땅을 차지하려고 그 딸을 죽임. 그 여자 원귀의 한을 풀어 줌	
1903 /03	The Heavenly Pig	기타 풍속	한국에서는 돼지가 신성한 동물, 증거로 발바닥에 북두칠성과 닮은 점	
	Vaccination	기타 풍속	천연두	
	A Hungry Spirit	설화 (지혜담)	가난하지만 똑똑한 청년이 배고픈 귀신으로 말미암아 숨을 거두는 양반 딸을 살려내고 사위가 됨	부자집 딸 병 고치고 사위 된 남자
	Milk Supply	기타 풍속	산모의 젖을 나오게 하는 삼신 우물	
	A Buddhist Relic	기타 풍속	서울 수각교 근처의 불교 사찰의 터였던 자리에 남아있는 불교 유물(커다란 돌, 기념비)에 얽힌 이야기	
	Mr. Three Questions	이인 (성삼문)	성삼문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	
	The Telltale Grain	설화 (지혜담)	참깨장수와 주막여주인을 판결하는 원님의 지혜	
1903 /04	The Tug of War	기타 풍속	줄다리기 풍습에 관한 묘사	
	Disarmament	기타 풍속	조선 왕조 초기에 훈련 중인 군사병력을 축소하게 된 일화	
1903 /06	Making of as River	설화 (이인)	수원 근처에 한나루라고 불리는 강의 기원에 관한 이지함과 소금장수에 관한 이야기	토정보다 보다 나은 소금장수
	As good as Wireless Telegraphy	설화 (이인)	토정 이지함의 재능에 회의적이었던 신동 조카 이산해가 30분 만에 중국의 소상강(瀟湘江)을 다녀오고 이지함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일화	토정 이지함
	Looking Backwards	기타 풍속	송도의 쌀장수들이 쌀을 측량할 때 항상 다른 쌀장수들이 앞으로 던지는 것과 다르게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향하는 이유	
	The Centipede	기타 풍속	서울 창의문에 암탉(봉황)이 그려진 이유와 한국인들이 지네와 관련하여 믿고 있는 이야기들	닭과 지네가 앙숙이 된 사연
	Why They Went Blind	설화 (풍수)	풍수자가 묘 자리를 찾을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귀봉과 아미산 형상에 관한 이야기로, 무덤파는 일꾼에게 들은 자손이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3 /06	Thorn Fence Island	설화 (연날리기)	연날리기시합이 매 싸움을 흉내 내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가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던 제주도 탐라왕국이 고려의 한 장군의 연날리기로 망했다는 이야기	
1903 /08	Kwanak Mountain	설화 (지명 유래)	오래 전 금관성이란 요새가 있던 곳으로 지금의 금이란 글자가 사라지고, 산이란 뜻의 '악'이 붙어 관악산이 되었다는 이야기	
	A Very Practical Joke	설화 (윗사람 놀려주기)	젊은 도둑이 긴 수염의 노인인 주막 주인과 다른 손님들을 골탕먹이고 떠나는 이야기	
	Sharp Eyes	설화 (이인)	금을 찾는 눈, 송도 사람들이 금을 찾아내는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는 이야기	
	Costly Arrows	설화 (조상은덕)	서울의 한 가난한 양반이 집에 있는 아버지가 남긴 화살더미를 팔았는데, 그 대나무 화살 속에 아버지가 중국에서 가져온 은이 숨겨져 있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1903 /09	Good Cutlery	설화 (가보)	집 안에서 잃어버린 가보를 찾은 한 양반이 중국으로 가는 상인에게 책 구입을 부탁하며 그 칼을 주었는데, 담배파이프의 입구로 쓸 옥을 사러 갔다가, 그 칼의 효능을 알게 되고 비싼 값에 칼(중국 진나라 첫 번 째 왕이 만든 두 개의 칼 중의 하나였던)을 팔고 돌아온 이야기	
	Archery Under Difficulties	설화 (지혜담)	가난한 궁수인 남편의 체면을 위해 아내는 머리카락을 팔아 잔치 음식을 준비하지만 결국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게 되자 친구들에게 장담을 한 것이 부끄러워진 궁수는 도둑이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도둑질한 물건을 잃어버리지만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마침내 좋은 자리에 오른다는 이야기	
	The Crying Seed	설화 (자연물유래)	회화나무가 300년 이상이 되면 매해 눈물을 흘리는 씨앗 한 개를 맺게 되는데 이를 먹으면 비범해진다는 열매와 관련되어 전해오는 이야기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3 /09	Dragon Gate Mountain	설화 (지형유래)	서울에서 동쪽으로 220리 떨어진 양근이란 마을에 있는 용문산에 얽힌 이야기로, 수백년에 한 번 용이 말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의 무덤 자리가 남아있다는 이야기	
	Fisherman's Luck	설화 (변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용왕이 그에게 물고기의 입장을 가르쳐주기 위해 물고기로 변한 경험을 하고, 다시는 낚시를 하지 않았다는 일화	
	Well up in Literature	설화 (이인)	기원전 중국의 진나라 아방궁의 지붕 기와 조각이 한국의 연못에서 발견되어 그 끝에 새겨진 글을 읽고자 학자를 불렀는데, 사고전서(四庫全書)의 내용을 꿰고 있던 이는 바로 추사 김정희였다는 일화	
	The Boats of Sung-jin	기타 풍속	성진항 근처 북동쪽 해변에서 사용되는 배의 형상. 이 배를 최고라고 여기는 한국인을 희화화하는 속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한다'	
	Cure for Canker Sores on the Tongue	기타 풍속	한국인들은 구내염의 원인이 사포질로 긁힌 표주박으로 물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치료하려면 모래 알갱이를 없애고 써야 한다고 전해지는 이야기	
	A New Kind of Faith Cure	설화 (지혜담)	어렵지 않게 눈병으로 고생하는 양반의 눈을 고친 의사	
1903 /10	The Secret Armor	설화 (인물담)	효종과 이완. 효종이 선왕 때 만주로부터 받은 굴욕을 벗어버리기 위해 북벌을 준비하던 때, 이완대장이 머뭇거리자 한밤중에 왕이 그를 소환하는데, 이 때 장군이 갑옷을 몰래 숨겨 입고 목숨을 구한다는 이완의 기개와 재치에 관한 이야기	
	Presence of Mind	설화 (지혜담)	얼은 강바닥에 빠진 모자를 쓴 아이를 침착하게 살린 일화	
1903 /11	A Square Meal	설화 (치우담)	작은 문제를 없애려고 더 큰 문제를 갖는 치료법을 제안하는 어리석은 의사와 환자. 한국의 통화제도를 풍자하는 우화. 고기 먹고 체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니, 쥐를 먹으면 된다 하였는데, 낫지 않아 찾아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가니 다음엔 고양이를, 그 다음은 들 고양이를, 호랑이를, 그 다음은 사냥꾼, 다음은 군인으로 보내라 함.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	
1903 /11	Lying Bull Mountain	설화 (지형)	양화진, 와우산, 굴레방다리의 지명과 지형에 얽힌 유래	
	Mountain Dew	설화 (지혜담)	금주법을 시행한 것으로 유명한 영조 시기. 한 현감이 길을 가다가 돼지 한 마리를 보고 밀주를 집을 찾아낸 이야기, 알고 보니 돼지 코에 술찌개미가 있어 알아차렸다는 이야기	
1903 /12	A Rash Execution	설화 (지명유래)	이성계가 강화도와 서해 사이를 지나가는데 해적의 공격을 피해 돌아가려는 선장의 행동을 반역으로 오해하여 죽임. 그의 이름이 손돌이었는데,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그 좁은 해협을 손돌목이라 이름 지었다는 지명의 유래	
	Cross Examination	설화 (지혜담)	김성일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한 현감이 어떤 이가 자신의 땅이라 우기며 오래된 땅문서를 가지고 온 것을 그 종이를 적셔 보아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냄	
	Places of Execution	기타 풍속	서울에서 죄인의 처형장소, 금천교, 혜중교, 종로 (혹은 가구거리에 있는 다리), 서소문, 새남터	
	A Headless Ghost	설화 (혼령, 원귀)	정동 가구거리에 있는 우물에서 여자들에게 물을 달라 청하는 머리 없는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	
1904 /01	Lie on the Left Side	설화 (속담유래)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살 수 있다” 는 호랑이가 자신의 왼편에 있는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 (호랑이는 서쪽에 용은 동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A Fortune-teller’s Dilemma	설화 (점쟁이)	점쟁이가 한 양반과 왕자에게 같은 문자를 두고 두 가지 다른 점괘를 내리는 시험에 처하게 됨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4 /01	Sorcery Exposed	설화 (무당)	가짜 무당 쫓아내기. 한 양반의 집에서 굿을 하는 무당(sorceress)을 시험하는 양반, 무당의 속임수를 드러내는 맹인 점쟁이(exorcist)	
1904 /06	A Straight Official	설화 (이인)	효종 때, 뛰어난 관료였던 남인 허목이 사찰에 과거 준비를 하던 중 가난한 사찰을 위해 그 밑에 묻힌 은을 찾아내어 도왔다는 일화. 이후 서인 송시열의 손에 죽임을 당함	
1904 /07	The Ten Thousand Year Bridge	설화 (지형, 인공물 유래)	함흥 지역의 만세교 라는 다리 이름의 유래, 지역의 특성	
1905 /01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설화 (치우담)	친구 집의 돼지우리에 잔인하게 묶인 돼지를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몰래 밤에 찾아가서 봉변을 당하는 두 사람	
	A lively corpse	설화 (지혜담)	죽은 시체를 살아난 혼령으로 꾸민 도둑들을 잡아낸 포도대장	
	Satsuma Ware	기타 풍속	사쓰마도기와 한국 고려청자의 기원	
	The Top-knot	기타 풍속	상투	
	An English Society	기타 풍속	YMCA 서울지부에서 영어 동아리에 있는 청년들의 토론에 관한 일화	
1905 /02	Korea a Vassal of Japan	기타	Asiatic Quarterly Review에 실린 논문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 주장에 대한 반박의 글	
	Rest from Beggars	설화 (치우담)	해마다 점점 많아지는 거지들을 내쫓으려다 스스로 거지가 된 부자. 서울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절벽에 새겨진 두 개의 큰 돌부처 상에 대하여 전해지는 이야기	

〈표 2〉 개별 제목으로 수록된 설화 목록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1 /04/05	A Vagary of Fortune	설화 (이성의 결합. 혼인, 복수, 점괘의 해결)	운명의 장난, 재상의 아들 순창의 죽을 운명, 현자의 예언, 몰락한 가문의 딸 이화의 복수, 원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사랑에 빠짐, 행복한 결말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1 /07	A Conundrum in Court	설화 (점괘, 지혜, 혼인)	남원에 사는 귀동이라는 양반가의 자제, 10번째 생일에 받은 점괘, 예언으로 누런 종이에 狗三이란 글자가 적힌 종이를 받아 간직함. 후에 이웃집 소녀의 죽음과 얽힌 누명을 쓰게 되는데, 그 때 받은 종이로 누명을 벗게 됨. 점괘로 받은 수수께끼를 풀어 진짜 범인을 찾아낸 원님의 딸과 혼인하는 행복한 결말	
1901 /10	The Price of Happiness 행복의 댓가	설화 (혼인, 과거, 질투)	순덕이가 공부하던 중 꿈에 하늘에서 이미 맺어졌던 천상의 인연을 만나, 그녀를 잊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마는데, 하늘의 허락 없이 다시 맺어질 수 없었지만, 결혼을 함. 순덕이 과거를 보러 간 사이 지상의 부인이었던 매화와 순덕의 아버지인 시아버지의 오해로 천상의 부인이 죽음을 당함. 죽음을 안타까워한 순덕이가 옥황상제에게 간절히 빌어 아내가 다시 살아나고, 결국 두 아내 모두 첫 번째 아내로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1901 /11	The Wizard of Ta-Bak san	설화 (이인, 정몽주, 변신)	둔갑한 여우, 고려멸망, 전라도 태백산 기슭의 나무꾼이 한 사람을 따라 숲 속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고 그의 부탁대로 울산에서 천 석의 소금을 대신 사다가 주는데,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 둔갑하려는 여우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결국 그 악의 힘과 싸워왔던 그 사람은 고려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탄식을 한다는 얘기로, 그 사람이 바로 정몽주였다는 이야기	정몽주 설화
1902 /01	A Beggar's Wages	설화 (운명, 무욕, 부귀, 명예)	스님의 예언, 15세가 되면 거지가 될 운명. 집을 나와 문경세재(조령) 건너 방황을 하고 돌아다님. 보물을 발견했으나 욕심을 내지 않고 주인을 찾아줌. 도깨비가 나온다는 집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보물을 찾아 돌아옴. 예전에 길에서 찾아주었던 보물의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의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딸과 결혼하여 이후 높은 지위를 얻어 행복한 결말	
1902 /02	An Island without a Sea (legend)	설화 (이인, 우탁, 단양 비봉산 도담삼봉)	고려 말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가 만나는 비봉산 절벽에 있는 동굴. 주역의 이치를 깊이 공부한 우탁. 고려 말 타락한 사회를 비판한 우탁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그가 들어간 곳이 도담동(도담삼봉)이라고 불림. 그가 다스렸던 지방은 반역자, 도둑, 거지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기근, 홍수, 역병이 들지 않았다고 함	주역을 가지고 온 우탁선생
1902 /04	A Submarine Adventure	설화 (사찰유래)	해인사 유래. 가난한 양반 홍상원의 집에 찾아온 개의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감. 그곳에서 용왕의 아들에게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뭍으로 돌아갈 때 나무 도장(wooden seal)과 보물을 가득 가지고 감. 집에 돌아가보니 가난한 오두막집 자리에 으리으리한 집채가 지어져 있고 세월이 이미 많이 지나 있음.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에게 용궁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니, 그 스님이 종이에 '금 한 냥' 이라 적고 그 도장을 찍어 태우니 금이 생김. 스님은 많은 양의 금을 얻어 큰 절을 지어 그 이름을 해인사라 하였다 함	해인사의 유래
1902 /05	Necessity, The Mother of Invention	설화	절박함이 발명의 어머니. 한춘덕이란 수표다리 위쪽 동네에 살고 있던 부자는 자비로워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고 존경을 받음. 경복궁 서편의 누각골에 사는 조씨가 하루는 한춘덕을 찾아가 은 천냥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 하였으나, 한춘덕이 망설이니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음. 놀란 한춘덕은 하인에게 은 천냥과 죽은 시신을 함께 누각골 근처에 보냈으나, 시신이 눈을 뜸. 조씨는 가족과 전라도에 정착을 하고 세월이 흘러 부자가 되어 서울로 돌아와 한춘덕을 찾아가 지난 날의 자기 속임수를 고백하고 은혜를 갚음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2 /08	An Aesculapian Episode	설화 (구복 여행)	어린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친척들에 의해 모든 재산을 뺏긴 제갈(Che-gal)이라는 소년이 울산에 내려가 소금산에서 일을 하는데, 비가 올 것을 알고 소금 주인에 전함. 곳곳에 예언자로 소년이 명성을 얻게 되고, 왕에게 까지 그 소식이 전해짐.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왕은 울산에 사람을 보내어 제갈을 불러오라 명함. 서울로 가는 중에 삼형제가 제갈을 찾아와 어머니를 살려 달라 함. 우연히 경첩 신령(Mr. Hinge)의 도움으로 손님으로 둔갑한 백여우 세 마리 때문에 어머니가 앓게 된 것을 제갈이 알게 되어 치료를 하게 됨. 그 집을 떠나며 경첩을 선물로 받아 왕에게 가서 다시 경첩의 도움으로 왕을 낫게 함. 중국의 황후가 몹쓸 병에 걸렸다 하여 중국으로 보내지는데, 가는 길에 또 경첩의 도움으로 한 노인에게서 개와 독수리를 받아서 감. 중국에 도착해 그 동물들로 아픈 황후가 꼬리가 아홉인 백여우인 것을 알고 죽임. 선물을 가득 받아 들고 돌아오는 길에 낙동강에 녹슨 경첩이 스스로 물로 들어감. 그 이후로 제갈의 눈이 멀고, 서울로 돌아와 계속 존경받음	
1902 /10	The Prince of Detectives	설화 (인물담)	신혼(Sin Hon)이란 사람이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말, 소, 개의 걸음걸이로 도둑을 잡아내고,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의 정직성을 판단함. 그러나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김세평이 해결함. 김세평(Kim Se-P'ung)의 일화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지리산 도둑떼를 잡은 것인데, 도둑들을 죽이지 않고 적을 친구로 만들어 해결하였다 함	남원부사 김세평 관련 설화로 추정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3 /01	All's Well That Ends Well	설화 (보은, 묘자리, 풍수, 가문 시조)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가난한 안주 김씨(Kim-An-ju)의 이야기로, 친척을 찾아가 돈을 빌려 길을 가는데 낙동강 건널 때 죽으려는 한 부부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고 길을 떠나면서, 이름을 가르쳐달라는 그들에게 '김'가라 하고 알려주고 떠남. 죽을 때 아들에게 '은둔 스님을 찾아 내가 묻힐 곳을 찾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죽음. 아들은 아버지 시신을 들고 그 스님을 찾아 나서는데, 고생 끝에 스님이 가르쳐준 자리는 바로 아버지가 살렸던 두 부부가 살던 곳으로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마련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은덕으로 큰 보상을 받아 살게 되었다 함	
1903 /03	The Test of Friendship	설화 (신뢰, 우정, 의리, 저승)	대구 도지사, 김장식, 박순길이란 두 친구의 우정. 어릴 적부터 함께 수학하며 훌륭한 학자가 되었으나 김가만 성공을 함. 김을 매일 찾아오는 박 자신을 김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변했다고 느낌. 김은 경상도지사가 됨 김이 말도 않고 떠나자, 그 친구를 망신주겠다는 결심으로 대구로 쫓아감. 그러나 그곳에서 아전에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는데, 깨어보니 저승의 판관이 되어있음. 그의 친구 김 도지사가 끌려오자 무서운 형벌을 내림. 박 판관은 잠이 드는데, 깨어보니 다시 감옥이었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데, 집에 와보니 가족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장사까지 치르고, 익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큰 집을 짓고 살고 있었음. 알고 보니 친구 김 도지사의 장난이었고, 둘은 다시 우정을 확인함	
1903 /04	How Chin Out-witted the Devils	설화 (저승사자, 엄나무)	엄나무로 저승사자 물리치는 법. 밤 늦은 시각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업무인 파수꾼(경찰) 중의 한 명이었던 진개동(Chin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Ka-dong)이란 사람이 길에서 저승사자 셋이 권력을 가진 김가의 딸을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엿듣고, 그들이 엄나무, 기미풀을 싫어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승사자를 물리치는 이야기	
1903 /05	Hen vs Centipede	설화 (변신, 동물, 사람 형상, 앙숙)	종로 비단전 주인 송구윤(Song Ku-yun)에게서만 물건을 사가는 시녀를 따라 여주인에게 비단을 배달함. 그가 아이없는 홀아비인 것을 알고 그 여주인의 집에 와서 살도록 제안을 받음.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암탉의 다리"에서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집에 있는 부인이 사람이 아니라 뱀이니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음. 그러나 결국 죽이지 못하는데, 알고 보니, 수백 년 동안 지네였던 부인은 천년째 되던 해에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그를 시샘한 지네의 적이었던 닭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임	
1903 /11	A Tiger Hunter's Revenge	설화 (이인, 이여송의 아버지)	강계에 성양이(Sung-yangi)란 소년이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을 당하고 힘들어하자,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힘이 센 사냥꾼이었으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실을 알려줌. 그 후로 소년은 활쏘기 연습을 하여 열일곱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떠남. 가는 길에 여덟 아들 중에 막내만 남기고 모두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한 노인을 만나, 산삼, 날카로운 비수와 몸을 가릴 수 있는 검은 감투 옷을 받아들고 그의 막내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섬.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들의 은신처를 찾아내서 죽이고, 아버지의 뼈와 노인의 아들들의 뼈를 찾아냄. 그의 실제 이름은 이성양(Yi Sung-yang)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여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결국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음. 왜냐하면 그가 바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왔던 중국의 장군 이여송(Yi Yu-song)의 아버지임	이여송의 출생담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4 /01	A Point of Ethics	설화 (채제공, 윤리, 청렴, 술수, 관직윤리)	윤리의 의미. 채제공이 어려운 시절에 그를 도왔던 이웃 상인이 그가 평양의 도지사로 임명되어 갈 때 함께 따라감. 한 부자가 그의 아들의 죄를 뇌물로 무마시키려고 도지사의 측근인 상인을 통해 산삼을 전하는데, 도지사는 산삼을 사람들 앞에서 모두 태워버림. 상인은 이를 원망하고 도지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와보니 산삼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상인의 집으로 보냈다는 일화	채번암 채제공 설화
1904 /07	Meum Et Tuum	설화 (청렴, 술수, 관직 윤리)	내 것과 네 것. 원칙대로 사는 가난한 양반(Mr. Law)이 그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유하게 버드나무같이 살아가는 (Mr. Willow)가 빌려준 돈으로 도지사에게 관직 자리를 부탁하러 가는데, 자기가 건넨 돈을 도지사의 아전이 가로챈 걸 알게 됨. 아전이 자신의 곳간만 채우는 것을 본 버드나무씨의 계획으로 아전을 골려주고 벌하는 일화	아전의 버릇을 고치는 양반
1904 /11	The Ghost of a Ghost	설화 (청렴, 술수, 관직 윤리)	한 마을에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는 홀아비가 새로 결혼을 해 둘째 아들을 얻고 살아감. 큰 아들이 새어머니와 동생을 챙기지 않을 것을 안 아버지는 죽으면서 아내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자신이 죽으면 원님에게 이것을 가져가라고 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큰 아들은 새어머니와 동생을 내쫓음. 남편의 말대로 원님을 찾아가 종이를 건네지만, 종이의 그림이 나타내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물을 쏟게 되고 투명해진 종이 위로 답을 찾게 됨. 다음 날 큰 아들의 집으로 가서, 마치 아버지의 혼령을 만난 척하며, 집안에 아버지가 상황을 예측하고 아내와 둘째 아들을 위해 묻어둔 보물을 찾아 그들에게 건네줌. 다만 술수를 부려 자신의 몫을 챙기고 줌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4 /12	A Case of Who's Who	설화 (변신, 둔갑, 쥐, 진짜 가짜 아들)	'띠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고 살아가는 한 부자가 곳간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데, 마지막의 쌀가마가 썩은 것인지 쥐가 파먹는 것인지 늘 곳간이 넘쳐 나지는 않고 있었다. 아들의 혼인 잔치가 끝나고 신랑이 물을 마시러 다녀오니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신방으로 들어가려하여, 자다 깬 아버지가 나와 이것저것 질문을 진짜 아들과 가까 아들에게 하는데, 결국 진짜 아들이 쫓겨나고 맘. 스님을 만나 금강산의 절에서 삼년 수련을 쌓고 절에서 금색 고양이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 아들이 아파서 굿을 하느라 무당에게 온 집안의 재산을 탕진할 지경에 이른 것을 보게됨. 결국 금빛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가 그 가짜 아들이 엄청나게 큰 쥐인 것이 밝혀지고 가족들은 다시 예전의 부를 이루고 행복한 결말	둔갑해서 주인을 몰아낸 쥐 물리치기 가짜 신랑 노릇한 쥐
1905 /04	Mr. Hong, Tiger (Rev. G. Engel)	설화 (효자, 어머니, 호랑이, 변신, 아내, 여자, 남자)	한 마을에 홍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파 아무 약으로도 병이 낫지 않는데, 천 마리 개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나을거라 하여, 산신령에게 가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니, 꿈에 산신령이 나와 책을 하나 줌. 책을 읽으면 호랑이로 변하고 다음 부분을 읽으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함. 그렇게 매일 호랑이가 되고, 다시 돌아와 책을 보고 사람이 되는 것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이 다시는 호랑이로 변신을 못하도록 그가 호랑이가 되어 나간 것을 보고 책을 태워버림. 그 후로 호랑이는 슬프고 화가 나서, 여자들은 해쳤지만, 남자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함	호랑이가 된 효자 이야기
	How Priests Became Genii (Rev. G. Engel)	설화 (닭, 지네, 사찰)	한 사찰에 매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절의 스님이 한 명씩 정령이 되어 사라져버리는 절이 있었음. 지나가던 여행객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얀 가금 백 마리를 키우라고 알려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모든 가금이 사라진 것이 이상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산 속의 동굴을 찾아 들	닭을 풀어 지네를 쫓아낸 강원도 유점사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어가는데, 천년 묵은 지네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함. 그 안에는 사람의 해골과 뼈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사라진 스님들이 지네에게 잡혀간 것을 알게 되고, 가금이 지네를 쪼아 죽인 것을 보게 됨	
1905 /05	The Magic Ox-Cure (Yi Chong Won)	설화 (변신, 소, 관직)	지방의 한 부자가 벼슬 자리를 얻고 싶어 서울의 한 고위 대감을 찾아가 물심양면 헌신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도움을 못받음. 그러다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친척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길에 비를 만나 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가 신세를 짐. 자고 일어나보니 집 주인 부부가 막대기 4개와 고삐를 들고 들어와 막대로 손님을 치니 그가 소가 됨. 장에서 백정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으나 무밭에서 무를 먹고 다시 사람이 됨. 그리고 막대기와 무를 외치며 자신에게 아무 보상을 주지 않은 고위 관료를 찾아가 그를 소로 만들었다가 다시 사람이 되게 하여, 큰 보상을 얻어냄	소로 변하였던 사람
1905 /06	A Trio of Fools (Yi Chong Won)	설화 (치우담)	친구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떠나 세 명의 바보. 첫 번째 바보는 낮잠 자기 전에 잊어버릴까봐 나무 위에 모자를 걸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새 모자인 줄 알고 좋아 장에 내다 팜. 두 번째는 가다가 바위에 있는 구멍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지 못하자 다른 친구가 그를 잡아당기다가 머리가 떨어지고, 바위 탓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짐. 마지막은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드는데, 스님의 감언이설에 기울어 남편을 버리려는 아내가 그가 잠든 사이 그의 머리를 깎음.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스님이었다고 착각하고 부인이 그를 쫓으니 산 속의 절로 올라감	
	Fox trap (Yi Chong Won)	설화 (둔갑, 며느리)	며느리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늘 자고 먹기만 하니, 시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 여우라고 확신하고, 며느리에게 여우 소리를 흉내 내게 하고 여우인 것을 확신하고 죽임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 물리치기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An Unworded Bequest (Yi Chong Won)	설화 (윗사람 놀려주기)	서울의 고위 관리를 도와 일한 한 지방의 양반이 그에 대한 보상과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함. 고위 관리가 곧 죽음에 임박하여 아들들이 흐느낌. 아들들이 잠깐 나간 사이 억울했던 그 양반은 고위관리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쳐 화를 풂.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한 관리는 손가락으로 그 양반을 가리키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나눠주라는 뜻으로 들음	돈만 먹은 대감 곯리고 (죽이고) 벼슬(재산) 얻기
1905 /07	Detectives Must Be the Cleverest Thieves (Rev. G. Engel)	설화 (왕, 신하, 시험, 지혜)	의금부의 관리들이 미덥지 않았던 한 왕이 세 사람을 불러, 임금 앞의 천장에 매달린 황금 주머니를 훔쳐보라는 시험을 받게 됨. 그 중 한 관리가 황금 주머니를 바꿔치기하여 모래주머니로 바꾸고 다시 임금의 신뢰를 얻음	
1905 /07	Fiercer Than the Tiger(Yi Chong Won)	설화 (오해, 소도둑, 호랑이, 곶감)	곶감 소리에 울음을 그친 아이를 보고 자기보다 무서운 동물인 줄 안 호랑이와,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등에 올라탄 소도둑. 그 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소도둑	곶감 무서워한 호랑이 소도둑에게 혼줄 난 호랑이
1905 /09	The Sluggard's Cure (Rev. G. Engel)	설화 (부부, 남편, 아내, 게으름)	게으른 남편. 부지런한 아내. 칡 즙을 짜서 잠든 남편의 눈썹에 바름. 앞을 못 보게 된 남편에게 신령 흉내를 내고 혼 줄을 내고 게으른 버릇을 고침	게으른 남편 버릇 고치기
1905 /09	Tales of the Road (Rev. G. Engel)	현대구전 설화 (짚신 장수, 경인선)	1) 서울-제물포간 기차가 놓인다는 소식에 장사가 안 될 생각에 앞길이 막막해진 짚신 장수.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기차 길을 만드는 일꾼들에게 짚신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을 해준 친구 2) 기차길 건설에 동원된 일본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에게 한국어로 심한 욕을 알려달라고 하자, '아이고 할아버지'를 가르쳐 줌. 그 이후로 한국 노동자가 식후 담배를 피우거나 쉬고 있을 때 일본인이 이 '욕'을 했다는 일화 3) 시골양반이 서울에 올라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짐을 다 싣기 전에 기차가 떠나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려 하자 하인에게 기차를 멈추도록 요구하지만 그냥 떠나버리자, 기차는 부산한 노동자와 농부들이 타고 다닌는 것이지 양반이 탈 것이 못 된다 생각함	
1905 /10	How Yi Outwitted the Church (A Legend of Medieval Korea)	설화 (불교, 세속, 승려)	고려시대 전설. 아들이 셋이면 한 명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야 한다는 법 때문에, 늘 동생이 태어날까 두려워하였는데, 결국 아들 하나가 더 태어남. 사찰에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러 옴. 아버지는 그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수도승의 노여움을 두려워함. 매해 승려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의식에 기꺼이 참여하여, 담뱃불로 승려들을 잡아먹는 구렁이로부터 도망쳐 승려가 되지 않고 세속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	
1905 /12	The Tenth Scion (Rev. G. Engel)	설화 (꿩의 보은, 외아들)	9대째 외아들이 과거 급제를 하자마자 죽는 집안이 있었는데, 10대째 아들이 15세가 되면 짐승에게 잡혀 죽을 운명이라는 예언을 듣고 아들을 내보내는데, 돌아다니던 아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절에 들어가,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토끼가 가진 책을 들고 절을 나와 사람이 사는 집을 발견하는데, 그 안에서 한 소녀가 반갑게 맞아주어 들어가 잠이 들려는데 바느질을 하던 그 소녀의 입이 뱀인 것을 알아차림. 종이 세 번 울리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종이 세 번 울리더니 그 소녀가 보물을 건냄. 종을 친 것은 예전에 그가 살려주었던 꿩이었음. 그렇게 열다섯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 죽지않고 가정을 이루고 삼	은혜갚은 꿩
	Woodcutter, Tiger and Rabbit (Rev. G. Engel)	설화 (윗사람 놀려주기)	호랑이의 애원으로 덫에서 구해준 사냥꾼을 호랑이가 다시 잡아먹으려하자, 토끼의 꾀로 다시 호랑이가 덫에 걸림	호랑이 잡은 토끼의 꾀
	A Magic Formula against Thieves (Rev. G. Engel)	설화 (도둑, 오해)	자식이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 부유한 부부가 하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야기를 사오라고 하는데, 돈이 탐이 난 한 사람이	제 얘긴 줄 알고 도망간 도둑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이야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억지로 논에 있는 황새의 모양새를 보고 이야기를 꾸며서 말해줌. 이야기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전해주는데, 마침 그날 밤 도둑이 그 주인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도망감	
	Wanted, a Name	설화 (친부모, 양부모, 진짜 이름)	순필이라는 아이가 양부모를 떠나 길주라는 자신의 고향을 찾아 감. 거기서 생모를 찾고, 도둑떼를 잡아 관가에 알려 많은 보상을 얻고 본래의 자신의 이름 박가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Tiger that Laughed (J. E. Adams)	설화 (치우담, 호랑이)	높은 산의 왕으로 자만하고 위엄을 지키며 살던 호랑이. 여름에 가뭄이 닥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자,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개구리를 잡으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가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너무 부끄러워함. 샘에 도착하니 한 스님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호랑이는 그 안에 있던 부끄러움, 창피함이 모두 사라지고 너무 좋아 계속 웃었다. 그리고 돌아보니 스님이 사라져 버림	
	His Father (Yi Chong Won)	설화	노름과 술로 살아가던 한 아버지가 그의 동생과 아들에게 도둑인 척 돈을 요구하다가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이야기	
1906 /01	A Korean Cinderella (L. H. Underwood)	설화 (인과응보)	콩쥐팥쥐	콩쥐 팥쥐
1906 /03	King's Property (Yi Chong Won)	설화 (왕, 농부, 풍년, 흉년, 충성)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 매번 흉년이 들다가 왕의 이름으로 농사를 지었더니 엄청난 수확을 거둔 부부는 왕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처음으로 서울로 가는데,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자려다가 진짜 왕을 만나 서울에 온 이유를 듣고 그의 성품에 높은 재상까지 벼슬을 얻음	왕의 이름으로 풍년을 거둠

날짜	제목	분류 (주제어)	국문 요약	유사설화
1906 /04	Three Wise Sayings (L. H. Underwood)	설화	한 장사꾼이 세 가지 점괘로 '넓은 길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모든 동물은 친구다' '자기 집을 들어설 때 고개를 숙이라'는 점괘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일화	
	A Foolish Tale (Ko Piung Ik)	설화 (호랑이, 떡, 어머니, 딸, 해, 달)	멀리 시집간 딸이 보고 싶어 떡을 가지고 가는 길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 잡아먹힘. 어머니 옷을 입고 가장한 호랑이가 딸 집에 찾아가는데, 딸과 그 남편이 나무에 도망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달이 되고 해가 되었다는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A Tiger and the Babies (HLU)	설화 (호랑이, 과부, 아이)	함흥지방 나무꾼과 사냥꾼들이 모여 사는 곳, 인적이 드문 곳에 5살 아들과 3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어머니. 돈을 벌러 잔치집에 가면서 아이들을 방에 두고 갔다가 호랑이가 집에 들어왔으나, 이를 물리친 아들. 집에 돌아와 놀라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함	호랑이를 물리친 과부(아이)

3. 나가며

이 논문은 *The Korea Review*를 영역 설화집 연구에서 주요한 텍스트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 잡지에 수록된 전체적인 설화 목록을 작성하여 소개하고자 했다. 그리고 *The Korea Review*의 전체적인 구성, 편찬 경위 안에서 Hulbert가 다수의 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이유를 그의 민속학에 대한 시각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Hulbert의 민속학 연구와 *The Korea Review*에 수록된 다수의 설화는 당시 근대 학문으로서의 나타난 민속학의 범주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민속학 연구는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언어학, 인류학, 지리학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던 학문 분과로서, Hulbert의 민

속학 연구는 당시 근대 학문의 학술장 속에서 한국을 사례로 구체화 되었다. Hulbert는 교육자, 선교사로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언어교육에도 힘을 썼지만, 인류학자, 역사학자, 민속학자로서 국제적인 학술장에서 한국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던 것이다.[27]

근대 초기는 한국에 근대 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이 유입되어 한국 민속과 문화지형이 내부자의 시선, 일본인의 시선, 서양인 관찰자로서의 한국 민속 연구가 교차하던 시기였고, 따라서 한국 민속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28] 여기 Hulbert의 민속연구는 다른 서양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선들의 교차와 복잡한 층위 속에서 서양인의 시선으로 서술된 것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일제에 의한 한국의 민속 조사와 기록이 시작되기 이전 서양인의 시선으로 수집되고 작성된 민속 자료였다. 서양인들에 의해 기록된 한국의 민속 연구는 조선 식민지 안에서 한국 내부자의 시선이 중심이 되어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활용되는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식민 지배자의 시선으로 타 민족과 인종에 대한 연구의 수집,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학문으로서 활용되는 민속학의 범주도 아니었다.

이러한 서양인들의 시선으로 수집되고 작성된 한국 설화에 대한 연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향후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이 논문은 최근 영역 설화집 연구들에서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The Korea Review* 수록 설화 목록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했다. 황인순이 언급한 것처럼 1900년대 전후하여 생산되는 외국어 설화집 연구는 "단순한 번안의 문제가 아니며 작게는 한국설화 크게는 한국문학에 대한 담론을 재현하는 복잡한 기술방식"이기 때문에 설화 번역에 대한 다층적 의미들

27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Hulbert는 강연회 등을 통해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했다.
28 김일권, 『한국 근현대 100년과 민속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5~19쪽.

을 읽어내기 위한 연구방법을 찾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29] *The Korea Review*에 소개된 한국 설화의 다층적인 의미를 읽어내기 위한 연구, 이 설화들이 다른 영역설화집들과 구분되는 변별점에 대한 연구, 혹은 외국인이 관찰자적 입장에서 '구전' 혹은 '기록'된 한국 설화를 다시 문자 언어로 영역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여러 문제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9 황인순, 「1900년대 전후 외국어 설화집의 연구 방법론 구축」, 『리터러시연구』 10(4), 2019, 665~702쪽.

참고문헌

1. 자료

Homer Hulbert. *The Korea Review*, 1901-1906

2. 단행본 및 논문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서울: 월인, 2000.

강혜정, 「The Korean Repository의 학술 자료적 가치」,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4) (2017), 179-204

김동진,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서울: 참좋은친구, 2019.

김성철, 「일제 강점기 영역된 한국 동화집 Tales told in Korea의 편찬 경위와 구성의 의미」, 『고전과 해석』 19 (2015), 257-284.

_____,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서양인들의 한국문학인식 과정에서 드러나는 서구중심적 시각과 번역 태도-Allen, Aston, Hulbert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9 (2013), 89-116.

김일권 외, 『한국 근현대 100년과 민속학자』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신상필, 「파리외방전교회가 남긴 동서양 문명교류의 흔적-*Grammaire Coreenne*(1881) 소재 단형고전서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2014), 349-380.

석주연, 「『한국학휘보 Korean Repository』의 한국어와 한국어 학습 관련 기사 연구」, 『언어학』 83 (2019), 75-95.

_____, 「『한국학휘보 The Korean Repository』와 『중국휘보 The Chinese Repository』의 비교 연구」, 『한글학회』 81(1) (2020), 243-272.

송민규, 「『The Koprean Repository』에 소개된 SONG 연구」, 『비교한국학』 21(1) (2013), 227-254.

심경석, 「서양인과 '거인'의 근대조선 여행기- The Korean Repository에 실린 기행문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0(1) (2021), 5-35.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서울: 일조각, 2006.

오윤선, 「근대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Allen, Griffs, Hulbert, Carpenter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3 (2012), 205-231.

_____, 「19세기말~20세기 초 영문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연구」, 『우리문학연구』 41 (2014), 146-179.

_____, 「외국인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 호랑이 소재담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3 (2014), 191-227

유경민, 「개신교 선교사가 정리한 한국어 속담과 수수께끼 연구-외국인의 한국언어문화 습득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오늘』 59 (2014), 78-103.

이민희, 「20세기 초 외국인 기록물을 통해 본 고소설 이해 및 향유의 실제-The Korea Review 수록 'Korea Fiction' 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8 (2012), 123-158.

이영미, 「『코리안 리포지터리』(1892-1898)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60 (2021), 9-35.
이인경, 『『韓國口碑文學大系』 소재 설화 해제』, 서울: 민속원, 2008.
이상혁, 「근대 초기 영문 잡지에 나타난 서양인의 '조선어' 인식에 대하여-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Review를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25 (2016), 185-212.
이상현, 「게일의 한국고소설 번역과 그 통국가적 맥락-『게일유고』 소재 고소설 관련 자료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에 관하여」, 『비교한국학』 22(1) (2014), 11-53.
이창희, 「제임스 게일의 구운몽」, 『우리어문연구』 67 (2020), 255-298.
이민희, 「20세기 초 외국인 기록물을 통해 본 고소설 이해 및 향유의 실제: The Korea Review 수록 'Korean Fiction'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9 (2012), 123-158.
임정지, 「고전서가 초기 영역본에 나타난 조선의 이미지-Korean Tales와 Korean Folktales의 경우」, 『돈암어문학』 25 (2012), 7-36.
Homer Hulbert, *Echoes of the Orient: A Memoir of Life in the Far East*,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 연구단 자료총처 2,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0.
최진실, 「곁텍스트 분석을 통한 번역가의 번역원리 연구: 제임스 게일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8(1) (2018), 29-50.
황인순, 「1900년대 전후 외국어 설화집의 연구방법론 구축」, 『리터러시연구』 10(4) (2019), 665-702.

| Abstract |

Homer B. Hulbert's Folktales and *The Korea Review*

Yu Jung, Lee |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Korea Review*, an English magazine published from 1901 to 1906 in the early modern Korea by Homer B. Hulbert. He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Korean Studies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history, and linguistics; however, this paper pays more attentions to him as a folklorist or a collector of Korean folktales. In doing so, it aims to introduce the list of Korean folktales included in this magazine. Recently, many scholars have studied Korean folktales collected and translated by foreigners during the early modern Korea, including the collections of Horace Allen and James Gales, but they have not dealt with the collections of folktales in *The Korea Review*. In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I explore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magazine, focusing on its founding process, purpose, and readership, content composition, and editorial intent. In the second section, I will review Hulbert's perspectives on folklore studies and the method of collecting stories of the time. Finally in the third section, I will introduce the list of folktales in the magazine.

Key words : Homer B. Hulbert, *The Korea Review*, folklore studies, folktales, english-translated korean folktales

논문접수일: 2021.07.15. 심사기간: 2021.07.16.~08.05. 게재확정일: 2021.08.10.

10.19115/CKS.29.2.7

죽음을 통한 이야기의 발견*

이청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허선애**

1. 들어가며
2. 죽어가는 자의 이야기와 죽음의 공유 불가능성
3.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발견되는 이야기 욕망
4. 죽음을 해석하는 소설가와 확장되는 소설의 시야
5. 나가며

| 국문초록 |

이 글은 이청준 초기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청준 소설 의식과 연관성이 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줄광대」는 타인의 죽음에 함께 함으로써 그 삶 또한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취재하는 '나'는 그 공유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의 고민과 주저함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유보 상태로 남겨둔다. '나'는 그 이야기를 버리지도, 발화하지도 못하지만,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이 필요함을 어렴풋이 인지하게 된다. 한편, 「바닷가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작품이다. 어린 서술자 '나'는 타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8S1A5A2A02070579).

** KAIST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죽음이 진실이냐 거짓말이냐의 차원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은유하는 배에서 그들의 행동을 흉내냄을 통해서 그 죽음에 직면하고, 그 순간 타자를 위한 이야기 욕망을 자각한다. 나아가 「매잡이」는 「바닷가 사람들」의 어린 화자가 품은 이야기 욕망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 ‘나’는 매잡이의 죽음에 함께 하는 민 형의 소설을 계기로 새로운 소설을 쓴다. 민 형은 매잡이의 운명을 예견하고 그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에 그쳤다면, ‘나’는 새로운 소설을 쓰며 그 죽음을 해명한다. 민 형의 죽음이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과거 이야기 속에서 배제되었던 존재를 발견하며 소설가의 시야는 확장된다.

주제어 : 이청준, 죽음, 줄광대, 매잡이, 바닷가 사람들, 타자, 공동체, 성찰

1. 들어가며

1971년 김병익은 「왜 글을 못 쓰는가」에서 글쓰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작가의 현실 대응과 연결하여 이야기한다. 현실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자유가 보장될 때 글쓰기의 문제, '왜 쓰는가'의 질문은 제기된다. 반면, 왜 글을 못 쓰는가란 질문은 이와 같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의 기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김병익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짐작되듯이 이 시기 박태순과 이청준의 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1977년 김병익은 이 글과 짝을 이루는 「왜 글을 쓰는가」라는 제목의 비평을 쓴다.[1] 1971년 글의 연장선상에서 글쓰기의 문제가 당대 현실과 정치적 압력에 대한 응전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는 또 한 번 나란히 박태순과 이청준을 불러낸다. 김병익의 반복되는 비평 작업은 1970년대 문학에서 글쓰기의 (불)가능성이 시대에 대한 응전임을 방증한다. 또한 이 주제는 이청준의 문학 세계 전반에 걸쳐 반복·확장되며 이청준은 「퇴원」으로 소설가가 된 이후 '언어 사회학 서설'이라는 구체적 작업으로 형상화되기까지 언어, 글쓰기, 진실 등의 주제를 탐색하고 있다.

등단작을 비롯한 1960년대 이청준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정신분석적 접근과 정치적 자유의 관점에서 그의 소설적 의미를 재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또한 소설의 소재적 특성으로 인해 '예술가'나 '장인' 소설의 측면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들은 대체로 언어나 글쓰기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청준의 언어와 진실, 혹은 이야기의 가

---

1 김병익, 「왜 글을 쓰는가」, 『세계의 문학』2권 3호, 1977.

2 박진영,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자유'의 표상」, 『비교한국학』25-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이하은, 「이청준 초기 소설에 나타난 자유와 사랑」, 『비평문학』70, 한국비평문학회, 2018; 주효주, 「화해불가능한 사랑의 양상-이청준의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88, 우리말글학회, 2021 등.

치 등과 같은 주제는 1970년대라는 시대적 산물이기도 했지만, 등단 초기부터 이청준이 지닌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작품 세계 전반에서 문제삼았던 언어의 문제는 그의 등단작 「퇴원」에서부터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으며,[3] 초기 소설들은 작가의 주요 모티프들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 이청준의 작품에 언어에 대한 다양한 상징과 작가의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다. 초기 소설에서 그의 언어의식의 근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는 그의 작품 세계의 변모를 조금 더 세밀하게 규명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작가의 문제의식의 기원을 다양하게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청준의 초기 소설을 주목할 때 또 하나 주요하게 보이는 소재는 죽음이다. 이는 그가 등단 초기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이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이것이 글쓰기의 문제와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4] 실제로 이청준의 많은 초기 작품들이 죽음을 다루거나, 경유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의 표상들은 이후 작가의 작품에 기초한 원체험이며, 이 불가해한 것에 대한 탐구는 특유의 소설 세계로도 이어지고 있다.[5] 나아가 이 죽음의 형상은 또 다른 주제로 파생되는 거점이기도 하다. 죽음은 인간의 본질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억압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자유를 지향하게 만들며, 또한 불가해하고 비가시적인 것으로서의 죽음이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불가능성이 재현이나 글쓰기의 문제로 이어지게 만든다.[6]

---

3 한순미, 「한 소설가의 심리적 기원에 대한 고찰」, 「어문논총」16, 전남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 2005.

4 이러한 작가의 언급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5 장윤수는 이청준 소설의 '원체험'의 방식이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그 첫 자리에 「바닷가 사람들」을 위치시킨다. 「바닷가 사람들」의 주인공이 추구하는 이야기의 욕망은 '내용이 비어있는 미결정성의 상태'이며 이러한 최초의 언어 체험이 이청준 소설 세계 전반에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을 탐색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한다. 장윤수, 「언어학습과 글쓰기」, 『이청준의 소설 세계 - 탈주와 생성의 소설학』, 박이정, 2012, 15-58면.

6 죽음을 자유의 차원과 연결짓는 연구로는 김정아, 「이청준 소설의 존재론적 죽음 사유」, 『한국문

이청준 소설에서 죽음에 대한 탐구가 문학과 글쓰기로 이어진다는 점은 블랑쇼의 해석을 참조하여 논의해볼 수 있다. 블랑쇼는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하는 죽음의 장소에 대해 사유하며, 이곳에서 타자의 영역,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언제나 타인의 죽음이다. 현실에서 '나'는 죽지 않으며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며, 죽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죽음이 홀로 겪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7] 그러므로 죽음은 주체의 동일성에 대해 회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타자를 발견하고 그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특히 블랑쇼에게 "주체성의 한계를 묻는 질문으로서의 죽음"을 사유한다는 점에서 언어와 문학은 존재 가치를 지닌다. 언어와 죽음은 주어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단순한 해석으로 축소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자아의 지배가 실패하는 경험"이다.[8] 이 자아의 실패로서의 언어와 죽음은 타자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타자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나'의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타자와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는 언어와 문학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타자의 죽음에 대해 사유하

학이론과 비평』3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홍웅기, 「이청준 소설의 죽음과 해원 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0-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등이 있으며, 죽음과 재현의 맥락에 대해서는 한순미, 「근대 재현적 주체의 죽음과 탈주의 욕망」, 『국어국문학』136, 국어국문학회를 참조할 수 있다.

7 "너는 죽어간다. 죽어가면서 너는 다만 멀어져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너는 여전히 지금 여기에 현전한다. 왜냐하면 너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내 앞에서 동의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렇게 동의하면서 모든 고통을 떠넘긴다. 너의 동의로 인해 나는 찢김 가운데 가만히 떤다, 너와 함께 말을 잊어버리면서, 너와 함께 너 없이 죽어가면서, 너 대신 내 스스로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면서, 너와 나 너머에서 이 선물을 받으면서." 그에 대해 이러한 응답이 있다. "내가 한편 죽어가는 사이에, 네가 살아있다는 환상 속에서." 그에 대해 이러한 응답이 있었다. "네가 한편 죽어가는 사이에, 네가 죽어간다는 환상 속에서." (모리스 블랑쇼·장 뤽 낭시,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5, 23-24면.) 블랑쇼는 자신의 소설 『저 너머로의 발걸음』에 나오는 위와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죽음은 각자의 것일 수 없으며, 이 사실이 공동체의 근거를 이룬다고 말한다.

8 블랑쇼의 논의에서 죽음과 문학,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울리히 하세·윌리엄 라지, 최영석 역, 『모리스 블랑쇼 : 침묵에 다가가기』, 앨피, 2008, 22-24면 참조.

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며 언어와 문학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타자와 공동체와의 접점 또한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사유는 문학의 가능성과 그 형식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이청준 소설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좋은 참조점이 될 것이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작품은 「줄광대」, 「바닷가 사람들」, 「매잡이」이다. 「줄광대」와 「매잡이」는 타자의 죽음을 글로 써야 하는 소설가 혹은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과 이야기에 관한 이청준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작품 사이에 놓인 「바닷가 사람들」은 두 작품 사이의 변화의 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나아가 작가 스스로 '죽음'이라는 소재를 활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한 바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죽음과 언어, 타자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여 이청준 초기 작품의 문학 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청준이 초기 작품에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죽음'의 문제는 결국 문학과 언어의 불투명성 및 타자의 해석적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다소 무관해 보이는 죽음과 언어, 그리고 문학의 관련성에 대해 블랑쇼의 논의를 참조함으로써 이청준 작품에서도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는 죽음과 문학적 진실의 관련성을 명징하게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가 이후 이청준의 주요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라는 점에서 이청준의 작가 의식의 시작과 그 초기적 면모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죽어가는 자의 이야기와 죽음의 공유 불가능성

병원이라는 불모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등단작 「퇴원」과 자본 논리에

빠진 장의사의 모습을 그려내는 「임부」에 이어 이청준이 세 번째로 발표한 작품은 「줄광대」이다.[9] 이 작품은 이청준 소설의 주요 주제인, 언어와 진실에 대해 고민하는 주체가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이청준 작품의 주요 모티프 중 하나인 예술가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대표작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조금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이청준의 주요 주제들이 '죽음'이라는 소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줄광대」는 예술가의 삶을 소재로 하는 것인 동시에, 예술가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둘러싼 해석과 대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신문사 문화부 기자인, 「줄광대」의 서술자 '나'가 "재미있는 기삿거리"가 될 수 있으니 "승천한 줄광대"를 취재해보라는 부장의 명령을 받고 C읍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한다. C읍에 도착한 '나'가 가장 먼저 눈여겨 보는 것은 '승천장의사'라는 특이한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에서 "뜻밖에 재미있는 데가 있을"(70) 것이며, 그가 들려줄 이야기가 무엇이든 "아무거나인 것을 무슨 심각한 문젯거리나 된 듯이 큼지막한 활자로 찍어 내놓"(74)기만 하면 훌륭한 기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를 찾는다. 그리고 '나'의 기대대로 승천 장의사는 줄광대의 '승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장의사의 이야기는 이 마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서커스 단원 중 줄광대 한 명이 줄에서 떨어져 죽었으며 그의 죽음은 사람들의 입을 오가면서, 사람들은 그 줄광대가 "명수로 줄을 잘 탔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위인이 정말 승천"을 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의사 사내는 이 이야기를 "C읍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75)기 때문에 자신의 간판 역시 '승천'이라고 지었노라고 말한다.

줄광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의사의 모습에서 '나'는 "허황된 느낌"을

9 이청준, 「줄광대」, 『사상계』, 1966년 8월호.; 이하 인용은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 지성사, 2010에서 면수만 표기.

받는다. '나'가 C읍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장의사의 말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나'는 기사 이상의 것,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트럼펫 사내를 찾아가기로 마음먹는다. 장의사의 이야기가 요약적으로 제시되는 데 반해, 사내의 이야기는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나'의 사유가 함께 등장한다. 이때 조금 더 유의해보아야 할 것은 허 노인과 허운의 삶, 혹은 죽음을 전하는 트럼펫 사내의 모습이다.

(A) 말을 할 때 사내의 목에서는 가래가 끓었다. 도대체 이 사내의 뼈만 남은 육신을 가지고는 나이조차 짐작할 수가 없었다. 호흡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나는 이 사내가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반대로 C읍에서 이 사내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은 옳은 소리였던 것 같았다.

(…)

"좋소. 이야기하리다. 나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니까. 한데 이젠 언제 숨이 아주 끊길지 모르게 되었으니 더 미룰 수도 없어졌어요. 대신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내게는 유일한 재산처럼 소중하고 엄숙한 이야기니까요."[10]

(B) "(…)그러다가 운은 산을 내려가버렸답니다."

사내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었던 것처럼 열심히 그리고 상상으로는 미치지 못할 자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기침을 하지 않으려고 몸을 오그라뜨리고 힘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야기를 못하고 기어이 발작을 시작하고 말았다.

(…)

"어떻든 그렇게 운이 죽고 나서 얼마가 지나니까, 이곳 사람들은 광대가 승

10 줄광대 : 77-78.

천을 했다고들 말하기 시작했어요."[11]

인용문 (A)에서 보듯이 '나'가 이야기를 구하기 위해 찾아간 트럼펫 사내는 10년째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몸도 몹시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트럼펫 사내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한때는 서커스 단원이었지만, 폐병 때문에 C읍에 남아 있었던 트럼펫 사내는 오랜 시간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마치 "재산"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허 노인과 허운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것이었으며, 어쩌면 트럼펫 사내가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절름발이 여자에 관한 것이었다. 인용문 (B)는 사내가 이야기를 끝맺는 장면이다. 줄광대에 관한 이야기는 사내의 말로도 전달되지만, 또한 죽어가는 사내의 육체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트럼펫 사내의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모두 죽었다. 허운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여자를 죽이려다가 포기하고 사라졌다. 트럼펫 사내는 '운은 산을 내려가버렸답니다'하고 말한 다음, 발작을 일으켰다. 사내의 죽어가는 육체는 운의 죽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더욱 노쇠해지고 있었다. 운이 산을 내려가 버렸다고 말한 다음 문장에서 그 사내는 발작을 일으켰고, 그 후에 "그렇게 운이 죽고 나서"하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사내의 발작은 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이었고, 운과 함께 트럼펫 사내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운이 죽었다고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 죽음을 함께 하는 트럼펫 사내는 운과 삶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트럼펫 사내는 마치 자신이 허운인 것처럼, "상상으로는 미치지 못할 자세한"(91),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펫 사내의 이야기 주변에 남겨진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 운에게 꽃다발을 보냈지만 운을 사랑할 수 없었던 절름발이 여자였다. 트럼펫

---

11 줄광대 : 91-92.

사내가 운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도 담담하고 무미건조하게 “그 여자도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하고 말함으로써 트럼펫 사내는 이야기를, 다시 말해, 죽어가는 과정을 마치고 죽음을 맞는다. 여자의 죽음이 운의 죽음에 비해 간결히 처리되고 마는 이유는 트럼펫 사내의 삶에 있다. 트럼펫 사내는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를 사회에서 유폐한 채, 절름발이의 여자의 딸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의 이야기가 운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내의 삶은 절름발이 여자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 오랜 시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머무르던 사내는 이야기를 마치고는 자신의 생도 마감한다.

‘나’는 허 노인과 허운에 대한 이야기를 두 명에게서 전해 들었다. 그런데 죽어가는 트럼펫 사내와 승천 장의사의 이야기 방식과 태도는 판이하다. 승천 장의사의 이야기는 자신이 간판을 만든 내력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타인의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자신의 자본과 상업의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의사의 태도는 이청준의 또 다른 작품 「임부」[12]에서도 유사하게 형상화된 바 있다. 「임부」에서 장의사가 죽음을 계산하고 통계 내며, 예측하는 자본주의 관리 체계하에서 죽음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처럼,[13] 「줄광대」의 장의사 역시 자본과 이윤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줄광대」의 장의사는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담긴 ‘이야기’ 역시 광고의 효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트럼펫 사내는 자신의 죽음을 유예하며 허 노인과 허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품어왔다.

---

12 『사상계』1966년 3월호. 후에 「아이 밴 남자」로 개제된다.

13 이 소설은 상업적 경쟁 구도에 놓인 장의사가 타인의 죽음을 산술적 계산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일이 끝날 때마다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생기는 이 성과급제가 실시된 뒤부터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직 곡성과 숨이 차서 뛰어오는 연락원의 영접, 그리고 공동묘지나 화장터로 달리는 장의차의 핸들을 붙잡고 있을 때의 느긋한 감정뿐이었다.” 이청준, 「아이 밴 남자」,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0, 43면,

자신의 운명과 재산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그 속의 인물들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죽어간다. 타자의 죽음을 함께할 수 있는 트럼펫 사내의 모습은 타자의 죽음이 그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허운을 사랑했던 절름발이 여자의 딸을 키우며 트럼펫 사내는 허운의 죽음을 함께 하고, 허운의 삶을 대신하고 있다. 그렇기에 트럼펫 사내가 전한 허운의 말은 '나'에게도 직접 들은 것처럼 생생할 수 있었다.

이 소설의 주요한 내용은 허 노인과 허운의 삶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다. 그 이야기를 청하며 기록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나'는 승천 장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충분한 기삿거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녔음에도 그는 트럼펫 사내를 찾아 이야기를 다시 청한다. 그리고 트럼펫 사내와의 대화에서 '나'는 이야기의 틈에 개입하며 자신의 판단과 사유를 덧붙인다.[14]

> (C) 거기까지 듣고 나니, 나는 사내에게 더 이야기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허 노인이 운에게 마지막 당부를 할 때 그랬을 법한 컴컴하고 무거운 것이 사내에게서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이 믿어지지 않는 집요한 이야기로써 사내가 나에게 떠맡기려는 것의 무게가 나로서는 매우 감당하기가 힘들었다.[15]

> (D) C읍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어버린 때문일까? 아니면 어느 것 없이 거짓말을 - 적어도 나에게는 거짓말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

---

14 이러한 형식은 이후 이청준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격자 소설의 구조이다. 이는 이야기를 입체화하고, 소설 속에 독자와 수신자의 역할을 남겨두는 것이다(허선애, 「계몽된 사회와 언어-진실의 (불)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52, 한국현대문학회, 2016, 24면). 「줄광대」는 이러한 형식을 처음으로 활용한 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형식은 독자/청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이야기 구조라는 점에서 '나'의 역할과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5 줄광대 : 85.

같지 않은 이야기만을 - 들은 때문일까. 소설을 생각할 때와 같은 그런 혼돈이 휘몰아들었다. - 나는 적합하지가 않다. 좀 더 확실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길 왔어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더욱이 그것을 여자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이 혼돈 속에서 나의 소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영영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에게서 이 이야기는 아주 죽어버릴 것인지, 또 누구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어떤 질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16]

죽음을 '소재'의 차원에서, 취잿거리로만 접근하려 했던 '나'는 자신이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자각한다. 타인의 죽음에 가까이 가지 못한 자가 짊어지기에는 이것이 너무 무거운 것이었고(인용문 (C)), 혹은 '나'보다 더 그 죽음에 가까이 서있는 자만이 그 죽음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인용문 (D)). 트럼펫 사내가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간직해왔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도, 그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타인의 죽음을 간직하고, 이를 전달하고자 했던 트럼펫 사내는 결국 청자가 없는 이야기를 마치고 죽음을 맞는다. 삶과 죽음의 경계, 그 바깥에서 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문학의 소재로 남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죽음의 이야기를 전유하는 '승천 장의사'와 줄광대의 이름뿐이었다. 그것은 흥미 있는 기삿거리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나'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야기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로 넘쳐나면서, '거짓말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16 줄광대 : 96 – 97.

트럼펫 사내의 딸이 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무연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이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17] 어느 경우에든 '나'는 그 수많은 죽음으로 인해 혼돈을 느끼고, 트럼펫 사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다"라는 탄식을 남기면서 그 죽음의 이야기를 버려두게 된다.

3.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발견되는 이야기 욕망

이청준에게 죽음의 문제는 「줄광대」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전반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이다. 또한 죽음은 그가 자신의 소설에 대한 태도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청준은 현실의 삶이 죽음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현세의 삶을 의미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8] 죽음과 삶이 서로를 간섭하고 있다는 그의 인식이 형성된 데에는 어린 시절 이청준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맏형의 부재

---

17 이야기의 사실성 여부는 '나'에게 몹시 중요한 요소여서, '나'는 트럼펫 사내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틈입하여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묻거나 회의를 표하기를 반복한다. 가령,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인께서 운의 생각을 말씀하신다는 것은?"(82)과 같은 질문을 한다거나, "정말로 그랬을까? 나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질 않았다."(88)과 같은 회의를 이야기 사이에 새겨 넣고 있는 것이다.

18 1999년 이청준은 권오룡과의 대담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논하고 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현세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세의 삶이 죽음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이지요. 요즘의 많은 서구 문학에서는, 아마도 유물론 사상이 침윤한 탓이라 생각되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이나 영혼에 대한 상상이 전혀 찾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학적 상상력의 기능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는 것이 아니겠어요? 죽음이 없는 삶이란 일차원적인 밋밋함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통행 금지가 있을 때 외국에 나가 보고는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두 배로 산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요. 밤이라는 게 그렇게 새롭고 다른 세계로 보였던 것이죠. 죽음이 상상을 통해 그려지지 않는 삶은 이런 비유적 예에서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가 인터뷰 – 시대의 고통에서 영혼의 비상까지」, 권오룡 편, 『이청준 깊이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37면.

와 사후의 흔적은 이청준이 삶과 죽음의 관계를 성찰하는 주요한 계기였다. 형은 죽었고, 그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유년 시절 자신의 주위에 산적한 형의 물건들, 그의 책과 메모들이 끊임없이 이청준과 죽은 형을 조우하게 했다. 이 경험을 소재로 한 그의 수필 「다시 돌아보는 헤매임의 내력」에서는 형의 죽음, 그리고 죽은 형과의 지속적인 마주침이 자신을 삶에 대해 탐구하게 만들었고, 독서를 통해 세계와 삶을 배우게 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간절한 자기 표현의 욕망"으로 이어졌음을 술회한다.[19] 또한 이청준은 그의 문학적 출발점이 고향이며, 그 내용 중 하나가 죽음이라고 밝혔다.[20] 그리고 작가가 이러한 죽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계기에는, 앞서 제시한 형의 죽음이 놓여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청준은 형의 유품과 함께 한 유년의 경험이 곧 "그분들의 죽음이 삶의 다른 모습으로 같이 살아주"(274)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나아가 형들의 죽음에 근거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청준이 인터뷰와 수필에서 반복적으로 회고하는 이 죽음은 형의 장례식 장면이거나, 형의 유품이나 글과 같이 타인의 흔적이다. 실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며, 이를 체험함으로써 주체는 개인성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21] 타인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바깥'에 두는 행위이며, 그 순간에 타인과의 연대 가능성이 발견된다.[22] 죽음을 함께 하는 것, 타인의

---

19 이청준, 「다시 돌아보는 헤매임의 내력」, 『작가의 작은 손』, 열화당, 1978, 127-130면.

20 "저의 어렸을 때는 주변에 유난히 죽음이 많았어요. 그 죽음들이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 때문에 세상 전체가 그늘 속에 잠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라는 것이 그 죽음들과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삶이 섞여 있거나 또는 죽음도 삶의 어떤 연장으로서, 삶의 한 양식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지요." 김치수·이청준, 「이청준과의 대화-복수와 용서의 변증법」, 『신동아』, 1981년 10월호(인용은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문학과지성사, 2016, 272면).

21 울리히 하세·윌리엄 라지, 앞의 책, 110-111면.

22 '죽어가면서 결정적으로 멀어져 가는 타인 가까이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 타인의 죽음을 나와

죽음에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함께 사는 방식이다. 「줄광대」에서 트럼펫 사내의 삶이 허운의 죽음과 공존했던 것처럼, 죽음과 삶의 접점은 타인의 죽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줄광대」의 '나'가 그 공유 가능성을 한낱 이야기나 기삿거리로 만들고, 혹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은 작가 이청준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인의 죽음과 이야기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발견하지 못하는 '나', 소설을 쓰지 못하는 소설가라는 작가의 자기 투영적 인물을 통해 이청준은 등단 초기 작가의식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청준은 형의 죽음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현재의 삶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타인의 죽음이 현재 자신과 이어지고 있다는 강렬한 인식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진실에의 희구, 글쓰기의 욕망으로 확장되어간다.

> 쓴다는 것이 바로 산다는 것일진대 쓰는 행위 가운데 죽음이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으로 그 죽음이 살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소설에 쓰여진 것이 그대로 현실적인 삶에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체험이라는 문학 행위의 단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직접 현실에 연결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죽음이 나의 쓰는 행위 가운데에서 체험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23]

이러한 고민 끝에 이청준이 도달한 곳은 글쓰기와 죽음의 접점이다. 글쓰기와 삶을 동일시하는 이청준은 죽음을 쓰는 것이 곧 삶과 죽음이 공유되는

관계하는 유일한 죽음으로 떠맡는 것, 그에 따라 나는 스스로를 내 자신 바깥에 놓는다. 거기에 공동체의 불가능성 가운데 나를 어떤 공동체로 열리게 만드는 유일한 분리가 있다.'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앞의 책, 23면.

23 김치수·이청준, 앞의 글, 275-276면.

방식, 타인의 죽음이 자신의 삶과 이어지는 방식임을 깨닫는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이를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곧 글을 쓰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는 글쓰기를 통해 죽음과 삶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죽음이 현실의 삶을 간섭해온다는 그의 사유는 이러한 원체험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렇듯 이청준의 사유에서 죽음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등단 초기부터 작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는 1968년의 한 좌담에서 자신의 초기 소설이 '죽음'에 대해 "나름의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24] 이러한 언급을 따른다면, 이청준의 초기작은 대체로 죽음을 소재나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작가의 "해결"을 시도해보고자 했다. 도회지에서의 절망이 초기 소설에 증오 감정으로, 그리고 죽음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다섯 번째 소설 「바닷가 사람들」에서는 그전까지 그의 소설을 지배했던 죽음과 증오가 바다라는 자연과 조우하면서 감정의 완화, 그리고 새로운 욕망을 발견한다.[25]

「바닷가 사람들」의 어린 서술자 '나'는 수평선 너머의 삶을 상상하지만, 그곳의 이야기를 알 수는 없다.[26] 아무도 '나'에게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은데다, '나'의 형 달이는 수평선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형 달이가 수평선을 향해 나갔던 날, '우람한 파도'가 물보라를 만들고, '하늘과 땅이 온통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구는 것처럼 무섭게 설쳐'

---

24 "증오라는 감정이 그래도 완화된 것이 <바닷가사람>이지. 자연이란 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애. 초기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소설이 죽음을 설정한 데 비해 나는 나 나름의 해결을 하고 싶었어." 「현대문학방담」, 『형성』2권 1호, 1968년 봄호, 76면

25 이청준, 「바닷가 사람들」, 『청맥』, 1966년 9월호. (인용은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 지성사, 2010에서 제목과 면수만 표기

26 "바다는 하늘과 맞닿고 있는 그 검은 선 너머에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가. 그곳을 가본 사람은 많았다. 아버지도 가보았고 형 달이도 가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의 이야기를 가져 오는 사람은 없었다." (바닷가 사람들 : 127)

댔다. 그 이후로 형 달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없이 멀어지기만 하는 수평선 너머의 바다와 무섭게 몰아치는 비바람은 형 달이를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공사판 사람들이 간신히 이어놓은 둑'이 다섯 번째로 무너졌다.

공사판 사람들은 둑이 갈라지는 이유를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공사판 사람들이 '나'를 제물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화난 바다 귀신'이 '나'를 잡아갈지도 모른다며, '나'에게 두 개의 금기- 공사장과 바다에 가지 말 것 – 를 강요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은 금기를 설정함으로써 그것이 주는 공포를 외면하고자 한다. 아버지는 죽음의 장소에 근접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나'에게는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는 자식 하나를 바다에다 제사 지내고도 바다에 나가야 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팔자와 운명이라는 말로 체념했고, 자신이 믿는바 운명대로 또다시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바다가 정말 험상궂게 뒤집'힌 날 밤, 둑이 또 갈라졌고, '나'가 키우던 복술이 역시 간 곳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재난 그리고 누군가는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이와 함께 공사판 사람들이 둑을 세우기 위해 폭약을 터트리는 것 또한 반복된다. '나'는 쳇바퀴 도는 듯한 제방 공사의 폭약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주위에 산재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한다.

> 막아도 막아도 무너져버리는 일을 또 시작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갑자기 그것이 아버지가 바다로 가고 또 가고 해야 했던 것과 같이 할 수 없는 모양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그래야 할까. 갈라질 줄 알면서도 또 둑을 쌓고, 아버지는 분명히 싫어하면서도 바다를 넘어갔다. 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있나 보다. (…) 모두 다 거짓말이 되었다. 참말은 또 바닷물이 쓸어가 버릴 둑을 쌓는 일과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될 때까지 바다로 나갔다는 것뿐이었다.[27]

위의 인용문과 같은 인식을 야기한 것은 공사판 사람들의 폭약 소리이다.[28] 그들은 유한한 인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둑을 쌓는 일만을 반복한다. 반면 '나'는 둑을 쌓는 일과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이는 「줄광대」의 '나'가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죽음에서 '거짓말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과 대별되는 지점이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 죽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공동체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언제나 타인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죽음은 홀로 겪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죽음을 함께 하는 것, 타인의 죽음에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줄광대」의 트럼펫 사내는 운의 죽음을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대속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를 통해 운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죽음을 자신의 경험으로 치환하지 못했다. 허노인과 운, 절름발이 여자의 죽음에서 여전히 거짓말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비해, 「바닷가 사람들」에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죽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죽음의 '대속'에 기초하는 연합으로서 공동체는 "나눌 수는 없지만 필연적

---

27 바닷가 사람들 : 140-141.

28 「바닷가 사람들」에서 공사판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방 둑이 무너지는 모티프는 이청준의 이후 소설인 「침몰선」, 『당신들의 천국』등으로 이어지면서 간척사업을 환기시킨다. 개발 독재에 의한 제방 공사는 도처에 널린 죽음을, 그리고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으로 다수일 수밖에 없는 말의 자리를 마련"한다.[29] 이 '말'이란 타인, 그리고 공동체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타인의 죽음에 함께함으로써 열린 공동체의 가능성은 다시 '말', 언어, 그리고 문학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바닷가 사람들」의 '나'가 아버지의 죽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도달한 지점이 바로 그곳이다.

> 바닷물이 이제는 모래톱을 덮고 들어왔다. 나는 슬그머니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로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가 배를 잡으러 나갈 땐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형 달이도 그랬다. 물로 들어서자 물결 때문에 몸이 조금씩 기우뚱거렸다. 나는 전에 달이처럼 두 팔을 저으며 몸을 조금 앞으로 굽히고 천천히 배까지 걸어갔다.
>
> 배에 올라서니 일렁이는 것이 차라리 기분이 좋았다. 정말이지 나는 처음 배를 타보는 것이다. 나는 수평선 쪽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떠보았다. 수평선이 붙잡힐 듯이 가깝게 다가왔다. 문득 나는, 언제고 저 수평선 너머로 가서 그곳의 이야기를 모조리 알아가지고 돌아오리라 다짐한다. 아버지도 달이도 어쩌면 그것을 알아내고 싶어 그곳으로 갔을,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아올 수 없었던 그 수평선 너머의 이야기들을 말이다.
>
> 나는 배를 따라 몸을 일렁이면서 그 수평선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었다.[30]

이 소설의 마지막인 위의 인용문은 '나'가 자신에게 금기시되었던 바다로 나아가는 장면이다. 배에 올라서자 '나'는 감정적 평온함을 느낀다. 수평선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의 세계를 어린 소년인 '나'가 가보지 못한 곳, 어른의 세계로 이해할 때, 성장하지 못한 '나'가 배에 오른 행위는 일종의 모방에 불과하거나, 도달 불가능한 것을 향한 나약한 의지로 이해되기도 한다.[31] 그

---

29 모리스 블랑쇼장 뤽 낭시, 앞의 책, 28면.

30 바닷가 사람들 : 141.

31 나소정, 「유토피아에서 헤테로토피아로 – 이청준 소설의 섬 공간 연구」, 『한국문예창작』16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7, 113면.

러나 '나'가 아버지와 형을 모방하여 배에 올랐을 때, 그 모방 자체가 내포한 실현 불가능성의 문제보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이를 통해서 강화되는 '나'의 욕망이 도달하는 지점에 관한 것이다. '나'가 흉내내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배에 오르던, 그래서 결국 미지의 공간인 바다에서 죽음을 맞은 아버지와 형 달이다. 그들의 죽음을 따라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만들어놓은 금기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로써 수평선 너머 존재하는 이야기를 향한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지는 누구도 가져오지 못했던 수평선 너머의 이야기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욕망은 자신에게 '가능한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꿈꿀 수 있는 것이 된다.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금기가 억압한 '나'의 욕망은 그 죽음을 감수하고 바다로 나아간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음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가지고 돌아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죽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만이, 타인의 죽음에 이웃이 되어주며,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욕망이다.[32] 아버지와 형의 죽음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나'가 이해하고 이에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영역이다. 그리고 '나'의 위치와 역할이 미지의 것을 알아내고, 이를 온전히 공동체에 전달하는 것에 있음을 근거하는, '나'의 글쓰기의 시원이다.

---

32 "(카프카의 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죽음 앞에서 스스로의 주인일 수 있어야만, 또 죽음과 절대주권의 관계를 맺게 될 때에만 우리는 글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침착성을 잃게 되는 것은 죽음 앞에서이다.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그때 죽음은 펜 끝으로부터 단어들을 앗아가며 말문을 막히게 한다. 그러면 작가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소리친다. 이것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혹은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서투르고 확실치 않은 외침이다." 모리스 블랑쇼, 박혜영 역,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8, 123면.

4. 죽음을 해석하는 소설가와 확장되는 소설의 시야

「줄광대」의 '나'는 타인의 죽음 앞에 주저하고 있지만, 「바닷가 사람들」의 어린 소년 '나'는 타인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어려움과 이야기를 통해 죽음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 사이에서 초기 이청준의 작품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죽음과 이야기, 혹은 진실을 담는 이야기에의 욕망이라는 주제는 소설 「매잡이」로도 이어진다.[33] 「매잡이」는 '나'에게 취재 노트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민태준 형의 죽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매잡이」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이 세 편이나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는 글이다. 세 편이라 함은 과거 '나'가 취재를 바탕으로 발표한 소설 <매잡이1>, 그리고 오늘에서야 찾은 민 형의 소설 <매잡이2>, 그리고 '나'가 서술하고 있는, 실제 이청준의 작품 「매잡이」인 <매잡이3>을 의미한다.

지난 봄, 민 형은 '나'에게 자신의 취재 노트를 보여주며, 매잡이에 대한 소설을 써볼 것을 권한다. '나'는 매잡이를 취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지만, 그 여행의 일차적 목표는 소설을 쓰는 것보다 민 형의 행적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 여행에서 '나'는 매잡이와 민 형의 행적 그 모두를 온전히 대면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 매잡이의 삶과, 민 형의 의도를 모두 명백히 이해했다고 오인한다.[34] 그러나 '나'의 취재 여행 동안 민 형은 죽었고, '나'의

---

33 이청준, 「매잡이」, 『신동아』 1968년 7월(인용은 이청준, 『매잡이』, 문학과지성사, 2010에서 제목과 면수만 표기).

34 "그때까지도 나는 이 마을에서의 민 형의 행적과 실제로 눈앞에서 기이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매잡이 사내, 둘을 한꺼번에 쫓느라 어느 쪽에도 확실한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소년의 이야기는 혼란스럽고 어정쩡한 나의 주의를 우선 한동안 매잡이 사내에게로 고정시켜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첫 번째 '매잡이'라는 작품을 낳게 했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민 형의 행적에만 호기심을 갖다 만 것보다 민 형의 취재 행각 이상의 매잡이의 삶에 대한 인식, 또는 나를 보낸 민 형의 의도 같은 것을 훨씬 더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매잡이 : 221-222면.

판단을 검증받을 방법은 없어졌다. ‘나’는 민 형과 곽 서방의 “두 죽음을 연결시킬 근거”(254)가 분명해지지 않아 그의 죽음을 제외한 채 <매잡이1>을 완성한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애매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나’는 그 이야기를 손쉽게 포기한다.

> ‘매잡이’-그 원고의 겉장에 씌어진 제목이 그것이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닫을 생각도 않고 그 자리에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설을 읽어 내려가다가 나는 거듭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잡이라는 제목의 소설, 그것은 너무나 내가 썼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것이 있다면 민 형의 소설은 나라는 화자가 하나 더 등장하고 곽 서방은 그 화자의 눈을 통해서 그려지는 데 반하여, 나의 것은 곽 서방이 ‘나’라는 화자 없이 삼인칭으로 직접 묘사되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리고는 거의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었다. 곽 서방이 단식을 시작한 구체적인 동기가 조금 다를 뿐 줄거리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아니 내가 놀라고 있다는 것은 민 형이 그런 소설을 써놓았고 그것이 소설로서는 거의 완벽한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생각해보라.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곽 서방의 죽음까지 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괴이한 일인가.[35]

시간이 지난 뒤 ‘나’는 민 형의 소설 <매잡이2>를 발견한다. 민 형의 소설 <매잡이2>에는 곽 서방의 죽음이 그려져 있다. 그의 죽음l라는 사건을 알 수 없었던 민 형이 소설 속에 곽 서방의 죽음을 새겨놓았고, ‘나’는 이 기이함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자신과 민 형의 차이를 찾는다. ‘나’의 소설 <매잡이1>은 매잡이 곽 서방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매잡이라는 기이한 소재에 대해 흥미를 느끼던 ‘나’는 그 대상만을 전면화해두었다는 것은 ‘나’의 최초

35 매잡이 : 260-261면.

의 의문을 쉽게 포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 형은 자신을 투영한 화자를 소설 속에 등장시킨다. 이러한 점이 <매잡이1>과 <매잡이2>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화자의 존재 외에는 '나'의 소설과 다를 바가 없었던 민 형의 소설이 "완벽한 느낌"을 주면서 '예언'과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화자와 매잡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매잡이를 그려낸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호 작용은 민 형으로 하여금 곽 서방의 죽음에 '함께' 하게 만든다. 곽 서방의 죽음과 민 형의 죽음이 겹쳐 있는 것은 민 형이 곽 서방의 죽음을 예언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곽 서방의 운명이 또한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민 형이 곽 서방의 죽음 앞에서 선택한 방식은 그의 소설에 곽 서방의 죽음을 새겨넣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나'는 민 형의 소설적 성취에 대해 "사물의 본질을 투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진 훌륭한 작가"(264)가 예언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민 형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소설의 예언적 성격은 이청준의 전체 작품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모티프이기도 하다. 「조율사」에서 소설의 본질인 예언적 기능이 '지식인의 실천성'으로 규정되고, 이후 다른 주요작에서도 소설 쓰기의 문제와 작가의 예언자적 각성 모티프는 반복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본질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연성'이라는 운명적 계기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이청준 소설의 지향점으로 보인다. 이청준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소설을 쓰지 못하는 소설가는 그 예언자의 능력,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작가적 실천성의 문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매잡이」의 민 형 또한 선뜻 소설을 쓰지 못하고 취재 노트만 작성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민 형이 곽 서방의 삶을 목격하고, 그 삶의 진실 혹은 그 삶의 운명을 예견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매잡이2>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나'가 죽음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손쉽게 포기해버린 <매잡이1>과 달리, 민 형의 소설은 예언자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청준은 작가의 예언자적 경지를 보여주는 민 형의 소설 <매잡이2>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잡이2>는 '나'가 <매잡이3>을 쓰도록, 이청준이 소설 「매잡이」를 완성하도록 추동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매잡이3>은 <매잡이2>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선다. 이청준의 소설 「매잡이」가 <매잡이2>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곽 서방에 대한 민 형의 공감과 죽음의 육체적 공유를 넘어서, 죽음을 해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매잡이3>은 <매잡이1>을 쓰게 된 경위와 그 당시 '나'의 경험과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면서 또한 민 형의 삶과 죽음 또한 다룬다.

민 형은 곽 서방의 삶 그리고 죽음을 함께 함으로써 스스로 개인과 주체의 한계를 벗어나, 타인과 운명을 공유하고자 했다. 이와 달리 '나'는 <매잡이3>을 통해 그 죽음의 의미를 사유하고 다시 그것을 글로 씀으로써 그 죽음을 전하고, 그 죽음을 모두의 것으로 만든다.[36] 소설에서 그의 죽음을 다루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해 성찰하며, '나'가 쓴 <매잡이1>을 반성하는 것이며,[37] 나아가 타인의 죽음에 함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타인의 죽음을 해석하고 마주함으로써 '나'는 새로운 의미와 발견에 도달한다. 그 발견은 '나' 또한 의도하지 않은, '나'의 표면적 발화와 배치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나'가 소설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달라진 소설의 초점은 벙어리 소년 중식을 향해 있다. <매잡이1>이 곽돌을, <매잡이2>가 곽돌과 그를 바라보는 화자를 담았다면, <매잡이3>은 그 전체를 보여준다. 그 전체 과정에서 '나'는 중식의 매개를 통해 곽 서방을 만나고 그의 죽음에 함께

---

36 울리히 하세·윌리엄 라지, 앞의 책, 102면

37 소설 「매잡이」는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필연성의 논리로 추론한 이야기, 그리고 '매잡이2'를 통해 '매잡이1'을 전면적으로 반성하며 새로운 성찰을 유도하는 이야기 사이의 복합 구성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우찬제, 「존재값의 이야기, 이야기의 존재값」, 이청준, 『매잡이』 문학과지성사, 2010, 352면.

했다.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매잡이3>은 항상 '나'의 곁에 있었던 소년 중식과 '나'의 대화와 교감이 전면화한 것이다. <매잡이1>을 서술하면서 '나'가 삭제한 것은 매잡이를 바라보는 시선, 즉 화자로서의 민 형, 혹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었다. 매잡이의 운명을 따르는 소년 중식 또한 <매잡이1>에서 자기 자리를 부여받지 못했다. 반면 <매잡이3>이 무의식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버버리 소년', 매잡이가 사라진 시대에도 매잡이가 되고 싶어 하는 소년 중식이다. 곽 서방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추동했던 소설이 <매잡이1>인 데 비해, <매잡이3>은 소설을 쓰게 된 '나'와 그 당시에 대한 메타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 동시에 곽 서방의 죽음을 전해주었던, 그리고 곽 서방과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중식의 모습이 전면화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매잡이3>의 마지막을 채우는 풍속에 관한 '나'의 견해는 민 형과 곽 서방의 죽음을 의미화하는 것인 동시에 중식의 운명에 대한 예감을 포함하고 있다. 소설을 끝맺으려는 과정에서 별안간 벙어리 소년에 대한 관심을 표한다. '나'는 처음 취재 여행을 떠날 때 매잡이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중식에 대한 관심을 심드렁하게, 무의미한 것처럼 서술한다.[38] 그러나, 이후 소설에서 사족처럼 붙어있는 풍속에 대한 긴 서술은 민 형의 죽음과 곽 서방의 죽음 외에도 중식의 운명에 대한 '나'의 해석과 예언이다. 이는 '나'가 중식에게 느끼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연대감에 바탕을 둔 한탄에 가깝다.

>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풍속의 의상이 없는 시대에서 그 삭막하고 참담한 삶

38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 버버리 소년이 앞으로도 정말 매잡이 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별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 하지만 나의 기분대로 말한다면 소년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사실을 알아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어느 땐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소년의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매잡이 : 265) 이러한 '나'의 태도는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순성과 기만적 서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윤호, 「이청준 소설의 직업 윤리와 소설 쓰기 연구」,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5, 315면.

의 현실을 맨몸으로 직접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보다도 그 참담스런 삶의 현실이 또 다른 풍속으로 부화되는 것을 거부하며, 자기 삶의 새로운 풍속화에 대항하여 그것을 거꾸로 인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민 형도 어쩌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는 소설마저도 단 한 편밖에 쓸 수 없었던 민 형 – 그래서 그는 오히려 곽 서방에게 그토록 매달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끝내는 절망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 민 형의 종말-그것은 그 곽 서방의 풍속에 자신을 귀의시킬 수 없었던 비극의 종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새로운 풍속화에 대한 마지막 저항과 결단의 몸짓은 아니었을까. 감히 말하자면 그것이 아마도 민 형의 죽음의 진실이어야 할 터이다.

… 소년이 다시 매잡이가 되어 있든 아니든 그것은 이제 별다른 뜻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 매잡이의 시대가 지나가버린 세상에서의 소년에게도 그렇고, 민 형이나 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39]

민 형은 곽 서방을 죽게 함으로써 그를 '풍속의 유물'로 남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함께 죽음으로써 공동의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민 형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매잡이에 대한 민 형의 동일시는 시대에 대한 오판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풍속의 유물로 남은 곽 서방과 민 형 이후에도 삶은 지속된다. '나'는 자신이 남겨진 시대를 "풍속이 사라진 시대"(265)로 표현한다. 사라지는 운명을 예감한 민 형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그 죽음과 사라지는 풍속에 동참했다면, 이제 '나'는 그 동참할 수 있는 풍속마저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삶을 지속해야 하고 또한 곽 서방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중식 또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사라짐과 죽음에 대해 예언하는 민 형의 소설에서 이청준이 끝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

39 매잡이 : 266.

않았을까. 그리하여 민 형의 소설과 그의 죽음에서 절망을 읽어내는 '나'는 그 절망을 야기한 시대에 대한 진단으로 나아간다. '나'의 자조와 무관심으로 표면화되었음에도 <매잡이3>이 전면화하는 것은 소년 중식의 운명에 관한 것이며, 그 운명을 비극으로 끌고 갈 '풍속'에 대한 진단으로 소설은 스스로 나아가고 있다.

이청준 소설에서 '죽음'이라는 소재는 청자/주변인으로서의 역할 규정, 이야기에 대한 욕망의 발견과 그 이야기의 방향성 모색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공동체의 운명과 그 운명을 결정짓는 사회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1960년대 후반 이청준의 사유와 창작이 문학의 영역을 개체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려 했으며 작가적 자아가 사회적인 것과의 관련 속에서 의미를 구축하려 한다.[40] 이 변화를 추동하는 또 다른 원천은 죽음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여기서 시작되는 이야기하기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유년기의 소년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은 도처에 산재한 죽음의 공포와 이를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는 죽음을 무릅쓰고서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직면하고 이를 해석하고 언어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또 다른 발견, 시대와 사회에 대한 소설적 진실을 찾고 이야기하는 작가의 욕망, 혹은 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다.

5. 나가며

이 글은 이청준 초기 소설에서 죽음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

40 이미영, 「서사적 '자기' 창출과 사유의 네트워크」, 『한국학 연구』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366면.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청준 소설 의식과 연관성이 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줄광대」에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 승천 장의사가 예술가의 죽음을 평면적으로, 그리고 흥미와 이윤의 맥락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트럼펫 사내는 그 죽음에 함께 한다. 그는 평생 동안 품었던 이야기를 전하며 죽어간다. 타인의 죽음에 함께 함으로써 그 삶 또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인물 모두에게 이야기를 듣는 '나'는 그 사이에서 고민한다. 승천 장의사의 방식을 거부하면서도 트럼펫 사내의 이야기 방식을 선뜻 취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고민과 주저함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유보 상태로 남겨둔다. '나'는 그 이야기를 버리지도, 발화하지도 못하지만,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이 필요함을 어렴풋이 인지하게 된다.

한편, 「바닷가 사람들」은 이청준 초기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와 그로 인한 증오 감정을 완화시킨 작품이라고 작가 스스로 말한 바 있다. 그의 회고에 비추어볼 때, 「바닷가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작품이다. 어린 서술자 '나'는 아버지와 형 달이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진실이냐 거짓말이냐의 차원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형이 타고 나갔던 배에서 그들의 행동을 흉내냄을 통해서 그 죽음에 직면한다. 죽음에 대한 '해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최초로 마주본 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최초로 마주한 순간에 '나'는 이야기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타자를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한 번도 도달해본 적 없는 주제-죽음이며,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리라고 다짐한다.

「매잡이」는 「바닷가 사람들」의 어린 화자가 품은 이야기 욕망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 '나'는 매잡이의 죽음에 함께 하는 민 형의 소설을 계기로 새로운 소설을 쓴다. 민 형은 매잡이의 운명을 예견하고 그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에 그쳤다면, '나'는 새로운 소설을 쓰며 그 죽음을 해명한다. 민 형의 죽음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과거 이야기 속에서 배제되었던 존재 또한 발견한다.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반성함으로써 소설가의 시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청준에게 글쓰기를 추동하는 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무엇이다. 그것은 진실이라 명명되기도 하고 복수나 자기 구제로 환언되기도 한다. 소설 속에서 구체적 형상이 드러난 적이 없으나, 인물들이 그것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무언가를 우리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죽음'을 사유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웃의 죽음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음으로써 '나'가 '우리'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든다. 타인의 죽음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그것과 나의 관계를 고민함으로써 개인은 타자와 연결되며 그 연결이 죽음의 진실, 혹은 세계의 진실을 밝히는 매개가 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 지성사, 2010.
_____, 『매잡이』, 문학과지성사, 2010.

2차 자료

김병익, 「왜 글을 쓰는가」, 『세계의 문학』2권 3호, 1977.
김정아, 「이청준 소설의 존재론적 죽음 사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나소정, 「유토피아에서 헤테로토피아로 – 이청준 소설의 섬 공간 연구」, 『한국문예창작』16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7.
박진영,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자유'의 표상」, 『비교한국학』25-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오윤호, 「이청준 소설의 직업 윤리와 소설 쓰기 연구」,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5.
우찬제, 「존재값의 이야기, 이야기의 존재값」, 이청준, 『매잡이』 문학과지성사, 2010.
이미영, 「서사적 '자기' 창출과 사유의 네트워크」, 『한국학 연구』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이청준, 「다시 돌아보는 헤매임의 내력」, 『작가의 작은 손』, 열화당, 1978.
이하은, 「이청준 초기 소설에 나타난 자유와 사랑」, 『비평문학』70, 한국비평문학회, 2018.
장윤수, 「언어학습과 글쓰기」, 『이청준의 소설 세계 – 탈주와 생성의 소설학』, 박이정, 2012.
주효주, 「화해불가능한 사랑의 양상-이청준의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88, 우리말글학회, 2021.
홍웅기, 「이청준 소설의 죽음과 해원 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0-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한순미, 「한 소설가의 심리적 기원에 대한 고찰」, 「어문논총』16, 전남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 2005.
_____, 「근대 재현적 주체의 죽음과 탈주의 욕망」, 『국어국문학』136, 국어국문학회를 참조할 수 있다.
허선애, 「계몽된 사회와 언어-진실의 (불)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52, 한국현대문학회, 2016.

Blanchot, Maurice, 박혜영 역,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8, 123면.
Blanchot, Maurice & Jean-Luc Nancy,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5.
Haase, Ullrich M. & William Large, 최영석 역, 『모리스 블랑쇼 : 침묵에 다가가기』, 앨피, 2008.

기타 자료

「현대문학방담」, 『형성』2권 1호, 1968년 봄호.

김치수・이청준, 「이청준과의 대화-복수와 용서의 변증법」, 『신동아』, 1981년 10월호.
권오룡・이청준, 「작가 인터뷰 – 시대의 고통에서 영혼의 비상까지」, 권오룡 편, 『이청준 깊이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 Abstract |

The Discovery of a Story through Death

Focus on Lee Chung-joon's Early Novel

Seon-ae, Heo | KAIST

This article revealed that death is a important role in Lee Chung-joon's early novel, and tried to establish that the way he talks about it is related to Lee Chung-joon's novel consciousness. "Tightrope performer" shows that life can also be shared by sharing the death of others. But the "I" covering the story doesn't accept the way it. The agony and hesitation of "I" leaves the story of death in reserve. "I" can't abandon or ignite the story, but I vaguely realize that I need a lot of thought about it. Meanwhile, "People at the Seashore" is a work that determines how to understand and talk about death. The young narrator "I" cannot confirm the death of others, but admits it to be true. What matters to me is that their deaths are beyond the dimension of truth or lies. "I" faces the death by mimicking their actions on the ship where their father and brother went out, and at that moment, "I" realizes the desire to talk for the other. Furthermore, "Hawker" embodies the desire of the young narrator of the people by the sea. "I" is writing a new novel based on Min's novel, which is joined by the death of a hawk. If Min foresaw the fate of the hawk and only joined his death, "I" explains the death by writing a new novel. It also discovers the diagnosis of society in which Min's death is bound to fail, and the existence that was excluded from the past stories. By discovering the meaning of death and reflecting on one's writing, the novelist's vision is constantly expanding.

Key words : Lee Chung-joon, death, "Tightrope performer", "Hawker", "People at the Seashore", the Other, Community

논문접수일: 2021.07.15. 심사기간: 2021.07.16.~08.05. 게재확정일: 2021.08.10.

10.19115/CKS.29.2.8

낭만적 주체와 동경(憧憬)의 여정

조병화론

홍용희*

1. 서론: 낭만적 동경과 존재의 심연
2. 비관적 현실 인식과 자유의지
3. 사랑과 고독의 여정
4. 죽음의 주체와 꿈의 언어
5. 결론

| 국문초록 |

조병화의 시 세계는 낭만적 주체로서 근원적 삶의 세계를 향한 탐색과 향유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시적 삶은 일관되게 "시대가 변해도, 사회가 변해도, 역사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자문자답」) 본질적 삶의 가치를 향한 낭만적 동경의 여정을 추구한 것이다.

그의 낭만적 동경의 여정은 현실의 불안, 억압, 방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구원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그의 끊임없는 낭만적 동경의 여정을 찾아가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용광필조(容光必照)"의 예지 속에 감지되는 인간적 삶의 빛으로서 사랑과 꿈이다. 사랑은 "모두가 어제와 같이 배열되는/시간 속에"서 "탈출"하는 나만의 시간을 열어준다. 그러나 "사랑

* 경희사이버대학교.

하면 사랑할수록 / 더욱 외로워지"고 "그리움을 앓"아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조병화의 시 세계는 "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꿈"은 타자와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사랑과 달리 "나의 가슴 안에서, 쉬임 없이 반짝이고 있는/맑은 먼 별"(「꿈」)에 해당한다. 따라서 꿈을 잃지 않으면 세속적 일상성에 함몰되지 않는 본래의 나를 지킬 수 있다.

한편, 그가 이러한 "꿈"을 일관되게 견지할 수 있는 바탕은 "죽음"의 철학이다. 그에게 "죽음"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성찰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은 역설적으로 삶의 철학이다.

이상에서 보듯, 조병화의 시 세계는 탈현실적인 자유의지와 동경의 여정을 사랑, 꿈, 죽음 등의 이미지를 통해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본래적 삶의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깊이 환기시켜 주고 있다.

주제어 : 탈현실, 낭만적 주체, 동경의 여정, 사랑, 꿈, 죽음

1. 서론

조병화(1921~2003)는 우리 시사에서 평이하고 온화한 어조로 존재의 근원을 지속적으로 노래하고 향유해 온 대표적인 시인이다. 그는 1949년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이래 2003년 타계하기까지 53권의 시집, 37권의 수필집, 5권의 시론집 등을 간행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존재론적 심연을 깊은 울림으로 환기시켜 왔다. 그의 시적 삶은 해방, 전쟁, 분단으로 이어진 이념 과잉과 '새것' 콤플렉스 속에서 범람한 유행 사조들로부터 초연한 자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실존적 근원에 대한 탐색과 자기 구원의 언어를 추구해 온 것이다. 그에게 시란 기본적으로 "시사적인 언어 작업"과는 변별되는 "영혼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는 영혼의 작업이다. 시사적인 언어 작업이 아니다. 인간의 깊은 고뇌, 사색, 그 아픈 삶의 영혼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책임 있는 창작활동이다. 참된 인간들이 나누는 영혼의 대화이다.[1]

영혼이란 생의 근원으로서 합리적, 객관적, 이성적인 차원 이전의 비가시적인 무형의 본질에 해당한다. 그래서 생의 원리, 사고의 원리, 또는 동시에 이 둘의 원리를 포함하는 넓이 또는 차원과 무관한 본질적 깊이의 속성을 지닌다.[2] 따라서 "영혼의 작업"으로서 시란 현실적 삶의 질서 이전의 존재론적인 근원 심상과 친연성을 지닌다. 조병화의 시적 삶이 사회 역사적인 현실과 무연한 낭만적 주체의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도 이러한 문맥에서 이해된다.

낭만적 주체는 경험적 현실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무한 자유의 세계를 동경하는 특성을 지닌다. 낭만적 주체의 동경의 대상은 1)일상적

---

1 조병화, 「나의 광복 50년」, 『너를 살며 나를 살며』, 고려원, 1996.

2 김윤식, 「혼의 형식과 음악의 형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380쪽 참조.

인 평범한 현실에서 벗어난 원대한 세계 2)자기 마음의 본원 3)현실세계를 초월한 추상적 관념의 세계 4)현재가 아닌 기억의 세계[3] 등으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식적인 지배문화의 담론과 그러한 지배 문화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자유의지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낭만적 주체는 현실 세계의 제약과 결핍이 없는 충만한 열린 세계를 지향한다. 결핍의 현실에서 "결핍 없는 전체"를 동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낭만적 주체의 시적 삶은 "절대적인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경의 속성을 지닌다. "동경의 무한추구"를 통해 "우리 눈앞에 얼씬거려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본질의 가장 깊숙이 함축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4]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조병화의 시적 삶은 바로 이와 같이 "나의 인생은 먼 나그네 길을 / 가는 것이었습니다"(「나의 인생」)라고 고백하듯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머물지 않은 동경"[5]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시 세계는 늘 "보이지 않는 먼 내일에의 여행"(「벗」)을 향해 있다. "항시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 나는 살고 싶"(「낙엽끼리 모여산다」)은 생리를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미지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추동하고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 꿈, 고독, 죽음 등의 본래적 근원 심상이다. 이러한 낭만적 동경은 현실의 불안, 억압, 방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구원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한편, 조병화의 낭만적 주체로서의 시적 삶은 자신만의 주체적 언어를 발견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혹자는 형태를, 혹자는 기교를, 혹자는 참여를, 혹자는 에스프리를, 다다니, 쉬르니, 이마쥬니, 상징이니"[6] 하는 유행, 세태, 형식과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직시하는 다정다감하고 평이한 어사

---

3 지명렬, 『독일 낭만주의 총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421~422쪽 참조.
4 위의 책, 110~112쪽 참조.
5 조병화, 「나의 문학적 고백」, 『조병화』, 문학사상사, 2002, 210쪽.
6 조병화, 「후기」, 『來日 어느 자리에서』, 춘조사, 1965.

와 어법을 일관되게 추구한다. 그의 시 세계가 독자들에게 비교적 쉽고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편, 지금까지 논의된 조병화 시 세계에 대한 논의는 의미 구조[7], 시간의식[8], 운율[9] 등에서부터 고독, 사랑, 허무 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낭만적 주제의식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중에서 특히 낭만적 주제의식에 대한 주요 논의에 주목하면, 김윤식은 「여행형식과 편지형식」[10]에서 조병화 시 세계의 외로움을 견디는 존재 방식으로서 여행과 편지형식을 규명하고 있다. 조병화의 기행시의 형식론을 외로움의 내용과 연관시켜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김명인은 「세계의 끝, 나그네의 꿈」[11]에서 조병화의 시 세계가 여로의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랑과 어머니와 꿈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허무하고 슬픈 인생살이를 견디며 받아들이게 하는 여정이라고 설명한다. 최동호는 「고독의 미학과 용광필조의 시학」[12]에서 현실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극복해 가는 인간의 힘도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고독의 극점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용광필조의 빛이 그가 평생 간직해온 휴머니즘의 빛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조병화 시의 일관된 창작 원리의 심연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된다. 이재복은 「순수 고독, 순수 허무의 시학」[13]을 통해 시간의 한계 혹은 생명의 한계 속에서 운용되는 삶과 죽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조병화의 시에서 죽음이 갖는 의미의 특성을 더는 넘을 수 없는 세월과 연관시켜 해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

7 오형엽, 「조병화 시의 역설적 의미 구조」,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8 조강석, 「시간과 유현의 환승」,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9 이상호, 「조병화의 후기 시에 나타난 리듬과 세계인식」,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10 김윤식, 「편지의 형식과 여행의 형식」, 『근대시와 인식』, 시와시학사, 1992.
11 김명인, 「세계의 끝, 나그네의 꿈」,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12 최동호, 「고독의 극점과 용광필조의 시학」,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13 이재복, 「순수 고독, 순수 허무의 시학」,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이상에서 보듯, 아직 조병화 시 세계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낭만적 서정에 관한 논의가 특정 시집에 국한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집 전반을 대상으로 그의 시적 삶을 관류하는 특성이 낭만적 주체로서의 무한 동경의 여정에 있음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견지하는 세계관으로서 죽음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조병화 시 세계 전반의 주제의식과 형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비관적 현실 인식과 자유의지

조병화의 시 세계는 현실과 이상의 불화와 갈등에 기초한 낭만적 세계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낭만적이란 물론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계몽주의나 고전주의가 표방하는 질서와 체계, 지식의 합리성과 이성 중심주의가 초래시킨 인간 내면의 근원에 대한 상실과 부재에 대한 관심의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낭만적 주체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시대상과 당위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개별적 자아의 실존, 의미, 가치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집중한다.

조병화는 자신의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1949)이 간행되었던 해방 직후의 역사적 격동 앞에서 다음과 같이 낭만적 주체로서의 소회를 직접 전언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갈래, 세 갈래의 사상의 물결 속에서 나는 나의 존재, 나의 역사, 나의 생활, 나의 가치, 나의 이유, 나의 시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수호하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끊임없는 회의와 응시 속에서 길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중 략) 결국 나갈 길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로 향한 길' 그것이었습니다.[14]

해방 직후의 좌우 이념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겪는 회의와 방황의 정황이 진술되고 있다. 해방 직후 좌·우 진영 논리의 일방적 선택이 강요되는 현실에 대한 회의와 응시 속에서 그는 결국 "나에게로 향한 길"을 개척해 가기로 한다. 그는 시대적 격동이 요구하는 이념적 선택지를 거부하고 실존적 자아의 본모습을 향한 길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적 삶은 "ism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선전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비교도 아니고, 오로지 개성이다. / 시인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냄새이다"(「시에 대한 단상」)라는 선언적 명제로 출발한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에 따라 작동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냄새"를 만나기 어렵다. 이때 그는 "일체의 욕설과 굴욕을 참아가며 / 그래도 / 나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사랑이 가기 전에」)하는 자문을 거듭하게 된다. 그의 현실과의 불화의식이 점점 깊어 간다.

① 벗이여
출세와 이득이 가랑잎처럼 쏟아지는
서류의 그늘을 비껴가며
이와는 배치되는 인간 구도의
긴 사양을 걸어가는 벗이여
-「인간구도」 일부

② 본의가 아닌 화폐 속에
해골이 되어, 끌려가는 한 마리 당나귀처럼
나의 통근 버스는 기어오른다.

---

14 조병화, 「버리고 싶은 유산 시대」, 『한국에세이문학선집 7』, 중앙출판공사, 1979, 7~8쪽.

포장한 원거리 화물처럼 나는 말이 없이
돈에 얹혀
사치한 인간의 생리를 잃고
중량에 끼어 둘둘둘 굴러 간다.
-「귀로」 일부

시 ①은 “출세와 이득”을 쫓는 세태를 “가랑잎”에 비유하고 있다. 세속적 욕망의 일회성과 허망함에 대한 극명한 감각적 표상이다. 그래서 “인간 구도”는 “출세와 이득”과는 “배치되는” 자리에 설정된다. 시 ②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화폐”의 교환 회로망 속에 나포되어 가는 일상성에 대한 비탄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사물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둘둘둘 굴러 간다”는 상황 묘사를 통해 실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세속적 현실과의 불화, 갈등, 울분이 극심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존재 초월의 “구름” 시편이 씌어진다.

내가 영 너를 잊고자 돌아서는 까닭은
말려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곳에서
어지러운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혼자 내가 떨어져 있는 까닭은
가진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지만
한없이 둥 둥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이, 오만한 너의 인간의 자리
허영의 자리, 부질없는 자리

너의 거드름을 피하여
이만큼 떨어져 있는 자리

아, 이 무구 무한한 하늘

내가 너를 멀리하고자 하는 까닭은
가진 것도, 머물 곳도 없어도
홀로 마냥 떠 있을 수 있는
넓은 그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

그지없이 외롭다 해도
한없이 적막하다 해도
맥없이 넓은 이 자유

-「구름」 일부

"구름"이 시적 화자로 등장하고 있다. "구름"의 거처는 지상의 중력권으로부터 벗어난 열린 천상이다. 그래서 현실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구름"이 현실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인간의 자리"의 "오만", "허영", "거드름", "부질없"음 등을 들고 있다. 세속적 삶의 허위와 허상에 대한 강한 부정이다. "구름"은 비루한 세속적 삶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곳에서 / 어지러운 나를 건져내"고 "한없이 둥 둥"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실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기에 늘 "외롭"고 "적막"하다. 그러나 외로움과 적막은 스스로 자유를 얻고 지키고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자유와 외로움의 표상으로서 "구름"의 이미지는 조병화의 아호 편운(片雲), 즉 조각구름의 상징성이기도 하다. 그의 시적 삶에서 "구름"은

자신의 존재성이며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람이 집이 없듯이
구름이 거처가 없듯이
나는 바람에 밀려가는
집 없는 구름이옵니다

나뭇가지에 간혹 의지한다 해도
바람이 불면
작별을 해야 할 덧없는 구름이올시다.

-「나의 존재」 전문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이 "나의 존재"이다. 그래서 "구름"은 거처가 없다. 설령 "나뭇가지에 의지한다 해도" 그곳이 "거처"가 아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와도 "작별을 해야" 한다. "나의 존재"는 어디에 집착하거나 얽메이지 않는 절대 자유의 존재자이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먼 내일에의 여행"(「벗」)을 마음껏 구가할 수 있다. "모두가 어제와 같이 배열되는 / 시간 속"을 탈출하여 자기만의 미지의 "내일"(「너와 나는」)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옥상에 오른다
나와 유리한 관능은
과감한 하늘을 달리고
멀리 스치는 해후의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끝에

구름은 탄다
구름 끝에
남은 청춘이
날을 샌다.

-「하늘」 일부

시적 화자는 현실 세계의 속박과 욕망의 중력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결단할 때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제 “구름”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남은 청춘”을 다하여 “날을 새”며 나아간다. “나의 존재, 나의 역사, 나의 생활, 나의 가치, 나의 이유, 나의 시대 방향을”[15] 향한 낭만적 주체의 활주이다.

3. 사랑과 고독의 여정

조병화의 시적 삶에서 탈현실의 자유의지는 일관되게 지속 된다. 그는 비속한 현실을 떠나 “참된 인간들이 나누는 영혼의 대화”를 만나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다. 이제 “보이지 않는 먼 내일에의 여행”(「벗」)을 감행한다. 그래서 그에게 시를 쓰는 것은 “영원으로 영원으로 줄기차게 계속하여 쉬임 없는 이 안식 없는 여로! 내일이라는 숙(宿)을 찾아서 또 다시 떠나는 길”[16]의 기록물에 해당한다. “길 가는 곳에 내가 있고 / 길 떠나는 곳에 내가 있다”(「길 위에서」)

그렇다면, 그가 “길 떠나는 곳”의 좌표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15 조병화, 「버리고 싶은 유산 시대」, 『한국에세이문학선집 7』, 중앙출판공사, 1979, 7쪽.
16 조병화, 위의 책 6쪽.
조병화는 스스로 자신의 시집에 대해 제1숙, 제2숙 등으로 호명하기도 한다.

물음 앞에 그는 “용광필조(容光必照)”의 예지(叡智)를 떠올린다.

인간정신이 어지러워 가는 이 현실,
어찌 이 두꺼운 현실의 벽을 뚫고
인간의 빛이 새어나갈 수 있으리

보이는 것이 약육강식의 생사 풍경이요
오가는 것이 돈의 거래요
듣는 것이 생존경쟁의 비명이어라

오, 돈에 가려서 꺼져가는 사랑의 빛이요
돈에 잡혀 허덕이는 생존이여

용광필조(容光必照)하 했던가
빛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반드시 비쳐 나간다고 했던가
오, 사랑이여
빛이여

-「용광필조(容光必照)」 일부

용광필조(容光必照)란 무엇인가? 맹자의 ‘관수유술 필관기란 일월유명 용광필조언(觀水有術 必觀其瀾 日月有明 容光必照焉)’에 나오는 말이다. “물을 보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해와 달은 밝으니 빛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빛을 비춘다.”라고 풀이된다. 그래서 “빛은 아무리 약할지라도/반드시 비쳐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약육강식/돈의 거래/생존경쟁의 비명”으로 에워싸인 현실의 벽 속에서도 새어 나오는 “인간의 빛”을 찾고 감지하면서

이를 삶의 이정표로 삼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다시 말해, 불안, 결핍, 속박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자기 구원의 방법론이 "용광필조(容光必照)"인 것이다.

이러한 "용광필조(容光必照)"의 방법론이 가리키는 낭만적 동경의 여정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계기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 앞에 다음과 같은 시편이 놓인다.

시간을 탈출하는 방법을
너만이 알고 있다

시간을 탈출하는 길을
너만이 알고 있다

탈출 불가능한 이 시간 속에서
너만이 나를
탈출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안다.

-「사랑 2」 전문

"모두가 어제와 같이 배열되는/시간 속에"(「너와 나는」)서 "탈출하는 길"의 이정표는 "사랑"이다. "사랑"은 결핍의 현실을 한순간에 채워주는 "결핍 없는 전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사랑은 결핍과 욕망 그리고 절대 긍정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결핍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어느새 스스로 "결핍 없는 전체"를 향하는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다.[17] 그래서 "사랑"은 "남은 청춘이 / 날을"(「하늘」) 새며 열정적으로 다가서게 한다. "사랑"이 "탈출 불가능한 이

17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사랑의 단상』, 문학과지성사, 1991, 30~33쪽.

시간 속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 이것이다.

한편, 다음 시편은 이러한 사랑의 구조에 기반한 체험적 서사가 개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내가 맨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땐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였지요

두번째 그대를 보았을 땐
사랑하고 싶어졌지요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내가 그대를 보았을 땐
남 모르게 호사스런 고독을 느꼈지요

그리하여 마지막 내가 그대를 만났을 땐
아주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미친듯이 바다 기슭을 달음질쳐 갔습니다

-「초상」 전문

사랑의 구조가 내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랑의 대상과의 첫 만남, 즉 발견의 환희로부터 시작된다. "그대"의 존재는 무한 긍정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사랑"의 감정이 달아오른다.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그대를" 본다. "그대"가 더 이상 나만의 절대적 대상이 아니라 수많은 타자들과 섞여 있으면서 수많은 타자들의 대상이다. "호사스런 고독"을 느끼게 된다. 잃어버릴 위험이 없는 소유의 즐거움(Gaudium)이 아니라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과정적이고 일회적인 즐거움(Laetitia)이다. 그래서 하염없는 "고독"

의 고통이 수반된다. “사랑은 슬픔을 기르는 것을 / 사랑은 그 마지막 적막을 기르는 것을”(「황홀한 모순」) 점점 느끼게 된다. 사랑의 환희는 사랑의 시련으로 이어진다. 사랑의 “황홀한 모순”은 점점 감당하기 어렵다. 사랑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그리하여” “아주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 미친 듯이 바다 기슭을 달음질쳐” 간다. 하지만 사랑은 그만두자고 의도한다고 해서 그만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만두고자 할수록 더욱 확인되고 지속되고 생성된다.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의 무리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가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추억」 전문

사랑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향유할 수는 없을

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의 결핍이 사랑의 열정의 원천이었던 것처럼, 결핍의 고통이 제거되면 현존의 기쁨도 없다. 그리하여 사랑은 고통을 제거해서 사랑의 진정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긍정하면서 사랑의 진정성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잊어버리자고 / 바다 기슭을 걸어보던 날이 / 하루 / 이틀 / 사흘" 반복된다. 이제는 "여름 / 가을 / 겨울"을 거쳐 한 해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잊어버리자고 / 바다 기슭을 걸어가는 날이" 기약 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잊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잊을 수도, 잊혀지지도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하염없이 잊고자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원히 잊지 않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다짐으로 해석된다. 사랑의 시련이 사랑을 확인하고 긍정하는 것이 되고 있다. "잊어버리자고" 걸어가는 시간들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집념이고, 절망이 아니라 황홀인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고독하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다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 있다는 거다
삶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고독하다는 것은」 일부

"고독하다는 것"이 "나에게 소망"과 "삶"과 "그리움"의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해, “아직도 너를”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독”이 전제되지 않고는 “너를” 만날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 더욱 외로워지는 거 // 한없이 그리워지는 것 / 그 그리움을 앓는 것” (「사랑 1」)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병화의 시 세계에서 “고독”은 헤어 나올 수 없는 존재론적인 숙명이며 “살아내는 힘”으로 존재한다.[18] 그의 시 세계 전반에서 외로움과 고독이 기본 정조를 이루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4. 죽음의 주체와 꿈의 언어

앞에서 살펴보듯, 조병화의 낭만적 동경의 여정은 “황홀한 모순”의 특성을 지닌다. 사랑의 환희에는 하염없는 고독과 외로움이 동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적 주체의 “보이지 않는 먼 내일에의 여행”(「벗」)은 지속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조병화는 “꿈”을 제시한다. “사랑은 간혹 어두운 눈물을 주지만 / 꿈은 외로울수록 빛나는 / 영혼의 등불”(「타향에 핀 작은 들꽃」)이기 때문이다.

> 너는, 항상 무언지 모르게
> 허전하게 비어 있는
> 나의 가슴 안에서, 쉬임 없이 반짝이고 있는
> 맑은 먼 별이다

---

18 인간은 유한한 생명, 잠시 이 세상을 통과하는 순수 허무의 존재요, 혼자서 자기를 살아야 하는 순수 고독의 존재지요. (중략) 살아내는 힘으로서의 순수한 고독과 순수한 허무를 늘 생각합니다. 임헌영, 「시와 시인을 찾아서 18-신임 예술원회장 편운 조병화」, 『시와시학』, 통권 제22호, 1996, 624쪽.

나는 평생을 너를 안고,
멀리 너를 바라다 보면서
맑게 반짝이고 있는 먼 너의 곳으로
소리나지 않는 숨은 기도처럼 살아 왔다

-「꿈」 일부

달님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꿈이란다

꿈은 사랑보다도 소중한 보석이란다

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단다
꿈을 가진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는단다
꿈을 가진 사람은 설사 인생에 슬픔이 있다 해도
기쁨을 주는 꿈으로 쉬지 않고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며 살아간단다

-「시인의 말」[19] 전문(1992.1.31)

"꿈"은 낭만적 동경의 여정을 추동하고 인도하는 성좌이다. "허전하게 비어 있는 / 나의 가슴"이 다시 "먼 나그네 길을"(「나의 인생」)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주체가 바로 "꿈"인 것이다. "꿈"은 늘 "맑게 반짝"인다. 따라서 "꿈"을 향해 가는 여정 역시 "맑게 반짝" 인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설사 인생에 슬픔이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꿈"으로 하여 "가장 쓸쓸하옵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길"(「낮은 목소리로」)도 견뎌나가는 것이다.

---

19 조병화, 「시인의 말」, 『다는 갈 수 없는 세월』, 혜화당, 1992.

이렇게 보면 조병화의 시적 삶이 일관되게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만의 삶을 구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먼 별”과 같은 “꿈”을 굳은 의지로 지켜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꿈”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었던 삶의 철학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죽음의식에서 찾아진다.

인간은 자기를 살다가는 것 같이 행복한 것은 없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살다 가고 싶지만 자기 철학이 없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은 그걸 가르쳐 준다. 죽는다는 사실로 하여 “너를 살다 가는 거다.”하는 교훈이 나오는 거다. 모험이다. 필요한 거다. 생명 그 자체가 모험 아닌가. 그 모험을 사는 거다. 자기를 자기답게 살아가는 철학과, 그것을 실행해가는 과감하면서도 고요한 모험,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다. 죽음처럼 강한 철학이 또 있으랴.[20]

“자기를 살다가는 것”의 행복과 보람과 가치를 일관되게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 “죽는다는 사실로 하여” “너를 살다 가는 거다.”하는 명제를 지속적으로 되새기게 된다. 죽음이 일상적 삶의 저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함께 한다. 죽음과 삶이 상반된 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듯이 죽음의 주인도 자신이다.

다음 시편은 이러한 죽음의식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수명에 한도가 있는 육체
안에
삶과 죽음을 한 몸으로 동거시켜
잠시 불을 밝히고 있는
이 假宿

20 조병화, 「죽음이 주는 교훈」, 『마침내 사랑이 그러하듯이』, 백상, 1988, 139~140쪽 참조.

작별을 하며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항상 떠나는 생각
속으로 속으로
그 오늘을 산다

삶은 죽음을 품고
죽음은 삶을 키워
한 몸으로 동행을 하는 거
동행하다 그 몸 허물어지면
그뿐
그곳에서 헤어지는 거

-「인간」 일부

"삶은 죽음을 품고 / 죽음은 삶을 키워 / 한 몸으로 동행을" 한다. 삶과 죽음이 배타적인 대립 관계가 아니라 공생관계이다. 그래서 삶이 죽으면 죽음도 죽는다.

일반적으로 삶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주인의식이 강조되지만 죽음에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접근한다. 죽음은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외부에서 느닷없이 엄습하는, 낯설고 두려운 타자와의 직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 "한 몸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삶으로부터 죽음이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용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죽음을 삶의 철학으로 주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죽는다는 사실로 하여 너를 살다가는 거다. 하는 교훈"을 꾸준히 자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성찰함으로써 삶의 본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향유하고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다. “죽음”이 “삶을 키워”나가는 힘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삶이 “먼 죽음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필경, 산다는 것은
스스로의 먼 죽음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작업,
맑은 죽음, 티 없는 죽음, 천하지 않는 죽음,
이것이 소원이려니
이러한 죽음을 향하여 작업하는 인내로운 생애,
-「죽음은 마지막 예술」 일부

삶과 죽음, 그걸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소유와 포기, 그걸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상봉과 작별, 그걸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어느 생애」 일부

시적 화자는 삶의 주체이면서 죽음의 주체이다. 그래서 스스로 “맑은 죽음, 티 없는 죽음, 천하지 않는 죽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삶이란 “죽음을 향하여 작업하는 인내로운” 과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삶과 죽음의 동거” 관계는 “소유와 포기”, “상봉과 작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된다. 포기를 전제로 한 소유, 작별을 전제로 한 상봉일 때, 인간사의 모든 집착, 욕망, 미련에 구속되지 않고 “나를 찾아서 / 먼 곳, 먼 길, 먼 세월”(「나의 있음」)을 치열하게 살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병화는 마침내 “걸어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 바다가 있었습니다 // 날개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 하늘이 있었습니다 // 꿈으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 세월이 있었습니다 // 아, 나의 세월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 내일이 있었습니다"(「세월」)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낭만적 동경의 무한을 유감없이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5. 결론

조병화의 시적 삶은 "보이지 않는 먼 내일에의 여행"(「벗」)으로 요약된다. 그래서 그의 시편들은 스스로 "너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 지금쯤"(「길」)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그가 53권에 이르는 시집을 가리켜 각각 지나가는 "가숙(假宿)"이라고 지칭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의 이러한 "가숙(假宿)"은 "시대가 변해도, 사회가 변해도, 역사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자문자답」)가는 자기만의 외로운 여정이며 구원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의 시적 삶은 우리 시사에서 누구보다 주관적인 미의식과 존재의 심연에 집중하는 낭만적 주체의 여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의 끊임없는 낭만적 동경의 여정을 찾아가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용광필조(容光必照)"의 예지 속에 감지되는 빛으로서 "사랑"이고 "꿈"이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고독과 외로움을 동반한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 더욱 외로워지"고 "그리움을 앓"(「사랑 1」)아야 하는 이율배반적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나의 가슴 안에서, 쉬임 없이 반짝이고 있는/맑은 먼 별"(「꿈」)과 같은 "꿈"을 잠시라도 잃지 말아야 한다.

한편, 그가 이러한 "꿈"을 일관되게 견지할 수 있었던 바탕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힘이다. 그에게 "죽음"은 "너를 살다 가는 거다"는 교훈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죽음"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나의 역사,

나의 가치, 나의 이유, 나의 시대 방향"[21]을 바로잡아간다. "삶은 죽음을 품고 / 죽음은 삶을 키"(「인간」)우는 관계이다. 그는 삶의 주인이면서 죽음의 주인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에게 배당된 세월 다 끝나는 지금 / 나를 찾아서 / 먼 곳, 먼 길, 먼 세월 덧없이 헤매돈 것이 / 바로 헤매인 그것이 / 다름 아닌 바로 나의 그 있음"(「나의 "있음"」)이었던 삶을 살고 향유해 왔던 것이다.

조병화의 시적 삶에서 "한 몸으로 동행"(「인간」)하던 삶과 죽음은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서 서로 헤어진다. 삶이 죽으면서 죽음도 죽는다. 그러나 그의 사랑과 꿈의 여정은 멈춘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꿈을 멈출 수 없었으므로 죽은 것일지 모른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욱 자유롭게 "사람이 사는 마을을 떠나 / 끝없는 저 넓은 하늘나라로" "여행을"(「어느 노인의 유언」)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가 남긴 특유의 쉽고도 다정다감한 낭만적 감성과 감각의 어휘와 어법으로 쓴 유언이 이를 증거한다.

> 얘들아, 잘 들어 두어라
> 이제 할아버지는 사람이 사는 마을을 떠나
> 끝없는 저 넓은 하늘나라로
> 보이지 않는 내 길을 스스로 찾아 더듬어서
> 긴 내 여행을 이어서 떠나련다
>
> -「어느 노인의 유언—소년에게」 일부

---

21 조병화, 「버리고 싶은 유산 시대」, 『한국에세이문학선집 7』, 중앙출판공사, 1979, 7~8쪽.

참고문헌

1차 자료

조병화, 「나의 광복 50년」, 『너를 살며 나를 살며』, 고려원, 1996.
_____, 「버리고 싶은 유산 시대」, 『한국에세이문학선집 7』, 중앙출판공사, 1979.
_____, 「죽음이 주는 교훈」, 『마침내 사랑이 그러하듯이』, 백상, 1988.
_____, 「나의 문학적 고백」, 『조병화』, 문학사상사, 2002.
_____, 「시인의 말」, 『다는 갈 수 없는 세월』, 혜화당, 1992.
_____, 『조병화 시 전집 1,2,3,4,5,6』, 국학자료원, 2013.

2차 자료

김명인, 「세계의 끝, 나그네의 꿈」,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김윤식, 「혼의 형식과 음악의 형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_____, 「편지의 형식과 여행의 형식」, 『근대시와 인식』, 시와시학사, 1992.
오형엽, 「조병화 시의 역설적 의미 구조」,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이상호, 「조병화의 후기 시에 나타난 리듬과 세계인식」,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이재복, 「순수 고독, 순수 허무의 시학」,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조강석, 「시간과 유현의 환승」,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지명렬, 『독일 낭만주의 총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최동호, 「고독의 극점과 용광필조의 시학」, 『조병화의 문학세계Ⅱ』, 국학자료원, 2013.
임헌영, 「시와 시인을 찾아서 18-신임 예술원회장 편운 조병화」, 『시와시학』, 통권 제22호, 1996.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사랑의 단상』, 문학과지성사, 1991.

| Abstract |

The Romantic Subject and the Journey of Longing

Jo Byeonghwa Theory

Hong Yong-Hee | Kyung-Hee Cyber University

The poetic world of Jo Byeong-hwa continues to show the exploration and enjoyment of the world of fundamental life as a romantic subject. His poetic life has consistently pursued a romantic longing journey toward the essential value of life that "doesn't change even if the times, society, or history change" (「Answer of Advisory」).

His romantic longing journey is a language of salvation that protects himself from the anxiety, oppression, and wanderings of reality, as well as a process of finding his true self. If so, what is the methodology to find his endless romantic longing journey? It is love and dream as the light of human life perceived in the foreknowledge of "Yonggwangpiljo (容光必照)". Love opens up my own time to "escape" from "everyone is arranged/timed as yesterday". But "the more you love, the lonelier you become" and suffer the pain of having to "suffer longing". So, the poetic world of Jo Byung-hwa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ream". Unlike love, which presupposes a relationship with others, "dream" corresponds to "a distant star that is constantly twinkling/clear in my heart" (「Dream」). Therefore, if you do not lose your dream, you can protect the original self that is not immersed in worldly daily life.

On the other hand, the basis on which he can consistently maintain these "dreams" is the philosophy of "death". For him, "death" serves to reflect on and correct the true value of life. So, for him, death is paradoxically a philosophy of life.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the poetic world of Jo Byeong-hwa was singing about unrealistic free will and longing journey through images of love, dream, and death. And through this, it deeply reminds us of the eternal value and meaning of our original life.

Key words : post-reality, romantic subject, longing journey, love, dream, death

논문접수일: 2021.07.15. 심사기간: 2021.07.16.~08.05. 게재확정일: 2021.08.10.

국제비교한국학회
연혁

1991.12.29 국제한국학및비교학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Etudes Coréennes et Comparées) 창립총회 및 학술토론회 (독일 베를린: 참가자 6명)
홀머 브로흘로스(독일 본대학교 교수)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김문학(일본 경도대학교 학위과정 이수중)
송영인(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헤이워드 캠퍼스 교수)
고송무(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교수)
김필영(파리대학교 한국학 박사과정 수료)

1992. 5 프랑스 법에 따라 학회 등록 및 로고 창안 (법인 대표 : 김필영)

1992.10.22-26 제2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과학아카데미)
공동개최: 카자흐스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약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구소련 붕괴 후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한국학 학술대회

1993. 7.12-16 제3회 국제학술대회 (벨기에 루벵 카톨릭대학교)

1994 국제비교한국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Korean Studies : IACKS)로 학회 명칭 변경

1995. 7.24-26 제4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크질오다 사범대학)
크질오다 사범대학 당국으로부터 "쌀알 위에 그려진 홍범도 장군의 영정"을 기증받아 귀국 후 독립기념관에 희사함

1995.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권 발간

1996. 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권 발간

1996.10. 4- 5 제5회 국내학술대회 (부경대학교)

1997. 7.29 제6회 국제학술대회 (몽고 울란바토르대학교)

1997. 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권 발간

1998.10.24 제7회 국내학술대회 (경기대학교)

1998.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4권 발간

1999. 7.26 제8회 국제학술대회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과 과제"
1999.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5권 발간
2000. 6. 9 제9회 국내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1세기 한국학의 전망과 과제"
2000.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6권 발간
200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7권 발간
2001.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8권 발간
2001. 7. 3 제10회 국제학술대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후원 : 한국번역금고, 한국교류재단, 뉴욕 버팔로대학교 아시아연구전공
2001.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200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9권 발간
2002. 6. 7 제11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Korean Studies at the Crossroads"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 6.29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1호 발간
200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2호 발간
2003. 5.23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후원 : 대산문화재단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UC Berkeley, Korean Studies Center와 공동 기획하였으나 SARS로 인하여 각각 따로 개최하고 단행본은 공동 발간함
2003.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1호 발간
200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2호 발간
2004.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1호 발간
2004.11.30 단행본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발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12.10-11 제13회 국제학술대회 (UC/Berkeley, USA)
200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2호 발간
2005.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1호 발간
2005. 9.23 제14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2005.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2호 발간
2006.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1호 발간

2006.11.22-23 제15회 국제학술대회 (Tottori University, Japan)
"Cultural Exchange and Hallyu in Northeast Asia"
후원 :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2006.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2호 발간
2006.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2007.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1호 발간
2007.08.24-25 제16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세계 속의 한국현대문학"
공동주최: 한국현대문학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2호 발간
2008.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1호 발간
2008. 7. 1- 2 제17회 국제학술대회 (Burapha University, Thailand)
"Korean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2008.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2호 발간
2009.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1호 발간
2009.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2호 발간
2009.10.30-31 제18회 학회 및 연구소 연합학술대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와 디아스포라"
공동주최: 한국비평문학회, 현대문학이론학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후원: 동국대학교 BK21 인재양성사업단
2009.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3호 발간
2010.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1호 발간
2010. 5.08 제19회 국내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이상과 모더니즘" (이상 탄생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주최: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2010. 8.19 제19차 국제비교문학대회 (ICLA)에 패널 구성 참가
2010.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2호 발간
2010.10.15-17 제20회 국내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공동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3호 발간
2011. 4.21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국제학술대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USA)
"Colonial Modernity and Cultural Politics in 1930s Korea/East Asia"
공동주최: Korean Studies Institute, USC, LA, USA, 후원: 대산문화재단,

USC East Asian Studies Center, USC Korean Studies Center, USC Korean Heritage Library, NEAC(North East Asian Council) in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1.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1호 발간

2011. 6.11 창립 20주년 기념 제22회 국내학술대회 (서강대학교) "고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주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2호 발간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201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발간

2012.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1호 발간

2012. 6.15-16 제23회 국내학술대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공동주최: 문화관광부

2012.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2호 발간

2012.10.13 제24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근현대 한국문화와 미국"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3호 발간

2013. 4.23 제25회 국제학술대회 (Rutgers University,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Politics of Korean Literature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후원: 한국문학번역원

2013.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1호 발간

2013. 6.15 제26회 국내학술대회(서강대학교)
"미국한국학에 관한 질문과 모색: 문학, 영화, 번역의 문제"
후원: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2호 발간

201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3호 발간

2014.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1호 발간

2014. 6.21 제27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4.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2호 발간

2014. 9.19-20 제28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도시샤 대학교)
"동아시아의 타자 인식과 담론의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도시샤대학교 코리아센터
후원: 대산문화재단

201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3호 발간

2015. 3.28 제29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비교문학의 현황과 과제"

2015.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1호 발간

2015. 7. 4 제30회 국내학술대회 (연세대학교)
"문학·문화 연구의 탈경계적 지평과 재구성"
공동주최·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2호 발간

2015.12.12 제31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폭력의 정동과 노모스"

2015.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3호 발간

2016.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1호 발간

2016. 7. 2 제32회 국내학술대회 (상명대학교)
"한국과 외국의 상호 문화수용과 쟁점"

2016.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2호 발간

2016.10.29 제33회 국내학술대회 (인하대학교)
"인문주의와 인문교육의 현황 및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6.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3호 발간

2017.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1호 발간

2017. 7. 8 제34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의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

2017. 8.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2호 발간

2017.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3호 발간

2018. 2. 3 제35회 국제학술대회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
"윤동주 문학과 동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2018.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1호 발간

2018. 7. 7 제36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문학의 정치사회학의 국제적 변화 양상 – 문학연구와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며"

2018.7.13-20 제37회 국제학술대회,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znan, Poland)
"The 1st International Asian Congress –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공동주최: Adam Mickiewicz University, King Sejong Institute, Poznan

2018.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2호 발간

2018.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3호 발간

2019. 4.20 제38회 국제학술대회(중국 산동대학교)
“한중 근대화 및 근대화 담론”
(공동주최: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대학(한국학원))

2019.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1호 발간

2019.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2호 발간

2019.10.26 제 39회 국내학술대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사옥)
“한국에서의 외국문학연구, 그 역사와 전망”

2019.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3호 발간

2019.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1호 발간

2020. 8.12 제 40회 국내학술대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 – 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

2020.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2호 발간

2020.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3호 발간

2021. 2. 6 제 41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포스트 팬데믹 시대 페미니즘/젠더의 향방”

2021.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1호 발간

2021. 8.21 제 42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횡단하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2021.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2호 발간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명단

제1대 1991-1992	고송무 1947-1993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수
제2대 1992-1993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현재 몽고 울란토르대학교 한국학 교수
제3대 1993-1995	이여복 1936-2003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역사학 교수
제4대 1995-1997	김남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 교수
제5대 1997-1999	현종민	Georgetown University 정치학 교수
제6대 1999-2001	김보희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7대 2001-2003	김성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8대 2003-2005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9대 2005-2007	최동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0대 2007-2009	손종호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1대 2009-2011	이소희	한양여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제12대 2011-2013	김승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3대 2013-2015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4대 2015-2017	이철의	상명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제15대 2017-2020	홍정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6대 2020-현재	우찬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비교한국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실무를 관장하는 집행부가 있는 국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학제적 협조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비교학적 측면에서 한국학의 독자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뉴스레터의 발간
2. 연 1회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격년으로 해외 개최)
3. 한국학 및 주변학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
4. 한국학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포상 및 표창
5. 기 타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세계 각처에서 한국학 및 비교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한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재무, 섭외, 출판) 약간명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 지명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특히 총무이사와 함께 해외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제13조(이사의 업무)

1.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 관리 및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6. 출판이사는 학회지 배포 및 도서관 연계사업을 담당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제위원회)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15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6조(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7조(총회)

1.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회장 임기만료 1년전) 한국에서 개최하고 차기회장과 감사를 미리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변경
3. 예 ·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5.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사항

제5장 재 정

제21조(수입)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후원비
   (3) 기타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정관은 개정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3. 2015년 12월 12일 개정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논문 작성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논문 투고 절차

1. 논문은 다른 출판물(단행본, 학술지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한국학의 제분야 및 이와 관련된 비교학적, 학제적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게재는 회원당 연 1회로 제한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마감은 학회지 발행 2개월 전인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4. 논문투고는 학회JAMS 홈페이지(http://iacks.jams.or.kr)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5.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과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국제비교한국학회 논문 투고 신청서를 학회 메일함(newiacks@empas.com)으로 제출해야 한다.
6.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당해년도 연회비와 편당 6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원(평생회비: 300,000원)의 경우, 입회비, 연회비가 면제되며 심사료가 50% 감면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조판 25면 이내의 경우 게재료 (비전임) 100,000원/ (전임) 150,000원을 납부한다. 교내.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게재료 300,000원을 납부한다. 조판 25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7. 투고 논문의 분량은 한국어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영어 논문의 경우 6,000~8,000 단어 내외로 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의 경우, 이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한글이나 영어번역문(번역자는 투고자가아니어도 됨)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 작성

8. 투고논문의체재는 ① 논문제목, ② 성명과 소속, 직위, ③ 한국어초록과 주제어,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서양어초록(서양어제목과저자명, 소속기관명포함)과 주제어의순서에

따르며 각 주제어(Key-Words)는 5개 이상으로 표기한다. 서양어 논문의 경우,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도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9. 한글 초록의 분량은 공백 포함 200자 원고지 4매 내외로 하며 서양어 초록의 분량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10. 투고 논문의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11. 연구비 수혜사실은 투고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첨가한다.
12. 원고 작성 시 ㅎ글(HWP) 2002, MS Word 2003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한다.
13. 외국어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연구논문 필자를 위한 핸드북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14. 한국어 논문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되,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의 관행을 따른다. (자세한 논문 작성의 예는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① 본문의 제목 번호는 1 - (1) - ① - ㉠의 순서로 붙인다.
    ② 외국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한글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는다.
    ③ 논문, 작품은「」로, 저서, 학술지, 잡지, 신문은 『』로, 인용문은 “ ”로, 강조할 때는 ‘ ’로 표시한다.
    ④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항목들에 맞추어 작성한다.
        ㉠ 저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 순으로 표시하며, 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앞의 주석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쓰되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op. cit., p.(pp.)’를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주석이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위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서양서의 경우 ‘Ibid., p.(pp.)’의 형식으로 쓴다.
    ⑤ 참고문헌은 한, 일, 중,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며, 인용면을 밝힌다.
15.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특성상 특정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주 및 참고문헌의 형식에 따라야 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 및 제 학문 간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2조 심사 대상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특집 및 기획 등 학회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주제와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의뢰 시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제4조 심사

1) 심사 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아래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 이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 상세 의견을 기재한다.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가 포함된 학문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 여부 결정 및 조정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2)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게재 가'로,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이 1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2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3항의 차순위가 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판단한다.

5)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재심하여 판단한다.

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7)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수정을 이행하고, 이행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와 투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월 게재할 수 있다.

8)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데, 이 때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및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추가 통보한다.

제6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통고받는다.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제7조 교정 및 학회지 발간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해 1회 교정쇄를 전달받는다. 이때 투고자는 출판에 필요한 교정 처리를 하는데, 원 논문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 할당된 지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3) 논문은 외국어 작성 논문, 한국어 작성 논문의 순으로 게재하며, 전공별로는 언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전공의 순으로 한다. 외국어 간이나 기타 전공 간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동일 전공 안의 게재 순서는 필자 이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4)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논문 심사 요지서

항목 \ 점수	10	8	6	4	2	비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본학회지에게재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유(0)		무(10)			
총점						

논문 제목				
심사 요지				
평가	게재 가능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
	심사구분: 게재가(80점이상), 수정후게재(79~60점), 수정후재심(59~50점), 게재 불가(50점미만) * 심사항목별 점수의 총점을 각 최종판정의 해당 범위와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속 _____ 직급 _____ 심사위원 _____ ㊞

입금은행 (은행) 계좌번호 ( )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의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 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 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 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소속 및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
④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편집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① 부정행위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제비교한국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5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및 활동계획 및 운영)에 의하여,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간하는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를 비롯한 학술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2.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3.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상임편집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1인, 편집위원 15인 내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연장자 위원,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분기마다(연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6.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5조(위촉 및 임기)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상임이사와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상임이사, 편집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 및 심사)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논문지는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라 발간하되,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2.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상임편집이사,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논문지에 게재한다.
5.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장 또는 상임편집이사의 제안으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 또는 학회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7.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기타 상세한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은 별도의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으로 규정한다.

제7조(게재 논문의 공개)
1. 본 학회 본문지는 도서 또는 전자책, 둘 중 하나 이상의 형태로 발간한다.
2.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본 학회와 계약된 사이트 등에서 학회 회원들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1.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2. 특별한 경우 게재자와의 협약에 따라 논문이나 인용된 사진(게재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의 저작권을 학회와 공유할 수도 있다.

제9조(규정의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관례 따른다.

부칙
1. 본 위원회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 8월 21일부로 제정한다.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회장 우찬제(서강대/한국문학)

부회장 김양선(한림대/한국문학), 김정희(서울대/불문학), 류보선(군산대/한국문학), 민은경(서울대/영문학), 신수정(명지대/한국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양진오(대구대/한국문학), 우림걸(산동대/한국문학), 유성호(한양대/한국문학), 윤상인(서울대/일문학), 이명호(경희대/영문학), 이욱연(서강대/중국문화), 조성원(서울여대/영문학), 함정임(동아대/한국문학), Carolina Mera(Univ. of Buenos Aires/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English Literature),

총무이사겸재무이사 최성민(경희대/한국문학), 윤인선(한밭대)

편집위원장 오형엽 (고려대/한국문학)

상임편집이사 박성호 (경희대/한국문학)

편집이사 강용훈 (인천대/한국문학), 곽효환(한국문학번역원), 김기봉(경기대/사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예란(광운대/신문방송학), 김용희(평택대/한국문학), 김태경(경희대/일문학), 김혜경(UniversiteAix-Marseille/한국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서여명(남경대/중국학), 손유경(서울대/한국문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이경수(중앙대/한국문학), 이성천(경희대/한국문학), 이승은(연세대/한국문학),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장세진(한림대/한국문학), 정승훈(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조재룡(고려대/불문학), 진주영(GeorgeMasonUniv.Korea/영문학), 최영진(중앙대/영문학), 홍용희(경희대/한국문학), SoraPark(Univ of Canberra/Communication)

연구이사 권혁률(길림대/한국문학), 김서영(광운대/철학), 김석(건국대/철학), 김예림(연세대/한국문학), 노대원(제주대/한국문학), 문혜원(아주대/한국문학), 박동호(경희대/한국어학), 박수연(충남대/한국문학), 박주택(경희대/한국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양동국(상명대/비교문학), 엄성원(차의과대학/한국문학), 이윤종(서강대/영화학), 이채원(나사렛대/한국문학), 이형권(충남대/한국문학), 장철환(연세대/한국문학), 정끝별(이화여대/한국문학),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강석(연세대/한국문학), 최창륵(남경대/한국문학), 여태천(동덕여대/한국문학)

섭외이사 서여명(남경대/한국문학)

기획이사 정은귀(외국어대/영문학)

편집위원 강용훈(인천대/한국문학), 김기봉(경기대/사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태경(경희대/일문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도윤정(인하대/불문학), 박성호(경희대/한국문학), 박인성(부산가톨릭대/한국문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이경수(중앙대/한국문학),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장세진(한림대/한국문학), 정승훈(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만수(충북대/불문학, 연극), 조재룡(고려대/불문학), 진주영(GeorgeMasonUniv.Korea/영문학)

윤리위원장 오형엽 (고려대/한국문학)

윤리위원 김동식(인하대/한국문학), 도윤정(인하대/불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우찬제(서강대/한국문학), 이철의(상명대/불문학), 정명교(연세대/한국문학), 홍정선(인하대/한국문학)

감사 박형섭(부산대/불문학), 송명진(경기대/한국문학)

총무간사 양정현(서강대/한국문학)

편집간사 최지안(고려대/한국문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SN 1226-2250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발행인 우찬제

편집인 오형엽

발행처 국제비교한국학회

우)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정하상관(J관) J1107호 우찬제 교수 연구실(신수동)

Tel 02)-705-8284

E-mail newiacks@empas.com 양정현(총무간사)

학회계좌 (우리은행) 1002-561-787402

예금주 윤인선(국제비교한국학회)

제작처 한국학술정보(주) Tel. 031-940-1007

값 18,000원

* 이 도서의 판권 및 저작권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소유이므로 무단전재나 복사를 금합니다.